

2021년도

회 의 례
(I)



완도군의의회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 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8대 완도군의회

■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정수	가 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나 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다 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비례대표
9명	박재선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조인호 김양훈	허궁희 김재홍	우성자

■ 제8대 의장단 구성 현황

구 분	의 장	부의장	재임기간	비 고
전 반 기	조인호	허궁희	'18. 7. 2. ~ '20. 7. 2.	
후 반 기	허궁희	박재선	'20. 7. 3. ~	

■ 제8대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의회운영 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위 원
전 반 기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후 반 기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최정욱 우성자

|| 목 차 ||

I.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9
개 회 식	11
제1차 본회의회의록	13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23
II.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27
개 회 식	29
제1차 본회의회의록	30
제2차 본회의회의록	54
제3차 본회의회의록	56
III.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59
개 회 식	61
제1차 본회의회의록	62
제2차 본회의회의록	65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71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7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80
IV.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85
개 회 식	87
제1차 본회의회의록	88
제2차 본회의회의록	9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99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7

V.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117

개 회 식 119

제1차 본회의회의록 120

제2차 본회의회의록 12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3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50

VI.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정례회) 167

개 회 식 169

제1차 본회의회의록 172

제2차 본회의회의록 17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18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20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240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48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58

VII.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265

개 회 식 267

제1차 본회의회의록 269

제2차 본회의회의록 334

제3차 본회의회의록 392

제4차 본회의회의록 439

제5차 본회의회의록 509

제6차 본회의회의록 55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57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583

VIII.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593

개 회 식	595
제1차 본회의회의록	597
제2차 본회의회의록	600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05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22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26

IX.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637

개 회 식	639
제1차 본회의회의록	641
제2차 본회의회의록	645
제3차 본회의회의록	702
제4차 본회의회의록	748
제5차 본회의회의록	800
제6차 본회의회의록	829
제7차 본회의회의록	871
제8차 본회의회의록	939
제9차 본회의회의록	978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98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12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19

X.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정례회) 1023

개 회 식	1025
제1차 본회의회의록	1027
제2차 본회의회의록	1033

제3차 본회의회의록	1045
제4차 본회의회의록	1054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059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73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8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0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3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71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225

XI.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1263

제1차 본회의회의록	1265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27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83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95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04일(목)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9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회복의 기대와 희망의 간절함 속에 제287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완도군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상상도 경험도 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멈춰선 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 없이 감염병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모두가 하나되어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체계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큰 희생은 치렀지만 사투를 끝낼 수 있

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껍이나 다 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활고와 답답함을 곳곳이 견뎌내면서 건강의 섬 완도 지키기 생활방역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과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멈춰진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일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의 강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주민생활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도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스스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자율성이 주어지고 자치입법권 보장이 강화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이며, 권한이 남용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의 경쟁시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고민

이 있어야 하고 한걸음 더 먼저 빨리 뛰어야 할 것입니다. 서른 살의 청년이 된 완도 군의회도 군민들께서 부활시켜 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87회 임시회는 감염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군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집행부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조례 제정 및 추경안 편성에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서둘러서 지원방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위민행정의 시의적절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 신축년에도 군의회와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조직 사랑과 자기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확고히 하면서 어제보다 행복한 군민, 작년보다 더 발전하는 완도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송태

이상으로 제28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8분 폐식)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04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3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

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완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0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2월 4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도 2월 4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우성자 의원님과 이범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3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및 군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현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5,535억 3,81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354억 8,96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용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50억 원이 증액된 5,354억 8,968만 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서, 성질별로는 경상이전에서 5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70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욱 의원을, 간사에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3시2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703호 2021년도 제1회 추

경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535억 3,819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354억 8,9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0억 4,85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그 뜻을 같이 하는 만큼 발 빠르게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완도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해양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정인호

안환옥

한희석

고영상

최광윤

박창희

안태호

김성수

박기제

차재철

정광민

서길수

권 혁

이복선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최명신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0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입니다.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2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현금·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 다음 장, 지원입니다.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3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조이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완도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요약서를 보면요. 군민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저희가 대상을 정할 때요,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맞죠?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에 주소를 둔..... 타지역에 살더라도 주소를 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군민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고 아직 국적만 취득하지 않았지,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박재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준에서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는 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자, 그러니까 저번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돌아가셨는데 2월 4

일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런 부분 있겠죠. 2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현재 대상이 되면 그분은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망일하고 신고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31일 현재 0시..... 1월 31일 아침 새벽에 0시 1분 현재 완도군민으로 살아있는,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분, 실제로 살아계신 분, 그분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은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어디?

○박재선 위원

31일자까지는 완도군민이었고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그러니까 31일에 돌아가신 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박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1일자 기준까지 살아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그런 것이 좀..... 해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든요. 1월 31일 0시, 예를 들어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기준은 0시 0분 0초,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새벽 0시 0분 0초 그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3시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그것은 좀 희귀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지급하실 때 어차피 군민들한테 주는 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주면서도 손가락질을 안 받고 그러니까 한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홍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주소를 완도군에 두고 해외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마을에 보면 있어요. 그런 분도 무조건 지급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두었는데 그 사람이 1,000억대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있거나 배를 타고 있거나 군대에 가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을 살고 있거나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외지에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대상이 됩니다.

○우성자 위원

다 대상이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것을 사인하고 수령해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무조건 완도군민이면 다 된다는 이 말씀이 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홍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국장님, 상품권으로 지급하죠? (예)

그런데 도서관들이 육지로 나올 때.....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매표소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죄송합니다.

○조인호 위원

표를 끊는 매표소요, 거기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 매표소가 지금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조인호 위원

지금.....

(방청석에서 “지금은 읍면 금융기관에서.....”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재홍

마이크를 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지금은 읍면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하는 직원 있음)

○조인호 위원

아니, 지급은 받는데..... 저것을 다 해서 돈을 소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사들이 농협에서 하는 선사도 있고 개인 녹동에 들어오는 선사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사들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쓸 수 있는가.

(방청석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그 돈을 써야지, 거기에다가.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고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조인호 위원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표를 끊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챙겨서 하계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소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소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소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0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3호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

급을 총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0억 원을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억 원 진즉 했어야 됐는데 이 50억 원 예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과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아마.....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50억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 것도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줘야 되는데 전혀 뭐..... 의장하고나 운영위원장하고 연락이 됐습니까, 서로?

○총무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핑퐁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 예산에 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총무과 입장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할 것이냐고 판단해서 집행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해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조금..... 어떤 미숙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래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 어쩌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전혀 뭐 주기적으로 협조도 안 되고. 그리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다 홍보를 하는데 의회에는 깜깜무소식이고, 의원들은..... 어차피 이것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아무리 좋은 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총무과장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 집행부한테 하는 말인

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설명 서로 바빠서 이런 자리가 안 되면..... 아니, 전화를 놔뒀다가 뭐합니까. 전화 한 통씩이라도 돌려주고 나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우리가 SNS에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이 막 띄워 올렸더구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군도 하나 보구나.”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고, 방송을 보고, 홍보를 해서 보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우리는 절차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바보되기 딱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들,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 집행부에서 안 주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라도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하냐?”라고 그러면서..... 뒤통수를 맞기 딱 좋은 거예요, 이것이. 다음부터라도 어떠한 방법이 됐든 절차와 방법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왜냐하면 우리 군은 “예산이 없다, 아예 지원할 예산이 없다.”라고 이미 공포를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주민보다 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뭐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런 부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런 것을 명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간이 되시니까 간단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1인당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월 31일자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일시에 많은 분들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해서 배부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들은 그러면 좀 혼선이 있겠다 싶어서요. 완도군 (청취불능) 개포리하고 가용리는 마을회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다른 읍면들은 직접 공직자들이 수령증을 직접 작성해서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그 마을회관에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수령증을 나눠주면 지역주민들은 그 수령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개포리하고 가용리는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까지 결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행안부 승인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바로 의결해 주시면 이 조례를 근거로 오늘 행안부 승인을 받은 후에 대상자 명부를 오늘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아마 지금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후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하여튼 기왕 지급하는 것 설 명절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3호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한희석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우 성 자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18일(목) 오전 11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59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8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1분 폐식)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18일(목)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해양치유담당관

(11시01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 이범성 의회 운영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 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안사항 협의 간담회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3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6호와 2707호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707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국, 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및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착공식 참석을 위하여 2월 19일과 2월 24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2월 19일과 2월 24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담당국장과 부서장이 업무보고 후 업무계획에 대해 이해를 돕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6건입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1건입니다. 이중 현재 17건은 완료하였으며 변경추진 2건, 추진불가 2건, 나머지 30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상황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위원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 응모하는 등 민선7기 공약사항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도내 17위로 부진하였으며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6회의 자체 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금년도 6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게 되며 앞으로 부서별 실적에 대한 수시점검과 추진 상황보고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 및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239건을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13개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책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채택 제안 중 실행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군민 제안 채택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입니다. 정부예산 배부방식이 변화함에 따

라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33건이 선정되어 2,90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모 추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동향을 매주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업로드를 하는 등 공모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 현안 공모사업을 집중 발굴,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수산,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정책개발,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받아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의 제정을 상반기에 마무리한 후 7월 중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군정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139개사의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일보를 포함 52명이 군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담화문 포함 13회의 광고와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적으로 3건 이상, 총 910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2022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항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 지방방송 매체 및 신문지면,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 계절별, 차별화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 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시청률이 높고 홍보 효과가 큰 방송사의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CF 및 SNS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 특산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KBS1 6시 내고향, MBC 전국시대 수산물 홍보, KBC 가고 싶은섬 등 전국방송 38편, 지역방송 29편, 종편·케이블 31편 등 총 102편의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복, 광어, 다시마, 김 등 우리 군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을 계절에 맞게 유치하고 우리 군 역점시책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및 해조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및 중앙방송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고 공중파 및 한국 PD연합회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우리 군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대표 SNS를 통한 홍보 강

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3종의 우리 군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약 1만 3,000여명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정 홍보 SNS콘텐츠를 495회 제작 게시하였고 공무원 36명, 민간인 21명 등 총 57명이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SNS 기자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834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570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고 영상조회수 약 15만 6,000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유튜브 영상 제작 50편, 완도 랜선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 11편 선정, EBS 유튜브 영상 콘텐츠 5건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군 핵심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주요 군정시책과 박람회 등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 섭외, 지역 유튜브 활동가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성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

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8%가 증가된 5,48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04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80억 4,800만 원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물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0억 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준수하고 반복적 불용과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 미반영,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 전시성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2021년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 등의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의회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본예산은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

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공공성사업 예산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7월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접수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9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0년도 보다 11.82% 증가한 2,0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신규 국고 현안사업으로 17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해 12월 말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고 건의사업이 확정되는 4월 초까지 전라남도 우선순위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 및 타지역과의 비교우위 논리 개발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쪽, 2021년도 국고확보 추진일정 및 우리 군 대응전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 재정집행 관리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효과 거양을 위해 일자리사업 및 SOC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속집행대상액은 2,710억 8,2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65%인 1,762억 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집행을 제고, 건설사업 조기 착공, 각종 보조사업 조기 착수, 읍면 재배정사업 조기 교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반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2019년 청렴도보다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이며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청렴도 하락의 주요요인으로는 인사, 공사 관리감독,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 청렴간담회, 청렴실천 청내방송, 읍면 공직자 청렴 순회교육, 청렴 캠페인,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 운영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 대책회의, 청렴리더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고 분야별 부서별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청렴 순회교

육 등의 시책추진, 갑질, 부패, 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외부청렴도는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자정운동 등 종합적인 청렴도 향상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 비리행위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직속기관 한 곳과 사업소 1개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감사원 대행감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30건, 주의 192건 등 222건의 행정상 조치와 약 5,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48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6개소와 출자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피서철 각종 민원처리 및 피서지 관리실태 점검 등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연휴를 비롯해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21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37건, 364억 1,5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거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어려운 관계에서 완도군 살림살이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요. 작년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뜻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뭐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실 때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셨으

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걸러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설명..... 담당관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청렴도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기준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데요. 총 점수는 10점입니다. 외부청렴도가 7.35점, 내부청렴도가 2.65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은 내부보다 외부청렴도에서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외부가 중요하고 내부는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 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이렇게 청렴도를..... 꼭 평가수준을 올린다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고 또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부당한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고.....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부당한 인사를 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고 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요. 공무원들이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불만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부분인데요.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인사는 완도군의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에 있는 것보다는 육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육지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도서, 읍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사에 대한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청렴도조사 자체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기가 소외당했거나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요즘에 아마 변태나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규직원들은 예산과목 그대로 집행하고 싶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또 다음 추경이나 이때 아니면 중간에 불가피하게 집행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 이런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하는 차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업무지시 공정성도 요즘 신규직원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과 의견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얼마만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올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인사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는데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너무 경험이 없어 가지고 아주 정말 책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잘 시켜서 읍면에 보내신다면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계속해서 김재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고 재정자주도는 50.6%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담당관님, 우리 군 예산 5,485억 중에 국도비 예산 공모사업 등 군비 부담은 제외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것은 제가 지금.....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그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교부되어 오면 군비

부담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법적, 의무적 경비 부분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을 (청취 불능)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와서요, 한 약 314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비 부담액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도 군비 부담을 다 못했고요.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도 일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국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선정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재정을 감당할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고요.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도 50%보다는 30%, 40% 이렇게 적게 부담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들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노력, 사전부터..... 그러기 위해서 공모사업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홍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선제적 특산물 홍보를 위한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1월, 3월 미역, 전복. 3월, 4월 다시마. 5월, 6월 광어, 전복. 8월, 9월 김. 10월, 11월, 매생이로 이렇게 정해놓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것은 개괄적인데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필요하면 달리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이대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1월, 3월이면 보통 김을 해야 맞거든요, 생산시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3월, 4월은 원래 다시마가..... 6월에 나오니까 8월, 9월 이런 때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져서 관심 있게 잘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리고 우성자 의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군정 질문 때 청렴도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것에 대해 첫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들이 밖에서 제일 지표로 보

는 것이 이 청렴도예요. 이것이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하나가 군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크고, 이것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불신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하등급으로 청렴도가 나오면. 그래서 할 때마다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작년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결국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또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또 해보겠다. 아까 우리는 도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직원들 대부분과 대화를 해보면 당연히 을지, 갑지로 갈 것을..... 자기들이 진급하거나 또 인사 때가 돼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가게 된다면 다 인정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안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지예요, 의지. 내가 어느 방송에 하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간 어떤 지자체장의 인터뷰를 듣고 거기에서 참 공감인 된 내용이 있어서요. 어떤 내용이나면 첫째, 투명해라. 둘째, 공정해라. 셋째, 소통을 해라.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만이 청렴도가 되는데. 하등급 청렴도가 상위급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그 노력이 엄청 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과연 투명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이제 온 직원들과 소통문제가 있었는데 소통도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올해는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에 관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저희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박인철 의원

공모사업도 가급적이면 건물 신축이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에서 지양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부분은 공모사업들이 건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모사업들을 거의 보면 건물이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SOC사업들도.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갈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

공모사업 사후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개별.....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공모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응모 전 사전심의
를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을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
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려
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군청에서 사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0% 이상 군비가 들어간다는지 군
비가 전체적으로 3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
사업은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동안 공모사업들을 보면 꼭 해야 되는 공
모사업도 있지만 부서별로 실적을 세우기 위
한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
업들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전에 면밀
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부지 변경 및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들이 빚
어지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일부 사업들은 추진이 좀 부진한 사업
들도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외형적인 국도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각 주
요사업 간 연결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발
의했던 목적은 군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집행
부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군정이 더 나은 방
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1년이 흐른 지금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
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공모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

의.....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청한 건수는 한두 건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의회하고 소통은 잘됐다
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심의,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
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물론 공모사업은 하다보면 시기에 따라 달
라지겠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나서 사
후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을 해버렸는데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경중을 따질 수도 없
고. 그런 것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공모하기
전에 먼저 의회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
모를 다 해놓고 사후 그냥 보고 형식입니다.
그것은 논의가 아닙니다, 담당관님. 거의 그
런 형태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간, 각
부서 전부 다.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
터는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한
테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주에 공모사업심의회
를 예상하고 있는데 심의건수 이런 부분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3건밖에 없을 정도로
신청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했
는데 올해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 조례가.....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월에 조례
를 했는데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까 올해부터라도, 물론 바쁘겠지만 의회에 간담회를 열어주라고 하십시오, 의사과에다가. 그래서 의회도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조례에 보면 “군수는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힘들다면 주무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최소 연 1회 정도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것은 별도 안건이 아니고 보통 업무계획이라든가 업무 실적보고를 할 때 당연히 그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들은 업무보고라든가 업무실적 보고에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대부분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의회 간담회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사항을 그때 보고해 드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9쪽, 유튜브, 너튜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시대

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매체는 유튜브, 너튜브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동의합니다.

○박인철 의원

작년에 구독자수가 200명대였는데 600명으로 증가하고 조회수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대면 언택트시대를 맞아 해님이, 해맞이 행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희는 직원들을 직접 출연시키는 것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다 보니까 결국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요. 이를테면 공모전이라든지 EBS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런 영상을 게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구독자가 많은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올해는 그런 부분도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니까 다시마를 활용한 각종 요리영상, 군 홍보영상 등 많은 영상들이 들어있던 구먼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해조류박람회 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꼭 홍보영상으로 같이 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안 돼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사업이 한 130억 정도.....

○박인철 의원

그러면 군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군비까지 합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되어 있고 군비만 해주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못한 금액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미반영된 사유는 군비재원 부족이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실과소의 경우 군비 부족으로 50%만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머지 50%는 확보되지 않아 사업자 모집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일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부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신규사업이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 사업성과가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들은 신규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어

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일단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데, 그 재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전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 생산현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꼭 확보해 주십시오. (예)

며칠 전에 전남도청 직원들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완도군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반납할 계획이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부담을 못하는 실질적인 예는 아까 재정 부족이라고 했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지방 재정 효율성 통계를 보면 우리 군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의 0.09%로 도내에서 4위입니다. 행사축제비가 1.16%로 10위입니다. 기관운영비가 0.89로 도내 3위로 높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분석해서요. 필요하다면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성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선정하여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계속해서 김양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7기 공약사항 한 1년여 밖에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를 정확하게 추진..... 그 계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1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정상추진이 30건인 것으로 봤을 때 약 75에서 80%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 폐기 2건이 있는데 1건은 체육인재교육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건은 어떤 것인지?

○김양훈 의원

수산물소비직거래유통센터 건립이었는데, 이것은 대도시에다가 완도 특산품을 판촉하기 위해서 직접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언택트 시대고 그래서 대도시에다가 집적화시키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요. 지난 10월에 해당 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했습니다.

○김양훈 의원

본의원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판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직거래유통센터를 한다는 얘기는 유통 부분에 물류비 같은 것을 줄여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이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것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유통센터를 추진했다가 지금 회수도 못하고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감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양훈 의원

아니, 거기는, 화신산업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어떻게 보면 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거래유통센터라는 것은 거기에서 회를 뜬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완도특산물 전체를 가지고 바로 소비자한테 파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쪽에 대리점이라든가 납품하고, 이것하고 화신산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마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그때 실패했던 사례라든지 현재 변화되고 있는 추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취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나머지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 1년 더 남았는데, 이것도 군민들과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브랜드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딱히 그렇고.....

○김양훈 의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건강의 섬 완도도 있고, 청정바다수도 완도도 있고 자연그대로도 있고 월빙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같은 것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테마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건강의 섬 완도라는 그 브랜드가 많이 한쪽으로 빠져 있고 청정바다수도 이 상표가 많이 부각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콘텐츠를 본다고 그러면 해양치유와 건강, 치유 이것이 더 우리 군의 이미지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군에서 상표를 개발해서 등록해 놓은 상표들은 일반 군민들이라든지 특산품을 제조·가공·유통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상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50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는 12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상표는 건강의 섬 완도가 33건, 그다음에 자연그대로가 24건, 청정바다수도가 22건, 일부 특산품을 가공해서 유통하시는 분들은 건강의 섬 완도하고 청정바다수도를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만 쓰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이 상표가 아마..... 이 세 가지 상표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연그대로는 아마 농산물 쪽에, 농축산물 쪽에 주로 하고 나머지 건강의 섬 완도와 청정바다수도 완도는 수산물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농산물 쪽은 자연그대로를 많이 하고 있고 수산물 쪽은 청정바다수도를

하다 보니까 건강의 섬 완도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국에 제일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섬 완도를 좀 더 부각시켜서 완도의 이미지라든가 홍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쪽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추진 등 16건입니다.

먼저 가칭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양치유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0월 해양치유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전협의와 타당성검토 예비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시

설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 매뉴얼을 포함한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 적정통보 시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를 검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 중 군의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하겠습니다. 이후 임원공모 및 임명을 거쳐 최종 10월까지 설립등기 후 공단을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단설립의 타당성은 인력운영, 수지분석 등을 검토하는데 부적정 통보시에는 2년간 동일사업에 대한 설립 재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불가피할 경우 군 직접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착공과 준공, 해양치유공단 설립 등 본격적인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와 해양치유산업 추진 12개 읍면 주민역량결집, 해양치유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대외적으로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치유산업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기대효과 등 해양치유산업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해양치유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군민 맞춤형 해양치유산업화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월 24일 예정된 해양치유센터 착공식과 연계하여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임을 선포하고 군민 참여캠페인 실시 및 TV 정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기존 홍보영상을 수정하고 4개국 언어별 영상을 제작해 2022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및

해외투자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분기별 홍보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치유산업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만성질환자 등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구축시켜 해양치유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지 명사십리 제2주차장 일원에 지상 2층 건물을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한 후 조달청 단가심사 및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해양치유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하여 2022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다도해의 청정바다와 난대숲을 이용해 추진 중인 약산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약산면 해동리 산 123-1번지 일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물속건기 치유시설인 해양 크나이프와 해수욕탕, 치유데크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2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해안치유의 숲의 준공일정에 맞춰 공사를 착공하고,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유치 활

성화입니다.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휴양, 치유 중심의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유치 목표액은 8,000억 원입니다. 투자 주요시설은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EAP센터,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재미한인 투자자 해양치유산업 투자설명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해양레저리조트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는 완도군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유치 잠재적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고 투자자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국내외 민간투자 유력투자자 팸투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관련 해양치유단지와 해양바이오연구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완도군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자료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참여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양치유산업에 적합한 최적의 투자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기후,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명상, 해변 엑서사이즈 등

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찜, 모래찜질, 다시마팩, 꽃차, 해양치유음식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힐링이 부각되고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69회 5,187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코로나 방역활동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대상 해양치유레저관광 프로그램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2월 말부터 시작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12개 읍면을 확대 방문하고 지역사회단체 챌린지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프로그램 체험 후 다음 단체를 지정,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해양치유산업을 알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경증어르신,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의료진 등 방역관계자 대상 해양치유 팸투어를 추진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및 관리입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성된 강사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힐링명상 등 총 87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심화교육과 보수교육 등 꾸준한 교육 및 관리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프로그램 강사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각 과정별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르딕워킹 강사 중에 실력이 우수한 강사는

중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외부 초빙강사가 아닌 자체 양성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올해 24회로 확대된 읍면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 전적으로 지역강사를 투입시켜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조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지면 대곡리 일원을 중심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1월 공동협력연구소 설립 설계 제안공모를 추진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협력연구소 건축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동협력연구소 및 스타트업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치유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3억 원의 사업비로 건강기후지수 개발,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기상관측장비를 구매하고 올해 1월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을 입찰공고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정밀의료개념 적용 연구사업은 지난해 11월에 가을 숙박형 프로그램 현지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3개 코스를 개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개시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발주하고 정밀의료개념 적용 연구사업은 세 차례에 걸쳐 숙박형 프로그램 현지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해양기후치유센터는 2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여 3월부터는 실내형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신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치유체험시설인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12개 테마형으로 설치하고 건강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6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추진 시 건강체크업 시스템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양치유자원 연계자원 실용화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만의 해양문화치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인체의 오감을 주제로 한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양문화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문화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조류양식 및 체험학습, 해양바이오연구단지 견학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치유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의 설립 컨설팅 및 설립 지원과 해양치유 어플 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마을관계자 현장 인터뷰 및 의견수렴들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11월 청산면 마을 리더들의 제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을 공모신청하고 법인 컨설팅 교육 등 마을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어플을 개발하여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의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생산, 연구 거점단지 조성과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7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해양바이오 거점단지 조성이 반영되었

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육성위원회 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 유치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해양바이오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양바이오산업 국제협력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협력연구사업 공동참여로 해외기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제당 15억 원의 사업비로, 톳 추출물의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와 의약품 소재 개발 갈조류 유래 항염증, 항생, 면역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사료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기술 교류와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공동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국제공동 협력과제로 완도산 톳 활용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국내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국제협력 연구사업을 신청하여 5월에 최종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공급 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 해썹시설과 건강기능식품 및 의

약품 소재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소재 품질관리를 위한 QC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21년 신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2월에 신규 국고 지원사업 총사업비 25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토록 설계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해양치유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거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도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도 질문한 적 있습니다. 해양치유사업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흉측한 사물로 변하여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공투자 예산 2,000억 중 순군비 투입 예상액이 1,000억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공단출자금 100%를 군비로 부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

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제가 저번에 전년도 질문답변 시 군수님한테 공단 설립비는 둘째치고 운영비로 군비가 투입되느냐고 물었는데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지, 건물만..... 치유센터만 320억이고 그 안에 물품 그런 부분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초기 운영자금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군수님하고 담당관님의 생각은 다르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군수님께서서는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수입과 지출 부분을 따졌을 때 군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렇다면 공단이 생기는데 왜 잘되고 있는 수영장하고 타워도 거기로 들어갑니까. 수영장하고 타워가 해양치유공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적정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치유센터 하나만을 가지고는 적정판단을 받기가 어렵다. 예비평가를 하면서 검토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타워와 수영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공단으로 포함한 것이 군에서 적정판단을 받는다.”

라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팁을 줘서요.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공단 설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박인철 의원

그러면 공단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수영장하고 타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단으로 넘긴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연 이 공단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공단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어떨습니까? 방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 뭐 건물이 설립되어 가지고 준공되어서..... 그 안에 집기 같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보면 인원들이 벌써 엄청난데 이 인원들의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에 의하면, 수립 분석에 의하면 1년에 10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자체..... 뭐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거기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 필요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도 못나갑니다마는 저 프랑스에 갔다 왔거든요. 뭐만 하면 독일하고 프랑스를 이야기하던데 저 프랑스 로스

코프에 갔다 왔습니다. 로스코프 해양치유 아
닙니다, 재활이지. 해양치유라고 그렇게 해놓
고. 3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해변가에 옛날 호텔..... 재활병원으로 개
조해 놓은 병원뿐이에요. 뭐 우리 군에서 말
하는 해양치유하고는 전혀 동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런데다가 만약 경
비를 충당을 못한다면 우리가 시설비, 출연
비,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할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군과 군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깊게 생각해 볼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말했던 해양치유사업만 본궤도에 올라가면
백년먹거리라고 그러는데요. 군수님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양치유만 되면 다 관
광, 농업, 축산, 수산,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이 생각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운영하려면 특별
한 전문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군에서
설립한 것을 보면 퇴직공무원들이나 여타 그
런 분들을 다 공로로 해가지고 하던데, 그런
분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인재를 전국
으로 풀어서 진짜..... 우리나라에 해양치유에
대한 뚜렷한 뉘트도 없고. 저번에도 뭐 제주도
에..... 제주도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또 제주도
에 견학도 갔습시다마는 거기다 개인사업체
에서 하던데, 호텔하고 같이 경영을 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보고서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4월부
터 해서 치유센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세부운
영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인 호텔을 운영했던 매
니저를 저희들이 섭외해서요. 매니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전문인력
들로 몇 명을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판
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그 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박인철 의원

맞아요. 해양치유센터 등 4개의 센터를 운
영하고 관리하려면 전문가 내지는 고급인력
이 필요합니다. 완도까지 누가 오려고 하겠습
니까? 또한 과연 공단에서 그런 고급인력들
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공단을 설립해서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
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바이오연구단
지 여기에다가 수영장하고 타워까지 다 운영
하고 관리할 계획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바이오연구단지는 아닙니다.

○박인철 의원

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치유산업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모두 갖
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분야에서 우선..... 담당관님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전문성을 먼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공공성보다는 우선 경제성이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우선시는 민간기업인에게 맡기는 것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단에 맡기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방법이 지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공단 설립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담당관님. 전에도 한번 우리 군에 있었죠. 김종식 군수 때도 설립해 가지고 아무 효과 없이 목적 하나 달성하지 못하고 돈만 한 20몇 억 없애버린 적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22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휴회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휴회 변경의 건

(10시2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휴회 변경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휴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4일 휴회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2월 23일로 휴회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은 2월 24일에서 2월 23일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운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2월 24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서면보고)

(09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를 하여나 하나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확산예방 및 방역활동을 총력 추진하기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는 서면보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조 인 호		
의 원	최 정 욱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17일(수)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30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8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2분 폐식)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17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10시32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

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4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완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성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조종천, 김영주, 최창주, 손연지 이상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조종천, 김영주, 최창주, 손연지 이상 네 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18일(목)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3.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3.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8.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바랍니다.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내년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관련 규칙 2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애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애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11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

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8.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를 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본조례안은 섬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청정완도 가을 섬여행으로 가을축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섬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17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범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허궁희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자로 따라 전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과 오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자로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규칙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범성	박재선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위원 아닌 의원

허궁희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17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의결안
2.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4.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의결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49분 개의)

동의안(완도군수 제출)**○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먼저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하여 9개 시군이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4조 실무협의회 위원인 주무부서장이 회의참석 불가 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우리 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동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

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3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참고사유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청소년지원위원회, 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5쪽에 제10조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구체적인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생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좌석에서)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완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대신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박인철 위원

완도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꿈틀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을 꿈틀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을..... 지원센터라고 합니까?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좌석에서) 건물은 꿈틀이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박인철 위원

아, 센터가.....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센터 그분들이 운영한다는 이 말이죠?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2020년도 11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 기강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설립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에 창립되어 현재 전국 10개 시·도, 5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간 분담금은 500만 원으로 분담금은 공동사무 및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 협의회 의 역할로는 지방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과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추진,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정부 간 정보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에게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 및 9월 재산세 토지분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감면해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유흥주점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으로 감면범위는 임대료 인하액이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재산세금만큼 감면하고, 임대료 부과액이 부과되는 재산세의 임대료 인하액만큼 재산세 본세에서 감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6,800만 원입

니다. 유흥·단란주점 105개소에 약 5개소가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면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6,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2,800개소에 약 50개소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여 2,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8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부여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면대상자가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와 사전계획서,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그러는데 완도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올해 7호까지.....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희망해서요,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곱 군데요.

그러면 노래방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데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분들도

불가피하게 포함시켜서 같이 감면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은 코로나 이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가 끝난 뒤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끝나면 종료할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런 것도 좀..... 어차피 착한 임대료를 할 것이면 홍보를 좀..... 이런 혜택도 있다고 해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올게요. 감면대상에 착한임대료, 농·수협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농·수협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체적으로요? (예)

완도군에 속하는 임대료 인하 대상은 전부 다 된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참여하시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양훈

수출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수출물류 임대 인하는 아직 뭐..... 임대료 인하 희망은 안 했습니다마는 희망하게 되면 거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양훈

거기는 포함된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는 군 지정 아닙니까. 이전에 언론에 보니까 슬쩍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거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

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17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2.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7분 개의)

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에서 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
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이
범성 의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
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
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
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
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
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5호 서
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
니다.

27쪽,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섬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자
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축제를 발
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일부 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호 다목 중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을 청정
완도 가을섬여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28페이지부터 33페
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섬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를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섬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를 작년에 한번 시도했죠? (예)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섬여행 학교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길에다가 하는 것을 봤는데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일회성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시설을 해놓고 난 후에 일괄적으로 다 철거해 버려요.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일관적인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도 마찬가지로요. 구경거리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축제 대부분 축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를 많이 철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때 쓴 시설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에 좀 들더라도..... 조 명 같은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일괄적으로 순간만 있고 축제가 끝나면 다 철거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써도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다음 연도에 또 쓰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5

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김 재 홍		
의 원	김 양 훈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8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9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1분 폐식)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 민생현장탐방의 건
 4.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 민생현장탐방의 건
 4.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범성 의원 외 8인 발의)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범성 의원 외 8인 발의)
 7. 휴회의 건
-

(10시31분 개의)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허궁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3일 이범성 의회 운영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 민생현장탐방을 실시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2건과 완도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2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재선 의원과 우성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재선 의원과 우성자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민생현장탐방의 건

4.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요구의 건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민생현장탐방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8호와 제2729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주문사항은 의안번호 제2728호 2021년도 완도군의회 민생현장탐방의 건과 의안번호 제2729호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읍면 주요 기반시설들에 대해 의회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준공된 사업장과 추진 중인 사업장의 건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장을 확인 점검한다는 것이며 기간 동안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집행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발주된 해당 읍면의 각종 건설사업과 보조용자사업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민생현장탐방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범성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부정하고, 지난해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2월 1일을 기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선 미얀마 국민들에게 실탄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인 무력 진압을 통해 주요 인사들은 구속하고 국가권력을 갈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군부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고, 그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촛불혁명을 통해 비폭력, 평화주의적 방법으로 여러 상황들을 타개한 적도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빼앗긴 미얀마에도 민주주의 불이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거리에 나선 미얀마 국민들 지지하고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을 향해 겨눈 총구를 즉시 거두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범성 의원 외 8인 발의)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전 인류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동재산인 바다에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결정내린 것은 인류에 대한 최악이자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우리나라 해역을 포함하여 태평양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아시다시피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 등이 잔존해 있어 특히 수산업이 주력산업인 우리 완도군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결정 즉각 철회,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 동의,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

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 민생현장 탐방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수산경영과장	김 일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6.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7.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대책활동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급식시설과 조리인력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

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종합재난안전 체험관 등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진입도로 부지 매입, 청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고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생일 덕우도 응급헬기착륙장 토지 매입, 다목적 친환경 정화 운반선 신규 건조에 따른 선박 취득으로 토지 15필지 4만 178평방미터, 건물 17필지 2,034평방미터, 선박 1건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6.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7.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10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이숍 쇼핑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의시설에 대한 영업장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

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생태관광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의 위탁, 경비의 지원,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군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와 제9조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이숍 쇼핑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 증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쇼핑몰 상품관리, 주문, 취소 및 업체별 배송지시 등 제휴확대 및 연계운영 관리사항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

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운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2.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

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로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위험 증가와 가족해체 및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등이 웰다잉이라는 문화를 이끌어왔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및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7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7

호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8호 완도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급식시설과 조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1조 제9호에 도서지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인호 위원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9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21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괄내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내역은 취득 및 처분내역과 교환내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역으로는 기존 31건, 면적 6만 5,462제곱미터, 금액은 366억 원입니다. 그리고 32건, 면적 4만 2,518제곱미터, 금액은 2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취득재산은 총합계 63건, 면적 10만 7,989제곱미터, 금액은 392억 7,000만 원, 선박 취득은 100톤급 1식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획되었고 (청취불능) 없지만 교환취득 및 처분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관리내역에 반영하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종합재난안전체험관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사

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한 건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종합재난안전체험관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신규 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취득대상은 폐교된 신지 동고 초등학교입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는 1999년 9월 1일 폐교되어 2000년 3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12년간 학생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폐교로 남아있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의회간 협의가 진행된 재산입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한 종합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추억의 학교체험관과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중증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지 동고 초등학교 매입비용은 토지 3필지에 9,825평방미터 2억 800만 원이며 건물은 6동에 877평방미터 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작물은 건물 외 28

종 1억 9,800만 원, 임목 부분 동백나무 외 17종 2,800만 원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재난안전체험관 등 추진에 따른 폐교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도 1색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농업자원을 특화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치유건강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치유건강 신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군외 초등학교 불목분교에 금년부터 2018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유통센터와 농산물공동가공처리시설, 시범농장 지원 등 농촌공유경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외 초등학교 불목분교 매입비용은 토지 1필지 1만 3,033평방미터에 5억 4,400만 원, 건물 11동 2억 9,300만 원, 공작물 입목을 포함하여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구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시 진입도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완도 망석리 산 18번지가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분할 측량 후 약 1,587평방미터를 보상절차에 따라 매입 취득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완료되어 취득상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의안번호 제4호 청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산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청산면 신흥리 산 114번지 외 3필지를 매입 취득하여 신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저당과 가압류 상태에 있어 즉시 매입은 불가능하나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근저당권 해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지와 동시에

신속히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고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 활동계획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스포츠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면 덕암리 596번지 외 15필지 1만 9,615제곱미터를 2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6월까지 운동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을 시설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내역은 토지취득으로 대상지는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37번지 외 3필지 5,456제곱미터를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생일 덕우도 응급헬기착륙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우도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적색 부분과 같이 수목이 좀..... 헬기가 착륙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은 2,660평방미터입니다. 약 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한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어장정화선의 노후화로 안전항해 위험 및 고유업무인 양식 어장 정화업무 및 적조방제작업 수행 곤란에 따라 대체선박 건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00톤급 선박 1척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37억 5,000만 원, 군비 37억 5,000만 원 총 7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나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 등 요인발생 시 준공시기는 2022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중이며 심사완료 후 5월 중 (청취불능) 위원회 구성·개최로 업체를 선정 후 선체를 발주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사책임 감리를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선박이 건조되면 현재 운영 중인 어장정화선은 전라남도에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0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해양정책과장	권 혁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3.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5시32분 개의)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21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1.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허궁희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관련 내용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호에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을 조례안의 영업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제 9호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

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1호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우성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님 나오

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 등의 불법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꾸준한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며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우성자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

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2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지원,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전국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라남도에 4개소가 있는데요. 완도 청산 상서리마을하고 순천만 그리고 신안 영산도 마을 그리고 고흥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마을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쪽에 있는 본문을..... 제정조례안이기에 때문에 조례안을 잠깐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2호를 보시면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이라고 해가지고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5조, 다음 쪽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생태관광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조를 보시면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대상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 관광자원조사, 기반조성 유지, 생태관광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사무의 위탁에서 생태관광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기관단체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등 3호를..... 3항을 보시면요.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은 그렇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마을을 위해서 관련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태관광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도군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제7조와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제3조 제1항 “군수”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정하고 7조를 삭제, 8조를 제7조로, 제9조 제3항을 삭제하여 제8조로 수정하고 제9조에 사무위탁의 내용을 규정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 사무위탁에 보면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은 1년으로 하되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1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계속 갱신하는 것으로.....

○김양훈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영구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니, 영구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사실 저희가 문구를 만들 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1년만.....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평가해 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 가는 것도 맞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1년을 가지고.....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1년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2년으로 하고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몇 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위원님, 그것은 보충설명을 팀장님께서 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말순

(좌석에서) 기후변화대응팀장 서말순입니다.

생태관광 지역은 환경부에서 3년마다 재평가해서 지정하게끔..... 다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그 협의체 지역..... 생태관광이 주로 지역주민들이 경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계속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재평가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양훈 위원

방금 환경부에서 3년마다 따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3년마다 따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서말순

(좌석에서) 예, 지정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관리주체는 지자체하고 지역협의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4호 서

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규정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관련 세부규정을 두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를 10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12쪽에 내용을 보시면요, 제10조의 2 재해보상금의 지급에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군수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23쪽을..... 아,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별표1에 보시면 새로 신설한 사항에 관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각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혹시나 상해나 생명의 손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그리고 신체유족별 장애보상을 각각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자

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호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3호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4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72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위탁, 계획수립, 방법, 이수자 관리, 결과보고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2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등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완도군 이숍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인 완도군 이숍은 2004년 8월 10일에 구축하여 현재 94개 업

체 1,229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매 출액은 평균 3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운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쇼핑몰의 상품관리, 주문, 취소, 배송, 안내 등 시스템의 운영과 다양한 형태의 제철특산물, 마케팅 활동, 대형 오픈마켓과 제휴판매 및 연계운영 등 완도군 이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은 공개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1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모든 입점업체에게 동등한 기획전 참여 등 완도군 이숍 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도군 이숍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판로채널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이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고 민간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페이지에 보면 운영업체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할 수 있게 하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개입찰 방법이 필요 없지 않나요? 그리

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시장개척팀장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하고요. 3년은 좀 긴 것 같고요. 저희가 1년간 운영해 보고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관계법령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아니, 틀린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자체적으로 있기는 하나 저희가.....

○최정욱 위원

그전에 조례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이숍 조례가 있지만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으나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1년 정도 해보고, 해서 잘되면 더 가고. 우선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조례에 있어도?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최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5호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6호 완도군 이숍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허궁희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 출석위원(8인)

김재홍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박 재 선		
의 원	우 성 자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4일(월)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9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9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1분 폐식)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4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

(10시31분 개의)

○의장 허궁희

개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완도~고흥 간 해
양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국도 승격은 연도·연륙 교통망 구축의 토대
가 되어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쾌거를 이루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
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명감과 저력
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현안을 해결하여 군민
의 행복과 군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

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완도신문의 행정 41년만 5.18 첫발에 의회는
불참되었습니다마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5.18 주먹밥 나누기 행사와 관련해서
는 우리 의회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참석
하지 못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
니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행사는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등 600만 원의 보
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사계획이 사전공유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을 시에는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행사 참석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7일 이범성 의회 운영위장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총 18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5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5월 25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5월 25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조인호(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1회 완도군의회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의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 남북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1.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5.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18.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전국 남북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58분 개의)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0분)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해양치유지구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

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올해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4조 관련 별표1의 심사기준에서 이장경력 점수가 전체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설치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저소득층 중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명이 불일치하여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사
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
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하여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
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
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
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
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
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11.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 지원,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 홍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중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의 제22조 제3항 관련 별표10의 봉투용량 순서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어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의 조성,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상위법 제정에 따른 이용 조문 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 제4호의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무를 다하고자 보훈 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타워 입장료 보훈 관련 면제자 추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완도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군 계획시설 현황 및 군 계획시설사업 재정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건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의견에 찬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달리 15일로 정하고 있어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5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 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

부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보훈 관련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람료 면제자 추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회 등 지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5조 제12호의 공공체육시설 구축물을 공공체육시설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수산업의 지원 및 지원대상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 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궁희

안녕하십니까? 허궁희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수, 갯벌, 해조류 등 관내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및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 해양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의 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0호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발의)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금년 1월 12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이관됨에 따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규제 및 분리, 이관됨에 따라 이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완도군 공직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은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2명씩 증원한 내용이며 띄어쓰기 등 철자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1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2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발의)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완도군수 발의)

6.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발의)

7.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8.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무상교육대상이 당초 중학생에서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대상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대학생 자녀로 명시하고 조례 제4조 선발기준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며 조례 제6조 장학금은 학기별 50만 원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장학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이장자녀 학자금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총점 배분에 있어서..... 이장경력 7년 이상이면 50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자 위원

이장경력이 7년 이상되어야 50점이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준에서요?

○우성자 위원

예, 1년 이상 2년은 20점이고. 이것이 우리 군 자체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성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7년 이상 이장하신 분들은 대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학자금, 이것은 지금..... 물론 학생 성적도 우수해야 되지만 이장자녀로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경력은 다시 조정하면 어떨까, 경력점수를. 7년 이상 한 사람 중에 대학생 학자금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러면 7년 이상 이장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더 낮추자는 그 말씀이십니까?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50점 7년 이상..... 너무 1년, 2년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낮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향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아, 그러니까 5년 미만 점수를 좀 높이자고요?

○우성자 위원

예, 상향조정해 가지고 점수를..... 좀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몇 명 없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는..... 그 수혜대상을 보면 8명에서 12명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완도군 246개의 마을에 마을이장이 있는데, 고등학생도 8명에서 12명인데 그러면 대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현재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 재직인원은 총 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완도군 전체 이장자녀 중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수에 한해서 해당되면 22명 전부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한해서 몇 명으로 기준을 두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다 수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점수를, 7년 이상 50점을..... 2~3년을 하신 분들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좀 더 특혜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고자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성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이 심사기준점수표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년 이상 이장님을 조사해 보니까 22명의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쭉 봐야 1년에 연간 1,56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마 신청한 이장님 자녀 분들은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장자녀에게 학자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성적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B학점 이상으로 규정은 해놨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이장님들이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우성자 위원의 말씀처럼 이장을 하니까 이것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만 넣으면 되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1년 이상만 하면 되지. 7년으로 하면 장기집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수로 따지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이장이 되자마자 줄 수는 없다고 하면..... 원래는 이장이 되면 바로 쥐야 맞죠, 연도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1년 이상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죠. 당연히 이장으로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안 뒤야 맞죠. 거기에 점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요. 장학생은 이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녀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

그러까 1년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적, B학점 이상 성적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의가 없습니다. B학점 이상 맞아버리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관한 친구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업이 우수한 친구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두 번째 항목 때문에 기존에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런 기준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안 하는 것이 아

니라 하는데. 원칙은 우리가 이장을 하니까 이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규정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몇 년이니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이장 한 해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규정을 두면서 이장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우선 운영을 좀 해보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장이 많아 가지고 진짜 주기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거의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다 해당이 되고.....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넣냐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대학생들 기준 장학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중복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요즘 보면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이쪽저쪽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것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장학

금을 주게 되면 중복장학금을 나라에서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장학금을 줘도 50만 원짜리가..... 저쪽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를 받지, 50만 원짜리 안 받습니다. 나중에, 받게 되면 다시 환불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학생들인데..... 여기에서 아까 22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2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숫자가 완전히 축소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양훈

거의 받을 학생들은..... 거의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예산도 줄어든 것 같은데. 9조에 보면 장학금 특별회계의 설치라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전출금이라고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장학기금을 이 조례로 본다면 기금을..... 우리 예산에서 1,500만 원씩 매년 기금으로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것은 아니고요. 당해 연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양훈

그것이..... 보면 기금이라고 나왔는데 기금

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고 당해 연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김양훈

지금 특별회계로 나왔으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 이것을 아마 전라남도 기본적인 표준안으로 작성했고요. 특별회계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장학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면 당해 연도에서 지출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해서.....

○위원장 김양훈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기금에다가..... 매달 일부 기금을 넣었다가 거기에서 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런데 우리 군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1년에 2,000만 원 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양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중복장학금도 못 받고 그래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보고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장학금에서도 거기에서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이 조례보다는 차라리 장보고장학회 정관을 약간 바꿔서..... 그래봤자 1년에 1,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장학금을 지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본조례의 취지는 이장을 함으로써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 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하고 별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이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전에 우성자 위원님도 이장님을 10년 넘게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예산이 아까 1,500만 원이 아닌..... 중복장학금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가 1,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에서 빼서 하는 것보다는 왜, 장보고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님들한테 별도의 기구로 거기에서 1,500만 원씩 지출해도 되지 않을까. 정관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이장자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왔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총무과장 한희석을 보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총 22명 중에 타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한 열두 분, 전액 1년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친구가 한 8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년에 1,560만 원 정도 들겠다 싶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장학사업에다가 넣어서 한 것과 똑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특별히 대우한다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한 항목을 설정해서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저는 장보고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님 명칭을 따로 두고..... 그 정관을 약간만 변경해서 이장 3인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장보고장학재단하고 한번 논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치단체별 간 정한 규약

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시군구 3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순간에 호전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부터 3조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 사업에 대해서 제4조부터 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에 대해서 제11조부터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을 제24조, 제27조는 협의회 제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렇습니다. 38곳에서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처음 새로 제정되는.....

○최정욱 위원

이것 지자체에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파위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기존에 했을 때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개별적으로 어떤..... 통일부라든가 창구를 통해서 북한에 북녘 김 보내기 운동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사무총장,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연 회비로 연간 500만 원 정도 출자됩니다.

○최정욱 위원

500만 원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500만 원. 연간 38개의 자치단체가 한 500만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어서 55쪽,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이에 적합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법제처의 컨설팅을 통해 검토의견을 참조해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급식 지원 및 대상의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해촉, 그리고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이전부터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자 위원

다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 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관련근거를 정확하게 조례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성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급식 지원방법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또 단체급식, 부식 배달을 통한 급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한다는 말씀이 신가요, 아니면 이중에서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것은 주무팀장님이.....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해 왔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완도군 사정상 전체를 거기에서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차츰 확대해 보는 그런 것으로 유념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지금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죠?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우성자 위원

그 뒤로 조금 더 올릴.....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4,500원, 국도비 예산은 4,500원인데 국비 500원을 더해서.....

○우성자 위원

예, 500원을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혹시 학생들, 지원 받는 학생들이

다른 불만은 없나요?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지금은 특별히 불만 없습니다. 일단 주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식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인스턴트에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일주일 간격이나 한달, 보름 간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창피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도 지원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했었는데. 사춘기 아이들이라 급식소에 가서 먹고 이런 것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라든가 이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18세까지입니다.

○김재홍 위원

18세. 그러면 18세라고 그랬을 때 지원대

상에 보면 저소득층이 있고 국민기초수급보장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 관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100분의 52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슨 부분이 있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법에 보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사위가 재산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일정부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이 사각지역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동의 나이를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현재 우리 군에서 긴급돌봄이라는 그런 시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아동급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명이 불일치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제명으로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납부수단에 따른 주민불편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국가정보 기본법에 맞게 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정부법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의 법령취지에 맞지 않아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 방법을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주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토론종결하기 전에 아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수제도 말씀이 나오셨고 정확하게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

어떻게 봤을 때는 기본 틀만 잡자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점수제도라는 것은 아까 우성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를 봤을 때 최고 점수가 50점이에요, 7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최정욱 위원의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 때. 그런데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모태를 잡자고 그런다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양훈

이것을 수정할 것인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들 사기진작 참 좋습니다. 당연히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사기진작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전에 이장님들 조례안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예산에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몇 명 없으면 그 기금이 누적될 것 아닙니까. 장보고장학회 예산에서 25억 정도 계속 이렇게 기금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빠져 이렇게 이장들 정관만 줌.....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정관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아까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

이전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장보고장학회로 이것을 넘겼을 때 이장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느닷없이 장학금을 장보고장학회로 넘기냐는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장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전부터 고등학생을 주는 것도 솔직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별로 없고 농어

촌에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 아닌데.

대학생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 같으면 이장경력만 조정하고 그대로 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장보고장학회로 넘겨서 이장들과 행정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저도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이장 경력만 수정하자는.....

○우성자 위원

경력으로 인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경력을 아까 50점, 20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들한테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사실 이장이 되면 바로 해당되어야 맞아요. 이장으로 인정했으면 줘야 맞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1년 이상이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을 준 다든가 3년 이상 준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야지.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1년 이상 그렇게만 해

서 줘야 맞죠.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이장경력 이것을 삭제 하자는 얘기죠?

○우성자 위원

예. 1년 이상 있잖아요, 거기에.

○최정욱 위원

그런 것 없이.....

○위원장 김양훈

장학생은 자격 1년 이상 근속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그것을 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이것을 그러면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성자 위원

아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양훈

이것이 장학금 특별회계 때문에, 뒤에 보면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에다가.....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으로 아마 1,500만 원을 잡아놓고 계속 이것을 못 쓰게 돼서 남으면 기금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쌓여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해 예산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이월시킬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양훈

이월이 아니라 이 기금 자체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문상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놔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김재홍 위원

위원장님, 기준점이 그것 아니에요? 설치목적은 봤을 때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규정 아닌가요? 그러면 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성자 위원

계속 있었지, 이제까지.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법무통계팀장 김귀창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심사기준을 넣은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보고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을 갖추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심사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신청자들이 많아서 경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한 것이고.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아까 우성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7년 이상 되면 대학생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없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이장님들이 숫자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경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을 넣었고요. 현재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도 된다는 이 말이죠?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 심사기준이 그것 아니어도 학생성이라든가 상을 받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적 같은 경우 B학점이면 웬만한 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이고. 이장경력을 둔 것은 이장경력..... 예를 들어서 동일 성적자가 나와 가지고 경합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장경력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둔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이장을 오래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조례에 맞아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이 심사기준은 이장을 많이 하신 사람에게 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정욱 위원

그것하고 똑같다고, 기준 자체가. 경력 제한을 두는 자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아니, 경력은 1년 이상이면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심사기준에 거기에다가 1년 더하고 2년 더하고 7년 하면 더 준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원래의 취지는 이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그 외 성적과 다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연도로 하면 오히려 이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뭐야. 연도로 이장을 매긴다는 것은..... 오히려 악용한 것이지. 차라리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상으로 하든가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조사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것을 몇 년으로 지정,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이지. 그것이 오히려 사기 진작을 꾀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이..... 마침 앉아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횡수는 몇 회인가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횡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재홍 위원

4년 동안?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아닙니다. 횡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중복 지원도 됩니다.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아,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

다는 것인가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렇다면 경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양훈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부결해서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해서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이장경력 점수제는..... 총점 배분은 조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경력을 무조건 이장 일을 했다면 30점, 총점 분배에서 30점을 주고 학업성적 또는 특기 50점, 이장상은 20점 그러면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점 배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수정하고.....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이장경력 점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기준에 이장경력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점수 전체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면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하든가요.

○우성자 위원

아니,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부결할 것까지는 없고 내 생각에는 그것만 수정하고.....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총점 배분만 그렇게 해도.....

(법무통계팀장 김귀창을 보며)

팀장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이장경력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본 30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

으로 하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은 말씀드린 수정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3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4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5호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6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7호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감염병의 발생 시 보다 잘 관리하여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만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기석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8호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김재홍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2인)

조인호	박인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 전문위원 : 문상만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2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6.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9.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발의자가 원래 조인호 위원인데 오늘 미출근으로 인해 박재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조인호 위원님께서 병원치료차 청가 중이므로 본위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사용 및 대피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9호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은 가장 마지막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공동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금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것을 폐기하는,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0쪽을 봐주십시오. 80쪽에 별표1을 보시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있습니다. 1번 종이류에 마목 종이팩에 대한 부분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5번 플라스틱류에서 가변 배출요령을 보시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페트병을 버릴 때 부착상표, 라벨을 제거해서 압착해 가지고 버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별표4의 표 내용입니다. 일반용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가 있고 기존에 100리터가 있었는데 100리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과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100리터 쓰레

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중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순서부여 등 자구상 문제점이 있어 제22조 제3항 관련 별표10의 가나다라 순서를 바로 잡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어구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국장님, 100리터를 미화원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예)

언제부터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가지고 시중에 판매 중에 있는 것은 다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제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덜 나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선 있는 것을 소각하고 새로 이것 판매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일반봉지에 담아서 내놔도 되죠, 분리수거하는 데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환경부에서 사실.....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 홍보에서도 그렇고 다 라벨까지 제거해 가지고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 홍보가 쉽지 않은데. 시내는 그나마 할 것인데 읍면 동네로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첫째, 버리는 데에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홍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쓰레기를 버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먼저 신경을 쓰면서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여기 병류에 대해서 보면 병뚜껑을 제외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귀서 배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병뚜껑은 어떻게 배출하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닙니다. 병뚜껑을 같이 해서..... 81쪽을 보시면, 플라스틱류 5번 가목 배출요령에 보시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80페이지 3번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 비우고 물로 행귀서 배출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 이 병은 유리병.

○우성자 위원

유리병이요? (예)

그러면 그 유리병의 병뚜껑은 뭐로 배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고.

사실 그리고 소주, 맥주병을 슈퍼에 팔 수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몇 개 이상은 안 받고. 어떤 집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도매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병값을 줘야 되는데 병값을 안 준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하나에 100원씩 팔면 노인들 아이스크림값은 되는데, 사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사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 가져갈 때 30개 이상은 안 받고. 이런 것들도 가게에다가 홍보를 해서 가져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굴러다니고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또 100리터를 폐기한다는 말은 지난번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시골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봉투가 있어야만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홍보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최대한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 다른 봉투에 담아도?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봉투에 안 담고 그냥.....

○우성자 위원

아니, 아주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은 그러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별도로 동봉되어 있지 않고 막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성자 위원

예, 큰 봉투가 없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홍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은 한 분도 안 오셨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환경산림과장은 백신 맞는 데, 거기 코로나 백신 상황실장으로 가있고요. 과장님은 목포..... 도청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이라도 (청취불능) 하더라도 과장님들..... 그래도 조례 제정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에 관한..... 현재 도시림 조성에 관한 관리 조례 규정이 도시숲으로 내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그 관련 제명하고 관련 내용들을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을 봐주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시내에 보면 내 집 앞에 가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9조 1호 1항에 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호에 가로수를 옮겨심기, 3호에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로수를 민간인, 주민들이 옮기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가 심고 싶다. 그럴 때는 3항에 있는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4항에 보시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서..... 사업시행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제2조 제4호의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95페이지요, 9조 5항 1번이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 별표1 말씀하십니까? 5항 (정취불능)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5조 그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 96쪽.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96쪽에 제9조 5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5항 1번이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아닙니다. 1항.....

○김양훈 위원

9조 5항이라고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

번, 6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위원님, 문제없습니까?

○김양훈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의안번호 제2742호입니다.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서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독립유공자 예우, 고엽제후유증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107쪽에 친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친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신설, 밑에 쪽에 신설 부분들이 그다음 쪽까지 쪽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독립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국군포로 송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보훈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완도군민은 다 무료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 한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민은 다 무료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조례안 1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저희가 군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집행 20년 정도.....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용역 이쪽에서 해주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참조)

·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김재홍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미집행..... 116개소를 일단 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일단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 작년 7월에 다 일괄적으로 시범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설 중에 116개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연차별로 집행을 해서 계획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500억이요?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예, 550억 정도고요. 그 예산은 토지보상비 플러스 저희가 공사는..... 국토부 지침에 따른 공사비를 준용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차, 3년차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해제시설, 향후에 군관리계획으로 해지할 예정이고요. 2-1단계 같은 경우는, 4년차에서 5년차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전부 다.....

○위원장 김재홍

마이크 좀 켜고.....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아까 완도하고 금일하고 노화, 군외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읍면 다.....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신지나 약산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계획에서는 2-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뒤로 다시 미집행.....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예, 미집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도시계획을 다시 초기화해서 한다는 얘기
죠?

○광남기술개발단 도시계획부 차장 박동민
그렇죠.

○김양훈 위원

뭐가 복잡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
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예, 의안번호 제2744호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거부, 군
에서 민원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법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지금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60일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입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
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서 민원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근거 없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상위법과
달리 15일로 정하고 있어 민원인 권익 보호
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
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
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
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0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0
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2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3호 완도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4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 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청취불능) 6개 법률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의 송환법 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의무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누락된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여 감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유공자가 없도록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부속건물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고궁 관련 입장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이어서 146쪽,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체육회와 전지훈련 등 체육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회 등 지

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육 인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자구상 문제점이 있어 제15조 제12호의 공공체육시설 구축물을 공공체육시설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체육진흥 조례안, 원래 완도체육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가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이것은 자세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은 폐지하고 이것은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회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로 만든 거네요, 근거를 조례로?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예,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어디 말씀하십니까?

○최정욱 위원

18쪽, 14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어 가지고 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에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고 4개의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운영비 또 사무과장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대강 들었는데, 사실 조례가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체육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지원도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보완해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의회라서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말입니까?

○최정욱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그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장애인체육회하고 또 일반체육회하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은 2024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그것은 일반 체육회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속에 장애인체육회가 그쪽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쪽으로 속해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장애인 총연합회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속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욱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 따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최정욱 위원

별로로 옛날 체육회처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5 대 5로 해서 되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6 대 4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장애인들이..... 일반체육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목별로.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품목별로 여러 가지.....

○최정욱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체육회를..... 정말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저것이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장애인은 사실 완도에 있는 숫자로 체육회를 따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해서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실제적

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발족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장애인들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키면 체육회 활동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래도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그전부터 계속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초청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욱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2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는 사실 군에서 다 협조를 했어요.

문제는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 과연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예전에 체육회는 정말 여러 팀이나 여러 연령대나 여러 품목들이 가장 어울려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이것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 숫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에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그런 부분이 도에서도 일반체

육회, 장애인체육회가 나뉘져 있고 또 10개의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가 나뉘져 있는 상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완도군을 제외한 3개의 시군도 별도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정욱 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 복지향상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의 돈을, 예산을 해놓고 장애인에 대한 한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체육회를 운영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차라리 그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이런 돈은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다가 쓰도록 지원해 주고 더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체육회에 넘겨주면서, 돈을 아끼면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이것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그러면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공모 신청해 가지고 따서 오면 장애인체육회가 상당히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최정욱 위원

과장님, 확실히 잘하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잘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좌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159쪽,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수산업의 지원 및 지원대상,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수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하여 완도군 어업인에게 수산업의 육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하여 완도군 수산업의 우수성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안전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5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6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7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재홍 박재선 김양훈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3인)

이범성 조인호 박인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박 인 철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9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완도군의회 제29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농·어번기를 맞아 들과 바다에서 모내기과 다시마 채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값진 땀방울이 알찬 보람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5월 1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오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2021년이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로 접어들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감염병 난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둬서 군민들께 작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펍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의회는 37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생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정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어 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연도·연륙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국도 승격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센터를 착공하여 대한민국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23년 전남도민

체전과 2024년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군이 대규모 행사도 치룰 수 있다는 저력과 위상을 한껏 높인 성과로 생각합니다.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더불어 두 개의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도 완도소방서가 업무를 개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더욱 가까이서 지켜주고 각종 생활기반 및 소득기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편의와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부재가 군민들께 불협화음처럼 비쳐진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호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의 강화된 회계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민생을 꼼꼼히 살피고 말은바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름철이면 피해갈 수 없는 장마와 태풍,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40%로 전국 2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우리 지역도 사적모임 인원 확대 등 탄력적인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리를 챙기는 방역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확고한 집단면역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4월 강진 도암면에 개원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비합숙 교육생 완도 유치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분열 및 주민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었던 태양광 사업과 돈사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지역분열을 막는 데에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복소비 위축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자유롭지 못해 발생되고 있는 육지와 바다에서의 일손 부족 현상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 292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부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민들이 신뢰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계절을 무색하게 하는 날씨가 연속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면서 군민을 위한 봉사, 신뢰행정

으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송태

이상으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0분 폐식)

제292회 완도군의회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의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의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양훈 의원)
-

(10시40분 개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 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금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인호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승인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건,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조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0호, 제2751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1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 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2,853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4억 6,789만 9,000원, 이자수입 4,475만 6,000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 총 166억 2,689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 71억 1,507만 3,000원, 예탁금 74억 원, 예치금 24억 1,280만 원으로 총 166억 2,6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41억 5,899만 3,000원, 지출이 142억 1,409만 2,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00억 5,509만 9,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신축기금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24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5,849억 6,818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4억 2,9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67억 8,978만 6,000원으로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7,840만 2,000원으로 1억 2,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67억 8,97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24억 8,5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64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청취불능) 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6억 5,884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반영 등으로 70억 6,7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된 5,667억 8,978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26억 3,43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0억 7,148만 6,000원, 환경비 19억 4,387만 원, 사회복지비 26억 8,094만 6,000원, 보건비 6억 8,954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74억 5,245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7억 1,765만 4,000원, 교통 및 물류비 23억 3,916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4억 1,335만 6,000원, 기타 5억 264만 5,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2,049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비 28억 9,221만 7,000원,

예비비 2억 3,262만 5,000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17억 3,605만 5,000원, 물건비 29억 9,552만 원, 경상이전비 43억 5,095만 원, 자본지출비 223억 9,129만 3,000원, 내부거래 5,826만 1,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2억 3,197만 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454억 3,731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3,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2,659억 7,675만 9,000원으로 116억 9,5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393억 4,105만 8,000원으로 61억 4,7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359억 6,977만 5,000원으로 36억 4,0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1억 4,971만 8,000원으로 1억 5,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3쪽부터 4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270개 사업에 184억 4,427만 4,000원이 신규 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부터 52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1억 7,84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내용 조정으로 4,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반

영으로 4,4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세입 감액으로 5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20년도 진료비 추가분으로 3,5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1억 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67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768억 2,261만 3,000원에서 9억 2,254만 5,000원이 감액되어 4,759억 6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부터 20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양훈 의원)

(10시4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양훈 의원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생산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생산되고 있는 귀중한 역사기록물과 행정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완도군의 기록관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이브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 기록 보관 파일이나 기록 보관 레코드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완도군 기록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 중심의 문서 위주 기록물 보관·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록과 박물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아카이브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록,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보통사람들의 기록들이 다채롭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복합문화공간을 실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이 문

턱 없이 드나드는 즐거운 놀이터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아카이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책도 읽고 대화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며, 지역자료 수집, 보존, 열람, 교육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값어치 있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사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더불어 농어촌기록 콘텐츠 발굴, 마을기록집 발간, 마을기록전시회, 마을기록허브센터 구축, 마을기록영화 제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직접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록을 발굴, 수집하는 아카이빙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만합니다. 나주시가 7월 중에 개최하는 시승격 행사에서 시정 기록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과거사건, 이슈와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 각종 상장과 상패, 표창, 기념품은 물론, 역대 시장, 군수와 관련된 기록물과 옛사진, 업무수첩, 월급봉투, 신분증, 각종 행정 사무용품 등 행정박물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소식이 정말 부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기관장의 지시나 지침 또는 의견이 기록된 문서는 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완도군이 대외 평가를 통해 수상한 기관 표창장이나 상패, 지자체간에 교환한 기념품은 물론, 군이나 읍면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책자, 관광안내지도를 비롯한 각종 유인물을 한곳에 모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미리서 깨우치지 못해 기록, 보관하지 못한 오래된 과거자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민선 1기부터 군과 의회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행정박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아카이브 구축 근거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기록은 역사다. 우리나라 역사는 왕, 양반의 기록만이 당연히 되면서 흘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이 주인인 시대다. 평범한 시민들의 기록을 남겨 균형의 역사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모 지자체 기록연구사의 말에 대해 공감하고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매년 6월 9일은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중 기록의 날 주간에는 우리 군도 과거 기록물들을 현재로 끌고 나와 군민들과 공유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2회 완도군의회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의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의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23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4.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
 7.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9.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0.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완도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9.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10.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1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별첨자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페이지입니다. 2020 회계연도 완도군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6,252억 7,306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66억 6,760만 1,000원을 합한 7,419억 4,26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11억 6,576만 2,000원, 특별회계가 407억 7,6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성질별 결산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1,586억 6,792만 원이 증가되고 158억 1,498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6,964억 1,9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물품증감 내역입니다. 2019년 말 물품은 총 1,019건에 83억 1,507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99건을 취득하고 26건을 처분하여 2020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092건에 89억 1,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배당금 지원 등으로 총 87건에 105억 4,926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8억 1,6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10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9년 말 조성액은 307억 9,201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72억 9,581만 7,000원이 조성되고 356억 1,993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현

재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같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356억 4,821만 9,000원으로 1,986억 2,9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4억 1,77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5,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등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7개 기금에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수입이 41억 5,899만 3,000원, 지출이 142억 1,409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1,280만 원으로 100억 5,509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9억 6,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667억 8,9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 7,84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4억 2,9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10페

이지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 및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 중 지방비 부담액은 삭감하고 국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액 감액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화 되지 않은 성과, 형식적인 성과 분석과 관례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성과분석 하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11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

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제20조, 안 제21조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입니다. 심사결과,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는 영업장에는 감면을 50%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전문진료 업무를 대행하여 질병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 계약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준용규정 또한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

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김양훈 의원 발의)

9.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김양훈 의원 발의)

10.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생활향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역사문화 자료 보관소 구축계획 시민활동가 위촉 및 위탁,

조사대상 및 기록물 생산, 역사문화 보존,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보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시설 및 설치 기준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요금 상승이 전무하며 물가상승률 및 인근 지자체 대표 관광지 입장료를 감안하여 입장요금을 상향조정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보존관련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시간 변경 및 매표시간 규정 휴관일 추가, 대상자별 입장요금 상향조정 입장료 면제대상 추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례안 및 각

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7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불출석의원(2인)

김재홍(청가)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4시50분 개의)

(완도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우성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 완도군 재정의 개황입니다. 완도군 재정은 최근 5년 간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3% 높고 잉여금의 경우 평균 4.7%로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11억 6,57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07억 7,6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6,556억 9,825만 9,000원 보다 569억 7,317만 4,000원이 많은 7,126억 7,143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4억 9,666만 7,000원 보다 2억 7,49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억 2,169만 6,000원이며,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1,517만 4,000원, 체납처분 중지 11만 3,000원, 시효소멸 38만 6,000원, 행방불명 3,840만 8,000원, 무재산 1억 4,881만 4,000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252억 7,306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160억 3,466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2%에 해당하는 6,025억 7,72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1,160억 3,466만 5,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432억 3,519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4억 2,010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53억 7,936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173억 1,796만 6,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예산관리 소홀,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404억 2,999만 3,000원은 예산현액 407억 7,690만 3,000원의 99.9%로 예산현액 대비 3억 4,691만 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703만 9,000원,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5억 8,967만 5,000원으로 총 7억 9,671만 4,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유로는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예산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4억 4,04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3억 3,65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7억 7,690만 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5%에 해당하는 234억 6,187만 1,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64억 2,791만 8,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7억 6,133만 8,000원이

고, 사고이월액은 113억 3,094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억 3,563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는 7억 8,408만 3,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보조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는 총 299건에 1,160억 3,466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1건에 384억 7,386만 2,000원, 사고이월은 45건에 60억 8,916만 2,000원, 계속비는 90건에 550억 4,372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중 발굴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등 총 1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위원님께서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

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67억 3,852만 4,000원 중 수납액은 7,531억 142만 5,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4,74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8,968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154억 8,609만 7,000원으로 이중 7,126억 7,143만 3,000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은 2억 2,169만 6,000원, 미수납액은 25억 9,29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2억 5,24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4억 2,99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9,671만 4,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19억 4,266만 5,000원으로 이중 6,025억 7,723만 원을 지출하고 1,160억 3,466만 5,00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억 1,28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3억 1,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5,791억 1,536만 원을 지출하고 996억 6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9억 977만 3,000원을 반납하여 165억 3,3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4억 6,187만 원을 지출하고 164억 2,79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03만 1,000원을 반납하고 7억 8,40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126억 7,143만 3,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28억 8,753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98억 7,676만 6,000원, 교부세 2,303억 5,337만 원, 조정 교부금 등 149억 2,336만 9,000원, 보조금 2,661억 8,08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1,584억 4,95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791억 1,536만 원으로 인건비 698억 4,004만 6,000원이고 물건비 404억 4,135만 5,000원, 경상이전 2,001억 2,719만 원, 자본지출 2,496억 3,637만 2,000원, 내부거래 138억 1,43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5,60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 2020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5,535억 6,621만 4,000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1,586억 6,792만 원이 증가되고 158억 1,498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6,964억 1,914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6,651억 4,538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312억 7,3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 말 물품 총 건수는 1,019건에 83억 1,507만 8,000원으로 2020년도에 99건을 취득하고 26건을 처분하여 2020년 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092건에 89억 1,4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은 87건으로 105억 4,926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8억

1,6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8,130만 8,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10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5개 기금 307억 9,201만 8,000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110억 63만 3,000원 등 7개 기금에 172억 9,581만 7,000원이 조성되고 356억 1,993만 6,000원이 사용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6억 6,064만 6,000원이었으나 180억 141만 3,000원이 수납되고 184억 164만 2,000원이 지출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22억 5,7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356억 4,821만 9,000원으로 이중 2,371억 9,464만 8,000원을 수령하여 1,986억 2,9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4억 1,77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억 4,70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34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중 1,984억 8,121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9억 97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5,9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특별회계는 27억 4,464만 8,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1억 4,8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억 806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98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9건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

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4억 63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정리추경에 생활폐기물처리 시설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110억 원은 현재 전액 일반회계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74억 6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74억 원이며 예치금은 6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595만 3,000원이며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 이자수입 110만 4,000원을 합한 2억 7,7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억 7,595만 3,000원, 이자수입 110만 4,000원, 총 2억 7,70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7,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 0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도 없던데. 차후에 7, 8, 9월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난..... 연말 정리 추경 때 36억을 쓰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74억을 썼습니다. 여름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아마 세출 구조조정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런 재원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그전에 한번 지원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암리에 한전 변환소가 생기면서 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인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당초 3월, 4월 정도에 지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얘기는 6월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적조라든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담당관님이 아니고 경제교통과겠지만, 그것은 마을에는 다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을 지금과 동시에 우리 군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1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20년도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

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37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억 160만 5,000원입니다. 올해 기금조성액은 5억 671만 4,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원과 예치금 회수 당초 31억 9,000만 원을 27억 7,831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68억 9,000만 원을 95억 831만 9,000원으로 3억 8,1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총액 68억 9,000만 원을 65억 831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비용자성사업비 60억 160만 5,000원과 예치금 5억 671만 4,000원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사신축사업 지출 총액은 당초 63억 8,328만 6,000원으로 보길면사무소 26억 8,328만 6,000원, 보길면사무소 37억 원을 지출계획에 따라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예치금에서 3억 8,168만 1,000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총액은 60억 160만 5,000원으로 지출 세부계획을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길면사무소 사업비는 당초 26억 8,328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예치금 회수분에서 감액된 3억 8,168만 1,000원과 추가사업 창고신축 및 집기 구입비 2억을 포함하여 총 5억 8,108만 1,000원을 고금면사무소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지출 세부내역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길면사무소 사업비가 26억 8,328만 6,000원에서 28억 8,328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고금면사무소 사업비가 37억 원에서 31억 1,831만 6,000원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청사신축기금 집행계획은 총 30억 160만 5,000원으로 보길면사무

소는 28억 8,328만 6,000원, 고금면사무소는 31억 1,831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140억 40억 895만 2,000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으로 총 77억 3,87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60억 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27억 7,831만 5,000원 중 2021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22억 7,160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21년도 말 예치금은 5억 6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조성액 중 110억 원을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2021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5억 7,409만 5,000원입니다. 지정액 6억 7,521만 4,000원 대비 감액된 1,386만 원은 당초 2021년도 본예산 운용계획안 작성 시 실제 발생이자 보다 과다 책정되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0억 원을 안정화기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은행 이자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금이자 0.5%로 해가지고요. 214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은행에 예치했던 이자수입이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53쪽,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완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1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액이 5억 4,240만 3,000원에서 5억 3,198만 4,000원으로 1,1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 말 조성액 보다 증가한 금액은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 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 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재

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쪽,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후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목표는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7억 1,542만 6,000원에서 3,94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재해긴급복구비, 코로나19 안심숙소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지정액 10억 5,039만 9,000원에서 6,24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287만 4,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3억 853만 7,000원에서 증액된 8,070만 원이 증액된 3억 8,9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정액 7억 3,365만 1,000원에서 1,82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542만 6,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원안과 동일하게 8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지정액 대비 10억 5,039만 9,000원에서 6,247만 5,000원이 증액된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비용자성 사업비 지정액 대비 8,07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지정액 대비 1,82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은 수입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전입금은 18억 3,257만 원, 보조금 9억 9,182만 원, 이자수입 3억 148만 9,000원, 기타수입 9,401만 9,000원, 총액 32억 1,6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집행액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비용자성 사업비 14억 6,142만 4,000원이고 잔액은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 현액은 2020년도 7억 1,542만 6,000원에서 3,94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423만 원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 570만 원이 증된 9,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수입액이 9,388만 원에서 9,423만 원으로 이자수입 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관광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사업,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

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7,500만 원, 세외수입이 24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2020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반영으로 63억 8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6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5억 9,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 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146억 5,900만 원을 반영하여 의존수입 총 반영액은 216억 7,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3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택자금융자에서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2020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추가분 3,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서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요금 등 4,5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535억 원 대비 314억 원이 증가한 5,8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84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667억 9,000만 원으로 31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1억 7,8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은 2,472억 6,900만 원으로 146

억 5,900만 원이, 국도비보조 군비부담금은 940억 1,900만 원으로 68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1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21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총 355억 7,1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28%인 98억 3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인무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1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4,600만 원, 행사·축제경비는 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16억 8,900만 원 증액, 일반보전금은 3억 4,000만 원 감액 등 총 1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하반기 전기요금, 완도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등 추가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

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억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8억 6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5억 1,800만 원, 자산취득비 5억 500만 원 등 총 8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849억 6,818만 8,000원으로 제1

회 추경예산 대비 314억 2,999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667억 8,978만 6,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3억 10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81억 7,840만 2,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989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11억 82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7,067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67만 3,000원, 지방소비세가 474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3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8,586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5,263만 9,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031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5,35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사용료 수입이 2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785만 9,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9,794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33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52만 2,000원이 늘어난 9억 1,5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2,671만 2,000원으로 18억 9,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수입이 18억 9,54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그리고 부담금이 2억 6,012만 원이 증액된 10억 7,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된 2,346억 8,832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 2020년도 정산분 49억 5,426만 9,000원과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도 정산분 13억 5,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87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6억 5,884만 9,000원이 늘어난 2,472억 6,877만 2,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97억 8,637만 8,000원 늘어난 1,430억 9,3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19억 5,019만 1,000원이 감액된 371억 9,5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9억 2,907만 5,000원이 증가한 46억 4,1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8억 9,358만 7,000원이 증액된 623억 3,82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46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먼저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6억 3,95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2억 6,26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인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전입금 4,737만 8,000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전입금 1억 1,813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액은 565억 5,6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43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

255쪽이요. 노화 이포리 토지매입 그것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노화 이포리 도심 한가운데에 차가.....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에, 2개소에 건물 3동 지장물이 있는데 건물 3동 중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1개소 2동 건물을..... 2동의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신지 동고 초등학교.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조인호 위원

그 밑에 것.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신지 동고 초등학교는 폐교건물인데요. 군정 각종 주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전체 소요 사업비가 7억 8,000, 약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에 1억을 편성했는데. 우선 계약하는 비용으로 1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7억을 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인호 위원

아, 1억 가지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68억 2,607만 5,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1억 6,208만 3,000원이 감액된 68억 2,60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그냥 같이 넣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지금은 아시다시피 판촉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전복이라든지 톳, 해조류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편스토랑을 상반기에 했었는데 이런 교양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바로 방송이 되면서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전복 같은 경우는 3시간 만에 40톤 약 12억 정도 판매되었고요. 그 뒤로 백종원..... 전복된장뚝배기가 밀키트로 제작돼서 지금 이마트에 납품되고 있

습니다. 편스토랑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것은 컨셉을 해조류에 국한해서 했었는데 매생이 크림떡볶이가 CU 편의점에 납품되고 있고 헬로네이처에 밀키트로도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267억 805만 1,000원에서 321만 3,000원이 감액된 267억 483만 8,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80쪽에 해양치유자원 샘플을 마련한다는 것. 지금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파우더. 두 번째 1,800만 원짜리는 머드를..... 직접 노화에서 원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건조, 말린 다음에 이 회사에다가 보내면 파우더로 생산하게 되고 안전성검사까지 다 마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자원은 비파, 동백, 황칠, 다시마와 미역, 톳 등을 입욕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샘플링을 할 수 있게끔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시판이 된다는지, 아니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금년 해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준비해서 치유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우성자 위원

아, 치유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시죠?

치유센터는 그럼 지금 계산으로는 언제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내년 4월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당초는 2월까지인데 절대 분기가 있기 때문에 4월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일반 치유센터 안에서만 사용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판도 하실 것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이것이 좋으면 시판도 해서, 전시를 해서 체

힘 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83쪽이요. 시설비,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부지구입인데. 활성소재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시고 부지구입을 어디에 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수부에서 하는 정부사업비 250억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이 활성소재에 대한 부분을 생산부지..... 그러니까 시설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내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 부지를 저희들이 봐서 그 부분이 좀 괜찮겠다. 그러면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바이오산업하고 다 연계된 과정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 찢어집니까, 벌써부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활성소재 생산시설 기반구축은 농공단지 쪽에다가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이범성 위원

원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운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

연구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바이오센터 인근에다가 하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인근에다가 지어 가지고 바이오 연구소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게끔 한다는 이것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이것이 잘되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아니, 이리 저리 쪽쪽 다 갈라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바이오센터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R&D사업 같은 경우도 수두룩한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갖다가 접목해줬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인가. 우리 군에 정확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런 활성소재시설이 되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설문을 했는데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매우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범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행사운영비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어느 부분?

○김양훈 위원

181쪽, 행사운영비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증액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범프로그램을 201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야 되고 참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더 많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여기에 노르딕워킹 쪽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요, 노르딕워킹, 요가, 필라테스, 명상, 그다음에 꽃차 시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 다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은 시범프로그램이라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게 되고요. 치유공단에서 하게 되면 정식으로 가격을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179쪽, 연구용역비. 해양치유센터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치유센터 내에 장비라든지 비품 그 다음에 제품 이런 부분이 다 시설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매뉴얼을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을 우리가 미리 해야 돼요? 이것이 생기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 시기가 바로 준비된 상태에서, 스탠바이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하게 되면 또 이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정상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최정욱 위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라든가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매뉴얼을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러니까 기계장비들이 지하에 다 시설되게 되고 1층과 2층에 제품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전문가들이 준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 시험가동하면서 그 매뉴얼을 작성해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현재 설계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보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또 실수가 있지.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설계대로 해놓으면..... 우리들도 조그마한 뭘 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직접 사용해 보면 뭐가 다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가 변해져요. 그것을 직접 하면서 매뉴얼 작성이 되어야 정확하게 이해될 것인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정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모품이나 비품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목록도 미리 작성해 가지고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요.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어디 쪽에다가 배치해야 되고 유지관리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최정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요, 해조류 바이오 활성 소재. 아까 이범성 위원이 질문한 것이요. 거기 바이오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예)

그 관리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인원을 더 충원해 가지고요. 별도 인원을 충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 생산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거기에 Haccp 시설부터 GNP시설, (청취불능)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 동별로.....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것이 해조류 제품에 대한 시설만 관리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진짜 잘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도 있지만 농공단지나 전체 제조업체들이 이범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용률이 없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도에서 저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부 해서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렇게까지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운영이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누군가가 개발해서 뭔가 그것을 제대로 해서 생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전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지어놓고 놔둬버리면, 뭐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할 때 해수부에서도 참석하고 도에서도 참여하면서 서로 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시설해 놓은 상황이고 흥이나 장흥,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현지에 있는 제조업체나 이런 사람들 또 자꾸 젊은이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또 거기에 맞게 그런 여론도 조사해 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한 것 이제는 보기 좋은 식으로 만들어 놓고 갖다..... 실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는 가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9억 8,405만 6,000원이 증액된 353억 9,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총무과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행사운영비에 해조류박람회 봄조성 만들기 운동, 이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해조류박람회 D 마이너스 행사를 원래 300일부터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300일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요. D 마이너스 200일이..... 아마 9월 중에 D 마이너스 200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행사하고 또 군민 4대 실천운동하고 범국민 다짐대회를 연계해서 박람회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양훈 위원

D 200일 행사하고 나머지 전부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대한적십자봉사회 완도지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2,000만 원을 취약계층에다가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은 뭐 적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십자회에서 각 대상자를 8가구 정도 선정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정성이 있는지, 적정한 것인지 같이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직 그럼 지출은 안 했고 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꼭 적십자회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적십자 회원에 한해서?

○총무과장 한희석

예. 아니, 완도군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주체가 적십자가 봉사활동 주체가 돼서 저희
들이 사업비를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적십자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호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적십자거든
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도 적십자에 한
해서만 하는 것보다 좀 폭넓게..... 소외가족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
시기 바랍니다. 적십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호품이 아주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십자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갈 수 있
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
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금년 2회

추경에 7억 800만 3,000원이 감된 98억
7,3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제2회 추
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
셨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인철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한희석
관광과장	서길수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2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981억 9,203만 3,000원에서 15억 1,446만 2,000원이 증액된 (청취불능) 5,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1억 9,502만 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억 6,147만 5,000원으로 한시생계지원비,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감액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왜 감액되었고 감액되었으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00.....

○최정욱 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이것하고 20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것. 이런 것이 왜 감액된 것이 많냐고. 감액된 이유와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최정욱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은..... 아니, 감액된 것이 아니고 성립 전인데요.

○최정욱 위원

아, 아니.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 이런 것이 이렇게 감액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동안 해왔던 것.....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 이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돼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숫자하고요. 인건비 예산을 추계했을 때 상반기에 써보고 나서 도에서 조정해 주거든요. 재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 도에서 줬던 물량하고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 숫자하고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남을 예산도..... 발생할 것

같아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수가 적어서..... 인원수가 많은데 줄인 것이 아니구요. 참여인원이 자활사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정욱 위원

아, 일부러 줄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참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장례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가 2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2명. 소상공인 한 분, 관내 분이 아니라 관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광주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그래서 1,300만 원하고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 완도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완도 분입니다.

○최정욱 위원

청산하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한 분은 청산 분이고요. 두 분이 발생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외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관외에 계시다가 사망해서.....

○최정욱 위원

주소는 완도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얼마씩 줘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관내 분은 1,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관외 분은 1,247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

정상.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보청기를 가지고 지금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읍면에 1명씩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읍면에 1명씩이면 12명이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예산을 잡으실 때 금액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저희 과는 특히나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예산 다 늘린..... 뭐라고 합니까, 수혜자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보청기 관련한 사업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쓰고요. 내년에 예산이 많을 때 본예산에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사정을 했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실익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챙기십시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올해 신청을 받아서 못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넘겨서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1억 7,921만 3,000원에서 3억 1,554만 5,000원이 증액된 274억 9,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어떤 용역입니까?

청년센터 BI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이요. 238 쪽, 제일 하단.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브랜드 용역을 말하십니까? 청년센터를 현재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삼호아파트 앞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축되면 그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뭘니까, 상징할 수 있는 청정바다 완도라는 이런 부분에..... 그런 용역을 해볼까 해서요.

○김양훈 위원

완도브랜드 이런 것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번 잡아본다는 그 용역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것 갖다 붙이면 되는데. 외벽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정우자

(좌석에서) 인구정책팀장 정우자입니다.

청년센터 BI 디자인 개발은 청년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름이라든가 디자인으로 개발해 가지고 완도군 청년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를 하려고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센터는 다른 공간하고 다르게 그들만의 특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브랜드 개발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간판, 상호까지 다 짓는다는 얘기에요?

○인구정책팀장 정우자

(좌석에서) 예.

○김양훈 위원

그 상호까지 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철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제일 하단부에 명문고 만들기 우수교사 숙소 개보수사업 1,5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명문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은 지난..... 한 20여년 됐겠습니다.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완도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자는 그런 사회적인..... 사회단체나 군이 주관해서 한번 분위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도고등학교를..... 명문고가 되려면 우수한 교사들이 와서 후배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 군에 교사들을 유치할 숙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3동을 우수교사 숙소로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숙소 도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3동을 다 하려다가 우선 1동만 도배라도 해드리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2동은 더 추가로.....

○이범성 위원

아니, 우수교사가 안 오니까 안 해줬나 보죠. 그것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우수교사가 오고 있습니까, 완도에? 안 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수교사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화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수교사라고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은 고쳐놓고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아니,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집까지도 지어 줄지언정 1,5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명문고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22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 이것 왜 전체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22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다시 한 번만.

○위원장 박인철

그 한국어교육 운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어교육으로.....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일괄사업 변경이 와서.....

○위원장 박인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한국어교육입니까? (예)

아, 알았고요.

223페이지, 저소득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명칭 변경입니까? IMF 때문에 그런가, 이것도 명칭 변경입니까? 4,800만 원 전액 다 삭감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친정나들이 지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문화가정이 친정에 갔을 때.....

○위원장 박인철

아니, 지금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다 문이 열리는데.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상반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인철

하반기 때는 문이 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전체 여행 자유화가 되어 가지고 그러던데. 전체 다 삭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 프로그램, 이것도 전체 다 삭감했는데 이것도 목변경입니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3,6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인철

예. 이런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2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변경돼서.....

○위원장 박인철

목변경입니까? (예)

그다음에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홍보물. 이것은 도대체 뭘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이 부분은.....

○위원장 박인철

해조류박람회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위원장 박인철

아니, 완도에 무슨 외국인유학생이 있다고
외국인유학생.....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 대학생들 중에서
외국에서 유학을 오신 분들을 박람회 관광객
으로 유입하자는.....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박람회가 해조류박람회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범성 위원이 말씀했던 명
문고,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장학재단을 관
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저번에는 이렇게
하면.....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이런 데에 지원
하면 예산 페널티를 먹는다고 했는데, 왜 예
산팀장이 바뀌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
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했던 대로 명문고 만들
기 기숙사는 소유가 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
다.

○위원장 박인철

우리 군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것
이고요. 완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여기 3동은 완도로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가

족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배정해 주고요.
학교 기숙사는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지도
못하신 분, 개별적으로 시내에서 방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
가 장학사업을 시작할 때 우수교사를 유치하
려고 인센티브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
소유로 있는 것이고 장학재단에서는 별개로
초등학교에 일부 기숙사가 시설물로 보유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군 소유라
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군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
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전 산개발비에..... 245쪽,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3억 9,000 말씀하시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하시설 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성해서요, 그 뒤에. 그 시스템 내에 농공단지 CCTV 또 공유재산, 양식장 어가현황 등을 모든 행정정부 101종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무원 누구나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탑재할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얘기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현재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그리고 246페이지에 약산 한옥마을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약산 한옥마을이 정비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고 해마다 풀베기사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왜 이 시설을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지금 하는 것이 약산 한옥마을이..... 총 31동을 분양했습니다. 그중에 25동은 분양했고 아직 3개 동이 미분양 상태인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고 마을주민공동체시설 공간이 없

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을 넣은 것은..... 설계비 3,000만 원을 현재 금년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주민공동생활시설이 없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아는데. 아직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이 예산이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미분양은 31동 중에 3개 동만 미분양이 되었고요. 완공된 것이 17동 그리고 11동은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약간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17동이 분양되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동이.....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공사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상태. 11동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위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고 풀도 해마다 우리가 베어줘야 되고 좀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산센터, 이전에도 예산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그 옆 동네하고? 그때 당시에도 옆 동네하고 분쟁이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지금은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을 가서 보면 민박집입니다, 민박집.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박으로만 해놓고 외부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꼭 사무실을 지어서 옆 동네와 분쟁하고..... 몇 사람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박으로 하고 있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사무실을 지어야 하는지. 그 동네가 같이 있으면 같이 쓰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전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을 때 이것 감이 됐었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다른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비슷하게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김양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위 마을하고도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민박집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돼요. 몇 명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몇 명 안 돼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민박으로 되어서 외지에 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빈집 정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 산호정 앞에 경덕상회하고 (청취불능) 마트, 완도의 중심가라면 중심가라고 하는 곳의 빈집이 아주 엉망이어서 제가 사진을..... 지역민들이 찍어 가지고 나한테 계속 보낸 것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번 다녀왔고요. 지역개발과에 있는 도시재생팀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라는 것은 주거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통화를 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정화사업이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빈집이라고 해도 주거형만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점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범성 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차질이 있다면 다른 과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 가지고 특별하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246페이지,

약산. 이것 배정택, 퇴직한 전임과장이 있고 김광호 팀장이 있을 때 설계비로 해가지고 95분의 5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마을에 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을 (청취불능) 해주라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가. 그런데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 오신 분들이..... 이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군외면 남선리하고 약산하고. 군외면 남선리 같은 데는 마을..... 기존 마을주민들하고 잘 융화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여기만 다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가까운 완도읍도 대가용리를 (청취불능) 분리해 주라고 그래요. 변환소 철탑 문제 이런 것으로. 이것 한번 물꼬가 트이면 건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관계만큼은 심사숙고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주변 마을과 융합되어서, 화합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예, 꼭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198억 3,496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7,0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예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박재선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공항리 어촌계에.

○박재선 위원

어디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궁항리 어촌계요.

○박재선 위원

금일이죠?

그리고 264페이지예요, 전남형 크림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전남형 크림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상자가 총 8개 기업에 9명의 인건비가 월 210만 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에 스토리텔링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선 위원

이것 본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제일 상단 연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현재 서해광역수사대에서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진행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수사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어업선단, 조업선단들이 완도로 들어올까요?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지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인센티브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요. 현재 배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위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km 이내에 있는.....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화 2,000만 원은 동천리 태양광..... 5km 이내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군외 200만 원은 남창 태양광 그다음에 신지풍력 그렇게 해당됩니다. 동천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1개소, 2,000만 원.....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양훈 위원

2,000만 원 1개소로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동천리 경로당에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동천리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신지 동천리. 거기가 풍력해상.....

○김양훈 위원

그런데 풍력이 있는 마을 인근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예)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이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60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에서 왜 3,000만 원으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주차장 그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완도읍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 유지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유지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공용주차장에 미끄럼방지라든지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에 완도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것, 무엇을 연구용역을 주실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 용역은 5년마다 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완도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어서.....

○우성자 위원

아, 이번에 해당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재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전남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 위원

올해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원.....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현재 8개 기업으로 9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 돈을 9개로 나눠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아, 물건비하고 보험료만 하니까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인건비는 월 21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230~2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 위원

230~240만 원 9개 기업이면 2,600만 원.

아, 거의 맞겠네요. 아니, 그것도 다 짜 맞춤을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요. 나는 그 부분에 지원이 많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인데. 이것을 단칼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두 분 다 서해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근해 어선들이 완도항에 입항함으로써 완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얻는 이익은 2억 9,000만 원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직원 1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데는 보니까 좀만 그러면 직원들을 채용하던데. 직원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하든 임시직으로 채용하든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좀 부연설명을.....

○위원장 박인철

돈 2억 9,0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완도항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도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두 군데 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었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자.....

○위원장 박인철

아니, 사업주가 안 하면 다른 사업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런데 직원이 하기에는.....

○위원장 박인철

아니, 다른 사업주로 공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분 사업주는 어떻게 처음에 계약했습니까, 군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새벽에 배가 들어오고 이러다보니 직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두 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계약 체결을 했냐고, 처음에. 뭐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분이 얼음하고 한 분이 에이전트를 하니까 그냥 그분한테 맡겼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냥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 두 분들이 안 한다면 다른 분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치는, 우리 지역사회에..... 완도읍에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269페이지, 여객터미널 노후시설. 이것은 완도터미널 택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버스터미널.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택시 물가림, 비가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내부적으로도 취약해서.....

○위원장 박인철

거기 택시 승객 타는 데에 비가림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비가림은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이래서 우리 군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기석 전임과장이 있을 때 현장을 저랑 최정욱 의원이랑 몇 번 가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다 하기로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비가림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부 다 누수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하기로 했단니까요.

○경제교통과 주무관 김진호

(좌석에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저번에 예산이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되었고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주면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무관 김진호

(좌석에서) 그리고 여객터미널 보수는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물이 새고 그래서.....

○위원장 박인철

누수를 잡는다는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연근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102페이지에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14억, 2022년도 예산이 21억, 2023년 예산이 35억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53억 2,938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은 117억 8,009만 6,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에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바나나를 했었죠? (예)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금 현재.....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농업생산팀장 이욱입니다.

바나나는 저희들이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바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지금 이것 아열대과수 육성은 어떤 작물입니까?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신규..... 바나나도 가능한데요. 신규 설치.....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재선 위원

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하우스.....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예, 하우스 설치하고 보관시설도 하고.

○박재선 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한 곳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준비할 계획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요,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 왜, 농가들한테 여쭙보면..... 전에도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증비 때문에 일반 자부담을 하는 것이..... 업체들 간에 안 맞아서 일반농민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친환경을 많이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도비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재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왜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해 뒀는데 도비 교부결정액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재선 위원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는 삭감되고 군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군 자체 예산을 전에도 더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수요를 판단해서 현재 상황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여쭙보면 인증비 때문에 좀 비싸다. 그리고 대농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소농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인증비 때문에 친환경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예요.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하수 관수장비 그 농업용수 처리기입니다. 대당 1,500만 원입니다.

○최정욱 위원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농업 기계에 등록된 기계입니다, 기계.

○최정욱 위원

기계? 지하수.....

○농업생산팀장 이욱

(좌석에서) 관정은 아니고요.

○최정욱 위원

관정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최정욱 위원

298페이지요, 다목적 소형농기계라고 해가지고 이것 좀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소형농기계가 2020년도..... 2020년도에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요. 추가로 2억 5,262만 2,000원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 때문에 불용돼서 위에 것을 감액한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요, 늦게..... 2020년도 하반기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돈이..... 예산을 추경 때 세워놓고..... 신청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어때요? 소형기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감액한 것은 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2020년 불용액을 다시 세운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풀리나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한 부분은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311페이지요. 아니, 302페이지. 시설 장비 구입 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전남에 5개소인데요. 완도에 1개소가 있는데 트랙터나 이앙기 같은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다음 311페이지, 이것은 뭐 제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늘린 것은 무엇인가요?

(방청석에서 “학생들 저희들이..... 원래 신청량 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편성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학생들이 지금 많이 신청하나요?

(방청석에서 “예,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에서 내려준 사업량 보다 저희들이 학생 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많이 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이렇게 승마장 운영 지원비가 늘어난 것인가요?

(방청석에서 “이 승마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참이 내려올 때는 의무적으로 대회에 몇 번 참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선수를 몇 명 이상 양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는 것인가요?”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40억 4,8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7억 4,620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본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1억 3,784만 8,000원이 증가된 726억 2,387만 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요.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 이전에 꼭 해야 되냐고 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청소차량을 맨 처음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회 추경 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1,000만 원 정도를 해냈다가 필요하면 차량을 임차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욱 위원

이전에도 거기에 대해 그런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임차해서 하자고 했었습니다. 완도읍에 환경산림과에서 2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겠냐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완도 성내남성이라고

해가지고 군특사업으로 해서 4억 2,900 세워진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것은 올해 확정된 사업이라서 군청 뒤에 있는 남성..... 성내리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욱 위원

아, 연차사업이라 이어서 하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연차사업입니다.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지표수 보강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43억 1,597만 3,000원에서 4억 6,509만 5,000원이 증액된 447억 8,106만 8,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니다.

○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요,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 시설공사 2억 2,000짜리 있는데 이것 어디를 하는 공사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377쪽, 가로등.....

○김양훈 위원

시설비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시설비. 이 가로등 사업비가 매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금액이 예산의 범위 대비.....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의가 들어온 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완도군 전체..... 12개 읍면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가로등시설 보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밑에도 있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여기는 별도로 건의가 들어온 지역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목을 잡아도 될 텐데 따로 잡아냈기 때문에, 위에는 따로 특정지역만 하는 줄 알고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전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758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425만 6,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에요, 시설비 청산 백련암 대웅전 건립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 뭐 도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도 유형 문화재입니다.

청산 백련암이 금년도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아, 올해요? (예)

그리고 39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공양간 개축 및 산사체험장이라고 그랬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 신흥사 공양간 개축 및 산사체험장 건립이요. 이 사업비는 도비, 도비와 군비 50%씩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로 신흥사 공양간과 산사체험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대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훈 위원

산사체험장이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제가 그것은 문화재팀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문화재팀장 최진우

(좌석에서) 문화재팀장 최진우입니다.

지금 신흥사가 템플스테이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양간을 좀 넓히고 템플스테이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체험장이 아니라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는 교육장 아니에요, 연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험장은 아니죠.

○문화재팀장 최진우

(좌석에서) 명칭은.....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명칭이 내려온 것입니

다.

○김양훈 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체험장이라고 하면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정확한 사업 목적을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다음 1차 축조심사 때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9페이지에 시설비. 완도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이것 군비 6억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밑에 아파트를 짓니 어쩌니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것과는 상관없이 올해 당장 집행할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박인철

아니, 도에서는 14억이 왔는데 왜 군비 매칭해 가지고 바로 진행해야지. 발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것을 계속.....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이것?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왜 군비 6억을 삭감합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비가 14억이나 내려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매칭을 그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

성해 났는데.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도비 14억에 군비 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6억은 불용시키고 나중에 내년
에 8억 잡으면 14억 아닙니까. 내년에 14
억이 잡힌다는, 본예산에 14억이 잡힌다는
말 있습니까? 내년도도 예산이 불을 보듯 뻔
한데, 내년도도.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 사업을 하든가
진행하든가 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393페이지에 시설비
법화사지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여러 번 다녔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요, 근래에 한번 가봤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것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삭감되었네요.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굴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복원을 하든 아니면
저번에 교수님들이 말했던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더 잡아도 부족할 것인데 또
여기도 삭감해 버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도비를 당초 3,900만 원으로 내시했는데
도비보조금 1,900만 원이 적게 내려와서 같
이 매칭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 도비가 더 늦게 내려오면 군비라도
더 해가지고 해야지. 나도 엇그저께 한번 올

라가봤다는 말입니다. 너무 흥물스럽게 거기
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라도 오고
그러면 그동안 복원했던 것, 발굴했던 것 비
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
까? 그것 발굴하는데 1~3차 해서 돈이 얼마
나 들어갔는데.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마 대비해서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런 돈들을 왜 이렇게 삭감해 나가
는가.

가리포진은 전혀 관계없죠, 거기하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계속 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 밑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청취불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인철

예.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지 않았습시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건부 허락이 난 것으
로.....

○위원장 박인철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1,
2차 발굴한다고 하고 용역을 하면서 돈을 수
없이 넣어놓고 가리포진으로 그렇게 해놓고
는 그것 뭐.....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 유

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이 사업을 2017년도 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6억 299만 2,000원이 감소된 154억 9,084만 3,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 대비 3,578만 6,000원이 감소한 303억 9,7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이요, 시설비 보길면 수산업경영인회관 보수. 이것 회관이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경영인 자체 회관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니, 건물은 우리 소유, 우리 재산입니다.

○김양훈 위원

군 재산이에요? (예)

다른 데 보면 일반..... 군 소유로 잘 안 해 주던데. 이것은 경영인회관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이 신지면에도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보길 쪽에 한 군데가.....

○김양훈 위원

거기 (청취불능) 시설한지 몇 년 됐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작년에..... 작년인가 준공을 했는데요. 일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김양훈 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고 다른 것 아니에요? 보수는.....

○해양정책과장 권혁

같은 건물인데요.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김양훈 위원

작년에 건립을 했으면 하자가 있어서 보수할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 하자 부분은 아닙니다. 하자 부분은 아니고 내부시설 마감이 덜 되어 가지고 보기 싫다고 해서 마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 지은 건물을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잘못되어서 한다든가 이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몇 년 된 건물도 아니고 작년에 지은 건물인데.

○해양정책과장 권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요, 시설비 해조류센터 외부 시설물 보강공사. 외부 외벽을 다시 보강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400 몇 페이지입니까?

○김양훈 위원

428페이지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 1억 7,000만 원 말씀하시죠?

○김양훈 위원

1억 5,000.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이 해조류센터 1층에 가면 천정이 알루미늄 비슷한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시설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물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올봄에 사고가 났습니다. 천정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부식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층에 있는 노출된 천정을 수리해야 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내부공사죠? (예)

외부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228억 2,944만 원에서 26억 7,006만 2,000원이 증액된 294억 8,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물류비 5,000만 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노화, 보길 쪽에 명절 때 택배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택배 물량이 우체국에서 마감시간을 12시30분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어민들이 택배물량을 우체국에 접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겨서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생산자들이 그 시간이 넘어가면 해남이나 완도우체국까지 와서 다시 또 택배를 부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해서요. 저희들이 노화 쪽 우체국과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화에서는, 우체국에서는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마감해야만 이 오후 5시까지 영암 우편집중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초과되어 버리니까 그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석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우체국, 노화우체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비라든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어가들한테만 받는다는 얘기죠, 어가에서 택배에서 보냈을 때 한다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자들이 유통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입니다.

○김양훈 위원

생산자들이요. 뭐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노화에 유통은 거의 없고요. 개인으로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료포장 자동화 장비 구축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 사실..... 이 사업은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초에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넙치사료 양육 및 자동 선별기 사업하고 사료 저장시설사업들을 지원받아서 구 해경부두가 확보되면 그 일대에 이 사업들을 배치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구 해경부두가 아직까지 매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서부어류양식에서는 자기들이 비료를 만들고 있는 공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작업자

들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 지원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저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폐사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료를. 그러면 폐사를 전부 다 공짜로 해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부분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료를 가지고 수익성을 내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수익성을 내고 있는 사업에다가 또 기계장비 구축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폐사어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이런 작업들과 공정들이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 공장 환경이 가서 보면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고 또 비산 먼지들이 많이 날려서 사실 직원들이 그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동화시설이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은 수협 자체에서 해야죠. 수협 자체에서 해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수협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해야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김양훈 위원

양식수협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청취불능) 사업 수수료 같은 것도 1억 8,000만 원을 군에서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식수협 여기에서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행정예다가 군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손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지. 한 번, 두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된다는 애기인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폐사어를 잘 수거해 갑니다. 이런 기계까지 꼭 해줘야 되나.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서부어류양식수협이 그렇게 재정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사실 조합장님 같은 경우 자기의 어떤 보수도 거의 받지 않고 봉사하고.....

○김양훈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맨날 가서 주종목이 무보수, 무보수라고 하는데 차라리 월급을 받고 책임지고 장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수협을 살려야지. 거기에서 계속 지원만 받아 가지고 수협을 살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요. 해조류 가공시설 자숙 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미역공장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생일 용출리 어촌계에서 어촌계 공동으로 미역과 다시마철에 나오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삶아 가지고 염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이미 그 기반시설들을 지원해

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고 또 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쓰게 된 상태에 있어서요. 생일용출리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용출리 그 어민들이 직접 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당초에 용출리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다. 용출리 주민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자는 용출리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다시마 전량을 여기에서 구매해 가지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이것을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장을? (예, 그렇습니다)

공장을 줬는데 다시 이것을 설비해서 위탁한 업체한테 그대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사실 재산은 어촌계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위탁자는..... 어차피 운영을 어촌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해조류 이런 미역공장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가공업체들에게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어촌계의 공동수익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정욱 위원

모든 것이 다 어촌계 공동수입 아니에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데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를 전량 구매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최정욱 위원

이것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440페이지요, 완도수산물류센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이런 것 원래 여기에서 해줘야 해요? 원래 우리가 임대해 줬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를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받고 전기료라든가 소방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임대라는 것이 임대..... 우리가 모든 시설을 했으면 그대로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 임대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라든가 소방안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정욱 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쓰는데 자기들이 쓴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기세고 뭐고 군에서 다 대준다는 소리가 이 소리인 것 같네요. 소문이 밖에서 그렇게 들리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기세 부분을 건의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건물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소방 또 승강기 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최정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원..... 또 다른 것 있어요, 수출물류센터에 이것 말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없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일부 이번에 시설비로 가공 콘베어 2,000만 원, 가공 수도시설 1,000만 원 이 부분은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자가 빨리 위탁됐더라면 이런 것이 보완됐을 텐데. 사실 그런 좀 미비한 부분들을 이번에 시설비로 한 3,000만 원을.....

○최정욱 위원

거의 뭐 관리비에 투자되는구먼요. 알았습니다.

444페이지요, 이것은 감면인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수산물 양식업자들 재해보험이 좋네, 어찌니 하는데 감면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당초에 보험료를 본예산에 세울 때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오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조정?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도비 2억 3,000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 덜 내려와서.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39쪽, 해조류 고차가공시설 건립. 옛날에 마스크팩이..... 다시마 마스크팩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력이랄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 공고를 하는데요. 사실이 마스크를 공개하면 농공단지 내에서 현재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성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보이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는 해야 됩니다.

○이범성 위원

모집은 하는데 이제까지 쪽 해왔던 다시마 마스크팩을 만드는 공장이 선정되지 않을까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서 쪽..... 이것이 도비하고 해가지고 언제 이것 도비가 된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번에 도비가 현재 9억, 군비가 7억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군비가 본예산에 약 2억

정도 세워졌고요. 이번에..... 총사업비는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9억 정도, 군비가 15억, 자담이 6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시마팩은 투자 유치 차원으로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1개소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지금 30억짜리 사업이죠? (예)

일단 사업이 추진된다면 언제부터나 되겠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추경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자 모집을 하고..... 올해 늦어도 9월 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범성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437페이지요.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437페이지, 어떤 내용?

○위원장 박인철

437페이지,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 예.

○위원장 박인철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것은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 유통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 밑에 도서지역 이런 것하고 같이..... 도서지역은 노화, 소안, 보길 그런다고 하고.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그런 것인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노화, 보길 지역은 저희들이 명절 때만 하고.....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위 부분은 평소에 할인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장 박인철

이것은 그러면, 이 직거래 택배비는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정할 때, 개인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한테 한다는 것이 애매한데.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시장개척팀장 최영미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발송했을 때 그 비용을 어업인이나 생산단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거든요. 만약 추경에 확보되면 공고해서 명절까지 수산물 직거래, 소비자한테 직접 생산하면서 직거래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아래 도서지역 명절 특수.....

○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어업인들한테 홍보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읍면사무소에 홍보해서 모집, 공고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이런 것은 두루두루 혜택이 가게 해주십시오.

437쪽, 그리고 나 한 가지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뭘니까, 이 말이? 상생할인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요. 수산물 판로가 안 뚫어진 품목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나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할 때 저희가 물류비나 홍보비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수산경영인 완도군연합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지금 줘버렸다는 그 말이죠?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1차적으로 5월에 김포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했고요. 이번에 공무원노조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업들인데.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해버린 것입니까?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한참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알았고요.

44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백신사업이 이렇게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류하시는 분들은 부족해 가지고 난리라던데 감한 이유 있습니까? 국비가 같이 감된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군비만 더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군비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443페이지요,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중단됐죠, 이것이?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유통한테 합니까, 어가한테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복생산자협회에서 각 읍면 생산자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그 어가들, 생산자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 저번에는 전복생산자협회에서 단일박스로 해가지고 피가 얼마 덜 가고 어찌고 그런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전부 어가들한테 출하할 때 다 사던데, 이 지원이..... 나는 이 지원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하

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민들한테 어떻게 나눠 주는가.

○수산경영과장 김일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읍면별로 생산 자들한테 주문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것은 2,700어가 골고루 가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힘 있고 아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자담을 낸 사람한테만 갑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 전부..... 어가들이 출하할 때 보니까 다 자기들이 사더라니까요, 이것을.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희망,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에 맞춰서 읍면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전체 어가를..... 전복을 키우는 2,700어가들한테 고루 고루 지원이 되는가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청취불능) 지원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 희망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어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 올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2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인철

희망은 다 희망할 것 아닙니까, 요즘 전복 단가도 안 좋고 전복도 안 나가는데 이것이라도 다 희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들은 예산계에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자제하시고, 농어업인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뭘니까, 히트펌프요. 이것도 그러면 국비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맞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아니, 히트펌프 같은 것도 전복치패 어가나 광어양식 어가들이 다들 선호하던데 예산이 삭감이 돼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히트펌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수열이 있고 지열이 있는데 해수열 이것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히트펌프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문경선 팀장이 관리하죠? (예)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이 아주 많던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더니만 추경에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삭감돼서 하는 말입니다.

보니까 전복치패나 광어치어를 가지고 왔을 때는 옛날 같이 기름으로 때는 것이 아니고 히트펌프로 하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아직도 많이 필요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43억 1,11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 기준으로 3억 2,906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87억 9,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억이 아니고 67억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예, 67억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 예산액은 55억 27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5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113쪽, 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13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200만 원 감액, 생일서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1억 3,7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액, 금당 가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1억 4,6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 보길 정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3억 4,400만 원으로 20억 6,600만 원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사유는 실시설계비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183억 4,110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8,9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4,980만 원이 감액된 9억 1,2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인철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22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방금 약산 한옥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의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현재 약산 한옥마을은 관산리 일원에, 구암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31개의 필지에 대해서 28개의 필지를 운영했고 나머지 3필지만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8동에 대해서 17동은 완공되었고 11동은 완도군과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공사 중지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체시설은 당초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주민들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만 계상해 주시면 주민들과 한옥마을 주민들이 서로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암리 마을하고는..... 아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문제없이. 확실히 분쟁 없이 얘기가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어제 협의차 다녀왔습니다. 마을하고 화합이 돼서 융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합의했던 그 내용을 이행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11가구가 중지 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준비하고 있는 11동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자주 못 와가지고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이고.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전부 다시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

로 이것이 통과되면 구암리 마을이장님, 개발 위원들 도장을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한 후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정기추경 때 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해조류가공시설 교체사업 1억 원 계상, 이 부분은 유통, 가공,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생일 용출리 어촌계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현재 해조류가공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해조류 병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숙 솔을 교체함으로써 스테인리스 솔, 버너, LPG, 용기, 가림 시설 등을 새로 교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 정도 되는데 1억은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억 4,000은 자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

과장님, 생일 용출리 건물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자숙 솔을 하는 곳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생일면 용출리 부락 공동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 공장이요? (예)

아, 어촌계가 산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당시 어촌계에서 하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기반시설들도 군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용출리 것인지 아니면 개인 것이냐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니, 용출리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용출리 어촌계로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공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제가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데 금당에 상수원을, 생일에 상수원을 막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수도를 막아주면서..... 그 동네를 막으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 공장을 했던 것입니다. 상수원을 만들 때

○수산경영과장 김일

조건부로.....

○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마을에 뭐를 해주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 그러냐면 완도에 미역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자숙실이 제일 돈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요. 요새 자동화시설이 되면서 자숙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 솔이예요, 업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하면 그런 데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도 가능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지가공시설사업은 거의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생일 용출리도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검토했었으나 여기는 사업비가 적고 일반 미역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지원 받으면 가능합니다.

○최정욱 위원

산지가공은 전체적인 사업을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전체적인 그 안에 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미역가공공장을 받았을 때, 시설물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고. 가공공장들한테 필요한 것은 솔 자체가 제일 커요, 기존 공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솔 자숙실이 거기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기계를 한 번씩 바꾸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런 용의가 있냐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런 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용출리 어촌계에서 들어온 것은 용출리 어촌계에 계원들이 생산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를 직접 거기에서 납품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촌계 공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미역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인데 그런 솔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왜 그러냐면 용출리 어촌계에서 직접 자숙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도.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해줬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마을사람에게 위탁합니다. 어촌계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마을사람 중 한 사람에게.....

○최정욱 위원

위탁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위탁자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지자면 그것으로 어쨌든 생일 용출리 사람들이, 어민들이 그나마 이 공장으로 인해 자숙할 수 있어서 이 혜택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 명분이 아니면 아무 명분이 없어, 사실은.

○수산경영과장 김일

생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가공시설들이 용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5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33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43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수출물류센터 내 지하탱

크..... 지하냉각탱크 자동제어장치 및 가공동 컨베이어 2,000만 원, 고압세척기 2기 및 가공동 수도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

제가 했으니까.

과장님, 수출물류센터는 임대지,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우리들이 수시로 우리 것이니까 고쳐주고 그런 것을 하는데 임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딱 지어서 임대하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면서 고장이 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또 시설이 미비해서, 하다 보니까 뭐도 그래서 같이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위탁과 임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건물주로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수료 부분들은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세 가지 시설도 해주고 했잖아요. 위탁과 임대의 개념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조례 때, 일체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할 때 의회 여기에서도 일체 지원은 없다고 조례에 명시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러면 그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한 것과 반대로 가잖아요. 이것은 위탁 개념이 되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임대가 아니라 위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무관리비 부분은 건물주로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부분이고 시설비 부분은 지하탱크, 지하냉각탱크 자동제어장치 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때 시설할 때 자동센서를 작동해서 했어야 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물을 지하탱크에 채우다 보면 그것이 제어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넘쳐버립니다. 이 부분을 자동으로 제어장치를 다시 보수,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동 컨베이어 역시도 당초에 냉각..... 급속동결장치 거기에 활전복들을 냉동시켜서 얼려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수온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알전복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전복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 담아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전복이 작다 보니까 그 옆으로 많이 빠져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다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저것을 사용하면서 뭔가 다시 바뀌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군에 또 의뢰하면 또 해줄 것이냐고. 자꾸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위탁과 임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맞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미비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정욱 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원래 임대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을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다 크잖아요, 부속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군에 의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부분들은.....

○최정욱 위원

그래서 임대와 위탁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탁이 아니라 임대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시설해 주려고 했는데 미비해서..... 하고 나서 보완해서 해준다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가 어떻게 그러냐는.....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이 잘 구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군에서 조율해 줘야 될 것인가, 사용자가 보수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임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이런 것이거든요. 감시하고 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수산경영과장 김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청취불능) 잘못 건드렸는데 우리가 다 고쳐주면 말이 안 되지, 임대를 쥐놓고. 위탁이라면 가능해요, 그런 것을 고쳐주고 이런 것.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 구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감정평가수수료가 뭘니까, 600만 원인데?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유통가공팀장 전호용입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감정가를 매년 산출해서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는 그 감정비용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올해는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총공사비로 감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감정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인철

지금 우리가 몇 년 계약했습니까,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 매년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해마다 평가할 때마다 평가금액이 낮춰집니다.

○위원장 박인철

감가상각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계약을 재갱신할 때 그때 감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해마다 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건물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적게 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치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으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해마다 냅니다.

○위원장 박인철

참 갑갑하네요.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금방 최정욱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소한 돈입니다마는 자기들이 임대했으니까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고, 지하냉각기나 고압세척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쓸 기계들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가.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비를 잘 갖춰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이 다음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꼭 전북주식회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식감대상조서를 보면서 2차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계속)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식감대상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인철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
4.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로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이 조례안이 원래 의원발의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이 조례를 개정했던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조례안은 박인철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가 성립되었는데요. 공모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위원님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답변드릴 때, 사전심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전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하다 보니 이것이 법적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좋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예의 같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조례 개정할 때 의원발의를 했는데 본청에서 발의한 의원하고 아무 상의 없이 조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은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조례를 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 정도는 있게 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맞지 않는가.

이번에도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신규조문을 대비해 봤자 달리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개 보강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그 정도는 서로 성의를

보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관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안봉일 국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군 전체적인 모든 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했던 것은 행여 다음이라도 개정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의원하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부서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총 2건입니다.

먼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에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감사원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위탁, 수탁, 협약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상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 제20조 준용규정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제21조 시행규칙 조항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

국장님, 공증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수·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런 관계는 다 공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증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권리는 둘째 치고 의무 같은 것을 이행하지 않을 텐데. 어떤 법으로 해서 우리 군 조례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협약서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게 진행할.....

○박인철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공증하는 절차가 생기다 보니까 감사원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청구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하는 사항,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에게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 선박분 및 재산 9월 재산세, 토지분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유흥주점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 및 범위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이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재산세액만큼 감면하고 임대료 인하액이 부과되는 재산세 이하일 경우 임대료 인하액만큼 7월 건축물, 선박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본세에서 감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추계액은 총 3,200만 원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약 10개소가 착한임대인에 동참하여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1,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약 50개소가 착한임대인 인하에 동참하여 1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2,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증가 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증과되는 업종이 있어 이에 대한 증과세 4%를 일반과세 0.2%로 전환하여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세목 및 감면율로는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 중 고급오락장으로 증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여 감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널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추계액은 총 8,400만 원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분 증과세액은 9,057만 6,000원으로 증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분 일반과세액은 566만 1,000원으로 8,4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자가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와 사전계획서,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 의결대상 개정 안내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여쭙볼게요. 영업금지 기간 중에 불법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50%를 감면해 줘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잘못하면 50%로 해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50%는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준다고 봐야죠.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불법영업을 하면 안 줘야 되는데 왜 혜택을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불법영업을 한 번 정도는 했더라도 나머지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군민들을 위해서 착한임대인을 함으로서 재산세를 감해 주는데 거기에..... 임대업자들하고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착한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해야 해줍니까? 그래야 만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까? 1개월만 해도 감면해 줍니까, 아니면 몇 개월 정도로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것은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

○박재선 위원

1개월만 해줘도 감을 해줍니까,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타 시군을 알아보면 착한임대인을 기본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줘야 만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 부분 설명 좀.....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착한임대인 관계는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한 금액만큼 재산세에서 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착한임대인을 해주는..... 금액에 비례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몇 개월하고 상관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금액에 비례해서 재산세 감면을.....

○박재선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타 시군을 알아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본 것이고요.

페널티 같은 경우 사실 저는 50%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했는데 50% 감면해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불법영업을 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안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부과시키죠. 그 과태료를 받으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페널티 적용 관계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남

권 전체적인 감면비율을 50%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부분을 50%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남 전체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

방금 폐널티에 대해서, 전남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잘못된 것을 전남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50%

감면해 줘야 되나요?

○위원장 김양훈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재선 위원

저는 이것은 감을 안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냥 전면 삭제.....

○박재선 위원

본인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감해 줘요?

○위원장 김양훈

이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께서 폐널티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맞다, 불법영업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수정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이것이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알아볼..... 길게 뭐 적용될 일은 아니잖아요?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1명, 말하자면 1명이라도..... 개인적으로 어느 누가 혜택을 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 전남 쪽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맞다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누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님, 이것을 삭제해도 상위법에 저

축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희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페널티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협의 같고요. 이것은 완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상위법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희선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까 페널티 부분,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하라는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위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외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에 제정한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외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제명, 조문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업무대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업무대행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업무대행자 선정, 업무대행 계약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진료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 선정, 대행계약법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용어 및 준용규정에 문제점이 있어 제2조 “정의”는 “뜻은”으로, 제2조 제2호 내용 중 법 조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 준용규정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삭제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인근 지역 봉직의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과가 정신건강의학과지 않습니까. 이

것이 정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아,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요.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 치매환자 관리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하위국이고 그래서 우리 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최근 3년치,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정신질환 질병코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3,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50명 그 정도 수준인데 이분들의 특성이 정신질환을 드러내놓기를 꺼려하고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주민들을 진료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치매나 정신질환 약을..... 정신건강의학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병원으로 진료를 다니는데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안 가면 약을 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중단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치하는 이유도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완도군 여건상 보면 전문의들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예)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건강의학과도 좋고요. 저는 완도군에 소아과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제대로 없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젊은 부모님들이 아기가 아프면 해남, 광주, 목포 하루, 이틀을 버리면서 계속 다녀요. 인구정책 늘리기를 하면서 계속 아기는 낳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소

아과는 없어요, 완도군에 제대로 된 소아과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같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위탁업무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2.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3.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김재홍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김양훈 의원 발의)

2.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

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우리 군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수집,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역사문화 기록보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각각 기록물의 생산과 실물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생산 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우리 군의 역사문화 기록보관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보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기회의 확대와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해 드리기 전에 조광용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은 연가 중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지난 17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었고, 현재 해당 수입금으로 인건비만 충당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및 인근 지자체 대표 관광지 입장료를 비교해도 요금 상승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공공시설 이용요금 의무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에 누락된 면제대상자를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람시간 변경 및 매표시간을 현재 운영현황에 맞추어 하절기 19시에서 18시로 그리고 동절기는 18시

에서 17시3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그동안 명시되지 않은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고 별표1에서 입장요금을 어린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리고 성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및 인근 지자체 대표 관광지 입장료를 감안하여 입장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보존 관련 관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완도군민만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무료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외부인도 65세 이상.....

○우성자 위원

무료로.....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완도군민은 당연히.....

○우성자 위원

전체가 무료요.

아니, 보통 보면, 외부에 나가보면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하더라고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시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비싸다고 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요즘 이런 가격도 전부 뭐 많이 안 비싸서..... 갑자기 1,000원을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수익금으로 직원 노임은 됩니까, 직원 노임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현재 인건비로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1년에. 현재 3명, 청소 1명, 매표 2명인데요.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수입금은 한 2017년, 2018년이 8,800, 8,900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이 한 3,100, 3,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억 3,300인데 현재 입장료 수입으로는 8,800 정도 되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되었는데요.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인상되면 약간 상이한..... 관리비용에 맞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자 위원

그런 돈이야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구축해 서라도 많이 오시면 좋는데.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간 가격이 비싸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어때요, 보길도에 해마다 찾는 관광객 수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관람객이..... 작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2만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6만, 7만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도에는 7만 3,400명 정도 왔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관광객수가 줄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약간.....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입장료를 가지고 평상시 생각했을 때 어떤가요, 관광객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입장료를 받을 뭐가 되는지 불만스러운 소리가 있었냐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보길도에 사실 들어가 보면..... 저희들은 항상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느낌만 받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입장료를 가지고는 사실 거의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 현재 해남 같은 곳은, 공룡박물관 같은 데는 4,000원, 두륜산도

3,000원,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도 3,000원, 신안 같은 경우도 3,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안, 노화, 보길 유일 한..... 윤선도 유적지에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이 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현재 세연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요금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위원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100%, 150% 정도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로 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예.

○우성자 위원

아니, 모 관리자가 어르신들 몇 분이 안 들어가고 계셔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안 들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니까 “입장료를 내라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관리자라는 말은 안 하고 “내가 돈을 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구경하셔라.”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1,000원 올려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외부인들이 와서..... 뭐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 더 많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입장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보면 윤선도원림이 아직까지 제일 입장료가 싸입니다. 그리고 올린 것이 다른 타 지역을 보면 보통 5,000원, 6,000원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아까 보니까 2004년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무 싸지 않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적자인데 그 정도 올리면 적자는 아니고 유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윤선도원림을 조금이라도 군에서 관광지로 활성화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조 인 호		
의 원	최 정 욱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8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송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비말차단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를 지난 7월 14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관내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두 차례 순연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협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꼭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집념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팬데믹 상황과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23일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으로써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가 실추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직자가 주관한 행사를 통해 감염병을 확산시킴으로써 군민들을 실망에 빠뜨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요인이었던 소위 백신 특혜접종과 관련해서도 진위를 떠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화합의 공동체 분위기 훼손을 막지 못한 것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일선 방역현장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논란에 휩싸인 공직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들이 걱정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염병 위협의 최일선에서 군민 건강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금에 진행되어 온 상황을 거울삼아 다시는 화합의 공동체 분위기가 훼손되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상치 못하게 닥쳐 올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내습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대비만이 최선의 예방책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번 장마기간에 또다시 확인했듯이 아직도 특정 지역에서 침수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함께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 보다는 군민들의 큰 관심 속에 임시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분발을 다짐하는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군민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송태

이상으로 제293회 완도군의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7분 폐식)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o 기획예산담당관
 - o 해양치유담당관

(10시37분 개의)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허궁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는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8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8호와 제2760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760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군정의 주요업무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건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 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완도군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고,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계절 구분이 희미해졌으며 이미 사계절을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세계,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여 군민과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박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청취한 후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성의 없이 작성되었음이 너무나 역력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조금이라도 군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고회가 되어야 함에도, 본의원이 받아본 보고서는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으며 작년, 그 작년 것과 동일한 판박이 보고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생산적인 보고회가 되려면 업무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군민들에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단지 그 형식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할 뿐인 것입니다. 업무추진 시 정말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지, 그나마 일부 부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점 위주의

생산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 보고 누락입니다. 본의원은 해조류 박람회 성과는 변론으로 하고 개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해조류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역은 타 시군에 주도권을 내준지 이미 오래되었고, 가격 또한 감량을 감안하면 40년 전 가격보다 낮습니다. 다시마는 종사인력의 한계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톳 또한 과다한 재고 물량으로 어가들은 생산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수산의 주력산업인 전복산업의 어업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며 해조류박람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개최되는 해조류박람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며, 전 군민이 뚝뚝 뭉쳐 추진한다 하더라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고 전 군민이 함께 해야 할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민들을 경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의회 출석 조치에 한계가 있다면 박람회지원팀이 속한 해양정책과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

련하여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군민께 제출하는 것이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리며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의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집행부 공직자들을 보고를 존중하는 자세로 청취하고, 그 노고에 대해 위로, 격려하면서 군정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간으로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인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이를 작성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부서는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했거나 고의적인 업무누락이 역력합니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국장이나 과장들이 한번쯤 속속들이 사전 검토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군민들께서 보고서를 열람하고 군 산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서고 군수는 누구를 믿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보고서 작성 시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 전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상반기에 추진해 온 업무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이어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는 코로나19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인원 제한에 따른 방청인원 제한과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 송출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6건입니다.

먼저 1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1건입니다. 이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정상추진 29건, 변경추진 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

수등급인 SA등급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6개 지표 중 달성 지표는 41개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수시점검과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상춘객 대비 방역 아이디어 10건을 발굴 및 시행하였고,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를 통해 46건을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2건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직자와 군민의 정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배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

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16건, 39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반기에 2회의 공모사업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수산,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정책 개발,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받아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조례 제정이 공포되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군정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199개사의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일보를 포함 50명이 군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적으로 2건 이상 총 240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항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지방 방송매체 및 신문지면,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 계절별,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 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시청률이 높고 홍보 효과가 큰 방송사의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CF 및 SNS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 특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6시 내고향과 SBS 맛남의 광장, MBC 어영차 바다야, 연합뉴스TV 풍경여지도,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등 전국방송 17편, 지역방송 9편, 케이블 6편 등 총 33편의 교양·정보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복, 광어, 다시마, 김 등 우리 군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을 계절에 맞게 적극 유치하고, 우리 군 역점 시책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및 해조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고 공중파 및 한국 PD연합회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우리 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대표 SNS 희망완도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3종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 기준 구독자는 1만 4,000여 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 홍보 SNS콘텐츠를 122회 제작 게시하였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SNS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37명, 민간인 16명, 총 53명이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월 평균 1회 이상 SNS 이벤트 추진으로 구독자 수를 늘려나가고, 군정 역점사업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42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11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고, 영상 조회 수는 약 19만 회입니다. 상반기에는 해양치유산업 및 2022 해조류박람회 홍보 영상,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등 총 21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완도채널 군민 관심도 제고 및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행사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핵심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주요 군정시책 및 박람회 등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방, 여행, 관광지, 특산품 등 우리 군에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난 2월 50억 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경상적 경비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68% 증가된 5,84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5,667

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81억 7,800만 원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0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물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99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심사 1건, 도 심사 5건 등 총 6건 366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1억 1,20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8억 900만 원의 예산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본예산은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금년도 운영계획과 주민제안창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중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운영 예정이었던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미운영 중입니다. 9월 말까지 주민제안 요구사업을 접수받아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10월 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2년

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현안사업 21건, 790억 원의 2022년도 신규 국고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군특회계는 20개 사업에 84억 원, 군특회계 전환사업은 60개 사업에 252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기출로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대상액 3,992억 원 중 52.58%인 2,0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연말 예산집행 실효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2019년 청렴도보다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락원인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조 등을 통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부패, 비리에 대한 내부, 외부신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청렴생활화를 위한 청내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위험경보시기

인 설 명절에는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부서 1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부패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조직 내 소통·공감간담회, 전문기관 위탁 민원만족콜 실시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원에 대한 민원만족콜, 찾아가는 고충민원처리반 운영, 청렴간담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1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 비리행위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 전라남도 등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 25건, 주의 53건 등 총 75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5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읍면 2개소와 출자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약, 세무,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연휴, 연말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금년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9건 464억 6,0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6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의뢰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이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5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해서 하나 안타까워서 여쭙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청렴도 부분은 공직사회부터 청렴문화 부분이 확산되어야 되고요.

청렴도는 평가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 중에서 내부평가는 2.65점, 외부평가는 7.35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문화가 좀 더 많이 퍼져 있어야 되

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 의원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내부평가는 부당한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행정에서 잘 해준다고 해도 인사가 관련된 문제라 공무원들이 이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외부청렴도가 낮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 리더 교육,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면서 더 떨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 곁으로 가가지고 사명감과 대책을 가지고 좀 더 청렴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담당관님이 노력하시지만 더욱 더 올해 노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꼭 좀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약은 주권자인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진행상황은 현재의 완도와 미래의 완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2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관님, 이에 동의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동의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딱 1페이지 분량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공약사항은 제가 보고해 드린 대로 총 51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실제 공약사항 추진은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최소한 총괄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목록이라도 저희들이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 세부 공약사항 목록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사항을 보면 추진사항 보고를 개최했다, 정보를 공개했다,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등 아주 알맹이 없고 형식적인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

중 어떤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성과를 거양했고, 어떤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공약은 추진사항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소하여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는 보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본의원의 의견이 과하다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내용에도 공약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또 보고가 되지 않을까.

○박인철 의원

예, 그것은 알아요.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진행상황이 세부적으로, 수시로 군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료된 공약이 18건인데 이중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지금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5일 장하고 중앙시장 활성화, 그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사업을 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완도읍 4,000여 가구에 안전한 가스를 제공하는 LPG 배관망 지원사업, 또 완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복지 분야 쪽으로 가면 희망더하기 결연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서지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보육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바로 피부

로 느낄 수 있는 공약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일, 약산 연륙사업에 대한 국도 승격이 유일하게 군민들 피부에 닿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약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 성과와 효과는 군민들이 모릅니다. 또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도 승격에 고생하신 군수님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담당관님이 열거하였던 그런 것들이 우리주민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됐다고 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해외시장 개척 공약을 완료된 공약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공약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 부서에서 실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민선7기 2018년부터 수출계약이 약 5,000만 원 달러 정도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요. 이중에서 수출실적으로 실제 이어진 것은, 파악된 것이 1,900여 가까이 됩니다. 계약 대비 약 37%인데.

이에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수출계약 실적을, 수출실적을..... 수출계약을 한 업체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거나 확인해 보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많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실적은 현재 1,900만 달러 보다 훨씬 상이한 수출실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30건에 3,700만 원 달러입니다. 한화로 428억 수출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중 몇 %나 수출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가 1,7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대략 5,000만 달러고, 금년까지 수출실적 1,900여만 달러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5%도 안 됩니다. 샘플용 정도로 보낸 이후에 전혀 지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각 업체마다..... 저도 농공단지에 삽니다. 업체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완료된 공약으로 나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공약은..... 수출계약 시스템만 갖춰져 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계약이 실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되고 있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맞아요.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출되어야 시장 개척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행되지도 않은 계약 체결만으로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약관리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

공약도 완료 공약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완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한우, 유자, 감귤, 흑염소, 포도, 비파, 방울 토마토 등 7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완도 자연 그대로 농축산업을 정착시킨다는 공약인데, 자연그대로 생산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 이 공약은 당초 공약을 설계할 때 목표가 세 가지였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고금도에 있는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현재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은 작년 3월에 제정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지난해 7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고금면 산물벼 건조·저장시설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부서에서는 완료로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과 자연그대료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도 자연그대라고 하면.

제가 관내 식당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완도 자연그대로농업 알고 있냐고. 오히

려 본의원에게 반문합니다. 자연농업이 무엇 이냐고.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농업 그대로 하고 농협에서 한 보관창고 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연 그대로 농법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박인철 의원

그건 창고일 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당초의 공약사업은 어떤 것을 목표로 추진 할 것이냐는 것이 있는데 그 목표가 세 가지 였고 이 세 가지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완료로 판단하고 있지만.....

○박인철 의원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완료된 공약 중 해양환경관리팀 운영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팀 운영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은 당초 이동식 스티로폼감용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첫째, 우리 군보다 먼저 신안군이 이동식 스티로폼감용기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했던 정책이었고. 둘째, 스티로폼 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약 또한 성과 및 효과가 매우 부진한 공약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경된 공약은 사후 면세점 공약과 박람회 개최 공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 면세점 공약은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사후 면세점 공약은 당초 수산물수출물류센터 2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나 이런 곳도 일부 면세점 자체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인 보성에서는 녹차 쪽에 면세점을 운영했었는데 거의 한 달에 1명 정도 운영실적이 있어서, 이런 타 지역의 사례를 감안해서 사후면세점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닙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다가..... 완도수산물 홍보관으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폐기된 공약 2건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폐기된 공약은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체육인교육센터 유치하고 완도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민선7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이었던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관련입니다. 연초에 보고하였을 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어떤 분들을 우리 군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실까,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봤는데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명 정도로 운영해 보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20명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군정 전반에 걸친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현안사항들을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서 논의도 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특별히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워낙 역할이 방대하다 보니 위원회 안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의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3조에 일부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 대표 브랜드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건강의 섬 완도입니다.

○박인철 의원

대표 브랜드 슬로건이 건강의 섬 완도라고 군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나 유인물에 건강의 섬 완도를 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추진실적 보고 앞뒤 표지만 보더라도 해양치유 완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슬로건에 담긴 의미나 디자인은 어느 지역 브랜드와 비교해도 매우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보십시오.

해양치유 완도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완도 자연그대로 상표는 궁극적으로 건강의 섬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을 하는 분야별 상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과 힐링을 전국민들이 굉장히 찾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가 거기에 부합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한국기업평판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저희들도 그 결과를 통보받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지난 7월 27일자 빅데이터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기업연구소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억 8,575만 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를 분석해 놓은 결과를 봤습니다. 브랜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 가치, 소통 가치, 소셜 가치, 시장 가치, 재무 가치로 나누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 참여와 소통량, SNS 대화량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이 몇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부분은 하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그다음에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거기에 게재되거나 사진이 올라오거나 댓글이 올라온.....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얼마만큼 지역이 홍보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긍정, 부정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완도 같은 경우는 7월 12일부터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긍정 의견보다는 부정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또 온라인상 우리 군민 수가 적고 또 온라인을 접촉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조사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어찌되었거나 하위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의 홍보 예산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거기까지는, 시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지금 당장은 아닌데 2년 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봐보니까 전국 시단위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예산이. 그 많은 예산들은 다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홍보 예산이 부족했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있던 업무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홍보 그것도. 그리고 관광과를 보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완도군이 219번째로 뒤에서 8번째로 나왔습니다. 물론 조사매체마다 다르겠지만 전남에서 여수시가 68, 목포시가 137, 신안군이 149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역이미지나 관광, 홍보를 비롯한 많은 이슈

가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노출이 다른 시군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홍보비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브랜드 평판지수를 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후 시책이나 관광 홍보 등 많은 이슈가 생산돼서 노출시켰다면 소비자들의 평판지수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강의 섬 완도가 군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쪽, 재정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금년도 국도비 포기사업이 있죠? (예)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농축산 분야 쪽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요.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도서종합개발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 전체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58%, 약 3,400여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포기사업 내역을 보면 작은 섬 기쁨사업,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료저장시설사업, 선어회 가공공장, 자동선별기, 가공설비지원사업, 해썹시설업체 지원사업, 히트펌프, 인버터 시설사업입니다. 포기 사유가 우리 군비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군비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사업한 것 중에서 사료저장시설이라든지 선어회 가

공시설, 전복, 넙치 사료 양륙 및 자동선별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를 공고했는데 너무 자담비율이 높다고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된 사업이고요. 수산물산지가공사업이라든지 히트펌프, 인버터사업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이라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일부 못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혹시 수산경영과장님 계십니까?

히트펌프와 인버터사업 포기액이 많은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 군비가 부족해서 반납했는지. 히트펌프와 인버터 시설사업은 상당히 어가들한테 사업효과가 있고 또 어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물론 군 재정 때문에 군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중 히트펌프나 인버터시설을 보면 사업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및 타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리 주산업이 수산업인데 어패류 양식어가들의 수요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보니까 평균 3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인버터사업은 평균 12억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버터사업은 수요에 거의 맞게끔 지원됐는데.

우선 히트펌프는 수요에 비해서 덜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지 못한 것은 내년에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요. 지금 수요는 있는데..... 어가들에게 많은 수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버터, 히트 펌프가 필요 없다고 한 어가들도 지금은 다 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성과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재정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맞습니다.

○박인철 의원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인구수가 많은데 우리 군이 교부 받는 교부세의 산정기준에 혹시 외국인도 포함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수는 외국인이..... 만약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 있는 외국인의 수가 대략 몇 명인가는 안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종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비용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수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적인의하여 2020년 보통교부세 21억 4,300만 원을 더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우리 군과 안산시 외국인 인구수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외국인이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안산시 사례를 참고해 단 한 건이라도 촉구하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교부세 산정기준 자료에 외국인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1차 안이 나왔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입니다, 담당관님. 작금의 지역사회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소위 백신 특혜접종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장님이 개회사를 통해 언급한 바 있고, 본의원도 백신특혜접종과 관련하여 진위 여부를 떠나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생각할 때 이만큼 했으니 지역화합을 위해 그만 접고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님도 봤겠지만 지역의 인터넷 신문인 굿모닝완도에서 8월 10일자로 완도군 백신특혜접종 관련 자체 감사보고서 허위작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담당자가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 등 상급자가 초안 수정에 관여했다, 담당자는 감사조서의 내용과 다른 허위 또는 조작에 가까운 것을 인정했고 이후 결제라인을 통해 군수가 결제·승인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담당관님,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기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 와서..... 나도 그때 한마디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계를 믿고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기사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감사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직원이 인정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맞고요.

조작이라는 부분은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는 지난번에 제가 7월 19일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달라는 세 가지 부분을 딱 꼭 집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침상 규정된 예비명단 제외 대상자를 조사하고 불가피하게 접종한 사유가 무엇이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명단 제외 대상자가 접종한 부분은 5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 30명은 자원봉사자, 10명은 공무원, 일반군민이 14명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벗어나서 접종한 사람은 일반군민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불가피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들 조사에서, 지침에서는 75세 이

상 어르신들이 1차로 되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그다음에 센터에 지원했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 8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도서관면 분들은 잔량이 발생한 시기로 봤을 때 그때까지 있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없었고 30명 이상 (청취불능)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 접종센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매일 30명씩 근무합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전부서가 다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보니 보건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팀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178명이 되는데 잔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10개가 나올지 20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78명의 공무원 중에서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잔량을 맞다고 언론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도 실무부서 직원하고 전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하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공무원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불가피한 사유는 이 세 가지 사유로 봤을 때, 그러면 잔량이 발생하는데 폐기할 것이냐. 폐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접종하는 것이 낫겠다는 현장 근무자들의 판단으로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감사보고서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문이

구두로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구두는 아니고요.

○박인철 의원

아니, 공문이..... 여기 신문에 보면 주무관이 도 질병 거기 담당자에게 전화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는데. 보니까 이 신문 내용이 맞다면 이것은 사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아니면 구두로 해서..... 우리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제가 그때 의회에 감사보고를 할 때도 백신 관련 접종센터는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박인철 의원

아니, 이런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다 인정해요.

그러나 도에서도 아니라는 것을.....

(신문을 들며)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신문기사가? 다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거기에서 보시면 실무자가 도하고 통화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상급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하부기관에 지시, 하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의견을 요청하니까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우리 주무관하고 도청 주무관하고 의견 개진일 뿐이라는 이 말입니다, 의견 개진.

그리고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김 모 감사관이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리 직원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리 직원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기사화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왜 반문을 안 합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저번에 보니까 의회에서 감사보고를 할 때도 참 의원원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올바르게 감사를 했겠지 하고 말을 안 했는데.

담당관님도 알면서 시중에 흘러 다니는 말이..... 실체가 있든 아니든 간에 왜 그런 것들을 반박을 못합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왜 신문 같은 데에 말을 못하고..... 일일이 개개인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할망정 공신적인 신문인 지역신문에 내든가, 반박을 내든가. 왜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잔여백신 관련해서는 지역신문사에 이미.....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뒤로는 지역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고 편파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알아요. 지역신문에 게재되어 있으나 군민들이 자체 감사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해서 완도굿모닝뉴스에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반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보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마는 타 시군들은 다 공무원들이 접종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최고로 상대를 많이 하니까 잔량들은 다 공무원들이 접종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착오가 있었으니 그런가보다 하거니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굿모닝완도에 나온 이 기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것은, 감사내용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보건의료원 실무자하고 도청 실무부서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도청 직원한테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의사 전달이나 통화를 했느냐, 여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 내용들이 담당관님, 다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7월 11일자로..... 8월 11일자

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보고했던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감사게 조사했던 직원 관련된 부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물론 그 보도도 있거니와 감사 주무관의 인터뷰 내용도 있거니와 전화 내용도 있거니와..... 그런데 이 신문에서 문제점이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각기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을 또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전라남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 쪽에서 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것에 더 추가적인 반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잘 대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에서 직원을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감염병관리법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 내용에 특별한 고의가 있거나 뭐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박인철 의원

그러면 왜 그 감사보고서에서는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저촉이 되느냐, 법적 저촉이 되느냐 이 부분만 판단했을 뿐이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문책을 하거나 그런 사항까지는.....

○박인철 의원

그런 사항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만약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군민을 무시하고 속인 일입니다. 그 행위 결과는, 누군가는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불신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공동체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행정에서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신문도, 굿모닝완도도 이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아니면 감사계에서 아니면 담당관님이 인터뷰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이야기가 잘됐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이런 신문도, 이런 기사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의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백신문제 최초 감사팀 주무관이 조사 후 작성한 감사조서를 비롯한 감사서류 일체를 의회가 끝나

면 본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것도 법적으로 걸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의정 요구자료인데 안 됩니까,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감사계와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감사자료 1부터 10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고 지원사업들이 균등 배분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됐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6건, 2020년 33건, 금년도에는 16건 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상반기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고요. 하반기에 어촌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든지 공모신청을 해놓은 사업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모사업 선정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하반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진행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작년은 특별하게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부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최근 3~4년간은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재정 부분까지 감안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증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제작년도보다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원래 우리 군에서 선정된 공모사업 중에서요, 군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사업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공모사업비만 따져봤을 때 선정돼서..... 공모사업 대부분이..... 단년도 공모사업이 있는 반면 대부분 3년, 4년 장기간 거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군비 부담이 되지 않은 것은 8건, 약 4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지방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81억 정도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31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공모사업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은 단년도 사업보다는 3년, 4년 거쳐서 장기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들은 다 반영해 주고 실제 사업 착공 전까지는 군비 부담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실상적으로 해놓고 보면 군비 부담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
으로 보면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런 의문이 듭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하게 미리 성과
분석이라든지 다 해보고 추진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부서에서 당초에 차출하기 전에 우
리 예산부서와 협의하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
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공모사업사전심
의회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
리고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적절성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전에 우리 공모사업 추진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
모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성과위주, 그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와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성과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은 물론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진짜 우리들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
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
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군정 질문 때 별도로, 세
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10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우리 군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3,700
억 대비 2021년도에는 5,840억으로 나왔습
니다. 58%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
별 인구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
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

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리 군 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42% 차지하고요. 교부
세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예산
이 증액된 이유 중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교부세가 늘어나서 총액이 늘어났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을 보면
85%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예, 그
렇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따른 노력을 강
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예산 절감 등 자체 노력
정도를 기존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
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존재정수요액 중에서 시군 자체 노력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책정한 부분이 인건비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또 행사축제경비
절감입니다. 우리 군을 인근 해남이라든지 진
도, 신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년도만 비교
해 보면 우리는 자체 노력분에서 한 61억 정
도 교부세를 지원받았고요. 해남은 60억, 진
도는 44억, 신안은 36억 정도, 저희들이 나
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182억인데 118억 정도만 편성할 정
도로 감액을 했고요. 또 일반 행사축제경비라
든지 경상경비는 추경에 거의 항상 저희들이
약 10% 정도씩 절감,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
다.

○김양훈 의원

각 실과에서.....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행사라든가 뭐든 절감..... 인건비라든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도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자체 노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잉여금이 약 1,505억, 세입 총액이 7,531억 19.9%로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다시 한 번 말씀.....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나요?

○김양훈 의원

예, 잉여금하고 세입 총액.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약 300억 내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세출예산에서 60% 발생되고, 세입 쪽에서 한 40% 발생돼서 매년 300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평균 비율이라고 해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 평균이 8.28%이고요. 우리 군은 4.78%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착오나 이런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일부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을 확정된 이후에 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착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사업자 선정 사유도 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관행적인, 저는 과다편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런 부분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13쪽, 2022년 국고 지원사업 101건에 1,126억.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고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의원

13쪽이요. 국고 지원 예산 확보 추진.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은 해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올해 우리 군 재정예산을 보면 내년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신청해 놓은 것이고 이 중에서 몇 건이 선정될지는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 의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군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국도비 반납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매칭이 안 돼서 못한 사업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조금 95억 정도도 반납을 작년에 했었죠? (예)

그런 부분 왜 반납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매년 한 60~70억 정도가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까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든지 애당초 사업 시작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사업 이런 쪽에..... 사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월되지 않고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훈 의원

매년 이런 예산들의 반납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그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잘 정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필요 없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냥 삭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안 되게. 그래야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진

짜 우리 군이 건전재정이 되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다 해서, 간단히 부족한 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이것에 대해서요. 2019년도에 홍보비 예산을 그때 뽑았을 때 약 25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르게 해봐라, 홍보전략을.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항상 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과 올해..... 올해는 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작년과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2019년에 비하면.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그때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략을 어떻게 그때와 다르게 하고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2019년도하고 명확히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는 다발성 홍보전략을 세웠다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는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시청률이 높고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TV 방송을 통해서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이라든지 SBS 만남의 광장, 또 6시내고향이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전북이라든지 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중앙매체에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얘
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이대로, 운영하
는 것을 이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앞으로도 아마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기 때
문에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대
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담당관님은 완
도의 현실이 어민들이 살기 좋다고 보십니
까?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힘들다고 보십니
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겠습니다. 저희 같
은 경우도 생산량은 많이 증가되었는데 소비
는 안 되고 판로는 없고 어민들이 굉장히 어
려움이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면 전북이 완도지역의
경제적인 버팀목으로 하고 있는데 완도 경제
의 몇 %나 이것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십니
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완도 경제로 따지면..... 제가 그것까지는 아
직 %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한번쯤 적어도..... 간부직원들이면 한번쯤
그런 것을 파악해 봐야지. 그래야 만이 완도
군의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약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것도 정

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대강 어가에
비해서..... 어가가 한 2,600 정도 될 것 입니
다. 거기에 부양가족까지 따르면 3명만 잡아
도 약 한..... 제가 생각했을 때 7,000, 8,000
정도 돼요. 거기에 치패장이 있어요. 전복 씨
를 하기 위해서 치패장에서 상주하는 인원까
지 하면 그것 굉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유통
업체들이 완도군 어디든지 다리를 거칩니다,
전복을 취급하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엄청나죠. 거기에 전복어민들을 선별하는
데에 가서 선별을 도와주는 인원들이 또 엄
청납니다. 이것 저것 하면 약 40% 가까이
돼요, 우리 인구에서.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앉아서 뭐라
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
라 우리 이것 파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앉아서 서로 오
가는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들어봤어
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듣고 있습니까.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적어도 전복으로 인해서..... 섬마다 젊은 사
람들이 있어야 애들 울음소리도 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도 되고, 경제의 버팀목도 됩니
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해양
치유산업 한번 있지. 또 밑에 보면 해양치유
산업이 또 있어요. 또 7페이지를 보면 해양치
유산업이 있어요. 여기에 전복 한 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해양치유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요, 완도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는 우리 군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우리 특산품은 특산품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복 같은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해양치유는 3번이나 들어갔는데 전복은 안 들어있다고요. 지금 해양치유산업 우리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오면 지금 당장 받아서 할 것이라도 있습니까?

전복은요.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업무보고 중에서도 단 한 줄이 없어. 해양치유는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어민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 적어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먼저 적어도 알아야 그런 것, 이런 것 생각해 낼 때 참작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의원님, 참고로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서 방송에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KBS 라디오에 1일 한 5번 정도 라디오에 나가고 있고 또 TV에서 홍보하기 위한 부분은 영상을 제작해서 아마 이달 중에 영상이 방송에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도가 다른 관광업이나 자연적인 관광자원.....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명사십리, 청산, 보길도, 항구도시 완도 이런 것이 다 어디로..... 해양치유만으로, 오로지 완도는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렇게만 가지. 무엇을 해도 해양치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완도군..... 지금은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커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만약 이런 것이 무너지면 인구정책, 지역경제를 해양치유가 대변해 준대요? 생각 좀 잘 하십시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업무보고도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죠. 잘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취임하자마자 청렴도에 대해서..... 우성자 의원이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고요. 제가 12월에..... 아, 2월에 세 가지를 제가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통해라, 이 세 가지를 주력으로 놓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의원님께서 2월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쪽에 일부분 넣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지만

제공을 받는 일반 군민들도 있습니다. 이 군민들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만이..... 불필요한 요구를 공직에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롯해서 그전에는 공직자들을 위한 청렴교육에 국한했다면 올해부터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찾아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충민원처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아마 8~9월에는 현장에 나가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자발적인 청렴에 대한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싶어서 1부서 1청렴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직렬별 간담회라든지 신규 직원과의 대화 등에서 소통도 넓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소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 지적해서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이나 실무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알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정도로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제가 많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문제는 왜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통을 해야 되느냐고 그때 간단하게 했었냐면 이것은 팀과..... 담당관님 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째 군수님부터, 두 번째 의회 의원인 나부터, 전 공무원들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특히 리더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나요?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요? 알잖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분야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분야가 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인사니 뭐니 해도 타 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타 군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지. 우리도 읍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직원들 당연히 잘 알고 다 대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만이 있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아니고요. 적어도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박인철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신문에 한창 뜨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예방접종, 저것을 가지고. 저런 것도 하나의 청렴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아니면, 잘못했으면..... 청렴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시인할 줄 알고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니면 반박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죠. 왜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아,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자꾸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자기들은 도청에 가서 확인을 했다.”, “우리 군에 가서 인터뷰를 다 했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또 속았구나, 의원들도 속았구나.” 이렇게 본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에 불신이 쌓여서 청렴도도 안 된다는 얘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니면, 아니면 강력하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면 깨끗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요.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라 아무래도 미스도 있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주민참여제란 적어도 시민들이, 군민들이 이 참여예산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도 알고 군민들도 알고 이것을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만큼 주고 군민들한테 자유스럽게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했던 똑같은 식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면 예산과 비교해서 많을 것 아닙니까, 양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작년, 재작년에는 실링을 줬었고..... 작년에는 실링을 안 주고..... 작년에는 실링을 주고 올해는 실링을 안 주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달을 정해서 예산 편성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자발적인 신청을 먼저 밟는 절차를 한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것도 만약 100만 원의 예산인데 20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것을 가지고 조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에 할 때는 조율도 한번 해보고 “아, 그래야 내가 하는 사업이 맞구나. 저쪽에서 신청한 저것이 더 낫겠구나.”라는 이런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것이 의원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신청을 받아서..... 참여예산제위원회 총회가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청취불능) 같이 놔두고 저것은 누가 봐도 저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 사람 전체를 오라고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가 있기 때문에.....

○최정욱 의원

기왕이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부만 하니까 자기네들은 소외를 받는 거예요. 이것 그냥 참여하는 것인데 안 되니까 “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것 뜻에 맞게끔..... 기왕이면 오라고 해서 같이 해서 “아, 내 예산이 별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이면 잘했다는 보람도 갖게끔 이렇게 해야 투명하다는 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신청자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것들이 자기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예산을 하면서 느껴야 맞죠, 군민들도.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그런 것이니까 기왕 하는 것..... 기왕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을 일 없잖아요.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 상징물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동백나무, 꽃은 동백꽃, 새는 갈매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이 수산군임에도 군을 상징하는 물고기는 없죠. 물고기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어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상징물고기를 지정해서 군민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은

참조기, 함평군은 뱀장어, 충북 단양군은 쏘가리, 부산 기장군은 멸치, 경북 영덕군은 황금연어를 지정하여 지자체 홍보 및 판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광어축제를 열어서 제주 광어 인지도 향상 및 판매 촉진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도 국민 횡감으로 인기가 높은 황금광어 선정을 많이 하고.....

요즘에 광어가 판매되지 않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우리 군 물고기를 황금광어랄까, 대표수산물 상징성을 부여해 가지고 판촉 홍보랄까 그런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이 부분은 상징물고기, 어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잘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바는 이것이거든요.

(자료를 들며)

지금 울릉도도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국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산대표 군이기 때문에 상징 어류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홍

보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황금광어 판촉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종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들도 대두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 설문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침을 세워가지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라고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 정체성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정한 어류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상징, 문화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국내 최대 수산군의 위상과 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이 보고하여야 하나 신병 치료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해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보고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가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양치유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은 적정하다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용역결과검증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17일 완도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고, 6월 14일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 2차 협의 중으로, 검토결과 통보 시 7월 말 설립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치유센터 내 장비, 소모품 등 필요한 목록과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각종 장비 운영 매뉴얼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월 중 설립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최종 공단 설립 결정 후 8월 중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 공단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타 시군 공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완도군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

고 향후 임원 공모 및 임명 후 2022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설립 등기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사업 인수인계 후 최종 3월 말까지 공단을 출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산림치유원, 유사 공단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치유시설물 확대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 해양치유산업 원년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착공과 준공,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등 본격적인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선포식을 지난 3월에 해양치유센터 착공식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12개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각 읍면을 찾아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지속적인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위해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해양치유산업 특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해양치유산업을 바로 알리고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투자 유치와 함께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참여하는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입

니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만성질환자 등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구축시켜 해양치유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딸라소풀, 해수미스트 등 5개의 기본테라피실이 있으며, 2층에는 스팀샤워, 해조류입욕테라피 등 11개의 전문 테라피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자원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조달청 단가심사 및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지반 및 파일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실 및 테라피실 설계변경 완료하고, 건물의 기초 및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장비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2022년 준공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산 해양치유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다도해의 청정바다와 난대숲을 이용해 추진 중인 약산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물속건기 치유시설인 해수크나이프와 해수욕탕, 치유데크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의원님들의

민생탐방 시 의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휴양·치유 중심의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 유치 목표액은 8,000억 원입니다. 투자 주요 시설은 해양치유호텔&리조트,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EAP센터,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이며 대상기업은 아난티, 동원건설, 영동그룹, 호반호텔&리조트 등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지난해 6월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교환을 완료하였으며, 리조트사업 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현황조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호텔&리조트는 신규 투자대상 2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지 해양치유단지 내 호텔&리조트 투자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사업 대상지 경계측량 및 리조트 운영사 등을 선정하고 사업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리조트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골프테마파크 사업 대상지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해양치유호텔&리조트는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투자 대상 업체

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력 투자자는 지속 방문 관리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관련 해양치유단지와 해양바이오연구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PPT 자료를 제작 완료하고 투자유치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난 6월 28일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내 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관련 6개소,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내 기업연구소, 스타트업 관련 19개소 업체가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하반기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양치유산업에 적합한 투자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기후,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명상, 해변 엑서사이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래찜질, 다시마팩, 꽃차, 해양치유 음식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관광객보다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관광객 및 일반인 대상 몸&힐링 해양치유체험은 12회 운영했고, 대외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35%의 관광객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 기관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챌린지 프로그램에 단체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읍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도 10개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 해양치유체험존을 7월 23일부터 24일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델타형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8월 4일까지 운영하고 조기에 종료하였으며 1,973명이 체험에 참여하였고 강사는 자체 양성한 지역강사 23명을 투입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단체 챌린지 프로그램, 마음&치유 가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경증 어르신,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우리 군만의 독특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치유의 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및 관리입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성된 강사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강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힐링명상 등 총 87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로서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노르딕워킹 중급 지도사 7명을 배출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로는 15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르딕워킹은 완도수산물 방과후 수업 및 완도 교육지원청의 햇살마루마을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해움마을학교, 경제교

통과 행복마을 공동체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중급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강사들을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중급자격자 배출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전적으로 지역강사를 투입시켜 실전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해조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소와 스타트업센터 건립 등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 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사업에 착수해서 과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공동협력연구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 또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함께 치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완도 건강기후지수 개발, 개인 맞춤형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10월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관광객과 지역

민들이 활용 중이며, 올해 3월 해양기후치유 센터 건립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노르딕워킹 초급지도사 역량강화교육,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숙박형 프로그램 등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만의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임상실험을 8차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정밀 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산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신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치유체험 시설인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건강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올해 3월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6월 신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해양치유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건강체크업 시스템 개발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 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만의 해양문화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문화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인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문화치유센터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명사십리 제2관리사무소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문화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치유 지역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 설립 지원사업과 해양치유 어플 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마을 관계자 현장 인터뷰 및 의견 수렴들을 통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11월 청산면 마을 리더들의 제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산면, 신지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어플을 개발하여 치유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생산·연구 거점단지 조성 및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육성위원회 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해양바이오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 유치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해양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해양수산부 신규 국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바이오 국제협력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협력연구사업 공동참여로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제당 15억 원의 사업비로 톳 추출물의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와 의약품소재 개발 갈조류 유래 항염증, 항생, 면역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사료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 기술 교류와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국제공동협력과제로 완도산 톳 활용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국내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계획서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국제협력 연구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최종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자원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 해썹시설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소재 품질관리를 위한 QC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신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2월에 신규 국고 지원사업 총사업비 25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GMP 개념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국장님, 생소한 업무를 보고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버리던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인철 의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보니까 해양치유 전체를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가지고. 여기 업무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다마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하는 말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해양치유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느 자치단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착실히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말씀은 좋고 계획은 좋으나..... 맞습니다. 누구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작년, 그 작년에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팀장님, 전남개발공사와 웰컴 용역사와 같이 유럽에서 최고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3박 5일 코스로 갔다 왔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했던 해양치유, 과연 이것이 내가 프랑스에 가서 본 해양치유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군민들에게 해양치유만 되면 백년대계고 농어업, 수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인구 증가까지 해가지고 완도 먹거리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것 군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프랑스에 가서 보고 온 것이 그것만 보고 왔습니다. 노르망디에 있는 로스코프 유럽 최고라는 연구소 한 군데에 들렀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군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제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과제를. 그 용역사 대표이사가 저한테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프랑스에 가니까 독일에 가자고 합니다. 독일은 안가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아까..... 조금 전에 최정욱 의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해양치유산업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각 실과에서 보면 모든 것의 타이틀이 해양치유입니다. 완도가 해양치유밖에 없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단 설립에서 해양치유산업과 완도타워 관리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해양치유산업이 89.57%, 완도타워 58.73%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본의원이 수차례 거쳤던 얘기입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묻겠습니다. 5월 3일에 공단설립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해서 검증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가 5명으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구성했고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이라든지 인력분석 등을 해서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제시된 분야별로 적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검증 심의결과, 적정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보니까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해양치유산업의 수지비율이 89.5%, 완도타워가 58.7%로 모두 공단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사업 중에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만이 공단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평가원에서 대상사업에 향후 5년간 수입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방금 %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민선 8기가 들어서서 2023년도에

도 타당성 용역결과와 같은 경상수지 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경상수지 비율이 낮아 공단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7개월에 거쳐 연구·분석한 결과를 판단해서..... 적정으로 판단되었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에서 18개 항목을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경상수지 100% 달성할 때까지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단은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군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용은 군에서 일정부분 지급하는 수탁법으로 운영되고요.

○박인철 의원

아니, 이것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일정부분 아니고 100%입니까?

아니, 작년도 10월 질문답변 시에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공단을 설립하는데 1억만 있으면 나머지 경상비는 전부 다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운영비에서 다 충당된다고 했는데.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군에서 매년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해년마다 얼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매년 11억 5,000..... 2022년 설립 초기에 창업비라든지 집기, 비품 이런 것을 포함해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부담되고요. 연평균 9억 4,000 정도 소요됩니다.

○박인철 의원

그런데 54명인가 56명인가 채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경상비를 빼고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다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군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박인철 의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1년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업무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업무보고에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영부영하면 1년에 한 70~80억이 공단에 소요된다는, 대략적으로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1년에 순군비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순군비도 1년에 3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연간 공단에 출연·출자하는 출연금이 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거기에다가 방금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했던..... 다 이런 건물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쉽게, 좀 과장되게 100억 정도

는 우습게 들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40억 정도는 그렇더라도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하는 SOC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또 주민들 복지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농업, 수산업. 조금 전에 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순군비가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히트펌프나 인버터사업 이런 것들, 다 삭감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고요.

공공투자예산 2,000억 중 순군비 투입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공단 출자금을 100% 군비로 부담하고. 상황에 따라 공단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국장님은 걱정 안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산업화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2,000억 원하고 민간투자금 8,000억 원해서 1조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기후치유, 문화치유,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치유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해수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원격진료 등 바우처 연계사업도 꾸준히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센터 건립도 국비가 50% 되고 도비 15%, 군비 35% 모든..... 여기를 보면 거의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거의

35%, 도비에서 한 15% 해서 8%, 7%씩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런데 국비를 무슨 목적으로 받아온다는 말인지, 받아오면 좋겠습니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일례의 예로, 여기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국장님, 전남 보성군 울포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이것 알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480억 투자된 지 알죠. 여기도 해수부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해양치유하고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성에서는 이것을 고흥까지 연계해서 여수까지 간다고 합니다. 고흥에서 만약 이런 사업들이 되면 과연 우리 해양치유 입장료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5만에서 8만 원, 더한 것은 더 넘어갈 텐데 과연 그런 돈은 서민들이 얼마만큼 여기 해양치유에 와서 체험을 할 것인가. 암담합니다.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서비스를 특화시키고요. 고급화시켜서 많은 참가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너무 가슴도 답답하고 해양치유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민들 피 빠집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에 투입된 예산 조금만 우리 어민들에게 투입되면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 전복이 안 나가서 어민들이 이제 적조 들어온다, 고수온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죽어 가는데 그런 데는 전혀 우리 군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해양치유에만 올인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군정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과 공단 설립 등 2개 안을 가지고 판단 후 공단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지금도 일정 기간 직영으로 운영한 후 기업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경제성,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그 공단 관련해서..... 잠깐만요.

○박인철 의원

아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류로..... 답변할 것이 있으면 서류로 해주십시오.

임원 추천인을 구성하여 이사장을 공모한 후 임명하고 그 후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죠, 공단이 설립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전복주식회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화돼서 성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분식 행위하고..... 의회에 와서도 전복주식회사..... 의회에서 7대 때 특위까지 구성했는데도 전부 분식행위로 해가지고 다 장난쳐버렸잖아요. 우리 군이 1대 주주인데 그것 관리 감독을 잘못했잖아요. 대표이사가 바뀌지니까 얼마씩 이익을..... 어민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구먼. 대표이사가 바뀌니까 갑자기 10억, 없는 적자가 나와 버린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역의 여건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완도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합니다. 즉 인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해양치유처

럼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은 세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지난 4월에 해양치유산업 인력양성 및 채용을 위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1차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요. 스파라든지 테라피, 관련분야 인력현황 및 운영정보 등을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공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단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해양치유산업은 미래완도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본의원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러한 사업들이 변방의 한 쪽에서 질타를 받을 때는 민선7기 집행부 책임자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것 누가 이런 것들을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가 건물만 안 세우면 몰라도 막대한 예산들이..... 우리 군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4쪽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관급자재 수급 문제하고 만조 시 지하외벽, 해수 (청취불능) 지하암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질상 문제, 만조 시 수면에 지하 4M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지하 16M에 모래 암반화가 발생돼서 지연됐죠? (예)

그것 다 해결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조치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미리 설계할 때 지질조사가 안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질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박인철 의원

그래서 3월 착공 후..... 저번에 저도 박희선 전문위원님하고 김광호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밑에 모래가 암반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준공기간도 늦어지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마무리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급하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박인철 의원

급하게 추진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의원이 3회에 걸쳐 해양치유센터 건립 장소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지질의 문제, 태풍 안전성의 문제, 또 해양치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도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딱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가 치유하러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잘하겠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 인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태풍에 따른 안전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물 내구성, 그다음에 향후 부식성, 노울 성파도 대비 건축물 높이 이런 것을 설정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해양치유 산업 치유숲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인철 의원

별도의 사업이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환경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항목의 치유센터는 어떤 용도인가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산 해양치유센터 치유의 숲에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크, 산림체험 등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겠네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여기도 인력이 채용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환경산림과에서 3명의 치유지도사로 산림치유를 포함한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해양치유..... 치유의 숲에는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를 같이 관리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렇습니다. 별도로, 치유프로그램 치유지도사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의원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장소입니다. 장소에 못지않게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한편 마케팅 부족 등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그 시설물은 훌륭한 사물로 변하여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해양치유담당관실 투자유치팀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에 설치된 투자유치팀은 해양치유산업에 관련한 (청취불능)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다른 전반적인 우리 군 투자유치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우리 군 전반적인 투자유치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보고서에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에 2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군에서 직접 모집한 업체입니까? 업체들이 알고 참여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설명 좀 해주시죠.

○투자유치개발팀장 전문희

(좌석에서)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한 업체들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

투자설명회 이후에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나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그 상황은 공유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다시보기로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기대 이하입니다. 약 47분간 진행된 설명회가 군수 인사말씀, 담당관의 해양치유산업 추진사항 설명, 해조류박람회 영상을 시청하는데 약 35분이 걸렸고, 정작 참여자 사전질문에 대해 두 팀장이 답변한 시간은 약 10분에 고작 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유튜브로 하긴 했는데 조회수가 고작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141건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올라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본의원은 온라인투자에 참여한 업체들이 진정으로 해양치유산업이나 해양바이오산업에 관심과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이후에 비대면이나 아니면 대면 상담업체는 몇 개의 업체나 있나요?

○투자유치개발팀장 전문희

(좌석에서) 저희와 줌으로 참여한 업체는 한 6개 업체이고요. 나머지 25개 업체 중에

서 19개 업체가 비대면으로 신청한 업체입니다.

○박인철 의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개발팀장 전문희

(좌석에서) 대부분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군에 대한 땅 문제라든가 토지매입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민자투자이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사업자가 이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LA 하버드부동산 조양래 대표와 레지던스를 건립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개발팀장 전문희

(좌석에서) 지금 레지던스 관련은 투자유치설명회 자료를 그 업체에다가 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못 나오고 계시고 있는..... 앞으로 원하시는 것은 대행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시행사를 찾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 이후로는 뭐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개발팀장 전문희

(좌석에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고생들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먼저 우리 군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디어디 회사에서 MOU를 해가지고 얼마를 투자한다, 뭐를 얼마 계약을 체결했다. 금방도 다 되어 버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OU 아무

법적조치, 의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론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되고 나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툭툭.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듯이 던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그것을 믿고 금방 뭐가 이루어질지..... 지금 진도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와 가지고 일일 2,500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일. 그러면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설립되면 우리 군도 되겠다고 그러고, 연관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들여다 보면 그냥 MOU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투자설명회를 위한, 개최하긴 위한..... 일시적으로 참여시키는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업무에 있어서 해양치유산업 관련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족하면 담당팀장들이 대신 해줘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군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또한 본의원

도 걱정이 돼서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치유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부터 7년에 걸쳐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양치유산업만이 완도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홍보하고 해양치유과에 6개 팀을 개설하여 군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 맞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과를 만들어서 했겠어요? 적극적으로..... 행사장이든 어디든 가면 “해양치유, 해양치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해양치유, 해양치유.”라고 하니까 이제 군민들도 스스로 “해양치유를 위해서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만큼 기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국장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보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완도군 부담액이..... 1년에 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9억 4,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기업평가원에서 향후 5년간 수입탄산을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주니까 한 것

아닌가요, 우리 쪽에서?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자료를 제공했고 또 공기업평가원에서 조사를 해서.....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준 거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에 의해서.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닙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시설들을 찾아서 사례를 검토해서, 비교해서 아마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것도 매우 심각한데요.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지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 계산으로 매년 적자가 9억 4,200이라고 (청취불능) 나왔지만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20억에서 30억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타당성검토 용역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9억 4,200만 원 부담 외에 설립자본금, 창업비, 집기 및 비품들, 차량운반비는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부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적자로.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그 빠진 내용들이요. 공단 설립 자본금 하고요.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공단 임시사무실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9억 4,200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런 내용이.....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9억 4,200에는 자본금, 창업비, 집기 및 비품 차량운반비가 2022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9억 4,200이라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창업비용을 제외하면 8억 7,200에 5년 평균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9억 4,200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별도라고 나왔어요, 평가원에도. 거기에 보면 우리 군 부담액 9억 4,200에 그 밑에 그것이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그것이 연도별 운영적자.....

○최정욱 의원

아니, 운영적자 말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9억 4,200..... 자꾸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써져 있어요. 이것은 별도라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져 있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8억 7,200에는 인력만 들어가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것이고요.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9억 4,200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8억 얼마인데. 이것이 지구별 4개만 해도 그때 4억, 5억인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이제 그것을 5년 평균으로 나누면.....

○최정욱 의원

그것을 가지고 또 5년으로 나눈다는 얘기에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9억 4,200이 된 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해양치유센터 산업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건물과 집기, 감가상각을 매년 그만큼 충당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것만 이대로 지어서 하고 마나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여기 보고서에 최초 창업비용 외에도 320억 원의 공사비용 중 빠진 것이 집기라든가 장비 또 가구 이런 부분, 또 소모품 같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내년에 소요될 것 같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감가상각은 최초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데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반영되어 있는 용역에는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용역이라고.....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년에 매년 얼마 적자가 날 것을 보는 것이지, 감정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보통 사업은 뭐든지 건물이라든가

노후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감가상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도 하게 되고 노후화된 것을 고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모든 사업은, 그 건물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하고 마려면 몰라도 이것을 계속하려면.....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을 시키고.

그 수명을 이렇게 보면 건물을 보통..... 국장님도 그런 것을 대강 알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어떤.....

○최정욱 의원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이제 뭐 수리하고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최정욱 의원

여기에 안 들어가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보통 건물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치유센터 같은 경우 유지보수를 계속 한다고 하면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정욱 의원

50년. 그러니까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년으로 보자고요, 50년으로. 30년, 40년, 50년을 보고 내가 금액을 뺐어요. 30년을 보면 한 11억이 되어야 되고, 40년을 보면 8억 5,000, 50년을 봤을 때는 6억 5,000이예요.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면 정말로 길게 본거예요. 안 그래요? 건축을 해봤으

니까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로 본 것이죠, 50년이라면.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했을 때.”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볼 때 30년, 5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사업은 30년이 맞는 것이 30년 변화가..... 우리가 예전에 말하자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30년이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질지 몰라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이 30년 넘어도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한 30년을 봐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본 거예요. 지금 말한 건물 같으면 50년은 기본적인 건물을 놔두고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보통 30년은 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1년에 이것만 해도 한 11억은 총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그리고 또 보면, 2020년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타워가 그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운영하는 인원만 60명이고 2교대씩 8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60명이고 2교대 했을 때 80명, 2교대 단위.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2교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료를 들며)

이것이 군에서 뽑은 자료예요.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팀장들 누가 알고 계시나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저희가 당초 2020년도에 공단 설립 계획을 잡을 때, 그 당시에는 당일..... 그러니까 한 타임으로 운영했을 때는 60명, 2교대 시에는 8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타워가 빠졌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완도타워는 저희가 공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서 완도수영장하고 완도타워가 포함돼서 평가된 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했는데 이번 공단 타당성 검토에 보면 타워인원 8명을 포함해서 51명으로 보고 공단 검토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타워를 제외한..... 1교대라고 하더라도 60명이었다가 타워 8명을 빼면 51에서 8을 빼면 약 40 초반이 되는데요.

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사업..... 공단 설립에 대해서 의뢰했을 때 공기업평가원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만 가지고 평

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회계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도타워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영은 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최정욱 의원

팀장님, 타워는 지금 하지 마시고. 타워는 이따 또 나오니까.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뢰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단으로 간다는 것은 수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2교대보다는 1교대로 돌리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인력을 줄이면 40여명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들었나요? 그때 내가 몇 억 든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다 허구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군민들이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다 허구잖아요, 지금.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지금 이제.....

○최정욱 의원

아니, 나는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들한테..... 의회에 보고하고 할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용요금

이라든가 이용객수 그리고 식음료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이 전부 단가들이 바뀌다 보니까.....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그 용역은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 준비만 대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아니, 2개의 용역평가기관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고,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국내에 있는 사례라든가 평균 매출 또 지출 부분을 평가했지만 각각 바라보는 부분들이 달라서 수입과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이 달리 나오는 부분.....

○최정욱 의원

팀장님, 이따 그 문제도 나오는데요, 그 문제도. 문제는 그때 용역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용역도 했어. 이것을 건의하는 사람들, 그 팀이. 그랬잖아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고 했을 때 용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제일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배가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몇 년간 해온 예산이며, 우리들한테 보고한 것이며 군민들한테 설명한 것이 싹 허구가 돼죠, 지금.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공단평가원 이 자료만 가지고 맞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죠, 그렇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쪽 용역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의뢰를 했던..... 간단하게 말해서 수입단가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3만 6,000원하고..... 12만 원이었는데 심사라든가 용역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만 4,000원하고 9만 8,000원..... 기본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지금 경우는 18% 정도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든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요. 이용객 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기본 프로그램이.....

○최정욱 의원

예, 예. 팀장님, 그것은 이따 하고요. 지금 인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 부수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이 안 맞고 지금은 이것이 맞다는 얘기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지금 방문객 수라든가 아니면 면적 비율.....

○최정욱 의원

아니, 방문객 수를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공단평가와 우리 용역과의 다른 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51명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단을 해서 시작할 때 오픈 시간.....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과 마감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2교대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30분에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인원들이 거기에서 출근해서 그것을 준비하고요. 그러고 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인건비를 가장 수지분석상 맞출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실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이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우리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8시간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시설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비스 차원이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6시가 아니어도 7~8시에 와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딱 시간에 맞춰서, 8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끝낸다. 그러니까 인원을 거기에다가 맞춘 거잖아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저희가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정욱 의원

그러면 관광객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추후 일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후에 최종 결정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평가원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365일에 2주만 수리할 때 쉬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에요, 맞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쉬는 날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지금 그.....

○최정욱 의원

이것이 공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쉬는 날도 없지, 시간도 안 맞는데 숫자도 반절로 줄었어요. 오히려 예전 숫자가 맞아요. 2교대 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수에 맞게끔 시간도 맞춰서 하고 이것이 맞아요. 그때도 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 숫자를 다 해보고 검토해 보니까..... 다 해봤다고, 사업 자체를. 건물이 아니에요, 저것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서 딱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쉬는 날도 없지. 어떻게 직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어떻게 혼자..... 2교대를 하면서, 20명을 가지고 어떻게 2교대를 해. 그것도 쉬는 날도 없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용역결과보고서상에는 쉬는 날 없이 보수기간이 2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은 정기 휴무일을 줘야 만이 사람 근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최종 단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도 나중에 조정하는 부분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그렇잖아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인원은 충분합니다.

○최정욱 의원

진짜 충분해요? 쉬는 날 이런 것도 다?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그리고 성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가 알바를 이용해서 보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상황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라든가 설명해 드리면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은요, 시작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무조건 2교대를 안 하면 직원들 반절 이상, 한 30명 총당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뽑아서 용역을 해본 그것이 맞아요. 거짓말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도저히 내가 봐도 검토해도 안 맞고. 우리들은 사업을 수없이 해봐서 알아요. 행정공무원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직원들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아니라고 해도 기간제 어찌고 하는데 이것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자,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것 감가상각비, 직원들 투입, 이것이 이 공단 설립 타당성에 전혀 안 맞아. 여기 기준에 맞춘 것이지, 이것은. 내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맞아. 아마 지금보다 이것을 하면 배 이상 아니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서 이 정도 적자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알리면서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좋은 점만, 공단과 직영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알맹이들은 다 쏙 빼놓으면 군민들이 어

떨게 알아요. 의원들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나도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것도 진즉부터 이것을..... 사업이니 만큼 잘해야지 하면서도 한 가지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아니,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결과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이 나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치유산업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운영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 매년 적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5년간 평가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매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첫해는 그렇다고 봐요. 첫해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26년..... 1년을 보면 우리가 25%씩 할인율을 하더구먼요, 그렇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할인율이 없어져. 그러면 할인율도 줄어들지. 사람도 많이 온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2026년 5년 후면 돈이 되어야 맞죠. 이것이 잘되어야 맞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2026년에는 할인율이 없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영한 지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했구요.

그런데 단, 방문객 증가율을 기본..... 매년 0.1% 약 60명씩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커지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25년도에 적자가 더 나는 그런 기이한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것이 팀장님도 말했 다시피. 그러면 5년 후에도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된다고 보세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니, 공기업평가원에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획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5년 이후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평가원에서 5년까지만 해놓으니까 또 5년 후는 열심히 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니, 평가원에서는 목표액의 60%만 잡았 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노력해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 한 번 볼게요. 국장님, 해양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보면 1차 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수입이 52억, 지출이 51억으로 1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발생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또 10년 후에는 121억 수입에 지출 95억, 26억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도 또한 허구인가요, 그렇게 했

던 것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니, 그 부분은 해양치유센터 기본.....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산출된 자료입니다. 연간수지 분석을 했을 때 이용객이 10만 명, 프로그램 (청취불능) 그렇게 기준을 해서 수입 운영.....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현재 공단 설립 시 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경우에는 해양치유센터 2차 중앙심사 시에 재검토해서 금액을 낮추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60%만 반영하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낮췄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평가원도 나름대로 그쪽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예요, 이것이. 최종으로 마지막 모든 것을 해서 결정을 지어놓은 것이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첫해부터 1억씩 적자해서 5년 후로는 적어도 10억 이상 내겠다고..... 10년 후로는 26억을 흑자를 내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다 했던 내용들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도 지금에 와서 “아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당초에 용역을 했던 업체하고 또 이번에 평가원에서 한 업체하고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의원

국장님, 솔직히 적자 이런 것을 다 인건비를 제대로 해서 하면, 공단 승인을 받으려면

경상수입 금액의 50%는 되어야 공단 승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결론을 보면.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왜 아니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넣으면 50%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런 것을 넣으면.

그러면 결론은 공단 승인되면 그만이에요. 우리 군 책임이지.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한 거예요. 단 1원도..... 결산을 12월까지 해서 100만 원이 손해가 났다면 100만 원을 다 넣은 거예요, 우리 군에서.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공단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 했을 때는 공단 승인이 절대 안돼요, 50%가 안 넘으면. 타워도 내가 조금 이따가 말해 줄 건데요. 예전에 보면 외국사례를 들어서 5,000인구에 1일 5만 인구..... 지금도 군수님은 3만 일자리를 금방 생길 것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잘되는데 적자가 5년 후에 납니까? 그것 말이 안 되지.

국장님, 사실 나는 의원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볼 보듯이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예요. 의원으로서 바로 잡아야죠. 그냥 보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고..... 이런 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저희들도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군비를 최소화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

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치유산업이 꼭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이요, 공단을 해놓고요.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어민들이 다 죽어가고. 완도 천연의 자원, 명사십리가 됐든 항구도시가 됐든 청산이 됐든 이 천연의 하늘이 준 자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도 있어요, 한다고 하면. 당장 항구만 조금만 개설하고 가꿔놔도 그것이 하나의 관광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청산이고 명사십리고 완도도 다 죽어버렸어요. 해양치유만이 유일한..... 완도하면 해양치유, 누구든지 말을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아닙니까, 이것?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관광이라든지 어업기반, 어민소득 증대 분야에도 힘을 쓰고 병행해서 해양치유산업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국장님, 왜 이 공단 설립만 고집하나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분야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해서,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단으로 설립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공단이 더 어렵죠. 직원들이요, 가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솔직히 사기업들은 안 그래요. 내가 시간이 더 들더라도 1시간, 2시간

더 일도 하고 합니다마는 공단은 자기들도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뽐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단인력 채용은 공단 이사장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공개 채용하기 때문에.....

○최정욱 의원

아니, 어차피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직원이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타워는 왜 포함시켰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타워는 당초에 해양치유산업이 미운영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사업을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타워를 포함시켰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타워가 랜드마크예요, 우리 군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저런 데는 우리가 지정해서 돈, 예산이 얼마 들어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요. 이것 공단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앞으로 모든 관광시설들이 공단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아까 우리가 인원이 타워는 10명이고 공단으로 할 때는 6명이라고 하는데. 본청 2명은 본청에서 근무하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닙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최정욱 의원

아니, 지금 타워 현재.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타워에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10명 포함이.....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6명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타워에 산정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9명입니다.

○최정욱 의원

현재요? (예)

지금 본청 직원 말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팀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내가 알기로는 10명이 본청 직원 2명까지 해서 그러던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완도타워에만 9명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9명..... 필요 없는 직원들을 놔뒀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업무량을 다른 사람들이 더 나눠서 하면 인력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진짜 관리는, 타워는 그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더더욱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타워만 관리합니까, 이 분들이. 주위도 안 합니까? 주위까지 다 한다고요?

타워 인력이 현재 타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워 주변도 관리를 다 해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공단에 가서 6명으로 해냈을 때 가서 할 것 같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씩 계절에 따라서 채용하고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정욱 의원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아. 그 인원을 안 하면 안 되고. 타워는 진짜로 랜드마크고 누구든지 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타워예요.

아니, 저런 것이 공공성이예요, 저런 것이. 이 공공성을 왜 여기에다가 끌어들이어서, 사람을 줄여서..... 오히려 이것이 더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인원을 더 줄여서 하니까 53%인가요, 타워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53 점 몇.....

○최정욱 의원

53 점 몇 %죠? 거기에다가 직원 하나만 놓으면 50% 미만이 되어 버려요, 여기도. 임의적용에..... 당연적용이 있고 임의적용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그렇게 넣어서 하면, 1명이라도 들어가면 50% 미만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론은 공공성보다도 평가원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50% 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것은. 어떻게 랜드마크인 타워를 갖다가 사람을 줄여서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의원들이 허수아

비인가요, 거수기인가요? 진짜 우리가 관리할 데가 타워인데. 오면 어디예요, 랜드마크가. 완도에 딱 오면?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공단을 한다고 하면 해양치유에 관련된 것을 하려면 다 관리를 해야 맞죠. 해양치유 자가 들어가면.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좀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단으로 출자하게 되면 수지분석을 추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야지, 일괄 관리를 해야지.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예산도 얼마 드는지도 알고 무엇도 다 아는데. 저런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떼어놓고 또 이쪽에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해양치유에 대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말만 다 해양치유, 해양치유라고 해놓지.

솔직히 국장님이 공공성이라고..... 군수님도 저번에 그러는데 과연 무엇이 공공성인가요, 해양치유센터 저것이?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우리 군민이나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뭐든지 그 정도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공공성이란, 즉 말하자면 도로, 상하수도 아니면 여기.....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뭐라고 하지,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즉 말하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 30%밖에 안 나오죠? 그런 데를 왜 하겠어요.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하고 다 하니까.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공공성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센터는 우리 군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기에는

가 공공성을 말하나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되기는 있죠, 되기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더군다나 할인해서 군민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정욱 의원

원목적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닙니다. 군민들이 최우선이고요. 나중에 부수적으로, 나중에 2차적으로 관광객입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군민들한테 한다면 그렇게 떠들어 댈 이유가 뭐 있대요. 우리 군민들한테 한다면 그냥 저렇게 지어서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떠들고 한대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군민들 건강증진이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다 했던 말들이 허구라는 얘기죠.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 공단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에 또 가게 되어 있던데, 공단 설립 타당성을 보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직원 1~2명은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보면 우리 군 직원 13명 정도를 인원 감축할 수 있는..... 이것이 공단이어서 된다. 13명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 말은 제가 처음 듣고요.

○최정욱 의원

아니, 공단 설립 타당성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해양치유공단이 설립되면 군에서 부수적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은 5%, 최대 2명까지만 파견이 가능하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조직 내에 있는 시설팀이라든가 아니면 기획팀은 모든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 치유담당관 인원에서 축소되는 인원이 더 감소된다는 사항.....

○최정욱 의원

13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뜻인데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그것을 해양치유센터 공단에다가 파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 재배치 개념으로.....

○최정욱 의원

아니지, 구조조정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감축되는 것으로, 13명의 군 직원.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단이 설립되면 저희들 업무가 말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고. 그것은 군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요. 또 인력 감축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최정욱 의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런 효과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을 해요.

결론은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애기지.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한두 명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공단평가에 13명이라고 딱 나와 있어. 그 13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솔직히 한다고 하면.

그리고 국장님의 생각에 공단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직원이라고 생각할까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닙니다, 거기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당연히 계약을 공단 이사장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최정욱 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평가원을 할 때 우리 직원보다 2등급 이하로 설정해서 해요? 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아니, 그것은 임금 산정할 때 공무원들보다 2등급 밑으로 봉급을, 임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임금을 책정할 때 일반직보다.....

○최정욱 의원

모든 것이 임금을 낮추고 공무원 월급이 오르는 기준에 맞춰서 다 되어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하라고 이렇게.....

○최정욱 의원

그렇게 인상을 한다고 나왔다니까, 그렇게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다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평가원에서 그 용어를 쓸 이유가 없죠. 뭐하러 그런 것을 쓴대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 직영을 할 것이냐, 공단 설립으로 할 것이냐. 2개를 가지고 비교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4급이 우리 군에서는 6급이 되고, 또 F단계를 넘게 평가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임금 체결한다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의 약 95% 수준 그렇게.....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인상률이고 뭐고 여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원래 제 일대로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자회사 즉 말해서 일반 업체들이 하는 기준에 맞춰야지, 한다고 하면.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기준을 우리 군 공무원으로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말씀 그대로 공단도 말 그대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최정욱 의원

그렇죠.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그냥 이것이 잘못된다면..... 공단, 솔직히 만에 하나 잘못돼서 해산된다면 우리가 설립했으니까 우리한테 귀속되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것은 아닙니다.

○최정욱 의원

왜 아니예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것은 별도로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최정욱 의원

그래서 아까 그런 기준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저희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설립단체 귀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해산되면,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평가원에.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저희들도 공기업평가원 책임연구원하고 통화하고 관계있는 변리사..... 공인노무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전혀 없다. 다만, 공단.....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공단이 해산한 사례는 국내에는 없는.....

○최정욱 의원

아니,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공단 설립은 지자체들이 시설이나 공원관리 이런 것에만

공단을 하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공단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이런 해양치유산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최초 목적 자체가 공단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공공성을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부분을 투영하는 기관이 공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산한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솔직히 직영은 안 되잖아요. 뭐하러 직영하고 공단하고 비교해서 해요? 직영해서 할 수 있어요, 직원들 채용해서 할 수 있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정욱 의원

어렵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것을,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직영하고 공단하고 비교표를 해요.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것 또한 우리 의원들을 속인 것이나 똑같지, 뭐예요. 안 되는 것을 왜 비교해요?

그래 가지고 직영으로 했을 때 1년에 2,000 얼마씩 이익이 돼서 언제는 이렇게 되니까 직영보다 공단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때는 이것을 안 보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왜 이것이 안 되냐고 총무과에서 받고 보니까 직원 총량제가 안 되는 거야, 직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그 정도는 다 의논하고 했지, 안 했겠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이제 직영상의 문제점이 직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정욱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이잖아. 그때 다 이야기하더구먼, 나한테 솔직히 말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인사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최정욱 의원

그것이 여유가 있었다면 직영을 했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인력을 뽑으면 공무원이 직접 직영했을 때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전문성 결여,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단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할 때 의원들을 좋게..... 보면 안 되면 직영을 굳이 넣어서 비교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하려면 전문경영인하고 공단하고 했을 때 차라리 비교표를 해야 맞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직영은 다 할 수 없어, 직원 총량제에 걸려서. 이미 직원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말이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비교해서 “이래서 공단이 더 나으니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것을 보고 나도 그때 처음에는 “아, 그런가.”라고 했죠. 왜 직영을 안 했을까 생각은..... 그러다가 왜 안 했을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보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한테만큼은 적어도

안 되는 것을 굳이 와서 보고할 이유가 아니지,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바꾸느냐는 애기지.

안 되면 직영, 그러면 직영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직영할 수 있어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직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왜 넣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비교해서 공단보다..... 아니, “직영보다 공단이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냐는 애기예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공단 비교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할 때는 직영하고 공단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최정욱 의원

차차리 공사를 비교해야지, 공사. 공사와 공단을, 그래야 안 맞아요? 비교해서 하려면 공사와 공단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비교해 가지고 차차리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그것 그렇게.....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단을 설립해서 하려면.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의장님. 중요한 것인데 시간을 꼭 맞춰서 해야 되나요?

○의장 허궁희

시간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의장 허궁희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당겨서 마무리를 해줘야..... 다른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라도 질문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정욱 의원

이것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솔직히 서로.....

○의장 허궁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고, 이것은 군정 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분씩만 잡아도, 한 의원이 20분씩만 잡아도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6시, 오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물론 의원님의 그 마음은 압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의장 허궁희

우리가 일정을 맞춰놓은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줘야 일정을 맞춰나갈 것 아닙니까?

○최정욱 의원

언제부터, 나 사실 이런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을 처음 듣습니다마는.....

○의장 허궁희

우리가.....

○최정욱 의원

전반기에 할 때ですよ.

○의장 허궁희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가능하면 20분 내로 한 의원이 마무리를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정욱 의원

왜냐하면.....

○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냐면 마무리 시간은 다 되어 가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한번씩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까지 줄 수 없게 돼서 최정욱 의원님께 양해를 얻는 것입니다. 그만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최정욱 의원

예, 의장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가 한 시간 더..... 아니, 내일이라도 업무한 시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내가 언제 본회의장에서 길게 하겠어요? 나 웬만하면 짧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50분 가까이 의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최정욱 의원

사실 나는 2시간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군정 질의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전혀 발언권을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정욱 의원

내가 요청할게요. 오늘 좀 그러면 내일 더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허궁희

그러면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하고 내일로 연기할까요, 마무리를 늦더라도 할까요?

○박인철 의원

아니, 저기 내일까지 갈 것 있습니다. 의회는 꼭 6시라고 퇴근시간..... 뭐 급한 것 없으

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죠. 그리고 준비했으면 준비한 것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했으면 합니다.

○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한 의원이 이렇게 너무 오래해 버리면 다른 의원이 기회를 못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나누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계속 하십시오.

○최정욱 의원

공청회를 할 때요. 공단설립 타당성 이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 내용은 제가 참석을 못해서.....

○최정욱 의원

그랬죠? 타당성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죠,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감가상각, 인원이 더 늘어났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들한테도 안 알리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실무직원이 나와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서.....

내가 잠깐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뭐라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져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공단을 설립했을 때 본청 해양치유과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양치유담당관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아, 치유과는 그대로 또 갑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인력 구조조정 관계는 인사팀에 그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치유담당관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센터라는 근무 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조정은 1차적으로 된다고 보고, 최종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예, 하여튼 저도 간단간단히 할게요. 필요한 것은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면, 시중에 도는 소문을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미 해양치유센터 직원들이 이미..... 소문에 의하면 다 짜졌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거든요. 군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누구 들어올 사람들 채용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런 말들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고요.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식으로, 정식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서 혹시 일부러 공단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도 말이 나와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욱 의원

아닌가요? (예)

그런데 실제 그렇게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군요.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개채용을 통해서.....

○최정욱 의원

그런 소문을 들어보셨죠, 국장님?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랬나요. 내가 신문에 나온 것도 가지고 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말하면 좀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니, 몇 가지만 물어보고. 공단을 설립했을 때 우리 군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요, 해양치유센터를 하면?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공단을 설립했을 때 관계는, 고 팀장이.....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공단을 설립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십니까?

○최정욱 의원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공단 설립과 군에 도움 개념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왜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고용 창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치유산업, 특히 그중에서 해양치유센터라든가 기후문화 치유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하기 어렵고요.

○최정욱 의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체는.....

○최정욱 의원

아니, 공단을 말하는 거예요. 공단을 설립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새로운 신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소비, 이런 부분이 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치유센터에서 사용되는 완도산 농수축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최정욱 의원

팀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저도 지금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완도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완도타워가 완도군의 랜드마크 이듯이 또 다른 완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추가로 생기지 않겠느냐.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치유센터가 랜드마크로 됨으로써 신지고..... 아니, 명사십리를..... 예를 들자면 완도항이고 청산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아까도 이제.....

○최정욱 의원

치유센터 이것이 모든.....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아요, 적자가 얼마나 나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치유센터에 들어오는 관광객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보면 약 8억 7,200이라는 적자가 표시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소비들을.....

○최정욱 의원

아니,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게 적자가 나서..... 잘되면 왜 적자가 나겠어요, 계속.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와서 아까도 공공성을 말하지만 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뭐를 또 높이고 할 거예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체가 해양기후 치유를 가지고.....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뭔가 딱 집어서 말하면.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에게 저희가 50%의 금액을 가지고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현재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줄만큼 뭐 기대가 있냐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완도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최정욱 의원

수영장은 다르죠. 수영장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수영장에 군민 외에도 또 외부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원래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말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자꾸 말을 그러면 나도 길어지지, 또.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치유센터는 군민들에게도 공공적인 의료는 아니고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좋습니다.

또 역시나 공단을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절감되나요? 예전에는 수입이 되니까 오히려 군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직영 대비해 가지고는.....

○최정욱 의원

아니, 직영 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 처음에, 옛날에 용역보고를 했을 때는 이익이 되니까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예산이 과연 절감되느냐고요, 안 되죠?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최초 용역 보고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3억 7,200이라는 적자가.....

○최정욱 의원

그것뿐만 아니지.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이 다 허수아비가 되게? 이것 많은 적자가 나버리지. 예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라고 했을 때 꼭 공사도 있고 우리가 전문경영인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공단을 했을 때 꼭 그렇게 된다고 보나요? 공단으로 됐을 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나요?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최초에 저희가 직영과 공사, 공단, 민간위탁까지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례 같은 경우 신안이 민간위탁을 맡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신안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1년 5개월 만에 직영을 했다가 직영 2년 만에 다시 공단, 또 1년 만에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양치유 부분이..... 해양치유뿐만 아니라 관광이 어떤 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민간보다는 공단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하려고 하면 이것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공단 설립 전제로 무리한 추진을 한다면 우리 군에 막대한 혈세로 큰 부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있다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홍보하고 보고한 것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그런데 달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것 그때 그랬다.”라고만 하고 가지.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우리가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책임질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지금 같은 현상이지.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전에도 용역 보고나 이런 것 보고한 것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보고도 다 하고 해놓고도. 그러면 의원들은 뭔가요, 군민들이 물어보면 다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저요, 지금 이것이 경영위탁,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 싹 하려고 했는데 이리다가 오늘 날을 셀 것 같으니까 빠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할게요. 이것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역동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풀리지 마시고 보여주기가 아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해양치유센터 경영운동을 결성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좋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이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의원들은 뒤로 당하고 그때하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도 한 한 시간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하고 내가 다음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발 충분히 알리고..... 정말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죠.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맞죠. 모든 것을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고 서로 불편하죠.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예, 의원님. 그런 논의는 앞으로 설립심의회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해서 공단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토론해서 정말 올바르게 가야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의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짚지 못하고 가면 우리는 평생 욕을 먹
잡아요. 직원들이야 끝나면 끝이지만 의원들
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군수님보다
우리 의원들한테 말해요, 다. “너희들 뭐했
냐?”라고, “그것 관리, 감독을 못했냐?”. 꼭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안봉일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정인호

한희석

고영상

박창희

안태호

김성수

황창령

천종실

차재철

정광민

서길수

이성용

이복선

이용신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자치행정국

- 총무과
- 주민복지과
- 여성가족과
- 민원봉사과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 총무과

○총무과장 한희석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큰 울림으로 보답하는 소통공감 행정

을 실현하고자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군민과의 소통시간을 다양하게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가뭄 대비 식수대책과 전복 소비대책 마련을 위해 노화, 보길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5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완도읍 민생현장을 실시한 바 있고 6월에는 고수온, 적조 대비 전복양식 현장 방문과 우체국 집배원 및 택배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서 폭염과 고수온 대비 민생 현장 방문과 계층별 소규모 간담회 등 군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4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 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방안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는 총 9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1차 실무심사와 2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심사로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3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중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친절문화 확산입니다.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주민의 기대치 또한 민간서비스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 친절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객소리함을 통해 친절·불친절 사례를 수집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매월 칭찬공무원 선정 시 저희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 등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 원스톱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민원후견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월과 6월에는 군수와 함께하는 직렬별 간담회, 신규 공무원과의 대화 시 작은 실천으로 군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사이버 필수 교육 개설 및 전 직원 이수로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민원만족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취약분야 재교육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협력하는 건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기반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는

후생복지위원회 심의회 개최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양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해 그동안 실무교섭을 통해 마련된 기초안을 중심으로 지난 6월에는 완도군 공무원노동단체, 8월에는 공공연대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노총과 시군구 연맹과 함께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판매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런 단체와 함께 지역 특산물 전복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합동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상생 발전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확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타 지자체의 모범 운영 사례를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 복지, 편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노화읍과 신지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신규 설치되었고, 신규 설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전문강사 초빙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도 공모를 통해 1,250만 원의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를 보길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의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정원 관리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기준, 우리 군은 정원 735명이고 현원 677명으로써 결원은 58명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는 일반 직공무원 735명과 무기계약근로자 379명을 포함해서 총 1,114명으로 866억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인력충원 상황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원문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3회에 걸쳐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직과 보건직렬 공무원 20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또한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시 예견되는 결원을 대비 1.5배의 신규공무원 충원 요청을 실시하여 금년도 공개경쟁채용으로 75명을 선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실시된 제2회 전라남도예 임용시험 결과 선발 인원 64명 중 4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아쉽게도 해양수산, 보건, 시설, 통신기술 직렬에서는 합격자 미달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필기시험 합격자 중 보건직렬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7월 26일 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직렬은 8월 31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으로 9월 중에..... 10월 중에 임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시험은 9월 중에, 제4회 시험은 11월 중에 실시하여 행정, 의료기술, 해양수산, 운전 등 총 11명이 추가 임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채용으로 충원하지 못한 직렬에 대해서는 하반기 우리 군 자체 경력채용을

통해 신속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조직, 직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개 직렬, 280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 일부는 금년 하반기 인사 때 그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우리 군에 200명 이상의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됨에 따라 신규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1~2년차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군수와의 직접 대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과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 공무직과 부서 및 읍면 서무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사이버상시학습과 독서상시학습, 전화외국어학습 등 우리 군 위탁교육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880

명의 직원들이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드론교육 대상자 12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교육훈련기관의 집합교육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내려왔으나 하반기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수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대상자를 매월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우리 군 위탁교육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교육프로그램 확대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류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과 국내 자매결연 단체는 서울 양천구를 포함한 총 9개 지자체입니다. 국외도시 6개를 포함해서 총 20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교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단체와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화성시와 상호 방문행사를 추진하여 유통체계를 간소화한 전복, 광어 등 수산물 직접 판매와 화성시 궁평항 직판장 내에 완도군 특산물 판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화성시와 특산물 교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우리 군 특산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천안시와는 공무원

노조와 연계해서 전북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도시와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 추진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교류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외교류는 상황호전에 대비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국 향우회 상생발전 협력강화입니다. 완도군 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포함하여 총 6개 향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향우회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직접 대면보다는 사안에 따라 비대면 중심으로 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명절 모두름춤 운동과 귀성·역귀성 자제운동 등의 참여협조를 구한 바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지원으로 우리 군 특산물인 전북·광어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남도엔 맛과 멋이 있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향우회와 전북생산자협회와 연계해서 현재 전북판촉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특산품 팔아주기 운동과 더불어 군정 주요시책 참여 등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SNS와 또 완도군 향우회 사랑방을 통해서 향우회와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단체와 협력체계

를 강화하여 우리 군 역점사업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 자원을 활용해 특화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도 직접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지난 4월에는 3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로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수산양식기술 전수 등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북측도시에 제안한 바 있고, 경문협에서는 북측에서 우리 군 사업 아이템을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응을 전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호전상황에 대비해 우리 군에서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협력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완도군 번영회 등 51개 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1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난 2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개 단체 14개 사업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개의 법령단체에 6개 사업 1억 4,300만 원과 완도군 번영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6개 사업 1억 1,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2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공감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복지포인트 15억 8,700만 원을 포함 총 2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규시책 출산축하포인트 지원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13억 5,000만 원과 건강검진비 3,100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41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취미클럽과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17건이 진행되고 있고, 세부현황은 17쪽부터 18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현재, 완료된 소송은 17건으로 승소 13건, 조정 1건, 일부승소 2건, 패소 1건으로 승소율은 94%가 됩니다. 진행 중인 주요 행정소송으로는 노화읍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으로 1심 패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노화 구도 연도교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2심과 대법원에 최소 승소한 바 있습니다. 청산 상수도 공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송사례를 공유하여 직원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 체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으로 민생규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비전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2월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상반기 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관내 3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부처에 규제혁신 과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입법컨설팅 활용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위임사항 증가에 따라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치법규를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조례 387개, 규칙 79개 등 520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여 총 5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고 5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건의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5년 주기 경제총조사와 1년 주기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 조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신속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군외 불목마을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스마트케어 기반구축과 스마트센터 1동, 힐링하우스 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건축공사 및 스마트케어 기반구축 사업을 착공했고 3월에는 주요 통신사 사회공헌 사업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LG 유플러스에서 VR체험시설 4억을, KT에서 AI바리스타와 스마트자전거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협약 유치활동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6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및 말벗서비스 시설을 구축을 완료했고, 5월에는 스마트센터와 힐링하우스 건물에 대한 준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

진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시설들을 완료하고 8월 중에 선터동에 있는 ICT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주변에 있는 소공원과 텃밭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9월 초에 VR체험과 AI바리스타 설치 및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오는 9월 개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서주민의 정보화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소안도 개매기마을, 금당도 갯벌섬마을, 보길도 예송마을 3개 마을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자립화 지원을 위한 설맞이 비대면 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하여 현재 4,437만 8,000원의 특산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우수정보화마을인 나주 평야마을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스마트크리에이터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센터를 지역거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추석 특산물 행사라든지 농·수·축산물 한마당에 참가해서 지역민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생활밀착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에서도 온라인수업, IPTV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과기부 주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결과, 지난 2월 금일 총도와 노화마안도 2개소가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 초고속인

터넷망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초고속인터넷망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9월 과기부 주관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현장 합동점검 실시 후에, 10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총무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쪽, 공직자 친절문화상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고 그러면 (청취 불능) 5년 되신 분이 군청에 들어왔는데, 일을 보러 들어왔겠죠. 누구 하나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4번을 들어왔는데 갈 때마다 민원 건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누누이 저희들이 공직자 친절을 주문하면서도 공무원들 개개인에 따라서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불친절한 직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불친절한 이미지,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공직자 친절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직자 스스로 자가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전화민원 응대하고 민원인

환대 부분이라는 것을 공직자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총무부서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한 것은 아니고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려민원 한 건, 한 건 잘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청렴도 이런 것들이 행정에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리함을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고객소리함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읍면에 총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건 정도, 그 5건 정도가 보통 친절 한 사례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제일 고민한 부분이 고객소리함은 현재 엽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책 같다. 그래서 요즘 민원인들이 대부분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친절하든지 불친절하든지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는데, 고객소리함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맞습니다. 요즘 고객소리함은 어떻게 보면 구형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불친절하다든가 그러면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바로 SNS라든가 바로 글을 올려버립니다. 그쪽으로 표출이 많이 되고요. 소리함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 친절하신 분들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역으로 하위권에 있는 분들, 전혀 제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의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각 부서라든지 읍면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차피 조사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나 자료를 보면 엄청 강하게 가더라고요. 크게는 직위해제를 시

키는 이런 부분들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진짜 교육을 시켜서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다음은 6쪽, 7쪽 조직관리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현 결원이 58명으로 올해 초 업무보고 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총원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원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청취불능)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7월에 총무과장으로 처음 와서 고민한 부분이 이 결원 예측 부분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작년 결원율하고 올해 결원율은 거의 흡사합니다. 보통 1년에 50에서 60명, 지금 현재는 70명까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총원계획을 수립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5명을 요구했고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할 때도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직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들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신속하게 뽑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95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이

휴직 관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완도군 같은 경우 전출 제한만 끝나면 타 지자체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전출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어차피 이 결원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결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이 64명으로 33명이 행정직, 절반입니다. 행정직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충원을 요청할 때는 결원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행정직 결원이 38명입니다. 38명이 결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33명을 요구했지만 저소득과 장애인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없어서..... 현재 전라남도 공채시험 합격자는..... 30명의 공무원이 합격했습니다. 어차피 결원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행정직 중심의 충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훈 의원

어떻게 보면 완도군은 수산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군인데 수산직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읍면에 가도 마찬가지로 본청도 마찬가지로. 수산군인데 수산전문직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수산직 같은 경우는 총 52명이 정원인데 현재 49명,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해소가..... 올 연말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 복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구정원..... 연말에 기구정원을 의회에 요청할 때 이 직렬별로 인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가는 데마다 이렇게..... 우리가 수산군이라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단위는 수산전문직이 거의 없는 면 단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거의 잘 몰라요. 그러면 민원들이 어디에다가 물어보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산군이면 수산군에 걸맞은 인원배치를 해주시고요. 다른 사업부서나 시설부서나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부분,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충원해서 민원에 충실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중기 지방인력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매년 1월 1일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인력 운영계획을 짜게 되어 있고. 저번에 김양훈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사항을 매년 12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는 우리가 기구정원을 변동할 때는 의회에다가 어차피 조례를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차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해

서 직렬별 간담회, 행복토크, 설문조사, 또 이번 인사 때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은 보셨어요?

○총무과장 한희석

예, 내용을 봤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얘기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한희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를 할 때마다 목소리나..... 인사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나오느냐. 인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인사는 승진과 전보로 나누어지는데 전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승진에 대해서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승진 후보자 순위를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 홈페이지에 따라서 보니까 아마도 5급 승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직원들의 결원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는 부서장님들의 고민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들이 평정자로서 먼저 평정을 하고 나면 국장님의 확인까지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인사권자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작성하기에는 부서장, 국장님들의 고민시간이라면 이 배수 안에 들어있는 승진대상자들의 고민은 인사부서와 또 인사권자의 고민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리가 비게 되면 7명의 대상 후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7명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승진하고 나면 여섯 분은 당연히 아쉽고 서운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목소리들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로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맞습니다. 인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만족하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인사가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왜 일을 하면서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이것이 뭐겠습니까? 불만입니다. 근평관리를 참 열심히 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배수 안에 들어서 다음번에 승진하겠다. 전부 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하고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금방 김양훈 의원님이 대충 짚었는데, 저는 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하고 23쪽 스마트 치유마을에 대해서 준비한 것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는 조직 간, 직원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간 간담회, 행복토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에게 100% 만족은 없죠. 아무리 해도 절대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달라는 부탁보다는 그때그때 인사할 때마다 다르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어떨까. 가정과 그 사람의 그때그때 상황,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참작해 줄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녀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공무원 승진 시 갑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본인 혼자 육아병행 시 승진 시 갑지도 있고. 또 부부공무원 중 배우자가 읍지에 근무 시 육아를 위해 여성공무원은 갑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이상 갑지 전보, 이런 규정도 있고. 기타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정된 사항,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꼭 그렇게 집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이었을 때, 이 위치에 해당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내 상황으로 봐서 어디 갑지로 가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벗어나서 됐을 때는 많이 실망하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애로점도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 줘도 절대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런 원칙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것들을 특혜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육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직원들에게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 올해 들어 공직사회 내에서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육아 부분, 자녀양육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직사회가 폭넓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들한테

테도 그런 혜택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분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다른 인사야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틀은 꼭 지키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을 2020년 군정 질문 때도 치유마을이 조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마을운영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엇그제 가봤거든요. 치유센터마을에 가봤더니 건물은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내가 듣는 바로는 운영위원이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말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지난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스마트 치유마을 현장에서 저희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박인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저에게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분명히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성자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불목마을 농촌휴양체험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님이 원래는 전직..... 작년에 이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이장님 중심으로 마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마을에서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결론을 내리셨고요. 전 이장님께서서는 이것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 위탁을 시키더라도 개인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중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불목리 김득호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벌써 이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농촌 개발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단합이 잘 되어도 중간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해이해 집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무슨 혜택을 볼 것이냐. 또 그 건물 위치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바다도 안 보이고. 뭐 5분이면 완도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넓고 좋은 펜션도 많이 있는데 과연 누가 여기에서 잘 것인가, 치유를 위해서 잘 것인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작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마을에서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가보니까 AI 로봇도 있고.....

○총무과장 한희석

예, AI바리스타가 있고요.

○우성자 의원

또 자전거도 많이 준비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이것 고민을 해보셨죠?

○총무과장 한희석

스마트 해양치유마을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기본적인 것이고. 당초에는 이 스마트 치유마을을 완도수목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승마 뭐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고민했구요. 아울러 더 깊게 고민한다면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바로 앞에 불목 폐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거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9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 단체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저한테 개별적인 보고보다는 저는 과연 이 건물이 잘 운영될 것인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모든 것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가 2번 가서 본 것으로는 앞에 화단도 엉망으로 자라있었고, 나무는 죽어있었고. 그 안에 시설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자동화 로봇 같은 것을 밖에서 봤기 때문

에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어느 단체한테, 어느 개인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이 자체부터가 저는 참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해진 마을에서 안 되니까 어느 개인 또 단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것 자체부터 많이 어긋나지 않았냐.

저야 이 사업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에 이런 건물을 지어주고 잘되면 좋은 일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위탁을 줄 때도, 운영 위원들이 할 때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소득도 나고 우리 주민들이 그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 조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봐보십시오. 이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민선5기와 민선7기 공무원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직이 85명, 공무원이 201명, 기간제가 74명 등 2014년 대비 41% 총 36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인구수는

4,000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특별한 행정수요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총액인건비, 현재는 기준 인건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매년 제시합니다. 올해, 최근 3년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제시한 인원수가, 최근 3년간 69명을 우리 군에 기준인건비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 29명, 2020년 같은 경우는 26명, 올해 같은 경우 총 14명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시해 줄 때 행안부에서 국가시책에 대한 정원과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원을 고민해서 우리 군에 이렇게 제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그런 식으로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은 그러면 기간제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일반정원이 87명.

○박인철 의원

일반정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수요.....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일반정원은 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공무원, 기간제가 배로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라는 그런.....

○박인철 의원

그것도 잘 알아요. 공무원이 기간제에서.....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죠,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기간제들은 됩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기간제는.....

○박인철 의원

기간제들도 보면 방금 말했던 중앙부처에서 한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한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제들도 내년에 2년이 되면 공무원으로 전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과거에는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군에 부담이 엄청 들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계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했다면 지금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원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방금 김양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무원 수가 41%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결원이..... 물론 육아휴직이고 병가고 그래서 그런다는데, 계속 현장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웃긴 거예요.

○총무과장 한희석

결원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 여간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까지는 책임지

고.....

○박인철 의원

각 부서마다..... 물론 해조류박람회 이런 데에 파견을 나가서 그런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공무원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각 부서나 각 읍면에서는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그래서 의원님,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주면 100% 주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 주는데. 저희들이 제시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문제는 의원님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에. 올해 상반기만 해서 3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결원의 원인이 대부분 휴직입니다, 휴직. 휴직이고 또 나머지는 전출이거나.....

○박인철 의원

아, 그래서 이것도 다 인정한다는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5년 근무해서 7급 정도 되면 도 아니면 중앙부처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벌써 2014년도 민선5기 보다는..... 그런 여타 모든 것을 다 놓더라도 민선 7기에 362명이나 공무원이 됐든 정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이 행안부에서 국가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많이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

력을 인건비라고 해서 제시해 주는데 그 인건비를 100%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박인철 의원

과장님, 요즘에는 기간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기간제가 월급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공무원으로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기간제보다 월급이 더 높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좀 보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다 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구수도 줄어들었는데.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지표가..... 10개의 행정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인력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인철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 다 알고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한희석

아니, 그러니까요.

○박인철 의원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늘었는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는 3명, 4명 결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최근 5년간 공무원 증감현황, 증감요인 등을 부서별로 작성해 가지고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대비 인건비가 21억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간제와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한희석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완도군에 14명 더 올려주면서 21억이..... 제시한 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철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중 김양훈 의원님이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평가와는 관련이 없나요?

○총무과장 한희석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인건비 절감도 노력사항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반영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파견이 5명인데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파견은 교육파견이 4명인데요. 전남인재개발원에 6급 2명, 교육 2명 관련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5급 1명, 6급 1명, 그리고 교육파견이 4명이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1명이고 그렇습니다.

○박인철 의원

교육도 파견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교육파견으로 갑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 산하에 공무직이 많은 것 아시죠, 금방 370명이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했을 것입니

다. 또한 섬으로 구성된 지역의 여건상 관리해야 할 시설물들이 여러 곳에 배치된 관계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놓은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은 저도 공감합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이..... 370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인력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저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어저께 해양치유를 했는데, 거기 공무직만 해도 계속 채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의원은 공무직 채용은 더 이상 멈추고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근무지 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중에는 협업부서, 격무부서에 배치되어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출근해서 하루종일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성이 동료들로부터 자자하게 들립니다. 이 또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현안을 시급히 파악해서 통합하더라도 무방한 곳은 통합관리를 하도록 재배치해서 더 이상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꼭 조직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행정 어렵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어렵습니다.

○박인철 의원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이 답입니다.

공무원들이 재직하면서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저 또한 그랬고..... 우리 직원들에게 보통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것을 승진으로 보상받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박인철 의원

그렇습니다. 진급 또는 보수 인상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근무평가 대상자는 먼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추진결과에 따라 근무 실적평가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을 평점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의 경우에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등 8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항목별 기준을 보면 평가 시 객관성보다는 평정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아예 없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 평정규칙에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굉장히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장님이 직원들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평가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고 원칙이니까 믿겠습니다.

근무평가를 개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성적 평가는 어느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승진명부 작성이라든지 또 성과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주로 인사에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근무성적은 경력평가, 가산점 평점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로 작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이 또한 개인들에게 알려주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미래희망이 진급이고 그 기준이 근평과 승진후보 순위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승진후보자 1순위가 되었는데 1순위임에도 또한 2순위,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과장님, 그 입장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실망감,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근평 1순위인데 승진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 데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서운하고 실망감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근평이 상위 수준에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의 허탈감, 실망감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한희석

아니, 조만간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이 언제 올까요?

○총무과장 한희석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총무과장 한희석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조직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이것이 승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승진명부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해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6급 이하는 아까도 보고해 드렸습시다마는.....

○박인철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근무평점에 의해서 근무 순위가 결정되는데,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승진명부 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쪽 해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승진 순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5급하고 6급은 어떤 차이입니까? 6급 이하는 근무성적 순대로 하고 5급은..... 물론 인사권자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근무평점이 전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뜻이니까. 그러나 왜 근무평정을 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인사는 군청만의 인사가 아닙니다. 군민들에 대한 인사도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는 진실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허구가 있기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들, 당사자들은 서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 고민의 시간이었다면 승진명부에 대해 배수를 선택하는 부분은 인사부서와 부서장, 인사권자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하여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참고적으로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물론 승진후보자가 배수 안에 있어서..... 누구라도 승진시켜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되는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순위 등은 지켜야 될 전부입니다.

과장님, 지역신문 기사 중 근평 (청취불능) 기사 보셨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공정인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공정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번 인사는 6급 이하 승진을 대상으로 하고 직렬별로 배려하여 잡음이 최소화된 인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 조직에 대한 배신감, 업무추진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인사 시 업무 외적인 요인이,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사 시 업무 외적인 요인이 작용되지 않도록 피드백을 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인사부서장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희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다음은 15쪽, 맞춤형복지 혜택 관련입니다. 과장님, 본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관내 소상공

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옷가게는 하루에 옷 한 벌도 팔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금년도 복지포인트 예산이 15억 8,000 정도 됩니다. 복지포인트를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복지포인트 일정액을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과 한번 협의해 봤으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시기상 어렵다면 내년에도 좋고요. 이것은 꼭 공무원노조하고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컨설팅 완료가 4건인데 신청하면 성적이 되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면 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법제처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컨설팅 절차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법제처에서 회신이 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이것이 짧게는 한 달 이내지만 보통 2~3달 정도.

○박인철 의원

저도 의원발의를 하면서 컨설팅을 받았던 조례들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유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애매한 규정들도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다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출향인 지원 조례는 동료의원인 김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한희석

아, 그것은 의원님께서 상반기 때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상당히 이렇게..... 활발히 하셔서 가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김양훈 의원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저희들이 관리부서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출향인 지원 조례는 김양훈 의원님이 한 조례가 맞고요. 또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던 것도 맞고요. 관리부서 표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조례를 법무통계팀으로 제출하면 법무통계팀에서 재검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조문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과정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 등 15건입니다.

먼저 1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드높여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독립유족회 등 11개 단체로 단체운영비, 호국 순례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15 독립만세운동, 한국전쟁기념행사 등 9개 호국 보훈 기념행사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보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호국보훈행사인 고금 군경충혼제례행사, 박창근상사추모제, 6.25 기념행사는 취소하였고 66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참전유공자 363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개시하였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보훈대상자 7,216명에게 3억 6,500만 원의 보훈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각종 호국보훈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완도읍사무소 뒤 완도읍 군내리 1243번지에 2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40평방미터, 지상 4층으로 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 건

립이 그동안 세 차례 무산되었으나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20년에 국비 4억 5,500만 원을 지원 확정 받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보훈회관 건립 관련 보훈단체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BF 예비인증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9월 착공 후 내년 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대상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자 전우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이며, 회원은 2,651명입니다. 사업예정지와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약산항일운동 기념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면 장용리 685번지에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고 2019년 9월에 준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산면 항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약산면 장용리 576번지 외 6필지를 도지사 특별 조정교부금 4억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확장사업, 주차장시설, 부지 내 건물 철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공원 확장사업이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산교육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4,56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군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로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행기관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6,36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시대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64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회 지원, 기초연금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70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 기초연금과 밑반찬 배달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11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응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 우울감 해소를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3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사업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일자리 사업은 2,165명의 어르신들이 사회 공헌형, 소득 창출형, 인력 파견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소를 비롯한 3개의 수행기관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8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과 참여자 소양 및 활동교육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단계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장 현장 안전 지도점검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1개소, 장기요양 제공기관 28개소로 총 4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주거복지시설에 16명, 의료복지시설에 301명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에는 1,102명이 주야간보호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과 중점관리를 위해 생활시설 12개소에 1대 1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물품 제공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길로댐의 집 30인 시설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와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로당 등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경로복지센터 53개소를 포함하여 총 307개소이며,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비, 난방비, 양곡 지원,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기에 지급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8억 6,100만 원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대학 230개소에 여가지도사 23명이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방침 등을 준수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도군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군외면 삼두리 산 87-2번지 일원에 5만 2,044제곱미터에 공설묘지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에는 유무연고 묘 1,869기와 추모공원에는 봉안담 1,508기, 수목장 23기, 잔디장 11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 사용중지 상태이며, 현재 운영 중인 추모공원의 봉안담, 수목 장지 등의 추후 이용 가능기간은 1회 15년으로 3회 6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사시설은 2019년부터 완도군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추모공원 주차장 배수로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설묘지 공터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공터 주변에 꽃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겠으며, 우리 군의 추모공원 봉안담과 자연장, 그리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이용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장례 편의와 수요 충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한 질병, 부상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75% 미만, 재산 1억 100만 원 미만,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며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 지원 120건, 의료 지원 49건 등 총 191건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사업 홍보와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에는 읍면 및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 환경정비 등 13개 사업에 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완도지역자활센터의 경우 8개 사업에 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 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환경 및 집수리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생활용품 및 밑반찬 지원사업, 이불빨래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1,015건을 발굴하여 가구별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자원개발과 연계를 통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복지재단은 이사 15명,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복지기금 관리와 복지자원 발굴 및 배분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50억 원의 기금 출연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품으로 총 87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9만 1,322명에게 23억 6,900만 원

의 배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 공적 지원으로 부족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2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자료 등을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072명, 기초연금 대상자 1만 4,635명 등 총 2만 9,861명에게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74억 5,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생계비 37억 4,300만 원, 장제비 3,900만 원 등 총 3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보장급여 4,357건을 신규 신청 받아 보장 결정하였으며, 매월 복지부에서 제공한 가구원 수 및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1만 3,56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21세대 21명을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753세대에 8억 4,4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19세대에 1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총 64세대에 대해 집수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현장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연중 관리하여 한 분도 누락이나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요. 간단히 제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완도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 전부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100가구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것 의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지금 들어온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가구 이상들이 많거든요, 내 정보에 의하면 거의.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요.

방금도 노인인구 비율이 33.7%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결론은 앞으로 복지라는 것이..... 노인인구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노인인구가 경로당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많이 아마.....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그러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그 설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지과에서 봤을 때 주택계보다 복지과가 더 잘 알 것이라는 얘기에요. 구조상이나 어떻게 시설해 놔야 편리하겠는가, 이것을 같이.....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민원봉사과장님 여기에 왔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좌석에서) 예.

○최정욱 의원

봉사과장님,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오면 반드시 복지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경로당을 복지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비도 절약되고 또 기왕이면 경로당을 갖추면서 바로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집기 같은 것도 그쪽에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 경로당이 바로 들어와서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또 우리 군비가 다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군비도 아낄 겸 또 건물구조가 될 때 제대로 되어야지. 안 되면 이것도 또 뚫고 다시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좀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건축주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축건물은 원래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설계하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마는 입찰차액금이나 아니면 마을에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 없을 경우,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들어서 시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을 꼭 협의해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대한 할 때 자기네한테 한 것도..... 건축주들이 그것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두 번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6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것과 2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활,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한다고 민선7기 공약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뛰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쪽 인근에 있어야 만이 연결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근처 땅을 매입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평가액하고 거래액에 2배 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몇 번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몇 번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부지는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가격이..... 전답이다 보니까, 건물이 있으면 거기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편차가 2배나 크니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유지나 학교폐지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자 의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성자 의원

2배 정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총사업비와 재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뭐 국비 있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라남도에 9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계속 도와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총 한 21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거기에 있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장비기능 보강사업까지 하면 (청취불능) 우리 군비를 한 74% 정도로 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군비가 74%면 엄청 높네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우리가 어찌겠습니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것을 시설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전라남도 9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신축배정 물량은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우성자 의원

그러면 부지만 확정되면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가 금방 끝나가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그러면 다른 방도는 도저히 전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유지하고 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정안 댐을 때는 신지 동고리 초등학교 부지 매입할 때도 보니까 올렸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교통편의가..... 주민들하고 멀어서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방안으로 거기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청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민선7기 내에 완공은 어렵더라도 그 안에 사업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

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통합조사·관리 추진은 올해부터 많이 완화되었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법령 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48명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자식이 있는데도 변변치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마을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관찮은데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마을 담당자인 이장하고 읍면 담당자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잘 알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매년 한 150건 정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보통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못하고 있는, 생계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법과 괴리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복재단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층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건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는 부양의무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실제 어려웠던 사람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806%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쪽, 보훈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보훈회관을 9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BF 인증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쫓고요. 용역이 끝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9월 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건립 예정지가 완도읍사무소 뒤쪽이

죠? 5일 시장에 위치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청취불능) 사무실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지을 예정입니다.

○이범성 의원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각종 행사나 장날이면 통행이 매우 불편한 그런 교통 혼잡지역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 이후 보훈회관 (청취불능) 방문자에 대한 주차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취불능)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번이나 무산됐던 경험이 있고, 또 부지 선정에 굉장히 고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합의점을 못 찾다 보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완도읍사무소, 지역회 사무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되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굉장히 번잡한 지역이고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문 쪽 앞 맞은편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그쪽 근처 화단,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에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지도 활용하도록 하고요. 완도읍사무소 옆에 있는 5일 시장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면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하여튼 주차타워도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일을 보러 가고 그러면 완전 가득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간단하게..... 현재 군청 앞 보훈회관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보훈회관 앞에 있는 건물은 1989년도에 3개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거기에다가 3개 단체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중앙재산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 3개 단체가 중앙회에 통제되기 때문에. 단지 완도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완도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되면 보훈회관 자리는 복지재단 사무실 그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요. 하여튼 보훈 쪽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런 분들인데, 자식들인 우리 세대에게 뭔가 값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거기가 교통혼잡지역이니까 공사기간에..... 하여튼 자주 행정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에서, 벽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 대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어떻게 하든지 장날이고 뭐하고 하면 그쪽이 가장 혼잡한 그런 지역이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전에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에서 안전관리랄가, 하여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11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또 기념탑이 완도군에 한 6개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현재 완도군 참전용사 기념탑이 현재 완도공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다목적체육관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타워, 주차장이 산림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야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도 다른 건축물을 기념탑 주변에 주차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여러 번 가서 주무부서하고 건물 관련해서 혹시 파손될지 모르니까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체육

운동장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주차장 실내체육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물에 묻혀 있는 형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가 월남참전자 (청취불능) 6.25 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이 저희들이 한 4억을 들어서..... 국비 2억 5,000이고 군비가 1억 5,000이었거든요. 한 4억을 들어서 건립했는데, 지금 그 이전비용이 건축비 이상으로, 건립비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앞으로 단체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해서 그대로 이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가지고요. 이전계획이 있다면 완도군에 장보고공원이라든가 수석공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도 있으니 새로 신규를 하든 이전하든 보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러니까 총훈탑을 이전한다고 이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때 논의를 하고, 헬기로 옮긴다고 비용까지 산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는, 총훈탑을 옮기려고 하는 데는 장보고동상이 있는데요. 주차 맞은편에 조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지역을 선정하려 갔거든요. 짓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총훈탑 접근성이 떨어진

다는, 읍면에 오신 분들..... 그래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면, 추진배경을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예우하기 위한 보훈시설이 아닙니까. 그런 기념탑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해서 보존해줘야 만이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지 예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념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독거노인들 가정의 화재라든가 활동량을 감지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시스템은..... 활동량 감지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화재감지기, 그리고 응급호출기, 그리고 출입문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 출입문감지기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929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물량의 몇 %나 지금 설치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까지 목표했던 것은 600대였습니다. 그런데 929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154%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원래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데요. 군비를 들여서 하려다가 중앙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추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노인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혹시 장애인가정에는 이것이 설치되지 않았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가정 55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전에 고금면에서 한 분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은 아마 서비스알림 이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이 실종신고하고 조치해서, 그래서 찾고 그랬었는데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사업과 다 연계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자세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동법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역자활센터 응급안전시스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응급안전요원하고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해주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안전교육과 사용법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잊게 되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드신 분들이고 정신없는 분들이라 아마 그런 고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장비 점검은 어느 시기에, 누가..... 회사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고요. 응급안전 모니터링상으로 작동상태가 송출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 시에는 응급안전요원들이 주택을 방문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잘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벌써 설립한지 6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성과분석을 하려다가 지금 못했습니다. 5년이 넘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시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거하면 제외대상이거든요.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분석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규직원이 10명 이상이고 자치단체에서 5억원 이상 출자를 받아야 만이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인데. 정규인원은 복지재단에 1명이고요. 3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지 않고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무리 제외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찾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과분석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군수는 업무회계,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자체 감사 말고요. 재단 자체감사 말고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거기 감사가 교수님을 포함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계법인에서

모든 예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도 해보면 틀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재단운영기금이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보면 개인사업 관련..... 복지가 들은 많이 하지 않고 동네단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이렇게 와서 기금조성을 많이 하던데. 개인 그런 복지가라든가 사업가들은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완도군이랑 전라남도청까지 해서 여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광양시하고 목포시하고 담양군이 있습니다. 또 신안군하고 완도군이 있는데, 완도군이 50억 원으로 최고 기본재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도 한 20억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 중에 광양시를 보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시다마는 다른 시군 중에서 광양시를 제외한 완도군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세출예산의 한 17.7%.....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 의원

아니,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는데.

기금조성 부분입니다. 기금조성이 왜 그러냐면 행사 때 아니면 군수님한테 “사업 한 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개인사업가, 복지가들이 도울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시후원금은 기관 사회단체·군민·단체 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군민하고 기관 임직원..... 정기 후원하고 1대1 결연후원금이 있습니다, 결연 후원금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기 예산이 매년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대1 매칭하는 결연후원금하고 정기 후원금을 늘려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연금하고 정기적인 후원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아까 그 관리감독도 잘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종합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1쪽, 찾아가는 종합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는 37개 단체 4,752명이 등록되어 코로나백신접종센터, 외딴섬, 도서지역 이동목욕, 자원봉사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외딴섬 자원봉사는 4개 도서를 실시하여 382명에게 도움을 드렸고,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외상환자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344명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였고 이동세탁차를 10회 운영하여 400여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제한된 장보고대대 장병 280여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였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13가구에 대하여 다시마 걷기 자원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딴섬 자원봉사단 운영과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봉사활동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 봉사단체 간 결연 등을 실시하여 참봉사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권익 향상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 1,00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노화읍과 고금면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 여성 이장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창업프로그램으로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빵 자격증반을 운영하였으며 여성 이장마을 상사업은 총 18개 마을 중 16개 마을은 완료하고 2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비롯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족은 39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완도읍이 129명으로 가장 많고 노화, 금일, 소안 순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300만 원으로 가족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교육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1억 5,200만 원으로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자들이 지원사업은 임시 중단된 상태이며, 다문화가족 종합건강검진비는 17명에 4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는 6명에게 18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면이 어려운 일부사업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문화가정 힐링캠프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센터는 완도읍 가용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36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준공이 되면 다함께 돌봄센터, 놀이치료실, 동아리방, 다문화가족센터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강진흥원으로부터 가족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컨설팅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끝나면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건축공사 준공은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둘째 아 이상 가정에 자기 부담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1인 가정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이돌봄 185가정 422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고 6월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아이돌봄 양성교육을 통해 10명의 인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육 공백으로 인한 아이돌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명문대 진학학생 등록금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거점고 육성 지원 등 16개 장학사업에 1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대 진학학생 등록금 지원 등 5종 사업은 98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작년도 장학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원어민 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점검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정착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이 아닌 올바른 인성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체험하고 자율적인 자치활동과 안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꿈틀에 위탁운영 중인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7개 분야에 총 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 중인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3개 부문에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일정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수 발굴하여 확대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분야별 전문상담사 7명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긴급구조,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심리검사, 학교 폭력 예방 등 총 5개 사업이며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전문상담사 2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지원 등 9개 사업이며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아동은 2,52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대상 그리고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우리 군 아동은 354명으로 이중 입양아동은 18명, 가정위탁 아동 16명, 저소득 한부모 아동은 320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입양아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이용아동은 27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놀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 인건비, 아동급식비 등 9개 사업에 총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든든한 영유아 보육 지원입니

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총 24개소이며 이용 인원은 828명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2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보육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급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영유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24개소이며 교직원인원은 230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차량운영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5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직원 230명에게 명절휴가비, 도서지역 교통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살고 싶은 완도!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4만 9,458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5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60대가 17.2%로 가장 많고 50대, 70대, 40대 순이 됩니다. 요인별 인구 변동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요인으로 197명이, 전출과 전입에 의한 사회적 요인으로 153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5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17개 부서 33개 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 주관 공모 상위에 선정

된 섬마을 새댁 기 살리기 프로젝트는 공간 조성 및 브랜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완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 챌린지 추진, 전남귀여학교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55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섬마을 청년 가족친화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별 정책토크 등을 통하여 인구변화 인식 개선 및 공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구변동 분석을 통해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는 19세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년인구는 5월말 기준 1만 4,074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취업 역량 지원 등 30개 사업을 확정하고 19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을 51명에게 1,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청년 취업자 주거비로 6명에게 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청년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6월부터는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교육 과정에 10명이 참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3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과 청년토크, 제2기 청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청년과 지역을 잇는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년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여 청년정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9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센터 브랜드를 개발하고 청년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센터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연령 및 영역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103세대 152명을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 아동의 육구는 물론, 양육 환경과 아동발달을 조사하였습니다. 아동 개별로 장·단기 목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정방문 등 대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긍정적

인 변화와 자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지원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03세대에 152명이고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등 아동발달 4개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월에는 예능학원 등 45개소의 후원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연 인원 1,187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더욱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여성가족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금일읍장도 대행까지 하고 계셔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도하고 노화 두 군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니까 꿈틀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 인력이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은, 노화읍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월 개관 당시 2명이 근무했습니다. 2017년 경에 대표자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퇴를..... 사직을 한 후에 현재는 1명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도서지역 학생들이 마땅히 갈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프로그램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공감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우리 직원이라도 좀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금년 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프로그램도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청년과 함께 걷는 완도풀 청소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8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완도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보면 4개 분야에 10개 부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에 청년정책 중점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부진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중점사업과 부진사업이 있다면 무슨.....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우리 군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아니, 해양치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청년구직자 활동 지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금년 5개년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행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사항은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부진사항이라기 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핑계는 안 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 4분기에 저희들이 실과마다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여성가족과 위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도 제가 보면 이런 실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나 또 지역 교육사업이나 어느 하나 우리 군정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좀 더 잘 챙겨서 문제점과 또 그런 평가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부서별로 조금씩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제출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또 청년정책에 대해 지자체들을 보면, 타 지자체들을 보면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완도군도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청년복지는 노인복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합니다.

다. 맞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지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아니, 노인복지에 비해서 청년정책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현재..... 굳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현재 태아에서부터 어르신 복지가 너무 세세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겹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여기에 청년정책이나 교육지원정책이나 육아정책이나 또 노인복지 부분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로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에 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가 더 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실제 보면 젊은 청년들은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청년정책을 비판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화도에 청년 공감 및 섬마을장터를 이렇게 했죠.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섬마을장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되고 했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그랬을 텐데 현재는 그분들만 아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참에 과장님께서 섬마을장터가 어떤 장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섬마을 기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첫 출발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젊은 여성, 부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

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년공간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수익도 내면서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마을장터는 시골에서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도 좀 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러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개발했습니다. 나름대로 소품이지만 이렇게 상품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치르다 보니까 그런 행사 한두 번 아직..... 기존에 해왔지만 저 공간이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대대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도읍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장보고웃장하고 노화에 이번에 설립한 섬마을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재선 의원

아, 그랬나요? 그러면 그런 조례 또한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터가 완도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초창기에 발주했을 때 4월에 철근 수급이 안 돼서 잠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전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철근 그것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용역결과물을 보면, 완도군 청년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면, 서울에 보면 청년일자리 포털 또 전북 군산시에 보면 청년뜰 그리고 경기도 광명을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사례를 들어서 제안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현재 8월 초에 운영계획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청년센터가 준공되면 당분간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청년협의체나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조직이 탄생되면 위탁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 항상 군에서 발주하고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보면 항상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군에서 한다고 하면 잘 운영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공유무는 항상 청년정책에 있어서..... 모든 것이 청년센터가 잘 되어야 만이..... 젊은 사람들이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대학생 모교 후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멘토링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대학생?

○박재선 의원

기왕에 해가지고..... 모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방학 때나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언론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죠.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양성도 시킬 겸해서, 여름방학 때 이런 멘토링제를 시행해서 후배들에게 와서 여름방학이 됐든 겨울방학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조사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또 그런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팔아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러나 그분들에게 일정 소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고요, 후배 양성하는 데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장보고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보고장학회 23개..... 보면 목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런 목도 좋겠지만 이런 멘토링제를 이용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할 때 그런 지원을 같이 장학회와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다각도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하고 장학사업이 낫겠다 싶으면 연계해서 협의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완도군이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학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우리 지역 후배들을 가르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재선 부의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금일읍장 업무까지 챙기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종합검진대상을 200명 목표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7명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질의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정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족만, 대상자 1인만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지만 부부로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가지고. 그런데 올 초부터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외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되시는 분들이나 가족 분들의 호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도 그만큼 코로나 핑계를 대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해서 연말까지는 가능한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인 혼자씩만 했잖아요. 그

런데 우리가 남편들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부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9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7명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3년에 1회씩 부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홍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과정을..... 그분들 채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현재 한글교실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문화센터 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읍면 담당직원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잠시 금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 홍보해야 더욱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연말까지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만 각 읍면에 가면 멘토링이 맺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혹시 어려우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같이 설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

는 방법도 있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이나 다문화센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협조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좋은 일인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리고 6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공..... 아니, 착공도 안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현재.....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공공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설계는 공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라면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변화가 있다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이것이 생기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그 사업이 합쳐지나요, 아니면 따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닙니다.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여러 계통을 통해서..... 현재 건강가족센터가 종교시설에 같이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398명이지만 다 종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시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가족센터가 활용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면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가기 싫다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종교는 자유인데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귀속되어 가지고 가기 싫은 곳에 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혹시 또 뭐 추가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방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 1층 같은 데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소통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공모하기 때문에 공모를 몇 군데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하여튼 고생이 많겠습니다.

가족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행복한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 간단히 물어볼게요.

종사자가 54명에 관리자 2명, 아이돌보미 52명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탁이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가족센터 내에서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 아이돌보미 어때요, 지원 이것이..... 군에 이 숫자를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최정욱 의원

신청이 들어오는데 어려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기존에.....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에 10명 더 양성했습니다. 양성했는데 활동을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숫자로 소화는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이들을 나와서 키우는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고령화 가속도가 전남에 비해 2배, 전국에 비하면 4배 많은데. 2021년 6월 통계 변동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6월 현재까지 제가 자료는..... 금년 5월 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정욱 의원

예, 예. 5월 지표를 보면 거의 2020년 통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감소 추세 말씀이시죠?

○최정욱 의원

그렇죠, 감소 추세나 이런 것을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우리 군 출산율이 1.57로 전국 9위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출산.....

○최정욱 의원

출산율.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정책을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자체 중에서 아이들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출산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 공감합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나라도 인구 심각에서 인구 위기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국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 더 많은 정책과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현재 언론을 접해보면 인구정책 부분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론정책은 한계가 왔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외교나 국방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중장기계획 로드맵을 세워서 시행해야 만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인구학자들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하다고 하다가 지금은 인구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위기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부터는 정책이 바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아무래도 정책이 좋은 것이 오면 지자체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대비를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을 빨리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자체에서 우수한 좋은 시책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받아들이고 국가정책에..... 국가업무 보고나 이런 것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아마 우리도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대안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면 전남 지자체 중에서 과를 운영하는 과가 꽤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곡성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데는..... 시군 단위에는 세 군데, 그리고 도청이 한 군데 그래서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자리 창출과는 분산돼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과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 이름만 안 붙었지, 인구정책에 준해서 가는 과들도 있는 거예요,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것은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군은 과 신설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작년 군정 질문답변서나 업무보고 시 있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쪽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시기가 온다면 연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됐든 간에 한다면 긴밀히 협조해서 과가 필요하다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과 표본을 보면 각 실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이것 컨트롤이 안돼요. 이것을 하고만 있지, 사실 잘되고 있는지 거기 인구정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도 빼고 그래야 되는데 과마다.....과 그 나름대로만 일하지, 우리 인구정책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 컨트롤타워도 되어야 되거든요, 인구정책이. 그런데 그것이 아마 많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작년에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에..... 혹시 인구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에 직원들 다자녀가정이.....

혹시 아까 우성자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총무과에서 나왔습시다마는 몇 가정이나 나오나요? 거기에서 아까 몇 가정이라는 것이 안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공무원으로 보면, 13세 미만으로 보면 한 185세대 233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아는 13세대 정도 됩니다.

○최정욱 의원

13세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13명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나면 아까 우성자 의원님도 말했습시다마는 다자녀 인사정책을 보니까 인구정책과에서 했더라고요.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했더구먼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건의를 그때 당시에 하고요. 또 노조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인사 때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일반가정들한테 하면 이것이 과연 되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아동과 인구정책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 잘 안 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인데 밖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아요. 우리 군에 소위 공무원들도 안 하는데, 저렇게 아이를 낳는 취급을 저런 식으로 취하는데 과연 젊은 애들이..... 아이들 한 셋을 키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뭐 그러던데. 그러면서 뭐 그러냐고 저도 들어서요. 듣고 그냥 넘길 일도 아니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고,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총무과하

고 협의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기관사회·단체에서도 협조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군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 “군도 저렇게 하는데.”라는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등 17건입니다.

먼저 1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사

업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676건, 미결정 50건, 기타 취하 232건 등 총 9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 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추진입니다.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05건에 3,5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자연감소 및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전입지원금 증액과 관내 기업 근로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 전입 포상금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편리한 타 기관 민원서류 발급 및 각종 전염병 감염원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청 민원실 등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편의를 위하여 금일읍, 노화읍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신용카드 결제기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일·노화읍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에도 설치하여 도서 주민들의 타 기관 민원서류 발급을 24시간 제공하고 그 외 면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

는 군민들에게 타 기관 민원서비스 발급을 제공함으로써 소재지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민원발급으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구 토지, 임야대장 자료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가 영구 보존문서인 한자로 표기된 구 대장의 정보를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대민서비스를 위해 한글로 자료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8만 면에 대한 한글 자료를 제공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료변환사업을 완료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로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영구보존 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생산된 8억 2,000만 면의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하여 전산화합니다.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을 준공하여 영구보존 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6쪽, 시대변화에 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 및 국가지점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등에 사물주소 부여 253건, 상왕산, 큰산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1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지 상산둘레길 일원에 국가지점 번호를 설치하고 향후 2023년까지 산불 감시초소, 전기차 충전소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시대변화에 부

응한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시범 운항입니다. 낙도 및 오지에 행정 및 배송서비스를 위하여 드론이라는 신기술과 주소를 접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국에서 완도군과 통영시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거점 3개소, 중계점 2개소, 배달점 29개소에 대하여 드론배달점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배달점에 대한 시범 운항을 시연하고 찾아가는 행정·배송서비스로 도서 낙도 지역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자연·인공시설물의 지명을 역사와 문화유적, 향토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정서에 맞는 지명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293건 중 신규 지명 제정 168건, 일본식 지명 정비 3건, 폐지 등 181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완도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조정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하여 공포 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순 국비 8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금면 덕동·세동지구, 완도읍 대야지구, 약산면 장용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보길면 부항·예송지구, 군외·고금·약산면 등 9개 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토지분쟁 해결 및 재산권 보호 등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2만 48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29일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지가를 재검증 후 7월 30일 적용, 공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변동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검증, 의견 제출 등을 거쳐 12월 28일에 7월 1일 기준 변동 지가를 결정, 공시를 합니다. 현실에 맞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명의 등기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 해제를 의무화하여 부동산의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70건의 신고 및 검인에 대한 부적정 자료를 검증, 조사하여 6건에 50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신고 부적정 대상, 지연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연중 조사, 검증을 통하여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8월 12일 현재까지 7,634건의 상담을 통하여 1,892건의 확인서를 접수하여 사실조사 등을 거쳐 925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8건에 6,761만 7,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사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절차에 따라 등기부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2개 이상의 인·허가 복합 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관련부서 및 읍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210건, 농지·산지전용 등 692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232건 등 총 632건의 개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행정중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선 등록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를 1회 방문 동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도 군에 등록된 8,415척의 어선과 연안·구획어업 1,42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어선 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업허가 종류별, 조업기간 및 구역을 준수하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되며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2020년도에 53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을 105동으로 대폭 확대하여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노후·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6월 현재 516동의 빈집이 조사되었으며, 철거형 340동, 활용형 176동입니다. 최근 5년 간 213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동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빈집정비사업 물량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보름, 한 달 살기 등 정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

물 신고 등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여 관련법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사항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건축 행위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찰·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686동이 적발되어 362동은 철거 및 양성화를 하였으나 333동은 자진철거, 양성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 양성화 등 위반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배달형 시범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사업이고 전국에서 통영하고 완도 두 군데만 선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어떤 식으로 배달하며 어느

지역까지 배달하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드론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배달점, 중계점을 선정해서 일단 일반 민간업체를 중앙부처 선정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배달점이 34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배달점은 바로 한 군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계점이 있고 배달점이 있고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3개 중에 거점지역에 (청취불능)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10일 이내에 가까운 곳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미리 배달지역을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우선 가벼운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물 또 생활필수품, 구호물품 등 간단하게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우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성자 의원

가벼운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시간이 30분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달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현재 배달점, 중계점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정해놓은 지역에서 1km 범위 내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충분히 왕복이 가능하게끔 배달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우성자 의원

1km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물품도, 그 무게도.....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최대 40kg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kg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그것이 좀 어느..... 그러면 혹시 섬에서 섬으로도 갈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도권, 금일권, 노화권으로. 그 3개 권역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읍도를 배달한다, 그러면 보길 쪽에서 읍도 쪽으로 가서는..... 다시 섬으로 가는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니, 이왕 처음에 시작한 것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섬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여러 차례 시행됐죠, 이전에?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8회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미등기, 사망, 행방불명 등 소유권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한 다든가 이런 경우에 마을에서 있는.....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보증인으로 사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동안 해왔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마을보증인 5명을 선정해서 보증인 도장만 받으면 행정에서 접수해서 등기소에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자격보증인들을 운영합니다. 자격보증인이란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이 선임돼서 그 자격보증인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보증인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무사 수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자 의원

법무사 수당이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금 그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가 등기하고자 하는 땅은 아주 조그맣요, 100만 원짜리라든지 50만 원짜리라든지. 그런데 등기비용은 훨씬 그 땅값보다 많이 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은 행정하고 법무사하고 이렇게 다시 완화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인께서 자꾸 질의하거나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격보증인 제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격보증인 수당..... 법무부에서 정해준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총 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전라남도 법무사회에서 전라남도 협약에 의해 최고 70만 원, 7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요. 그 외 기타 수당으로 77만 원으로 정해놓은 상

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수료가 높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현재 윤재갑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부동산실거래자 명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률 배제 적용을 발의해 냈고요.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보증인 보수 (청취불능) 부동산 공시지가의 100분의 45씩만 해놓으라고 이렇게 발의해서요. 현재 의견을 중앙부처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윤재갑 의원님도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그때 이것은 너무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의원님이 혹시 발의해서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고흥에서는 법무사 등기비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도에 우리 군 보증..... 특별법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70만 원까지 하는 데가 3분의 2 있고요. 20만 원은 말씀하신 고흥하고, 구례, 보성, 화순은 30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보증인 보수는 자치협약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조정했다고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20만 원까지 한 시군은 물량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완도군만 해도 5만 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가 상한선일 것이고요. 저희들도 법무사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됐을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1년 동안 추진해왔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고 나중에 국회에 통과되고 그런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통과된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다시 그분들하고 타협하는 이런 과정은 어렵겠네요, 현재 사정으로 보면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현재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해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우성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몇 번 질문한 내용들이고. 전지역에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들이 어촌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도 활용하고..... 정말 빈집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빈집은 516동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조사상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누락된 지역이나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빈집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주거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빈집으로 판단하고 조사합니다. 그중에 매년 조사를 하되 소멸되고, 철거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몇 동을 고정해서 몇 동을 정비하겠다고는 정확하게 확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성자 의원

혹시 그러면 그 빈집을 데이터관리로 이런

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현재 계속해서 매년 빈집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즉, 말하자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자 의원

자료로요? (예)

그러면 빈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동산에..... 개별 정비계획을 전산화해서 관리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빈집 423동 정비에 따라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도 절대 동의해 주지 않아서 빈집정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지금 516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철거해야 되는 것이 340동이고 활용해야 될 동이 176동으로 판단됩니다. 빈집을 조사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철거형 중에, 우리가 말하는 270동 정도는 철거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 보고 조사해 보면 “그냥 내가 살았던 집이니까 내가 잠시 후에 은퇴하면 고쳐서 살겠다.”라고.

○우성자 의원

고쳐서 살겠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 귀촌이 많아 보니까 와서 내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렵고요.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

면, 어르신들을 어찌 보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냥 집을 그대로 놔두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언제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군에서도 그 빈집 소유자들에게 정비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그런 적도?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일체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빈집에 대한 활용 동의를 해주면 수리해 주거나 또는 개보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안내장을 송부하고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 회신이 안 됩니다.

○우성자 의원

읍면에서 하는 행정,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군에서는 어떻게 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빈집 조사량에 대한 자료를 받고 상증하로 구분합니다. 하는데 군청직원이 직접 현장에.....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많이 협조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런데 현재 빈집정비는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농어촌정비법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우성자 의원

특례법.....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법이, 특례법이 2020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특례법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빈집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읍면에 있으면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분들은 시골에 내려오면 크게 그 집을 수리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수리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도 그분들이 승낙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당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440동 7억 정도면 전부 다 철거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매칭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승낙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고 읍면으로 많이 재촉하십시오. 빈집정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재촉해서 가지고 정말 흉물스러운 빈집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해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선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현재 책자에 보면 8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금일과 노화가 됐고요. 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었는데, 금일하고 노화는 청사 내부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밖으로 내겠다고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밖에 배치해 놔습니다.

○박재선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처음부터.....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라인하고 예산 확보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박재선 의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니까 4개, 5개 읍면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외부로 빼내는 것이 맞습니다. 24시간하기 때문에.....

○박재선 의원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처음 오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주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안내를.....

○박재선 의원

안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조작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니, 굳이 안에다가 해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인발급기라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처음부터..... 두 군데는 청사 밖으로 내서 24시간 돌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다시 이렇게 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청사 밖으로 내서 민원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

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화흥포항이나 보면.....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91종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초본밖에 안돼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것이..... 등·초본을 최고 많이 발급하는 상태고요. 메뉴 12개가 나와 있습니다. 메뉴 속에 메뉴가 또 들어있는 상태라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많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항 쪽에서는 등·초본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서지역에서는, 읍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어선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종들로만 해서 그것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의원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탁 관리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 190 몇 종 중에서 완도군이 필요한 생각만 상위메뉴로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의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많이 쓰는 것을 상위메뉴로 도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무인발급기에 많은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어서 무의미하게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3회 완도군의회의(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의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3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자치행정국

- 세무회계과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등 10건입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 수요 등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확보하고 체계적 세원 관리와 세수 누락 방지로 군민이 신뢰하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세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55억 3,200만 원으로 그중 도세는 145억 원이며, 군세는 210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24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214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7%입니다. 6월 28일 현재 금년도 목표액 355억 대비 60.4%를 달성하였고, 하반기에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집중 부과됨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세입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 ARS 간편 납부, 자동이체 등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자 자금심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모범납세자 3명을 선정하여 증명서를 전달하고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실적 향상을 위해 지역주간지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고액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1,900만 원 목표액 중 3,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무조사 중인 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별로 법정기한에 맞추어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직원 교육은 물론 청렴, 공정한 회계업무 처리로 주민 신뢰도 제고와 대외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 3개 분야에서 821건, 627억 4,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법한 결산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정 계약과 투명한 회계처리 이행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주민 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뢰도 높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705호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신축과 증축된 주택 130호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9월 17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30일까지 금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1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및

부과현황입니다. 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PC, 모바일, ARS 전화안내 등 비대면 전자신고로 운영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안내하였고, 지난 5월에는 군청과 세무서에 도움창구를 동시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 부과 추진실적은 5,281건에 29억 100만 원이며, 2020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좌 파악 후 신속히 지급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게는 안내문 발송과 함께 10월 중 선진 시군 업무연찬 추진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신고 관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최상의 신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6월 28일 기준, 지방세는 224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214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7%입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36건, 채권압류 1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52건 등 총 1,203건에 2억 4,4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와 공매를 통해 6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결손처분자들의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1,201건에 9,700만 원을 추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수시 가동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내실 있게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22일 기준, 지방 세외수입은 106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87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2%입니다.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20%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453건, 선박 압류 33건 등 총 486건에 4,8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등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길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1985년 건축된 보길면사무소는 5월에 정밀 안전점검과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기존 청사부지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실내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창고시설 등 부대공사를 공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5%입니다. 앞으로 부대시설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준공하여 신청사에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금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고금면사무소는 1977년 건축되어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정밀안전점검과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현 청사부지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착공하였고, 5월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임시사무소를 고금면 국민체육센터에 설치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현재 기존 청사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터파기 및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골조 및 내·외부 실내공사 등 공정별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원관사 현대화 사업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관사를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여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청산면 직원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15억 원 중 5억 원은 금번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미 확보된 10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8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 내역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공유재산이 총 3

만 6,098건에 면적은 3,163만 7,000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3,511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지 9건을 매각하였고, 4월부터 7월말까지 행정재산 3만 4,221건과 일반재산 1,284건 등 총 3만 5,50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재산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대부와 매각 등 후속 조치하고 11월 중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세무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쪽,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도세와 군세 모두 다 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 등 세법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부과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럴까요? (예)

혹시 뭐 환급이나 감면규정 등 잘못 적용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100% 환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비과세 감면 관련한 일들은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까지 법무사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 그랬어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래서 법무사가 이런 감면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 주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한 주민이 농공단지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세 4,000만 원 정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시의 모 회계법인으로부터 납부한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환급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 30% 수수료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는 이런 문구가 서류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성자 의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청취불능) 신청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런데 혹시 뭐 그냥 전화했다면 모르지만 문서로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혹시 어떤.....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뢰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알아보시겠지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처음 듣는 사례이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감면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제가 모르는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 적용을 못 받은 것인지, 신청을 안 했는지, 했는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모르겠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예방을 위해서 취득세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근무..... 길게는 1년 하다가 옮기고 6개월을 하다가 옮기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관내 법무사나 이런 데에서 위탁대행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세법 관련, 감면 관련 규정을 안내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군에서

취득세 부과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회계법인이 잘못 판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도 7억 증가되어 355억 이중 도세가 40.8%, 군세가 59.2%입니다. 군세를 보면 목표액 210억 대비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은 84억으로 한 40%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시기 미도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그 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올해 군세 목표액은 210억 원으로 6월 18일 현재 군세 부과액은 39억 9,7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목표금액이 66.6%입니다. 84억은 도세 부과액입니다. 그리고 군세 중점 부과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7월에 재산세 1기분이 부과되었고요. 그리고 이달 8월에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9월에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되고,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66.6% 부과되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 의원

작년도 세입결산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61, 담배소비세 47억, 지방소비세 47억, 군세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 5억 정도가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부과징수 실적에 의하면 5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금년도 분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각각 별도 금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당해 연도분 체납액 5억 6,300이 발생되어 있고요. 과년도분 부과액 7억 7,800 중에, 그 안에 이월된 체납액..... 자동차 체납액 5억분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개 분입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자동차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작년 세입결산 이월액 7억 7,000 그 안에 자동차세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12월에 자동차세 제2기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납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납기에 못 내신 분들이 1월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5억은 3억 7,000만 원 징수돼서 남아있는 체납은.....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징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계속 매년 이렇게 이월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12월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오니까요.

○김양훈 의원

세밀하게 징수계획을 잡아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최우수상,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달성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까 우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급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때 박인철 의원님도 한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금년도 계획 보고 때는.....

○김양훈 의원

서면으로.....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서면으로 대체했던.....

○김양훈 의원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우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분들이 회계법인인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계 부분을. 잘 모르죠. 이것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행정에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잘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사업 발주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면 감독공무원은 어떻게 임명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다른 부서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직..... 특정 전문분야인 그런 분야는 일반직들이 감독하기 어려워서 다른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면 감리비에 예산을 포함해서 감리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법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별 규모에 따라서 일정 요일의 감리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국도비의 경우 확보된 사업비에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면 되는데. 군비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 자체사업도 많이 편성할 수 없지만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편성을 하고 별도의 감리비까지 편성,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각 부서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감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물론 애로사항은 다 있겠죠. 그래도 타 부서 직원들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할 때 사전

에 협의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아니요, 사전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니,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쪽 공사감독에 들어가는 것인데 타 부서에 있다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의 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또 이쪽에 와서 공사감독까지 해야 되고. 왜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얻어야죠.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아니, 법에, 지침에 당사자 합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고요. 지방공사감독 공무원 임명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에 감리사 외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김양훈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군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똑같은.....

○김양훈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런 애로.....

○김양훈 의원

그런데 양쪽 두 과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에 나가서 이쪽에서 공사가 잘못되면 공사 쪽에서 제일

많이..... 용역이나 공사 쪽에 감사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감사만 받고, 징계만 받고, 일은 양쪽 부서 다 해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한테 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혜택이라고는 징계하고 감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 혜택을 받으면 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타 부서에 공사감독 관련한 그런 내용, 건수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전라남도..... 지난 5월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고 이슈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분석해서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 5건 이상, 자기 업무 외에 타 부서 업무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 5건 이상 감독공무원으로 지정 받은 사람은 3명. 건축공사는 10건 이상 1명, 5건 이상은 3명. 전기공사는 10건 이상 1명, 5건 이상은 2명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김양훈 의원

전기공사는, 요즘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전기공사는 별도입니다. 전기공사 감독들은 별도로 채용해야 돼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공무원 임명 관련해서는 보다 더 나은 그런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노조 홈페이지를 보셨죠?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봤습니다.

○김양훈 의원

거기에 보면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전부 다 불만들만 표출하는 댓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섬세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맨날 받는 혜택이라고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다

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상가 및 노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총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완도전통시장은 2020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상인회 협동조합 설립, 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동디자인 간판 설치, 수산물 특화점포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연장, 수산물코너 바닥정비, 저온저장고 신축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였고,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시장은 노후 전등 교체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노화 전통시장은 홍보 지주간판 설치 및 시장 방문객 및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옥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도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2년차 사업계획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전기공사 등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시장은 지역개발과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노후시설 정비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지역 내의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이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인쇄된 유가증권으로써 5,000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총 4종이며, 카드와 병행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사용은 가맹점

으로 지정된 관내 업소에서만 가능하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총 35개 은행과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발행액은 972억 원이며, 판매액은 828억 원, 환전액은 796억 원입니다.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4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한국조폐공사와 완도사랑상품권 카드형 업무협약을 5월에 체결하고, 6월 14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 모집과 QR키트를 배포하여 8월에 모바일형 상품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로 완도 죽청 농공단지는 현재 124개 업체가 입주하여 10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가동률은 90%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는 15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96%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3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죽청 수원지 수중 배수펌프 설치공사와 공업용 대형관정 개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 공업용수·우수·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생물농공단지 경사면 낙석방지 시설 설치공사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에 해양생물특화단지 입주업체와 협의, 6월에 계약 및 발주를 완료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4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해수 사용을 위한 인수관로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변경 용역

을 시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입주업체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완도해상풍력 등 3개 시행사로 발전규모는 약 1,200메가와트, 사업비는 5조 8,000억 원이며, 풍력발전기 수량은 153개이고 점유면적은 1만 7,000헥타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시행사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완도해상풍력은 2018년 11월 산자부 허가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없는 실정이며, 서부발전, 코오롱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민설명회 3회를 실시하여 2020년 7월 해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자료를 측정하고 있고, 남동발전은 2018년 11월 1차분 200메가와트에 대하여 산자부 허가 취득, 2020년 9월부터 환경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2차분 400메가와트에 대하여 산자부 허가를 취득하여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도 해상풍력은 국립공원 내 풍력발전 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부발전, 코오롱은 올해 8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4년 발전단지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은 내년 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발전단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읍면 및 마을별 설명회,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 주민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 공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산업 공존,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 우리 군 재정 기여 및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시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읍 19개 마을 약 4,000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시설 1개소와 배관망 54km, 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농공단지에 저장소 신축과 굴착 구간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약 4,000세대에 가스 공급 후 6월 29일 준공식을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 안전공사, 배관망 사업단, 가스공급사와 연계하여 매월 저장소 설비와 공급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회관과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스시설 현대화와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사업 시행 전에는 LPG 용기와 보일러 등유를 주문하여 사용하였으나 매월 사용량만큼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편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월 기준 주택 공급가격은 세제곱미터당 2,010원으로써 기존 가격에 비하여 약 4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가 공급가격은 2,430원으로써 표본조사 결과 최대 50%까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 창출사

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청년 마을로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9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년 마을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16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15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약계층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중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에 34개소 1억 1,9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에 5개소 5,500만 원 등 총 45개소에 4억 7,900만 원을 투자해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수요조사를 통해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전방 신호등 및 투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교체로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운수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현황과 정확한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난 악화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제 및 준공영제 등 버스체제 개편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도~금당, 완도~금일, 완도~약산, 생일면, 소안면 등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군에서 지급하고 운행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모두 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부터 교통모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상반기 운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용객은 총 5만 3,474명이 교통모델 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운영수입금은 5,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수입 정확성 확보를 통한 수익금 투명관리를 위해 버스정

보시스템 및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15년 3월 5개 읍면 8개 마을로 운영을 시작해, 현재 10개 읍면 30개 마을 1,5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며 매월 주민당 2매씩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에 2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6월 기준 2만 1,825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였고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100원 택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회에 한해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승요건은 1회에 한해 하차 후 180분 이내 다른 노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어촌버스 35대에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환승시스템 단말기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월 시범운행을 거쳐 3월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의 무료환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 환승시스템 이용에 따른 차액을 운수업체에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경제교통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여부는 중단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속 추진하고 전용부두 조성을 통하여 선단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보고가 누락된 데에 대하여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사실 그 대행업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박인철 의원

아,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2개 업체에 위탁해서.....

○박인철 의원

생수하고 얼음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하역.

○박인철 의원

하역비도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2월에 업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저희들한테.....

○박인철 의원

사업 포기 이유를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좀 그런 일이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군의 해조류 생산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효과가 1,500억 정도 된다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본의원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조업선단 유치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서 구 해경 전용부두 매입 추진과 또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했고요. 향후 상하수도사업 상수도관 연결과 노면 포장, 이런 부대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동안 선단 유치를 위해 식수, 얼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조업선박 한 척이 들어왔을 때 완도에서 물품 구매가 된지..... 인건비, 숙박, 식비를 하면 2,500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본다면 약 1,300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도군 지역경제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지역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연초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중단되었다는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 이유도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겠죠? (예)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박인철 의원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조업선단 유치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연근해 어선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련의 그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내년에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해경부두를 매입하여 조업선단 전용부두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난 6월 28일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금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박인철 의원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산을 취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공유재산을 하는 데에 안 올라왔던데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2020년 4월 24일에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박인철 의원

그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 동토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어업인 또 미역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렇죠. 지선 어업인, 미역가공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주문하고요.

과장님, 지금 시중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죠? (예)

이 구 해경부두는 어느 특정인이 점유해서 안 됩니다. 완도군민 누구나 또 완도항에 입항하는 어떠한 선박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누구 개인한테 절대 국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환

경정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 분양률이 96%이고 15개 업체가 입주되었으며, 가동률은 20%인데. 토지면적 중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는 벽면도 분양면적으로 포함시켜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민원이 제기돼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벽면들을 보면 보통 한 분양당 확인해 보면 200평, 300평 많게는 더 나옵니다, 그 땅 평수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총 18필지 중 7필지가..... 최대 43%까지 벽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벽면도 분양시켜 가지고 다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벽면을..... 지금 보니까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입주업체들 중에서 블록을 쌓아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안 맞아 가지고 자기가 토목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토목을 해서 쓰는 업체들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벽면을 사용하지 못하고 건물을 지은 업체들도 있던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분양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분양

단가에서 뺀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보상한다든가.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10%는 인정하고, 동이 다 똑같은 업체니까 10%는 인정하고요. 10% 이상부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박인철 의원

업체들이, 분양받은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해수 유입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준공 목표로.....

○박인철 의원

해수 유입시설 및 입주업체들의 해수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을 미리 받았습시다.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관로를 군에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관로가 깔아지면, 업체에서 희망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관로는 우리가 깔아주고 유입관을 따서 업체에서 쓰는 방법 그렇게 진행됐는데.

문제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축양장하고 생물 관련 업체는 당초부터 배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라고 하면 반드시 해수가 필요

한데 기본 시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한마디로 우리 군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등어선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청취불능) 이런 데는 고등어를 받아 가지고 급랭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데에 해수가 다 필요하거든요. 땅을 분양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해주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것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번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완도 해상풍력 사업지구는 자연공원법 저촉지구로 해제 또는 행위기준이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공원구역 해제 또는 자연환경 행위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박인철 의원

발전허가가 나왔어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조 5항에 의하면 전기사업발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및 내용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오롱이 추진하는 발전사업은 완도지역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동발전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남동발전은 전기사업 허가가 2단계로 나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박인철 의원

1단계, 2단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1단계 200메가와트, 2단계 400메가와트 이렇게 있습니다. 1단계 당시에는 법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2단계 허가 때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를 거쳤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 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것 좀 끝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발전의 경우 계통연계 송수전계획도가 확정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은 계통연계와 관련되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첫째, 반드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둘째, 주민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안을 반드시 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완도 약산 관산포 태양광과 완도 화흥리 태양광을 한다고 사업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다니는 것 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약산은 진행 중에 있고요. 화흥포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사항이고 동향만으로 저희들이.....

○박인철 의원

아니, 군에는..... 동향이 아니라 화흥포도 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도 듣고.....

○박인철 의원

그래서 여기는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민원실까지 포함입니다. 꼭 처음 서류를 받을 때..... 민원실 복합팀에서 받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개발행위 접수는 민원봉사과로.

○박인철 의원

민원봉사과 복합팀에서 받죠.

왜 제가 여기에서 말을 꺼내느냐면 우리 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로 모든 법적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약산 관산포 같은 데는..... 어제 약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본청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KBC 방송국에서 나와서.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민원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서류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 조례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내가 직선거리를 그어보니까 관산포 가운데 조금 남더구먼, 한 필지 정도.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허가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나한테 자꾸 군민들의 갈등 조장을..... 우리 군에서 풀어야 되는데 군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군 조례가 이렇게 있다.”,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하시고요. 민원실에서도 이 서류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 몇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고금도 돈사에서 역력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19년도부터 제가 군정 질문,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간담회 때마다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관심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요즘은 자기들이 먼저 나와서 봉사하려는..... 자기들 먹고 사는 쪽에만 치우치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자꾸 그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비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최정욱 의원

혼자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1명 정도 빨리 파견해서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업무를 좀 받아라, 민원을 해결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때 제안을 뭐를 어떻게 했냐면 공무직 1명을 그쪽에 파견하자, 그래서 그쪽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협의체를 하려면 자기 돈을 쓰면서 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을 거기에 지원하자, 금액을.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럴 때 식사비 같은 그런 것을..... 움직이는,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어떤가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구성을.....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총무과와 협의해 보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꼭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아까 130 몇 개라고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거기 업체와, 거기에서 상주하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완도에. 일자리가 순수하게 많이 있는 데가, 최고가 거기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들에게도 보조금이 다 나가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경제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 인구 등, 경제적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런 데에다가 지원 생각을 해보다니.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총무과와 의논해서요.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되어야 만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도 가까운 사람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 쪽에서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불만도 표출되고, 그 불만은 곧 우리 경제에 도움도 안 되며, 사업을 하는 데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거든요. 그 사기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업을 하는 데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들이 방치하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되면 아마 될 것이에요. 운영비 지원하고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거기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충분히 제대로 할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

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제도 받침을 해줘야 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2019년부터 계속 했는데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과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시행해야죠,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형버스, 활어차 이런 것에 대한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완도 해안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관광객, 낚시꾼을 수송하는 대형버스를 비롯해 대형 활어차들이 해안도로변에 장기 주차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아름다운 완도항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주도 앞 해변도로를 말하십니까?

○최정욱 의원

예, 해변도로나 저기 위판이 있는 데에서부터 저쪽 해변도로를 이렇게 보면 아마..... 저는 자주 지나다니니까 그런 것을 보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중점구간으로 정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도로변에 장기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들로 인해 주변 상가들 손님들의 주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활어차가 수산물 유통을 위해 잠깐의 정차는 불가피하지만 낚시꾼 수송차량은 낚시꾼 하차 후 보통 이틀 정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해 둔 곳이..... 건널목 표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매우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도로변에 주차한 대형버스를 해변 (청취불능) 물양장이나 해경부두 쪽 4차선 도로변에 주차하도록 구간을 설정하여 유도, 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단속과 계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완도읍 해변에 무단 정차하고 있는 대형차들을 지도,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권 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한 10개 사업 실적을 나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체와 연결해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크리머스 마케터사업은 홍보·마케팅을 위한 청년근로자, 근로자를 매월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그 다음에 생활방역 공공 일자리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뉴딜로 사업은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아주 귀중한 줄 아시죠? 청년들이 모든..... 국가에서 청년정책에 몰두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어떤 부분 이든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비고란에 보면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발굴.....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신규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실정과 환경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지역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동의하고요. 지역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이랄까, 또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는 것이 일자리가 없으면 전혀 오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제교통과에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롭고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특색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건의하면 어렵지 않게 지원해 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박인철 의원님께서 4페이지 해수 인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청 농공단지하고 가용 농공단지 지역을 보면 소형 전복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쪽들은 물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공사가 완공되면 사용업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대표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개인들이 라인을 대서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각 서랄까, 써도 자기들이 전복 유통을 하면서 전복이 죽더라도 군에 피해를 안 준다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간담회 때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협의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입주업체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축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고요.

○이범성 의원

축양장은 하도 크고 2,000평 이상, 3,000평, 5,000평 정도 되어 버리니까 그 정도는 자기들이 18억을 가지고 라인을 펴가지고..... 개인이 라인을 하나 펴면 2~3억이 들어버리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소규모로 전복을 유통하시는 분들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30군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전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도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18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해서 여러 명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전복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단위 LPG 배관망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

많은, 450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6월에 준공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편리성 부분들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보면, 책자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사기간도 있고. 처음에는 민원거리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1년 6개월이나 참아주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 4,000여 가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참아준 기간 동안 민원거리가 많았지만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근들도 혜택을 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확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 13개 시군에 공모성으로..... 공모로 했거든요. 산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회성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일회성 공모사업이다 보니 추가계획은 현재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주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좋습니다. 일회성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일회성이 이회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완도군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한 30에서 50%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도서지역을 보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가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양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선료라든가 가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뭐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수산 경영과에서 아마 가스사업 그쪽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박재선 의원

그 실과하고 한번 얘기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도서지역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또 낙도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그런 데에도 LPG 배관사업을..... 규모가 조그마한 LPG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체로 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이유가요. 배로 일반 관리선..... 일반 조그마한 배로 운반해야 되고 또 여객선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엄청 어렵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일회성 공모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낙후되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마을 단위..... 읍면에 있는 100세대 미만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완도군 같은 경우 12개 읍면이 다 낙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꼭 1년에 1개씩이 아니라 2개씩이라도 추진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금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업축산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답변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

다. 완도군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을 특화하여 농촌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로 치유산업 핵심거점 조성, 농촌관광 명소화, 농촌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조례 제정, 사업추진단 사무국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 후 착수보고 및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8월 2일에는 사업대상 부지인 군외 불목분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액션그룹 발굴 및 농가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한 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1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1년 전부터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포함하여 9,879명으로 사업비는 59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주소지 관할 농·수협에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누락자 286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 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실천지역의 적기방제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추진농가 및 단체에 친환경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공동방제 및 단지 조성에 70개소, 2,204헥타르에 10억 8,300만 원, 유기농 상토는 81농가 499톤에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인증품목 다양화 및 잔류농약 검사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에 작물재배를 등록한 농지에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4월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1만 2,400여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된 농지를 수시 점검하여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로서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은 단계별, 구간별로 단계 적용을 받습니다. 금년도 예상 사업비는 95억 3,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6,705농가가 접수하였고 이중 소농 직불금 농가가 지

원대상의 76%를 차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대상 농가에 대한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단체가 다목적 소형 농기계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장비를 구입할 시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115대, 소형 전기운반차 25대 등 58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3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에 추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및 생산 보관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와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한 9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2종 4농가에 3,4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20농가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 농가별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유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통해 농·특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완도읍 죽청리 1006번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4,241평방미터 규모의 저장시설, 선별장, 상품화시설, 농가조직화 교육 등을 위한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에 군특회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착공 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도항철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자원인 항철을 활용하여 원재료 수집, 가공, 유통이 연계된 체계적인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 마케팅,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사업주체는 완도군이며 보조사업자는 완도군 산림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완도항철 융복합 사업단 개소를 시작으로 항철 도료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용역 시행, 신지면 송곡리에 가공센터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완도항철 이미지 강화 및 품질생산 이력 시스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가공센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착공

후, 내년 6월을 목표로 가공센터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2헥타르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저온 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형 146동, 중형 1동이며, 저온저장고 설치단가는 1동당 600만 원으로, 농가당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월에는 시공업체 공고 후 2개 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4월에는 소형저장고 농가별 계약 후 47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설치계약 대행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가를 독려하겠으며 하자보수와 AS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을 위하여 품목별 유통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GAP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실천 농가에 도매시장 출하 물류비 및 농업용 포장상자 등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유통물류비 40농가, 포장재 지원 45농가 등 85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수시로 농가에서 품목별로 출하 또는 공급확인서가 접수되면 확인 후 보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동계와 하계를 포함하여 979헥타르이며 지원기준은 헥타르당 18톤을 정액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5,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동계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파종면적의 50%인 15개소 679헥타르에 3억 5,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5월에 파종 및 재배면적 확정 후 11개 법인 7억 4,7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 조사료 농가계약 및 재배예정 필지 신청을 접수 받아 8월에 GPS 탑재장비를 동원하여 파종면적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파종 및 재배면적을 확정 후 보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고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 한우 자동급이기, 자동목걸이, 가축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한우 자동급이기 등 3개 사업을 12농가에 2억 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의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 예방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고,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 축산시설 현대화장비,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92농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산시설 현대화장비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192농가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 등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가 없도록 장비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과 적정 보호관리를 통해 사전에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생명보호 및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지면 송곡리에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포획, 사육환경 개선 지원 등의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명의 유기동물 구조반 요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6월까지 20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동물 구조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센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현대화된 시설의 증·개축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동물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조류독감 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접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개 팀으로 구성된 축산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가축질병 예방접종 4개 축종 1만 9,127두와 구제역 백신 1만 5,938두에 대해서 일제 접종하였고, 5월에는 5,345두에 대하여 브루셀라병을 일제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가축질병 예방접종과 구제역 백신을 6개월 단위로 일제 접종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고금면 덕암리 818-2번지에 300평방미터의 규모로 차량 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고압세척기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8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우협회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등기이전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였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농업축산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관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인해서 이틀 동안 업무보고도 못 받고 오늘 마침시간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시다. 다음주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건강검진이 있어서 당분간 참석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예요, 참 그렇죠. 방금 서두처럼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얼마 안 돼서 고생스럽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유·무형 자원을 특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선발해서요.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착수보고.....

○김재홍 의원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마쳤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기본계획은..... 용역착수 보고.

○김재홍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홍 의원

보고만 받았지.

○의장 허궁희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은 팀장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이해합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불목분교로 나와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8월 2일에 교육청하고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것을 12월까지 납부하고요. 나머지 7억 8,000 정도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2월 중에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김재홍 의원

아직 그러면 교육청하고 교류 중에 있지.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안 됐습시다. 올해 예산 1억 확보되었습시다.

○김재홍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본의원이 잘못 파악했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김재홍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보면 2월에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김재홍 의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가..... 사무실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사무실은 제일신탁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무반장, 사무국장, 사무원 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며..... 용역회사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러면 축산과로 매칭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재홍 의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업소 위치가..... 사무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그래서 최근에 군외 불목 초등학교를 용역회사하고 김양훈 의원님을 모시고 사업단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래요.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 말 그대로 제목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대로 잘되기를 바라구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봤을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김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텐데 정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식품 유통 활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농업 정착을 위하여 품목별 유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지원대상자 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1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단계별이 아니라 농업인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원금액이 다 같은 줄 알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120만 원을 주고 나는 250만 원을 주고, 저 사람은 200만 원을 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내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래서 이것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 지원하

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을 보유할 때는 250만 원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묻혀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실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축산과장으로 있으면서 홍보 부분은 농업인들 최일선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래서 그분이 포장재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직원 말이 친환경 물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인증서가 같이 와야 만이 제대로 포장재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업무 전달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홍보 부족 아니냐. 읍면까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이어받았으니까 앞으로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셔서 가지고, 홍보 하고 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유기견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기동물 구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구조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유기동물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유기동물 이 부분은 제가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보호..... 이 반려견들을 보면 요즘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광을 오거나 집에서 불성실하게 관리하면 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본 제3자들은 저것이 유기견이라고 신고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 유기견을 포획하고 주인이 있으면 돌려주고 없으면 동물보호소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데려가서도 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이를 먹거나 그래서 자연사하기도 하고 그 안에 개들이 예쁘다 그러면 분양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200마리를 구조했는데 보호센터에서는 145마리만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자연사하고 그런 관계로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래서 제가 전에..... 바로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동물을, 반려견을 포획하면,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없으면 그러는데..... 거의 자연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분양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왜 들은 말로는..... 신지면 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힘에 겨워서 하기 싫다는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기견보호센터가 너무.....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협

소하고 열악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유기견을 여기에다가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민원인에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2억 원을 가지면 그런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제가 와서 이 업무보고가 작성되었고요.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깐 2억 원은 부족합니다. 어떤 설계도 안 나왔고 그러는데. 어차피 유기견을 이렇게 환경이 좋게끔 키우려면 장소가 일단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유기견보호소 바로 밑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2억 원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치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 유기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예산을, 그 부분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는 유기견보호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또 현재 주위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산을..... 나는 이런 데에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와서 볼 때 환경이.....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깔끔한 이런 정도로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2억 원이라고 여기서 못을 박지 마시고 과장님이 땅도 넓게 구입하시고 주위 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기견들이 많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좀 챙기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지원을 아까 설명하는데,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제가 두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농기계 구입 때문에 받고 싶은데 차례도 안 되고 순번이 안 돼서..... 내가 말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때 들었는데. 추경 때 그 돈을 가지면 되느냐고 했더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떨까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농가에서 사업이 많이 밀릴 수도 있고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확보 부분은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해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거의 집행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과 비교해서 몇 %나 했다고 보입니까? 100%로 했습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팀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농업생산팀장 윤한성

(좌석에서) 농업생산팀장 윤한성입니다.

지금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0% 정도.

○최정욱 의원

50%요. 그러니까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예산이 사실 더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농업생산팀장 윤한성

(좌석에서) 예산은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재작년은요?

○농업생산팀장 윤한성

(좌석에서) 재작년 것은 제가 잘.....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아마 예산을 줄였다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해봤으니까 50% 밖에 안 됐다. 내년에는 과장님,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해보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실태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이 이제 와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내년 예산하는 데에 그것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소형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는 항상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산업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이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에는 없는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구들장논 관리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작성된 것이 없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팀장님이 뭐.....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구들장논 이 관계는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제가 이 사안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자세히 넣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왜 빠졌냐고, 업무보고에.

○의장 허궁희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농업정책팀장 김준남입니다.

구들장논 보전사업은 연초 1월, 2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을 교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5월에서 6월 정도에 사업비가 교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진실적 보고에 넣었어야 했는데 미흡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냥 빠트린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아닙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교부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 다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6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사업..... 지금 업무보고는 의원들한테, 군민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의원님, 사실 이것이 넣어야 맞습니다, 넣어야 맞고요. 이것이 매년 한순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거기를 복원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담당팀장님이 보고 하셨는데요. 물론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비 대로 추진실적이 안 나오니까 누락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제가..... 세계농업유산은 구들장논, 2015년도에 여기에 있으면서 좀 관계했었는데. 그당시에 하동하고 우리만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국가농업유산 1호로 이렇게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어디 시군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정욱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산도 구들장논은 국내에서 제주 밭담과..... 가장 먼저 등재되었고 그후로 담양 대나무밭, 하동 녹차 농업, 금산 전통 인삼논 등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계농업유산의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렇습니다. 세계농업유산이나 국가농업유산, 특히 국가농업유산은 우리 완도가 1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매년 국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한 줄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2회 추경예산에서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목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도 넣었었어요,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죠, 우리 추경에도 넣었죠?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예, 국비가 내려와서 2억을 넣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디에 뭐가 안 돼서 안 넣었다고 하면 안돼요. 추경까지 받아서 이런 사업에 넣을 정도면 업무보고에 넣어야 맞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마지못해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제 부임해서 제대로 파악은 안 됐을 것입니다마는 이것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한 대로 잘 가지고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구들장논의 보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구들장논을 활용한 지역 마케팅, 자원의 활용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럼에도 올해 구들장논 관련해서 봄에 모 내기를 딱 한 번 했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모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들장논 보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들장논 보전 협의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장논에서 어떤 생산품목을 이렇게 생산해서 관광객들에게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지원된다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구들장논과 같은 시기에 등재된 발담, 제주도는 벌써 6번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개최했거든요. 축제라든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농업유산의 가치를 알리

고 소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한 구들장논이 지난 2014년도에 국내 최초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과장님, 제11회 대한민국 조경 대상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조경협회에서 세계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주민참여 농촌교육원 간 보전사업이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 그래요. 그 단체는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공무원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언제 아셨습니까,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공무원단체가 구들장논 보전 협의회하고 저것을 개발 초기부터 계속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바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참여했던 (청취불능) 회사와 청산 구들장논 보전관리 위원회가 협력하여 응모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행정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전문가

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들장논의 가치를 알리고, 구들장논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다음은 요즘 우리 군 간척지 농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태양광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간척지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 잘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저도 이전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할 때 들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의 생각은.....

완도군의 사면이 다 바다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최정욱 의원

우리 사면이 다 바다잖아요. 여기에 농토는 사실 미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토가 9,800헥타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한 8,10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거기에서도 사실은 간척지를 뺀다고 하면 농토도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토를 다 짓고 있는데 거의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청취불능) 있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수익적 목적으로 태양광을 하자고 와서..... 사실 지역에 와서 진짜조용하게 위로하고 위해 주면서 잘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인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인심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은 농사를 짓는 최고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업축산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농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토나 밭이나 어떤 형태든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우리가 수익목적으로 한다면 주민 수용도를 따지면..... 아까 솔직히 산림욕을 정말 다 보전해야지.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해버려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고. 농토는 우리가 보존해야 맞죠, 보전할 데는. 그런데 자꾸 농토가 줄어들고 그나마 간척지로 인해서..... 농업축산과도 있고 지역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우리 귀농정책도 열심히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 사실 그런 데에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내가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꾸 없애는데 농업 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없어진다면. 과장님, 그것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농토가 조금 있는데 기술센터, 축산과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꾸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과장님, 적어도 그런 데에 알려져 귀농객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가끔 만나서 위로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경제산업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협업부서니까 그쪽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축산과만큼은 농민들과 같이 접촉해서 이야기해 줄 부분은 해주고, 또 그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제가 와서 그쪽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 개발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농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쪽 농민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차피 갈등이 있는 데야 이미 그 정도 단계까지 와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화흥리 같은 경우도, 화흥포 같은 경우도 들쭉 들쭉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서로 형제 같이 시골은 살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찬성, 반대로 서로가..... 지역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나마 인심이 있는 지방도시에 저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저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개발심익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아까도 박인철 의원님이 말했습니다마는 조례법에 의해서 500M 그 기준에 맞추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데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갈등만 얼마나 부추기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다른 것은 몰라도 과장님은 농민들을 살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도 해주고, 잘해서 지역에 미리..... 이런 것도 미리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좋죠. 다 갈등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어찌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해야 맞죠, 과장님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한 페이지만 묻겠습니다. 8쪽, 농축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기능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도군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김양훈 의원

(청취불능) 집하, 선별, 포장, 출하까지 전부 다 포함되겠죠. 그 주체는 어느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김양훈 의원

아, 농협에서요. 그러면 대상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대상품목은 완도에 전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농축산물만 전부 포함되나요? (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수산물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일단은 이 목적이요, 농특산물복합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규모가 1,280평인데 20억의 예산이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속에 있는 뭐..... 기자재도 들어갈 것이고 장비도 들어갈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부족한 부분은 아마 자부담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자부담은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농협에서 쓰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자부담이 좀 증가되더라도 농협에서 전부 하시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희들 재정도 어

려운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다가 크게 선물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 군 행정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준공 후에 운영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이것이 준공되면, 준공되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요.

○김양훈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농협에서 하게 되면 판매라든가 마케팅 부분은 충분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부분도 아마 농협에서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은 농협에게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조금 부족하다면,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관리감독은 군에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사업 관리는 체계적으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되어야 농민들도 이익이고 축산에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 아닙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
 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에너지 감축과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전기차 50대, 전기이륜차 43대 등 총 93대이며 사업비는 11억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11대와 전기이륜차 4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47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슬레이트 주택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5억 5,460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15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5동 총 140동을 배정받아 신청자 모집 공고 후 6월 말 현재 87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량 53동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신속히 철거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개소에 사업비 49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산면에 시간당 35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향후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약산면과 청산면 기존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환경부 조정협약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2개소 모두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2011년 4월에 준공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최신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9억 원을 투자하여 아라연환경 주식회사에서 2026년 4월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말까지 반입량은 4,788톤이며, 18억 4,4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을 기준년도로 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1월에 재산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음식문화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반입량이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매립장 수명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과 반입된 생활쓰레기 850톤 중 510톤을 금년 6월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면 폐기물처리장의 사용종료로 2017년 12월부터 연간 450톤이 추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소각로 연간 가동일수 조정과 위탁처리 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7개소와 관공서, 학교, 주유소 등 개방형 화장실 156개소, 총 2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주체는 화장실 설치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매일 2회 이상 살균 소독과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행수칙 안내문 부착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급수설비, 전기조명 및 위생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분포하는 완도수목원 일원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고자 2025년까지 국비 1,872억 원을 투입하여 400헥타르 면적에 전시·교육, 연구·보전시설과 사계절 유리온실, 산악열차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우리 군이 단독 확

정되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과 국·공유림 교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과 동백 등 난대림이 어우러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과 해양문화가 접목된 전국 최초의 산림치유 공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약산면 당목항 일원 60헥타르 면적에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센터와 치유프로그램장,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 2월 준공하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와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의 숲 조례 제정과 시설 보완 등을 추진 후 8월 중 임시 개장을 거쳐 10월 말 정식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자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우수성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리적표시를 통한 배타적 지배권 확보와 더불어 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와 연계하여 소득과 관광자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완도 황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과 완도동백 고요산 혈증 치료용 조성물질 특허 등록, 완도황칠 안전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완도 가용리 일원에 황칠 특화림 40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조례 제정과 함께 특허청에 완도동

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기 형성된 숲길과 임도 시설을 중심으로 완도의 독특한 해양과 산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섬 고유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차 연도 공사로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5개소 58.6km 구간에 대하여 노선정비와 안전시설, 이정표 등을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 2차 연도 공사는 금일, 청산, 금당, 생일 4개소 113.5km 구간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17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일 소랑도 등 간선임도와 고금 세동지구 작업 임도를 신규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과 유지 보수를 통해 산림경영과 산불진화 등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임도시설은 1989년 임도를 개설한 이래 현재 총 94km를 이용,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로부터 타당성 평가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금일 소랑지구와 군외 영풍지구 간선임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히 발주 후 10월 말까지 전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13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

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65명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으로 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완도읍 가용리 나무은행 부지 내에 산불방지 대응 센터를 9월말까지 신축하여 산불 진화차량 차고지와 진화대원 대기실, 장비 보관 창고 등을 신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환경산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폐기물 이것 운영이 잘되고 있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또 신규로도 보니까 약산과 청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노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찬가지로 쓰레기 발생량이 10%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수거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니까 이번에 청소쓰레기 차량도 새로 했고 그런데 쓰레기양이 너무 많죠? 작년에 보

니까 신규로 그래도 새로 설치했는데. 거의 용량이 부족하니 또 구 소각장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현재 사업비 2억을 확보해 가지고요. 보수 설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가 완료된다면 운영상 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새로 수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민원거리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거리..... 전에 신규로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새로 구 폐기물시설을 수리하실 때 민원거리가 없게끔 잘 좀 해주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길 같은 경우에도 시설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길면사무소에요. 신규 대상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부지를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서 제공해 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부지 내에 아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추진한다든지.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신규로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공터가 있다고 하면 지역 분들과 미리 방지해서 거기를 좀 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미리 먼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수 경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남창에서부터 완도 관내로 쪽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가 정말 잘되어 있죠. 그것을 항상 보고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화흥포 쪽에..... 제가 노화에서 거주를..... 많이 있으니까요. 완도 체도를, 서부 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작목 처리라든가..... 작년에는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너무 작목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실제 저희들이 도로 환경 개선 그런 것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주에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풀베기라든지 작목 제거를 추진 중에 있고. 또 현재 보시면 동백나무가 밀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적절하게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크게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참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흥포 삼거리를 보시면 뚝방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궁화나무가 있는 것 아시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 거리가 꽤 되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구간이 아마 1k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간마다 지나다니는 곳이 또 거기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꽃도 많이 퍼서 예쁜긴 한데 관리가 안 되니까 참 보기에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침녕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저희들도 그 부분 현재 상태를 알고 있고요. 인력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현재 4차선 위주로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주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부분적으로 보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흥포 입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소안도가 항일의 섬이라 무궁화나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죠. 초입구라고 해서..... 소안도에 가기 전에는 거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고쳐놓는다면 소안도에 가서, 항일의 섬까지 가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 길이를 보면 1km가 넘는 구간인데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지역 농업기반공

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투자 그런 부분이라든지 명칭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라든지 그 부분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보면 무궁화니까 무궁화언덕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보고 지나가고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소안도를 보면 노란 무궁화 꽃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것을 채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전 공무원 출신 이문교 실장님 아시죠? (예)

보니까 이런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완도 체육공원에 있어요. 수령이 150년 정도 됐다는데 배롱나무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년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 군..... 당초 설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있던 것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재선 의원

그래요. 그런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상징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렇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알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혹시 사진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니까 저것을 상징물로 우리 군의 설군 시기에 맞춰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런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역사적인 완도의 상징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8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고생하셨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는 우리 군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동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는 물론, 청해진 장보고시대에 이어 제2의 부흥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운영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현재 산림청하고 전남도, 우리 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세 단체, 기관의 관계는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수립 초기부터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관계공무원 파견을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유치 단계에서부터 산림청에 제안했던 내용인데. 현재 계획은 전남도 3명, 우리 군 3명 총 6명을 파견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인원 등은 저희들이 9월 초에 산림청하고 전남도, 우리 군이 참석해서.....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파견한다고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시기..... 업무협약 체결이 끝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 있는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군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면 문제가 예비타당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산림청에서 국립난대수목

원 예비타당성 평가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추진 중인데요. 지난 6월에 전남도 하고 우리 군이 참석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당초 12월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9월이나 10월쯤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이나 운영은 산림청에서 할 것이고 문제는 수목원을 어떻게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로 흡수할 것인가, 이것일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저희들도 그.....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요.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해서 얼마큼 우리 지역에 이바지하게끔 하느냐, 그것이 큰 고민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국립난대수목원이 개원되면 약 8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당일 코스보다는 먹고 자고 즐기면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원이 조성되었을 시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숙박, 음식, 지역특산물 판매 또한 완도읍을 비롯한 타 읍면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해신 방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혀 대비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치유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준공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사업이 지연되기 보다는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요. 금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운영 사업자 참여를.....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지연되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10월쯤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의원

금방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해안 치유의 숲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것입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시설운영은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치유프로그램은 법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치유프로그램이요? (예)

과장님, 우리 군에 해양치유 뭐 치유프로그램 있습니까, 노르딕워킹 빼고 뭐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해양치유프로그램을 받은 것이..... 저희들은 산림치유만 가지고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인철 의원

처음에 7대 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건 환경산림과장이 왔을 때 용역 5억을 들어서..... 약산에다가 동백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때 용역비 5억을 전체 국비로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내가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안 치유의 숲으로 탈바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되면서 과장님, 인력이..... 청원경찰이나 이렇게 충원되어 있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현재 청원경찰 3명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1명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 1명, 2급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산림치유사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치유지도사는 위탁업체에다가 대행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인철 의원

이것은 그러면 해양치유공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림치유지도사 봉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아니, 제목부터 해안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연계형 치유의 숲인데. 보니까 해양치유공단에서 수영장하고 타워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은 빠졌고 타워만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제목 그대로 해양치유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 또 연계해야 만이 운영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별개로 운영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것이 염려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일단 현재 해양치유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산림치유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직접 운영을 해보고요. 차후에 수익 분산 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여기도 입장료를 받고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입장료는 없고요. 체험료라고 해가지고 산림치유지도사를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1인당 5,000원씩 이렇게.....

○박인철 의원

아, 입장료가 아니고 체험료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말이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5월말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직원들이 가서 실제 체험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군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가능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 한 서너 분 했는데요. 약간 현재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5,000원을 받고 있지만 그 돈이 아깝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몇 번 그곳에 가봤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본시설물이 좋은 숲속에서 폐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비접촉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가정으로 배달

음식을 많이 배달시켜 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이 많이 배출되면서 아이스팩도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이스팩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 종류는요. 크게 물 성분의 아이스팩하고 젤 형태의 아이스팩 또 종이포장재 아이스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찢어지거나 훼손된 물 성분 아이스팩하고 종이포장재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소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훼손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세척해서 전부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본의원이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그때 했죠. 그때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아이스팩 전용 수거제를 읍면에 24개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수거실적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수거실적은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 월 10개 미만 또 완도읍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한 30개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수거된 아이스팩은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재래상인들이 모두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수거된 것은 군으로 누가

수거해 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거하지 않고요. 일정량이 모여지면 자발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원하는 가정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다행이네요.

제가 언론을 통해 확인했는데 지난 7월 20일에 장흥군이 환경공단과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아이스팩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설명서를 홍보물로 제작해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이나 택배상자 안에 의무적으로 동봉하도록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재사용하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어디 한 군데에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제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유통센터에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유통업체라든지, 유통업체를 통해서 협의하고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통센터들이 이런 용지를 줘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쁘게 포장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또 어쩌면 이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아이스팩 하나라도 잘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제안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스팩을 많이 유통시키고 있는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앞장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더라도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군에서 먼저 나서서 활동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운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7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경제산업국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해양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관광과
-

(09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근린형으로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34억 원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시장 A동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집수리사업 29호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정사업은 구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금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와 건축 심의 후 설계공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완도읍 향동·중앙·용암·가용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내년도 공모신청할 계획이며, 인정사업은 현대아파트 공용주차장 조성과 구 소방서 부지 활용방안을 금년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역수요 맞춤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0년 완도읍 향동리와 2021년은 완도읍 성내리, 남성리가 각각 선정되어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향동리는 금년 사업으로 소통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은 완도읍 노두리가 2020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동리의 경우 LPG 배관망 사업과 64호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성내리, 남성리의 경우는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화읍 이목일구 지역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성장촉진지역 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2015년도에 국토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등 총 3개 사업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50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사업비 50억 원 사업비로 스카이워크, 산책로, 경관조명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청해시장 외 2필지를 6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다목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해시장과 게이트볼장, 완도우체국 앞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 10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리포 노을길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로 군외면 대문리 일몰공원에서 완도읍 대신리 소세포 세트장까지 3.2km 구간에 해안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8월 중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중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군외면 원동과 고금면 농상리 등 2개소에 1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외면 원동은 총사업비 51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8월 착공하여 해변쉼터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였고, 고금면 농상리는 총 사업비 59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2월 착공하여 농어민복지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외면은 7월중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고금면은 농어민복지센터 주변에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의 도시지역을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과 배수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외 5건의 사업과 긴급한 주민편의 사업들을 추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군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물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미집행시설, 총 172개소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총

116개소로 도로, 공원,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미집행시설 116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난 5월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고 6월에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은 군관리계획에 입안하고 9월 중 고시하는 등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자원 개발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체도권 내에 자전거 일주도로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완도읍을 비롯한 군외, 신지, 고금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완도타워 공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개관한 완도타워 관광객이 2017년 24만 5,000여 명을 기점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시설물 보수와 실내 테니스 및 복합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출공원과 완도타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3월 완도타워 공간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도타워 공간재생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 1차 구간인 노화~구도 간 연도교가 완공된 후 2차 구간인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은 해상교량 1,350M, 접속도로 718M로 총 연장 2,068M이며 사업비는 976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도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 4차 도서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확보와 예비타당성 등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연도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4차 도서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등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채널과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제4차 도서개발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 등..... 총 55건에 사업비는 109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사업은 45건에 99억 600만 원이고 군비사업은 10건에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55건의 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어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80건을 5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0건의 사업 중 131건은 완료하고 13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마을회관과 공동창고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21개 사업을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건의 사업 중 11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보길·약산·금일·고금권역 등 4개 권역을 총사업비 352억 5,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길권역은 2018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를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산권역은 2019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 5,000만 원으로 약산면 장용리 등 3개 마을

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기본 계획이 승인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권역은 2020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금일을 동송리 외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고금권역은 고금면 향동리 외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9억 6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선정된 금당권역은 신흥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4억 1,3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지방어항은 19개소입니다. 지방어항 개발현황은 완료항이 10개소이고 개발진행항이 3개소, 미개발항이 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개발진행항인 청산 모서항과 생일 서성항과 덕우항을 총 사업비는 425억 9,2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서성항은 금년 말까지, 모서항과 덕우항은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완도읍 망석리 등 3개 마을에 64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사업인 완도읍 망석마을은 총사업비 18억 8,5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탁하여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9월 중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인 신지면 동고마을은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6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인 청산면 진산마을은 총사업비 17억 7,700만 원으로 건축공사는 금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해 뜨는 구경길 사업 등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항을 기항지와 어항,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1년도까지 8개항이 선정되어 70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사업인 노화 솔지항은 총사업비 50억 5,000만 원으로 노화읍 내리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금당 가학항은 총사업비 5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도 사업인 금일 신구항은 총사업비 99억 2,200만 원, 군외 당인항은 96억 3,000만 원, 신지 명사항은 97억 7,300만 원, 청산 모도항은 97억 4,3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 8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객선 기항지인 생일 용출항은 7억 원의 사업비로 대합실 및 접안장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합실 리모델링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접안장 정비사업은 7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1년 사업인 약산 어두항은 총사업비 89억 5,000만 원, 소안 미라항은 111억 6,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완도읍 망남항 등 7개 항을 공모사업 신청하고자 예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절차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남도와 해수부 서면 및 현장평가를 마치고 12월에 최종 선정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요.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세히 좀?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

○최정욱 의원

예, 그동안..... 작년인가요, 제가 그때도 군정 질문 때 했었죠. 추진하는데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했는데. 그동안 설명을 못 들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주요 활동사항이 나옵니다. 2021년 이전에도 많은 중앙부처와 이렇게 인맥,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4차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로 조정해서 하는 방법,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현실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여기를 보면, 문제점 밑에 쪽을 보면 제3차 종합개발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에 소안 구도와 연도교가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3차 때 미완료된 사업에..... 정부에서 볼 때 어떤가요, 해당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정욱 의원

원래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 논리를 펼친 것이 뭐냐면 1차 구간이, 노화에서 구도 간이 3차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3차 도서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이 사업을 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편성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차 도서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편성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 사업비가 1,000여억 원이 됩니다, 1,000여억 원. 그런데 4차 도서개발사업비가 38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을 해보니까 나머지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4차 도서 개발사업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2차 소안~구도 이것도 4차 도서..... 정확히 반영이 안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 되어 있습니다. 35억 원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접속도로용이고요.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비는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전혀 이렇게..... 좀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도로 승격하는 방법, 또 하나는 3차 도서개발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이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과 반영이 절대 안 됐을 때 과연 예전에..... 몇 사람만 보고 그 다리를 놔뒀겠느냐는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때는 그런 것까지도 추진이 돼서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전혀..... 이야기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실망할 것 같아서. 또 가끔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부처에 가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타깃으로 잡아서 이 사업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면에 그것이 되어야 그쪽에, 완도군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적인 것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 예전에는 구도 (청취불능) 해줬겠느냐?”라는 이런 말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 추진력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지 않을까, 그쪽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줘야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앙방파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방파제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왜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나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중앙파제 같은 경우는 무역항이지 않습니다. 무역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사업발주는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고요. 똑같이 연안항도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전남도에서 발주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들이 국가 항이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런 사업을 우리 의원도 모르고 군민들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적어도 주민대표기관인 의회한테만큼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줘야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것은 방법론이겠지만 저희들이 저번 7월 2일 그리고 7월 19일, 7월 2일 완도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고요. 7월 19일은 의회에서 궁금해 하니..... 사실은 이랬었습니다. 저보고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저보고 설명해 달라, 관계가 있으니.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발주처인 전라남도에서 와서 깨끗하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라남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설명한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의원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 도에서 설명이나 올 때 내가 두 번째로 이전에 갔는데, 거의 결정되어서 오다시피 하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그런데 의원으로서 정확히 설명도 못해주지.

업무 때 적어도 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긴다고..... 우리가 그때 의견제시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그때 서로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도 될 텐데 전혀..... 아무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아무리 국가에서 하니, 해양수산부에서 하니 해도 우리 군에다가 와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넣어서 설명해 줘야 맞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해 버리면 권한이 없는 우리 군에서 자칫, 자칫 말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결론은 그러면 위에서 해수부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는 관망만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완도군의 의견을 전남도나 해수부에 전달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군과 해수부는 서로 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줘야 맞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도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런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앙방파제 설치를 했을 시 조류소통을 제일 걱정하거든요. 보면 북방방파제를 할 때부터 조류소통을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았어요. 그때 북방방파제를 했을 시 저도 거기에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런데 그때는 조류소통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방파제를 쓴다고 하니까 더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저것이 조류소통이 완만히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 말도 나오느냐면 해수관로를 까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들. 그렇죠? 다이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다 말을 한대요. 지금도 그 말을 한 대요. 나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말을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횡집들이나 전부 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아니면 해수부에서 했던 수질에 문제가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한번 적어도 우리 군의 입장을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죠.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다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

른 사업도 똑같지만 5년 동안 또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합니다. 사업비를 들여서요. 그때 그전에 했던 사항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사항하고 비교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보상해야 될 것이고.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그러면 해수부가 조사한 이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제가 그때..... 의원님도 같이 자리를 하셨지만 그때 퇴적층을 가지고 많이..... 그 퇴적층 관계는, 도에서 담당자가 했던 이야기는 1년에 0.7mm인가 쌓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대한민국의 이렇다 할 석학들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그것을 보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과연 거기까지 조사했는가.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은 중앙방파제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금방 영 점 몇 % 퇴적물이 쌓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중앙방파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태풍이 한 번씩 불면 너울성 파도들이 굉장하거든요, 알죠? (예)

그랬을 때 바다를, 벌을 뒤집는 정화력이 있어요, 파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저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중앙방파제가 섬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울성 파도 조차도 막게 돼요. 과연 그랬을 때 그 평가가 들어갔을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고할 때 3mm 간격으로 4M 조류소통구를 3개 설치하겠다. 저희들

이 계산해 봤더니 약 500M 정도 130개 정도의 소통구가 되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북방파제도 조류소통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봐도 그런 기술적인 것하고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 소통구 이야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조류소통이 일부분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울성 파도를 막아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 정화를..... 별이 약간의 있는 것을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정화시켜주는 효과는 없거든요, 소통구는, 그렇잖아요, 파도는 거기에서 깨버리니까. 파도가 안에 들어와서 뒤집어주니까 별이 약간 침체된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그 소통구하고 이것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 중앙방파제가 서기 전에 지금 시기에 바닥과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면 군은 그대로 믿고 가자는 얘기네요? 지금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가 현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전문가를 통해서 그 설명을 듣고 그 분이 판단했던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조사할 계획은 없다, 내가 요청합니다마는..... 하도 이것을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의 입장으로 인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기 전에 저런 불신들이 많으니 그래도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의원

방파제를 했을 때..... 제가 말한 너울성 파도가 들어와서 정화작용을 하는 이런 용역까지 다 들어갔다고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네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최정욱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앙방파제가 설치되었을 때 만조 시 5M 이상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질문했을 때 보니까. 그런데 제가 물양장을 최고 만조 때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만조 때 물양장에 물이 안 오르면 약 1M 정도 되더군요, 만조 시 때 보니까. 거기 키를 2M로 잡았을 때 3M거든요. 간조 시 때 물높이와 우리 키높이, 눈이 바라보는 앞의

경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5M가 아니라 2M 더 높아요. 앞에서 봤을 때, 신지경관을 봤을 때, 2M 더 높다면 앞이 거의 안 보인다고 봐요. 그래서 북방파제 쪽을 내가 봐봤는데 역시나 거기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가 완전 관광지로서 외지 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거기를 걸으면서 관광을 즐기는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막았을 때 경관이 방파제 역할로서..... 예전에 그것을 그렇게 않게 명품화로 만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어떨까요,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거기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높이를 맞춰야 만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관광목적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덩그러니 있어버리면, 그것보다는 활용하는..... 지금 보면 설계상에는 야간경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수부와 협의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주민들은 일부 저에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저기에 중앙방파제가 없으면 어떤 배든지 거기에서 자유롭게 회전하고 왕래하고 그러는데,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먼 미래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방파제를

하려면 강둑 뒤에 충분히 만들어서 배를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경관은 정말 괜찮을 것인데.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지금 퇴적물이 조금 쌓이더라도 너울성 파도로 의해서 그것이 자연정화도 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막아서 경관을 해치고 관광이미지 해치고,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뒤로 거기에 어떤 배가 왕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배들이 회전하는 데에 어려움도 겪지 않을 텐데. 이런 문자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요. 특히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개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완도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제안이나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전남도나 해수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 우리는 진짜 바다 항구로서 왔을 때 왔을 때 탁 트이는 맛이 있어야 제일 경관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경관을 해친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군에서는 만약 그것이 되면 야간경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야간경관은 명사장..... 아니, 신지 앞에 불이 들어와서 보기 좋게 상가와 어우러져 있어요. 그것보다 낮에

도, 뭔가 방파제보다도 거기에 어떤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관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꼭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최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해상분수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중앙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한 490 몇 M가 되죠? (예)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본회의장을 아마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방파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어디까지. 이것을 다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그 정도는 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가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간담회를 할 때 현재 497M를 가지고 부족하다면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97M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비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랬었고.

일단은 그것을 준공한다, 준공한 이후에 중앙방파제가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면 연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런데 그 497M를 했을 때 방파제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것 이거든요. 과연 중앙방파제로 했을 때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저런 것이 다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 어느 정도까지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497M 외에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다시 연장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그 부분입니다. 부족하다면 연장을 하겠다.

○최정욱 의원

예, 하는데 지금 현재 497M로 방파제 역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는 얘기죠. 그때 도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만 설명을 들으니까 다들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보시면 북방파제에서 100M 이격 간격을 두고 주도 쪽, 이쪽을 향해서 방파제를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그때 설계도면을 보시면 도에서 설명할 때 그것이 약간 부족하다면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요, 어떻게 저도 설명을 못하거든요. 안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지금. 저쪽 방파제 역할이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때 도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냐는 질문에 우리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도 그 설명을 못한다 면.....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감리단이 있으니까

감리단으로 해서 그 유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청취불능) 그런데 바다의 바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도에는 아마 이 정도면 자기들 용역에 어디까지는 될 것이다. 그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받아서 의원들한테 줘야죠. 그래야 설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과장님, 그것을 꼭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 하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은 연장을 꼭 해야지. 이것 그대로 놔둬버린다고 하면 어차피 방파제 역할이 일부분만 되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그쪽과 이야기해서 하고.

이것을 업무보고 때 넣어야 돼요. 넣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줘야 우리들도 알고 또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시정해 가도록 하고 이렇게 가야 맞지. 아무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업무보고에 빼놓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때서야 주민들에게 문제가 돼서 의원들이 그때서야 알고 이것을 다시 질문한다, 질의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쪽,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공모에서 탈락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김양훈 의원

계획입니까, 신청하실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신청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코스를 봐보면 코스가 5코스 같은 경우 국도 77호선인데 도로가 엄청 좁고 협소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상태고. 이런 코스를 가지는 교통사고 유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행자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행안부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군비를 매칭해서 50대 50인데. 전국적으로 맞게 개선을 합니다.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에는 우리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사실 완도군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김양훈 의원

이런 부분은 코스를 어떻게 보면 큰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가서 보면 군도나 지방도 같은 데를 보면 한적한 길이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해안가 쪽을 돌 수 있는 이런 곳을 잘 찾아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몸을 생각

해서 왔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섬지역의 생산기반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지원 근거는 현재 섬발전촉진법이지만 그전에는 도서개발촉진법으로 육지와 다리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되면 사업대상에서 전부 다 제외되고, 그 규정 때문에 2018년도부터 신지, 고금, 약산 3개 읍면은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연륙교 건설되면서 교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물양장, 도서개발사업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사업 수요를 감안해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 이 3개 읍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차 도서개발사업의 계획기간, 총사업비, 금년도 읍면별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4차 도서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도서별로 금년도 사업비는 많게는 17억, 적게는 한 6억. 그런데 대체사업비는 도서개발 평균 한 3억 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 많이 부

족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김양훈 의원

2018년도부터 도서개발에서 제외된 3개 읍면, 방금 말했던 신지, 고금, 약산 그쪽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2019년도에는 총예산액이 22억 그레 가지고 한 도서당 평균 7억 3,0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예산액 16억 7,000, 그레 가지고 평균 5억 5,000. 금년도에는 10억 5,000, 평균이 3억 5,000 이렇게.....

○김양훈 의원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금년도도 도서개발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글쎄요,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김양훈 의원

왜 안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저희들 자료를 보면요. 3개 읍면 해서 10억 800인가?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10억 5,000.

○김양훈 의원

10억 5,000. 나머지 금일이나 다른 곳, 노화, 군외 청산 이쪽을 보면 16억입니다. 16억, 1개 읍면이. 기본적으로 15억, 7억 8,000, 10억, 17억, 11억, 13억, 6억 9,000. 3개 읍면을 합쳐서 10억이라는 것 말이 되겠

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김양훈 의원님, 이것은 법이 문제고요. 법이 문제여서 저희들이 계속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 21대 국회 때도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간담회 때, 정책간담회 때 그것을 계속 얘기했었고. 중앙부처에 연도고 사업을 건의하러 가지만 건의하러 갈 때마다 이 건은 법을 개정해 달라고 넣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김양훈 의원

쉽지 않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줄어들다가 3억까지 쪽 떨어졌는데 3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동네들이, 3개 읍면 동네들이 작은 동네도 아니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맞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다른 도서개발종합사업비 전체적으로 가는 기준보다도 예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로. (예, 알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어촌정주어항, 향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어촌정주항은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촌정주항은 사실 완도군에서 관리하는 항입니다. 사업도 완도군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계획은 2013년, 2014년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소규모 사업이라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일 용출항이 어촌정주항입니다, 생일 용출항이 어촌정주항인데. 2020년도 어촌뉴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기항지로도 개발하고 있고요. 제 생각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군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다면.....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해서, 기항지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천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청취 불능) 금일 일정항, 충도 이런 부분은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기항지 개념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어촌정주항 개발 관련 중장기 추진계획을 잘 짜가지고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6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앞에 쪽으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청해시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5억 3,000만 원으로 청해시장 건물하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9억 7,000만 원으로 우체국 앞에 토지를 최종 마무리해서 지금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00여 면 정도 조성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게이트볼장 자리까지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완료됐습니다.

○이범성 의원

아직까지 게이트볼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일사 옆을 하고, 2차적으로는 완도우체국 앞에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중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이범성 의원

다음 연말까지죠? (예)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 내지 1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분들 조치는 군정 질의랄까,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배치를 시켰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조만간 뵈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양해는 다 구해진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아직.

○이범성 의원

아직 덜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빨리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군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자기들 운동을 영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깐 그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그쪽들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 잡초만 깔아져 있는데 포장까지 다 완료될 것이죠?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14쪽, 구도~소안 연도교 사업을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업은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4차 계획은 예산 축소로 어렵고 제3차 계획을 이용하여 미완료 사업으로 변경 계획하거나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이렇게.....

○박인철 의원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금일의 경우 민간인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여..... 금방 국도 승격 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죠? (예)

노화~구도 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죠? (예)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다리를..... 지방도로가 되어야 도에서도 돈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럴 것인데.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공중에 그냥 떠있는 도로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일 분들이 고생해 가

지고 금일도 국도 승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완도~노화 간 국도나 지방도 승격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 부분은 지금.....

○박인철 의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구도~소안 간 영원하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아니,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인철 의원

우리가 처음에 1차는 환경부 예산으로 했습니까? 1차 노화~구도 간은?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노화, 보길.

○박인철 의원

아니, 노화~구도 간이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아닙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도서개발사업으로 했습니까? 도서개발사업도 축소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 어렵다면 노화~완도 간 국도 승격도 한번 노력해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지방도로 한번 승격시켜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지방 도에서 따오고 군비까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 그리고 지방도로도 어렵죠, 지금?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것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는 어렵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박인철 의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화, 소안을 중심으로 민간인 중심, 금일처럼 추진위원을 구성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은 총 19개소이고 10개 항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3개 항은 진행 중이며 6개 항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죠.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일단 지정권자는 도지사고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렇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선정하죠? 시군 의견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것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방어항은 일단 태풍에 대피하는..... 그리고 어선 수, 어선세대가 하겠죠. 어촌 생활,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군외 원동항은 완도군의 관문이며 인근 어촌계 등 많은 어선들이 수시로 접안하고 태풍 시에도

많은 어선들이 피항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여건들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항들과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어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리고 원동항은 현재 진행 중인 어항들 사업이 끝나야 추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원동항은 2015년도에 수변데크를 했는데 그 공사로 해서 금년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준설하고.....

○박인철 의원

그것은 수변데크를 하고 옛날에 줄을 묶어 놓는 그런 것은 했어요, 일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서성항이나 이런 것처럼 대단위 항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은 언제쯤 계획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원동항은 소규모..... 그동안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소규모 예산을 들어서 완료가 된 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인철 의원

그 사항에서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준설하면 마무리되는 항입니다.

○박인철 의원

전혀, 내가 봤을 때는 태풍 피항 시 전혀 뭐가 안 갖춰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부분, 부분하고 나서 완료한다는

이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기본계획에 예산이.....

○박인철 의원

대단위 항 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완료 항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항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원동항을 다시 개발한다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예산, 기본계획, 실시 설계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요.

군외 원동항은 국립난대수목원의 입구이자 완도의 관문입니다.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완도대교를 지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항입니다. 따라서 국립난대수목원 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이 더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도항은 최정욱 의원님이 했으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민 안전보험 확대 추진 등 16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 안전보험 확대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기존 14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6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 간 익사사망 등 총 12명에 대하여 1억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은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입니다. 본사업은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벽진

에서 강진 성전 구간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구간인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사업을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연장 88.6km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구간인 강진~해남 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점추진 노선으로 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장보고대교 개통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달라진 여건 변화에 맞게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중점 추진 노선 반영은 물론, 1단계 공사 준공 전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흥~완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입니다. 본사업은 남해안 해안관광도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흥~완도 간 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지금까지 2014년 9월 고흥~완도 국도 승격 범군민 대책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2021년 5월까지 국토부, 기재부, 국회방문 및 국도승격 서명운동 실시, 서명부 전달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 및 설득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무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발표, 6월 22일 도로노선의 변경 고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도승격까지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향우들 그리고 완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흥~완도 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제20대 대선공약 반영과 예타 면제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

으며, 제5차 국도 건설계획 또는 제6차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완도~광주 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해양관광 수요 증가와 신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속철도가 완도 경유와 완도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사업 반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을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과 예타 면제사업 지속 건의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급경사지 등 기하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도 77호선 완도 화개지구 위험도로개선 사업 외 1개소와 국가지원 지방도 13호선 신지 갯길 정비공사 외 2개소, 지방도 830호선 고금 굴곡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임국도 77호선에서 추진 중인 고금 상정지구와 군외 신학교차로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고금 덕암지구 위험도로 사업 건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830호선은 고금 덕동지구 굴곡 위험도로와 보행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약산 당목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8월 중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청인 전라남도과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고위험이 상존한 지구의 선형 개선과 협소한 도로의 확장 정비 13건, 아스콘 포장 정비 등 8건, 안전시설물 및 법정으로 유지관리사업 12건 등을 발주하여 차선도색 5건, 아스콘포장 정비 4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등 24건에 대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경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제방 보강, 양수장 및 용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군외 신학지구는 2020년 6월 시행계획 승인완료 후 8월 1차 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 가교지구는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화 소당·도청지구는 2020년 상하수도 및 주택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주차장 및 담장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일 일정지구와 금당 봉동·육동지구는 2020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중 착공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발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발기반 대상지로 지정된 107개 지구 중 62개 지구를 완료하여 정비율은 76%입니다. 2020년도 착수지구인 소안 진산, 노화 등산은 금년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착수지구인 군외 삼두, 신지 월부는 금년 9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외면 일원에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편의 및 복지시설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사업비 208억 5,500만 원 중 202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9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는 마을기반 정비, 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2개 분야 12건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에 대한 제체보강, 그라우팅, 사석정비 등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여 재해 예방 및 영농편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도 대가용제는 금년 1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노화 동고제는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화 충도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화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화 충도 방조제 767M를 보수, 보강하여

태풍 등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20년 3월 실시설계 및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7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완도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단면 확장 및 호안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1차분 준공 및 2차분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축사에서 송아지 폐사 및 주민과 이해관계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빠른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여 2021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외 대문·용계지구 및 소안 비자지구는 해안정비지구로 해당되고, 금일 화목3지구는 사면정비지구로 총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4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문·용계지구, 금일 화목3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안 비자지구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문·용계지구는 금년 12월에 금일 화목3지구는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소안 비자지구는 금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29년을 목표연도로 완도군 전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에 대하여 종합

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읍면 현황조사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향후 재해예방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완도군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24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내 991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는 60개소 109대의 CCTV를 증설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5개소 20대의 CCTV를 구축하였습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실시간 신고실적은 차량털이, 집단폭력 등 5대 중대범죄 7건을 포함하여 100건의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83건의 수사자료 요청 중 242건의 자료 제공을 통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CCTV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안전건설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 완도~고흥 간 해양관광도로 승격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군수님하고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선이 연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되고 또 예타 (청취불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문 용계지구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거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거의 공정율이 한 8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것 큰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나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일 화목지구는 지난 1월에 착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금일 화목사업지구는 사면이 조금 위험하고 밑에 건물들이 낙석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낙석 위주의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지역주민들이 도로가 상당히 휘어진 부분이라 도로포장까지 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 땅 소유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평가는 해서 읍면에 통보를 했고요. 읍에서 개인별로 통보하고,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면 설명도 해드리고요. 최근에도 세 분이 오셔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세 분 오신 분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금일읍의 행정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세 분이 오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아마 면담 신청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과장님, 면담을..... 그 땅이 군 소유죠? (예)

그러면 세 분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상인들.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세 분들하고 행정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금일 행정은 배제된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 시장이 계획대로 철거된다면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별도 군비를 세워서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조인호 의원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땅 시가가 공시되었으면 개인들에게 빨리 송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읍으로 보냈죠? (예)

그런데 읍에서 사용주들에게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분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 생업 때문에 늦어진 것 같고요. 또 금일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다 통보되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완도군, 금일읍하고 추진위원하고 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공사가 되지. 사용주들이 저한테 자꾸,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그 보상을 가지고는 도저히 비켜줄 수가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모든 사업이 토지보상 때문에 좀 그런데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이 줘도 적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제가 일부러 거기에 가서 최대한 평가를 잘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건물들이 너무 오래되고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쯤은 조금씩 이해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일을 추진하면서요. 읍하고 좀 지역 추진위원장, 동네 이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연구할 부분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연구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저도..... 그 3층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다 이주시키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승낙을 한다고 나한테도 그랬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이 부분에 수급이 힘든 것 같아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팀장님과 면담하고 그랬죠? 김두헌 팀장님 안 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오늘 연가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챙겨서요.

저렇게 해버리면 사업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하여튼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도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합의점을 빨리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완

도군 전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광주 건축물 철거 시 폐쇄기 안전사고,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등 사업장 내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완도군수나 관련 공무원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도급금액 기준으로 인해서 2,000만 원에서 120억 사이의 사업은 지자체 안전관리강화시스템이라고 K2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점검을 계획하고 점검내용, 또 발주부서 담당자가 입력해서 별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한 후에 관리하는 실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점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안전관리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모, 안전화를 구입하고 안전관리사가 와서 교육시키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해양치유산업 건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다녀오고 관계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면 안전관리 설계가 가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감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화하고,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별론으로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입하여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동의합니다.

○박인철 의원

계약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장님께서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지 월부리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이고 지난 2018년경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이란 많은 비가 내려도 배수를 원활히 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수지를 만들어 냈다고 주민들이 군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원성이 정말 높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가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를 보다 못한 월부리 청년들이 지난 2019년 가을에는 자진해서 며칠 동안 월부리에서 가인리 배수관문까지 폭 약 20M, 길이 약 300M 하천에 가슴팍까지 차는 물에 직접 뛰어들어 예치기로 갈대 제거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장마기간에는 전혀 침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갈대가 무성해 지면서 이번 장마기간에 또 다시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하천 아래쪽이 침수되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하천 아래쪽은 침수되지 않고 하천 상부인 월부리 마을 농경지 침수가 되풀이되는 웃지 못 할 기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 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6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한 배수 개선사업이 잘못되어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월부리 배수 개선사업은 2016년도에 약 46억 원의 사업비로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이런 침수가 자주 발생해서 중앙배수로를 확장하고 준설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아래쪽 축양장하고 어류 축양장,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준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전부 피해가 발생된다고 해서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수된 논에 며칠씩 물이 빠지지 않아서 어린 벼가 녹아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벼는 병충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하천 바닥을 블록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갈대가 자라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매년 갈대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배수로 준설과 또 (청취불능) 공사는 밑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갈대 부분은 이번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당장 올 겨울이나 내년 농번기 전에 갈대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침수가 반복되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매년 갈대나 이런 것을 채취한다고 했는데. 바닥에다가..... 노화 구석 지구인가, 배수 관문사업을 해봤는데 너무 잘 해봤더라고요. 거기는 가뭄 때 물을 가두고 또 장마일 때는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번 장마..... 거기도 항상 침수되고 또 가뭄 시 항상 물이 부족했는데. 우리 군에서 똑같이 했는데 노화 구석지구는 너무 잘 해냈어요, 바닥을 해가지고. 저수지 역할도 하고 저류조 역할도 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갈이나 블록이나 콘크리트가 안 됩니까,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준설이나 갈대 제거 시 양식장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그 연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항구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쪽에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관련입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좋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

니다)

주로 우리 군에서 익사 사고나 농기계 사고 등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검토는 잘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해경하고 육경에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 5건, 금년에 3건, 익사사고로 농기계 사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수는 금년에 1명, 작년에 2명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거기에는 외지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 건수는 줄어듭니다.

○이범성 의원

아, 외지인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보상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청구 방법은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고 또 그 이후에 사고조사 및 심사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아, 그러면 사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3년 전엔가..... 소안면 당사리 이장님이 익사사고가 났는데, 이것이나 3년까지 가는지 본의원도 몰랐는데 그 쪽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면 타가고 몰라서 3년이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소식지하고 SNS라든가 현수막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리고 사망할 때 1,000만 원인데 이 보험금을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 2,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범성 의원

계획이죠?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고가 난 부분이랄까.

사업비가 5억, 504억입니까? 7,7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 가지고. 1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504억 7,700.....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5,000입니다, 5,000.

○이범성 의원

아, 5,000.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보기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보험료.....

○이범성 의원

너무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이범성 의원

보험료. 그러니까 사업비.....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타먹으려고 하는 사고 건수는 많은데 보험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쿨링포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변공원에 쿨링포그를 언제 설치하고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2019년 8월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71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현재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작년부터 포말, 공기방울 이런 데에서 코로나19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문으로 중단 지시가 떨어져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못하는 것인 데요.

저렇게 놔두다 보면 나중에 전혀..... 우리가 진짜 사용할 때는 노즐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망가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를 떠나서 전혀 가동을 안 해버리니까,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가동하지 않으면 기구들이 전부 다 썩고 망가지기 마련이

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봤을 때 군민들이 다니지 않는 시기랄까, 새벽 같은 그런 시기랄까, 그런 때에 조금이라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매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매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험가동을 했던 것을 본의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여건,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앞에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5일 시장에 들어가는 데에. 올해 들어 그것도 가동을 전혀 안 하던데 그것도 코로나와 관계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거기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이범성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역개발과장님, 그것 답변 좀 해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예, 일정 부분 관련 있고요.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도 미세 물방울이 퍼져 가지고..... 그 부분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안 한다는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들이 다 마모되니까 시험운전

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해 줄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완도군에 보면 소하천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한 80개소.

○박재선 의원

그런데 정비율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정비율은 썩 높지는 않고 한 30%대.

○박재선 의원

해마다 보면,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계속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이 또 소하천 아닙니까.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국도비.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쪽으로 좀 많이 움직여서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국가 하천은 그런대로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지원도 합시다마는 소하천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챙기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청산, 이런 곳에 가서 보면 하천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고 또 요즘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보길도 마찬가지로요.

○박재선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도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공사 중지가 됐네요. 내용을 보면 송아지 폐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여기에 폐사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 사업현장 주변에 30두 정도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폐사돼서, 현장에 접수돼서 보상관계를 협의하려고 몇 차례 문의를 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또 하천 하단부에 신성시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바위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다른 노선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선 의원

전에 2019년도인가요? 그때 비가 최고로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하천에..... 제가 직접 봤거든요. 거의 길가에 올 정도로 하천이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그후에 가서 보니까 이 계획을 짜면서..... 지금 폭이 한 5M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상폭은 14M.

○박재선 의원

아니, 현재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현재는 협소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죠. 그런데 14~15M로 늘리게 되면 농경지나 길하고 도로하고 전체적으로 싹 매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4~15M를 하니 민원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하천 폭 결정은 유역면적이란다가 또 강우, 빈도, 강우량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폭이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과학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빨리 해소한다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고시된 토지는 빨리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쪽 농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소요되고 또 개발행위 허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서 공사가 중지됐지. 송아지 폐사 한 마리 됐다고 해서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 집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될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지금 토지 수용이 안 된 것은 한 사람이고요. 두 분이 안 하고 있고, 방금 축사 관계 민원은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항상 수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민원이 되지 않게끔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공사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내가 잠깐 물어볼 것이 있는데 빠져버렸네요.

제가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화, 구도 소안, 보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화, 구도가..... 지역개발과장님이 도로가 비법정도로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거기는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비법정도로 보고요. 아까 지역개발과장도 언급했는데 내년 6월까지 전남도에서 지방도를 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완도 화흥포에서 횡간도로가가지고 횡간도에서 구도 소안, 청산, 금일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6월까지 그런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것이 꼭 국도 승격

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방도로가 되어야 우리가 도에서 구도 소안 간 도로를 하게 되면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도에서 주고 싶어도 지금 못주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최소한 지방도로로라도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의원님과 같이 해서 하고요. 지방도로라도 승격되어야 만이 이번 금일처럼 국도로 되기 때문에..... 지방도 승격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 도 의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꼭 지방도로 일단 되어야 국도 승격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많은 힘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원고 이고아사 문화거리 조성 외 11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원고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신지면에서 15년 유배생활을 하다 생을 마친 원고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를 테마로 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지면 대평리에서 금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업체 선정에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1월에 시공업체 선정 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군외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군외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지금까지 2020년 9월 균특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시공업체 입찰을 통해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100세 시대 평생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관내 23개 한글교실을 운영, 한

글을 배우기 원하는 어르신 등 284명을 교육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전남도 주관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비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인 평생교육원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 누림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문체부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융복합 3D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명품마당놀이 신뽕파전, 역할놀이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공연을 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 위로공연과 아만더스 콰르텟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사업추진으로 코로나 속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큰 문화 나눔을 위한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신작영화 개봉을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 지원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48편 영화를 813회 상영하며 군민 3,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예상되지만 관련 지침, 규정, 조례안에서 지원검토 및 자생방안을 모색하여 군민 문화향유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단체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문화예술 단체활동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사업 활동지원에 총 17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문화원 법정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각종 문화공연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완도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착공, 지난 6월 24일에 완도군 생활문화센터로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등을 즉각 보완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일상 속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며 소규모 발표 연습공간, 제2 전시실 등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시공업체

입찰 및 착공으로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내 문화홀 및 다목적실로 명명하고 군민들의 문화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포진 성 400M와 남문 재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8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9년 정밀발굴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을 마쳤으나 사업장소 인근, 연립주택 신축 허가와 관련 구간 내 진성 축조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11월까지의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공간을 관광테마와 접목,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군특 지방이양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에 계약심사 및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 설계제안서 공모를 통해 업체 선정 후 5월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삼도수군 통제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완도 고금 충무사 역사공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기존 고금권역에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통합하여 우리 군 문화유산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를 가진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당시 제시되었던 여러 의견들을 종합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8월 용역 완료 후 문화재청에 2022년도 사업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충무공 기념사업을 통한 호국정신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유적순례코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도 해전전승 수군체험관, 완도 충무공 이순신 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관왕묘 복원에 대한 세 차례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와 이에 대한 전라남도 문화재청의 이견으로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4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또 지난 6월 문화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과 사업의 긍정적 의견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해당사업에 대한 제4차 현상변경 허가요청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순신 전시관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 갯벌 층이 두텁게 나타나 지난 5월까지 건축부지 지대 보완을 위

한 파일 향타 시공을 마쳤습니다. 내부 전시영상 콘텐츠 제작 설치 업체 선정 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예정으로 이순신 전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입니다. 본사업은 약 12년이 지난 장보고기념관 내부 시설을 첨단기술의 전시기법이 융합된 신규 콘텐츠로 제작·설치하여 장보고대사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6억 원 중 올해 1억 2,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11월 준공 완료하여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절차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설계 계약 후 내년 2월에 착공,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 명소화 추진입니다.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은 장보고동상과 함께 놀이와 체험공간으로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놀이기구 8종, 친환경 놀이기구 6종과 놀이공원 모노레일 교차터널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지난 2월에 신청했던 장보고동상 청소년 놀이시설 공모사업이 9월경 확정되면 스케이트 보드장 및 청소년 클라이밍시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장보고대사의 도전정신을 실현한 한상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동기부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건축공사를 준공한 후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발주하였

습니다. 앞으로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8월 중 준공한 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8월 중 준공한 후 시험 가동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10월 중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6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소안, 청산, 보길, 완도 수목원 등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군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1월에 MAB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가 우리 군을 방문, 현지실사를 한 후, 지난해 2월 MAB한국위원회에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12월에 유네스코 국제 자문위원회에 본신청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는 통과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9월 개최될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지정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자체 상표 개발을 추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관리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도 구들장논 등 우리 군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학술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전략방안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2020년 12월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용역을 완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문화재청 관계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등재 신청에 관한 업무협의 및 자료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1월까지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정보자료 확충 및 지식, 정보 접근권 확대입니다. 본사업은 최신 장서 확충과 다양한 정보이용서비스 시스템 확대를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3개 도서관에 23만 2,000여권의 자료를 확보하여 군민 1인당 4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총 2만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신장서 및 특화도서, 전자도서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생활 속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본사업은 독서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문화 강좌, 강사 초빙 특강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지역 분위기 조성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북 콘서트, 문화공연 등 하반기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1읍면 1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 및 내실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기능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7개 관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신규 개관한 완도읍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에 3,000여권의 장서 확충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지원과 함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문화예술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5쪽, 유네스코 생물지역 등재 관련해서요. 질의라기보다 생소한 사항이 있어서 연찬하는 의미로 물어보겠습니다.

등대 추진절차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생물권보전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신청서를 한글로 작성한 후에, 영어로 번역하는 용역을 한 후에 MAB한 국위원회에 통과한 후에 세계유네스코본부에 제출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아마 나이지리아에서 9월 총회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양훈 의원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거의 등재 가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등재 후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대, 효과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일단 선정되면..... 우리나라에 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된다면 아홉 번째로 완도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는데, 선정될 경우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붙여 나가는 신안군 소금 값이 3배 정도로 부가가치가 붙여져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내 대형마트, 여기에 생물권보전지역 마크가 달려 가지고 입점이 더 수월해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수출할 때도 완도군 특산품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브랜드 마크를 달고 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그렇습니다마는 ASC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다. 지금 ASC를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더 많이 받고 더 잘 팔리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어느 정도 입점이 되고, 어느 정도 더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무엇이냐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완도군 같은 경우 수산물 쪽에 있는 ASC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론 세계적인 인증이긴 한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붙어서 나가게 된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추가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게 추진해 놓고 만약 나중에 결국 똑같은 형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세하게 책임을 저주시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재산권, 농업 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일반군민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재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제약은 없습니다. 단,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제한을 받는, 그것은 그대로 받는 상태에서 다른 제한은 일절 없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개 읍면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장

님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재산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도군 전역 중에서도 핵심구역은 소안, 청산, 보길, 수목원에 대해서 3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청산도 구들장논, 여서도 돌담에 3억을 투입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지역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세계유산은 사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불국사 석굴암이나 해인사, 이렇게 기존에는 문화재 자체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경관 분야로 이것을 잠정목록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은 그동안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곧 9월이면 확정될 것 같고요.

세계유산은 일단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2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재된 후에 문화재청에서 매년 세계유산으로 세계본부에 신청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신안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갯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목록 등재 후에 11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목록 등재가 목표입니다.

○김양훈 의원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세계유산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일반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쪽 지역이나 아니면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려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자연보호나 자연이용, 발전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군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내용인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청취불능) 청산도, 이것 이중 용역 아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이중 용역은 아닙니다. 분야가 달라서요. 세계유산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중은 아니고, 생물권보전지역은 완도군 전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은 청산도에 있는 구들장논하고 여서도에 있는 돌담,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것은 맞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첨부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겹치는 예산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생물권보전지역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한국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곳이 등재되었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서남해안.

○김양훈 의원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네 군데가 대대적으로 등재되었다고요. 과장님도 사전에 알고 있었죠, 이것?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것은 제가..... 잠정목록 등재로 됐기 때문에 목록에는 서남해안 갯벌이라고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갯벌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완도군에 갯벌이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치유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머드팩도 치유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등재로 추진하기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 완도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많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동안에, 이것이 10년 전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11년 전에 거기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언론에서 봐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이런 지역들은 10년 전부터, 그전부터 람사르습지 그쪽으로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해수부에서. 미리 이런 갯벌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계획된 지역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산군이고 갯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준비를 미처 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많이 아쉽죠. 말로만 완도군에서 해양치유를 하고 갯벌이 좋네, 생태계가 좋네, 뭐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공유해서 해수부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환경부라든가 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캐치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요,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이것 계속 추진한다고 아까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 문화재 신청이라고 했는데 왜 안 되었으며, 왜 보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문화재 등재는 사실..... 옛날에는 문화재 자체로 등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로 등재된다면 재산권 행사에 상

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반대하는 곳에 강제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떤가요, 앞에 빌라가 선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역개발과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최정욱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결과 조건부로 승인해서 조건부로..... 업체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욱 의원

아직 승인한 것은 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민원실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만약 그 빌라가 서게 되면 이 문화재의 가치는 사실 주민들이 전체..... 제가 항의를 받은 것도 많거든요. 또 방금 말했다시피 도 문화재로 신청했는데 보류된 것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문화재로 최종적으로 등록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그동안 빌라가 그 앞에..... 진성이 축소된 앞에 빌라가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성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자원화에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역사문화교육으로..... 역사문화 영향, 이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은 문화재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목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만에 하나..... 성이란 밖에서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 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성을 쌓아놓고 앞에 뭐가 가려버린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문화재도 좋지만 문화재를 발굴했을 때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게..... 거기에 동조도 하고, 와서 보고 느끼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관광으로 해놓고 그것을 방치해 버리면 예산..... 자꾸 주민들이 안 보고 관광객이 안 본다면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방치되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되게 되는데.

완도읍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체가 저희들한테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서버리면 가리포진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들이 다 그렇게 여론이 돌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여론을 들어보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도성이, 그러니까 진성이..... 산성 같은 경우 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앞에 건물이 막아서 이런 사례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한양도성이나 또 해남읍성 같은 경우 주민주거지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문화재 역사유적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앞으로 완도군은 20년, 30년 내에도 저런 사업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저것을 좀 더 가리 포라는 옛 완도의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로도..... 특별히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니요. 200M 길이가 되는데, 400M에서 200M 길이가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자원으로 진성을 조성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남문 청해진..... 청해루 같은 경우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정욱 의원

방금 전에 자원화를..... 시내 중심지 주택과 어우러져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거기에 뭐 주택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이라고 말한다면 완도읍내 시내 정도의 주택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해요. 시내에 가까우니까 누구라도 가서 보고 느끼기도 하는데. 거기, 저기는 시내가 아니죠. 그렇다고 산도 아니에요. 그래도 산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이 어떻게..... 가려버리는데 그것을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원래 취지대로, 예전에 왔을 때 설명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니까요. 과장님과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기니까 반드시 저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 다시 재차 보고하고 재승인을 얻어서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저 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다른데. 그때도 찬반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것을 가리지 않았을 때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찬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으로 인해서 반대쪽에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시하시고. 의원들은 예전과 다르잖아요, 보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하시고 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합의를 얻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보고기념관 옆에 보면 도로가 안 퍼졌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매입이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마 수년 동안 매입하기가..... 감정평가하고 시가의 차이 때문에 못했는데. 지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인근 토지주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토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됐으면 저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은가요. 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제 가서 봤더니 안 되어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다른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레미콘과 포크레인만 있으면 되는데. 저렇게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롤러가 필요하고 피니셔 그 다음에 덤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보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어떤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그때 될 수 있으면 지역개발과하고 협

조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왜냐하면 저런 것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군의 이미지거든요. 저런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돼요. 바로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저런 이미지는 남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저런 것이 되면 제일 빨리 먼저 해야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 완도 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게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군민회관이 많이 노후되기도 했고, 우리 군에 문화향유 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것에 대해 본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이런 공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 카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먼저 생활문화센터 내에 카페 운영자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정확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업무의 전결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저도 이 이후에 알았습시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입찰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같은 경우 그동안 작은 영화관 운영자 모집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도군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 약간 물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입찰공고 및 낙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처리장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원비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카페 사용 사업자 모집 공고문 내용 중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에 보니까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심사생략 및 판매가격 협의 후 선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위배됩니다. 완전히 절차를 무시하고 행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인철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취불능)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재산 사용 수익 허가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페 이것은 완전히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제가 그 부분은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박인철 의원

과장님, 제가 관련 법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습니다.

행여 조례에 의해서 했나 해도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완도군 조례는. 조례를 보고 상위법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찾아봐도 어떠한 근거로 선정방법을 정했는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이 단서 조항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카페에 따라서 진정한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정인을 만났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만났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는가. 그것하고 공문서에 어떻게 1인이 해가지고 1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1인이 했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입찰에 의해서 1차, 그러니까 1명 이내로 입찰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시 2차로 해서 입찰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법 적용을 하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일반군민들이 와서 싸게 이렇게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법 적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활용했기 때문에.....

○박인철 의원

그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음료는 거기에다가 권고사항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군과 협의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 군에서도 방금도 과장님이 협상에 의한 계약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진정인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진정인을 왜 군수 비서실장이 만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들은 향간의 소문인데, 왜 완도군수 비서실장이 그 진정인을 만나야 되고, 그 진정인과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제가 세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는데 6월 1일자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5일자로 발급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했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법 적용이..... 뭘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 의한..... 이런 법을 우리가 처음부터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것이 제 불찰입니다.

○박인철 의원

관광과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작은영화관, 수산물류센터 이것 전부 법규 위반입니다. 공유재산법 다 위반입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조례..... 상위법에서 막고 있는 것을 우리 군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정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왜 진정인이, 군수 비서실장이 진정인을 만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아마 진정서를 올렸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저희 과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특별히 접수할 때 이 분이 오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 분을 사실 몰랐고,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배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완도 문화나눔.

○박인철 의원

문화나눔 협동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오해를..... 행정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혜를 받았다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인철 의원

아니, 협동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을 고용해 가지고..... 저도 거기를 몇 번가봤습니다. 커피도 마셔봤습니다.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는가, 오전에 가보고 오후에 가보고 좀 늦게..... 우리 직원들이 인력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가 끝나고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밖에서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곡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의원님,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인철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1분만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면 가장 최고가를 입찰자로 하게 됩니다. 낙찰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다른 어떤 공공시설이나 카페를 보면 높은 가격의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협상이 아닌 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춰 가지고 아메리카노 2,000원 그다음에 레몬에이드 같은 경우 3,500원으로 해서 이렇게 낮추다 보니 사실 전반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런 것도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입찰 안에다가 넣으면 되지, 서류에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1인이 들어왔으면 그 행정문서에다가..... 1인이 오면 1인으로 결정한다.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은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개관 일자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재입찰이나 재공고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재입찰이나 재공고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입찰을 보니까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자도, 운영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박인철 의원

거기도 피해자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래서 그 계약이 저희들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감사할 수는 있는데요. 감사팀장님이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다가 감사를 요청해서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지금..... 기초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전라남도 감사 이후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철 의원

아, 그러면 전라남도에도 감사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전라남도에 감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감사를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앞에 조경도 새로 하셨는데 조경이라는 것이 주위 경관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주민이 접근하기도 불편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 정원을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거기에 공적비, 기념비 같은 것이 수 개가 있었습니다. 전부 이설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완도 관내 어린이, 부모들이 왔을 경우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에 실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밖에..... 부모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성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이 공간을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스케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생활조경으로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이 훨씬 활용하는 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23쪽을 통합하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질문 시 존경하는 우성자 의원님이 장보고 선양사업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또한 최정욱 의원님도 경쟁력 있는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바다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완도 출신 장보고대사와 우리 지역의 충무공 충무사의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저도 두 분이 떠오릅니다.

한 분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과 한 분은 해상무역을 통해 한반도 앞바다를 누린 장보고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대사가 있어 우리 군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장보고대사는 1,200년 전 도전개척 정신으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선두할 수 있는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배워 미래완도의 비전을 삼고 장보고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에 따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동안 수년 전에 세워진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마는 종합

계획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없죠. 민선1기, 2기 고 차관훈 군수님 때는 장보고축제를 발굴하여 장보고 선양사업의 주춧돌을 놓았고 민선3기, 5기 때는 장보고 기념관 건립, 장도 유적지 조성, 해신 드라마를 통한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보고를 테마로 해가지고..... 여수 엑스포가 했지만 차관훈 군수님 때는 완도에다가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물거품이 됐지만. 장보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것도 기억하시죠? (예)

민선6~7기에 내세울 수 있고 성과라 할 수 있는 장보고 선양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상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장보고 한상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장보고 선양사업은 1984년에 장도가 청해진유적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2004년도에 해신드라마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장보고대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에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민선3기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장보고리더십 아카데미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학생, 군인, 경찰,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생긴 이후로 장보고한상어워드,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인의 경제문화 영토를 확장시킨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25명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보고 판소리, 판소리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청취불능) 방식을 선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보고 아카데미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장보고축제마저도 관광과 문제인데 수산물축제로 일반화시켰고 한마디로 민선6~7기에 들어와 장보고사업은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고 본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장보고대사를 알렸고, 해신을 통하여 완도를 알렸으며, 해신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법화사지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법화사지는 용역결과에도 법화사지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세세한 구간 표현이 사료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복원은 불가능하고요. 재현적으로 현재의 법화사지터의 유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30cm 이상 복토를 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잔디로 최종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것 언제쯤에나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 올해는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구 유

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 정도의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종합적으로 잔디로 복토하고, 잔디를 입히고 주변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한번쯤 가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엇그저께 가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어떻게 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덮개만 덮여져 있고 사실 풀이 무성합니다.

○박인철 의원

우리가 용역을 3번에 걸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용역이 끝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형식대로, 복원만 하는 그런 형식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 유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얼른 협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그런 형식대로 그나마도 복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방금 보니까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되면 휴관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어차피 공사 때는 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방문할 수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 공기가 2022년까지 급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착공을 보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착공을 늦출, 어차피 공사를 늦출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어차피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늦게 착공해서 하더라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코로나 비대면시대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억 이상을 투입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하여 역사공간 조성, 충무사 공원, 기념화 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처럼 장보고 선양사업도 추진되어야 됩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보고대사는 신해양시대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지역경제의 바탕은 바다입니다. 따라서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배워서 완도미래의 비전을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는 설화 속의 인물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보고대사의 유물, 유적을 관광자원화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군외의 국립난대수목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완도읍권 장보고유적지, 신지권역 해양치유지구, 고금권

역 이순신역사공원에 이르는 벨트는 미래 우리 군의 주요 관광벨트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완도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21세기 장보고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정부의 분권화에 따라 지역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보다는 문화예술의 전당 간판 설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각 지역을 방문할 때 큰 건물을 중심으로 두고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찾아옵니다마는, 많이 찾아오는데 마침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 119소방대가 이전함으로써 그쪽이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간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완도 쪽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고요. 또 이쪽은 광주에서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간판이 안 보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완도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저 건물이 문화예술의 전당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오시는 분

들은 전혀 안 보이니까..... 입구 쪽으로 많이 가야 보이고.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가봤더니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기에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이는 저쪽 입구에다가 간판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한 말이라.....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 문화의 예술의 전당을 광주 쪽에서 오다 보면 쉽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옆으로 가봤더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쭉 들어와 가지고 보이니까 우회전하기에도 급하게 되더라고요.

간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또 완도에 찾아오는 이미지도 좋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

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여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등 3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무장애 데크로드,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도리 구계등,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완도타워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9월에 3곳의 관광지에 대해 열린 관광지 인증을 받아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도권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가 가지고 있는 권역별 우수한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체도권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권역별, 테마

별 관광코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 섬 관광상품 개발 등 체도권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완도 관광안내 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해설 인력 38명과 관광안내소 2개소 운영,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판 230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에 대해 관광안내판 신규 2개소, 정비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문화관광해설 활동은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주요 관광지인 장보고기념관 등 3개소는 4월부터 해설사를 배치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11명을 신규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설사 활동 확대를 검토하고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대해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우리 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음식, 숙박일수, 유료관광지 이용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숙박업소, 카페, 체험장 등 관광사업장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제공으로 방문 관광객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대비 부산시관광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제휴를 통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완도알뜰관광 참여 관광사업체도 올해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개별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 3종으로 완도 시티투어버스 운영, 완도 언택트 해조류 여행 챌린지, 완도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이며,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완도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매 주말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완도를 찾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완도의 체도권 관광지를 손쉽게 순환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완도 언택트 해조류 여행 챌린지는 완도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형 QR코드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해조류 획득에 도전하는 등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은 국내에 인지도 있는 파워블로거, 사진작가, 여행작가 등이 완도를 직접 여행하면서 관광객이 가보면 좋은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완도 개별관광객 유치계획 수립과 맞춤형 관광코스 사업 용역을 시행한 후 완도 맞춤형 미션투어 1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 시티투어버스, 완도 언택트 해조류여행 챌린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개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 인플루언서 활용 완도 관광 홍보입니다. 본사업은 국내·외 관광 시장에 영향력 있는 관광 인플루언서를 통해

주요 관광지, 먹거리, 체험 등을 온라인으로 완도 관광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변화되는 추세로 여행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맞춤형 관광지를 SNS에 게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관광코스 세부계획 수립과 1차 미션투어를 통해 차박여행, BTS길 드라이브코스, 당일치기 여행, 1박 2일 가족여행 등 총 4개 코스를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SNS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션투어를 지속 실시하고 박람회 대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도 여행코스 공모전과 완도여행 유튜버 홍보대사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도 신흥리 해수욕장 배후부지인 갈대습지를 슬로길과 연계하여 휴양형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태길 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습지 탐방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인 습지 탐방데크는 사업대상지 내 필수 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어 설계 후 8월 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체험숙박시설 신축, 웰컴센터 리모델링, 데크 정비, 꽃길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체험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산자연보호구역 해제 및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전남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소안 비자리 해수담수호 일원의 생태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조망대와 화장실, 데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 사업인 제방을 이용하여 탐방로 정비, 정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원발생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어 8월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탐방로, 마을쉼터 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9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일 남도명품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생일도 섬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용출리에서 금곡리까지 3.5km에 대하여 탐방로 정비, 돌탑 쌓기, 전망대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구간인 용출, 금곡 부분의 난간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 생일도는 2016년부터, 여서도는 2018년, 금당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일도는 섬길 조성, 펜션 신축, 금곡펜션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신축 설치를 완료하였고 여서도는 탐방로 조성, 고래조형물 설치,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일도는 카페 및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금곡해수욕장 배수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여서도는 커뮤니티센터 배후부지 협의를 완료 후 8월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당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완도군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추진입니다. 본인증은 깨끗한 물과 환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브랜드 확립으로 품격 있는 시설에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2021년 보길 예송리 해수욕장이 신규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플래그 인증 기한이 1년임에 따라 국제시설 기준을 유지하여 매년 재인증을 통해 친환경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변 숲 공원 조성, 노후시설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해변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해수욕장 주변 탐방로 개설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11개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피서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요원 등을 채용하여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늦게 개장하여 8월 22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마스크

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안심콜 운영과 전 해수욕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체온스티커를 배부,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인 신지 명사십리는 6개소의 발열체크 부스를 설치하여 해수욕장 출입자에 대해 발열체크와 개인별 체온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야간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인공지능 자동센서 계측기를 통해 해수욕장을 출입하는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 1,050개소, 공중위생업소 319개소,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487개소로 식품의 안정성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 204건의 영업신고 수리를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16개소 급식종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대상별 위생업소 방역 및 위생 지도, 점검을 더욱 더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을 활용, 숙박업소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알뜰하고 간소화된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은 765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모범음식점 29개소,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

소 40개소 등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음식점에 대해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으며 해산물 및 해조류를 재료로 한 단품 메뉴가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맛, 위생, 서비스까지 우수한 완도맛집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서도 편히 식사할 수 있는 혼밥식당을 기존 182개소에서 33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나 홀로 여행객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8개소 일반음식점에 대해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고, 혼밥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한 시설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에 대해 서비스 및 위생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을 지속 홍보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위생업소 방역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 및 개인, 9건에 대해 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정부 합동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점검 6회를 실시하였으며, 유흥시설 및 목욕장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주야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응을 위해 특별근무반을 편성하여 1일 2명,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1업소 1담당자 지정, 주 1회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방역물품 배부 및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관광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완도군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할 산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전북과 관광산업이라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우리 군은 관광업과 수산업이죠. 그런데 관광과 수산업은 우리 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산업입니다. 또 같이 관광과 수산업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이 살아야 수산업도 같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죠. 완도군의 3대 핵심산업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군수님께서 군정 방향의 핵심이라면 크게 세 가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 그다음에 해양관광거점도시 관광.....

○박재선 의원

항상 군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많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양치유라든지 바이오산업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핵심관광거점도시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현재 개별적인 관광정책산업들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해양관광거점도시에..... 군수님이

주장하는 그런 산업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크게 체도권, 그다음에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이렇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산업들이 있고. 거기에 여타 실과에서 대표적으로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당도 이충무공 산업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크게 네 가지 꼭지로 묶으면 해양관광거점도시의 큰 틀인 관광정책이 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도 신청한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계획공모형사업이라고..... 관광거점도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부, 하위단계의 사업인데요. 계획공모형사업은 2020년도부터 금년도에 2번 공고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것이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관광산업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하고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힘들 것이라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다 힘든 과정에서 그런 지자체는 다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탈락했던 이유는 우리 군이 뭐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 예를

들면 금년에 진도하고 담양이 됐습니다, 담양이 되었는데. 제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콘셉트를 가질 때 경남 통영에 있는 동피랑의 야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완도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밤에 대한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도타워 일원과 수목원하고 연계된 프로젝트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부분이 전남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떨어져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이 프로젝트 계획이 결코 진도나 담양이 했던 내용보다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다시 도전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타지자체도 그만큼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완도군 관광과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완도관광이 지역에.....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또 지역사람들을 보면 모텔이나 민박, 음식점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그냥 눈 감고 아웅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셨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듣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난 후에 과장님께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의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경제의 큰 축인 관광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의 트렌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인, 1인 또는 개별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 방향을 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럴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는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래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 체도권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RT와 KTX를 연계해서 소규모 단위 관광객을 나주역이나 송정역까지 오면 거기에서부터 완도까지 셔틀버스로 운송해서 여기에서..... 일단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체도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그리고 체험코스를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연말에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더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도가 갖고 있는..... 인위적인

관광시설보다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한 관광을 고민한 것이 요트 투어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45피트 50인승 요트 건조를 완료했고, 우리 군에서 전라 남도에 계류장이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완도항을 중심으로 한 일몰투어, 일출투어 그 다음에 야간투어를 1차적으로 계획하고요. 이 성과분석을 통해서 청산과 금당까지 요트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 둘 전략적으로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1번, 관광차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요. 그리고 투어로 해가지고 제주에 가는 관광산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항상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럽긴 한데요.

○관광과장 서길수

방법을 달리 할 것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방법을 전에 의회에서 얘기했고 그것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요트계류장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제해조류박람회 때 요트계류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다 철거하셨죠?

○관광과장 서길수

그 요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트계류장, 기존에 했던 그 요트계류장하고 다르고. 단순히

요트..... 45피트 50인승 요트에 승객이, 관광객이 타고 내리는 그 부분만 설치할 것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요트는 어디서 대여합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대여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10억을 투자해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완도에 위치는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해조류박람회사무국 바로 앞 계단 쪽에다가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쪽에 큰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그것은 완도항관리 담당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관광업과 연관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그에 맞게끔 관광산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작년 12월에 완공됐죠?

○관광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그것이 완공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된 것은 5월입니다, 금년.

○박재선 의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 뺀 것 아닙니까? 원래 12월에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완공이 됐는데 땅 문제가 지적선이 결부된

부분이 있어서 소유권까지 전부한 것은, 행정적 절차까지..... 사업은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현재 운영을..... 제가 2번 노화 북고리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당초..... 최초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렸을 때 북고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땅 문제 등 여러 부분을 북고리 마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 주체를 마을에서 주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현재 그것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절차가..... 행정에서 모든 것을 막고, 20억이 넘게 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놔면 행정에서 맡아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을주민, 지역주민들은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것이 연간 1,5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북고리 주민들이 나중에서야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진행과정에서 전부 다 먼저 소상히 안내해 드렸고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읍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역주민들에게만 떠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이 전복오감학교, 노화..... 정확한 명칭이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체험학교죠? (예)

이 명칭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준비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이 명칭을 가지고 올 때 너무 어렵다. 일반사람들이 이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그 현장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이 문구를 바꿔보자. 그런데 무조건 가져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공모사업을 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것이 보조사업을 하면 그 보조사업에 맞는 시설물에는 그 간판을 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치를 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뭐할 때는 우리가 부르기 쉽게끔, 예를 들어 관광객이 빨리 인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양치유도 많이 하고 있으니 거기에 비례해서, 노화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같이 해서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치유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거기 주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식당과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북고리 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고리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명칭으로 부제 명칭을 맞춰서 홍보는 그 부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 장소가 숙박도 되지만 워크숍 장소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층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비접촉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많이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 참.....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도 힘든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면에 가보고 싶은 섬에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을 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리모델링하고 2층에 카페테리아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 주체가 당초에 확정되지 않았습니 다.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직접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역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생일면 청년회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생일면 청년회가 주축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법인체가 설립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권 주체를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청년회하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도 그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중간에 추진위원회하고 청년회하고도 명확한 주체 정립이..... 이것이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일면에 계속 이야기해서 빨리 추진 주체를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 추진 자체가 청년회로 주체하는 것으로 됐고, 지금 그것이 사회적기업, 법인..... 거의 다 서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휴가철이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길도 예송리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어요. 보니까 밑에 해안가도로 쪽으로 해서 데크를 다 철거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래서 새로 한 것을 보고 “아, 잘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전망대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데크로도 전부 다 되어 있고 일반 보도블록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요. 그 정면에 보이는, 앞에 입구 쪽으로 해놓은 것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떨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확인을 해보고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것이 1년마다 이렇게 신지 해수욕장하고 보길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마다 받아야 되는데 국제..... 블루플래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청결하게 해주셔야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기대에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광에 대해서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에서 가족단위로 관광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 인가요?

○관광과장 서길수

대표적인 것이 기존 완도의 관광은 진도나 목포나 여수처럼 인위적인 케이블카에 대한 그런 시설물을 중심으로 된 관광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그런 관광이다 보니까 단체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트렌드는 개인 1인 또는 가족 소단위 그룹으로 관광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연..... 완도의 큰 꼭지로는 4개의 꼭지인데 그 이외에도 섬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코스라든가 우리 시각으로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유명 블로거, 여행작가 그 다음에 사진작가 14개 팀을 월별로..... 섬을 스스로 돌아다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관광코스를 주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 2월까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완도읍을 보면 우리가 완도읍을..... 항구도시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그렇게 하죠. 항구도시라면 적어도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능이 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서길수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러려면 첫 번째 먹거리, 두 번째 먹거리, 셋째 머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항구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도는 사실 9시가 넘으면 조용해 버려요. 그것 과장님, 느끼시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

○관광과장 서길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관광과장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낭만포차도 있고 밤 문화가, 여수만의 독특한 밤 문화가 생겼습니다. 목포도 작년부터 항구포차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밤 문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여수는 돌산대교 쪽에 케이블카가 생겼고, 목포는 외달도하교의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그런 새로운 밤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완도는 아쉽게도 그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완도만의 밤 문화, 밤 여행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1차적으로 기획한 것이 요트를 통한 야경투어입니다. 일몰 투어하고 야경투어를 시작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실버클라우드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새벽 2시 반에 제주를 가는 실버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도도 여수의 낭만포차, 목포의 항구포차처럼 그런 새로운 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기획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 이렇게 보면..... 아까 첫째 먹거리, 둘째 볼거리, 셋째 머물 수 있는 거리라고 했는데. 솔직히 먹거리도..... 밤 문화는 지금의 낮 문화와 다르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즉, 여수 같은 낭만포차 비슷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보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서길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그동안에는 어렵다면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이 잘 좀 되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신지 명사십리 고려대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내가 2020년도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추진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난해 11월에 군수님이 고려대학교를 방문해서 고려대 수련원 부지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업무협의를 했는데요. 금년 1월에 코로나나 또 학년별 인구가 감소해서 학교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불가하다고. 어렵다고,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고려대학교가 저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도 양해각서에 분명히 고려대학교 완도 청해진수련관 건립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자기들 투자의 효율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그다음 2001년도, 2004년도에 해서 5필지를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자투자유치를 한 첫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라는 대외적인 신인도를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수련원을 짓는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치밀했어야 됩니다. 만약 협약서에 언제까지 수련원을 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매각한 다음에 그 시기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면 다시 감정가격에 환매할 수 있는 환매특약을 등기에 반드시 넣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어떤 군 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할 때는 그런 조건부 특약을 등기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도 이것이 개인투자자가 아니거든요. 고려대학교라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학교인데. 그래도 양해각서를 서로 했는데, 개인하고 달리 자기들 투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좀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이것에 그만큼 애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찾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그 땅을 아마..... 그때 군정 질의할 때 약 한 1억 얼마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따지자면 저 땅이 몇 십 억 가거든요. 40~50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지면. 어떻게 보면 땅 장사를 해준 격이 되고. 그것이 진짜 노른자 땅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이 땅을 그대로 놔둘 수 없죠. 자기

네들 투자유치를 약속대로 안 하고, 자기네들 효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관광과장 서길수

그런데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때 MOU를 체결할 때 수련관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4층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련원을 짓기는 지었어요. 한 동 2층.

○최정욱 의원

그것은 수련원이 아니지. 무슨 수련관.....

○관광과장 서길수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조감도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일부 그냥 조그맣게 관리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동은 달라요. 조감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수련원 목적이예요, 그것이. 그 건물 자체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짓는다고 하니까 그 땅도 준 거예요, 4,000평 이상이라는 땅을.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4,000평 이상 매각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저것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방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투자 의지가 없다고, 아까 그랬다고 했죠?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문화로 했나요, 아니면 서두로 했나요?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고려대학교 수련관 사업모델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회신이 왔습니다. 문서로 회신이 온 것이 대규모 투자는 현 학교 실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시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뭐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없네요? (예)

그래서 보면 2017년도에 군정 질문답변서에 서울윤 의원께서 했더라고요. 그때 했을 때 박현식 부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정식으로 고려대에 공문을 발송하면 자기네들이 정확한 답을 주겠다고 그 내용이..... 그때 질문답변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고려대학교에다가?

○관광과장 서길수

예, 예. 그렇게 의사가 있어서 군수님께서 작년 9월과 12월에 수련원 부지를 해양치유 산업과 연계한 시설로 고려대학교에서 투자해 달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 1월에 학교재정 형편상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고 회신이 온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화해 가지고요, 고려대학교에 보내서..... 자기들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우리한테 어찌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즉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공문화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서길수

공문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보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 소유권 자체적으로 어떤 조건부 특약, 환매특약을 두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양해각서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죠.

○관광과장 서길수

양해각서는.....

○최정욱 의원

아니, 어쨌든.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근거는 이것 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문화로 해서 정당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죠, 이제는. 자기네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명사십리 관광객들이 오면 통계조사를 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관광객 수를 보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껴요.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한 수출..... 장보고수산물 행사를 했을 때 하도 우리 주민들이 군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신뢰하지 않아서, 제가 3년 전에 일일이 조사를 해봤었어요. 역사나 군에서 한 것이 전부 다 안 맞아. 관광객이 온 날, 많이 온 날은 많이 안 온 것으로 하고. 관광객이 많이 안 온 날은 많이 온 것으로 하고. 이 조사 자체가 아니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조사를 싹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 그 말을 하니까 다들 공감을 하고 인정했었는데, 자료에 의해서 내가 싹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를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그것을 보고 느끼거든요. 저 발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는 알아요, 대강 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정확한 통계조사를..... 정

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해야 어떤.....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관광객 수에 비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부풀려 놓으면 이 자료가 다 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까 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살짝 나온 것 같은데.

○관광과장 서길수

7월..... 6월쯤에 최정욱 의원님께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이 통계가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1년 관광객이 약 10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보다 더 왔습니다. 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니까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차량을 판독하는 계측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대가 지나가면 곱하기 4, 버스는 1대 들어가면 곱하기 4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통계를 잡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가족단위 소규모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그 전부를 곱하기 4 또는 곱하기 40을 하다 보니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의 관광객 통계는 최소한의 정확도가 있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월별, 계절별, 연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주출입구인..... 열 군데가 넘는 출입구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다섯 군데에 스마트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측해 보니까 작년 해수욕장 개관기간에 약 3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한 바로는 11만 2,000명, 약 61%가 감

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도 관광객의 실질적인 통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스마트계측기라면 어떤 것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스마트계측기는 일반적인 정도리 구계등에 있는 단순한 디지털..... 그 통로를 지나가야만 되는 계측기가 아니고요. 신지 같이 유역이 넓고 출입구가 많은 곳에 일정유역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점자 형태로 사람을 추적해서 계측하는 인공지능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각 계측기 하나에 반경 170M에 들어오는 사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측정하네요, 차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장 서길수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추적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측정합니다.

○최정욱 의원

하여튼 그것도 관심 있게 잘 보시고 체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일도 가고 싶은 섬이 올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는데, 아까 박재선 의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청년회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커피숍,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호 의원

예산이 내려온 지 상당히 됐죠?

○관광과장 서길수

아니요, 아니요. 사무실 2층 커피숍에 기자 재, 커피숍을 만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민간경 상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보조사업자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 문에 사회적기업이..... 최종 법무사에서 손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보조금을 첨부해서 시설을 완료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지금 생일도가 계속..... 코로나 팬 데믹에도 관광객이 매우 들어오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생 일도 자체 인구로는 식당 운영이 안돼요. 그 러면 주말이 되면..... 과거에는 배가 농협에서 180명 정도 증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결된 것 같은데.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면 배고픈 섬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데가 없어 서. 그러니까 이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하면 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운영하게끔 관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 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조인호 의원

생일도.

○관광과장 서길수

관에서 중간에 어디를 운영.....

○조인호 의원

주말이 되면..... 평상시에 시장을 보면..... 평상시에는 식당이 안 되니까 생일주민들이 식당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주말에는 간단하게 어디 일을 보러 간다고 해버리고 또 손님이 없다고 문을 닫고 그러면 관광객 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 라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섬을 우리가 해서 지금 까지.....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행정에서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역민 들하고.

○관광과장 서길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 고민 좀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 이 있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 죠? (예)

그러면 탐방로 개설이 끝나면 마무리되겠네 요, 내년까지? (예)

그런데 해수욕장 안에다가 나무도 식재하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느 주체가 합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인호 의원

계속 할 것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올 여름에도 가보고 그랬지 만 관리인부가 없으면 30억이 넘게, 한 4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그냥 그것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서 행정 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1 년 내내 관리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이 허사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하여튼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되었는데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네요? (예)

이것이 다 전부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죠?

○관광과장 서길수

제방 관련 사업이 작년도 사업.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방에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제방을 공구상 신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신규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범성 의원

아, 신규등록해서 그 뒤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민원사항 때문에 계속 늦어져 가고. 아까 보고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을 다시 옮기나 그래서 내가.....

○관광과장 서길수

아니, 그대로 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이범성 의원

그러면 이런 상태로는 하여튼 내년까지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공은 끝나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최대한 서두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추진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것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해양관광거점도시를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가 하드웨어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해안관광거점도시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우리 과가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국립난대수목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충무공 사업 또 환경산림과에서는 약산 치유의 숲 사업, 저희 과에는 다양한 관광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완도관광의 틀 안에서 하드웨어사업으로 묶

고, 그 하드웨어사업을 가지고 각각 특색 있는 사업의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도권,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전라남도에서 이달의 추천 관광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이달의 관광지로 하는 것은 매 분기별로, 시군에서 도로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도 선정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4분기에 구계등 한 군데가 됐습니다.

○김양훈 의원

지금 매달 선정하죠?

○관광과장 서길수

이제 분기별로 해서 1, 2, 3, 4월을.....

○김양훈 의원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매달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 우리 군에서 매달 자료를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올려주게 되면 테마별로 기준을 선정해서 계절에 맞게끔 하는 곳이 먼저 우선순위로 선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선정된 곳이 금방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금년에는 1분기에 구계등이 됐고요. 작년에는 네 군데 됐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전에 2·4분기, 3·4분기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2분기하고 3분기는 완도가 선정되지 않았

습니다.

○김양훈 의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코로나가 2분기부터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권 위주로 그냥..... 우선적으로 그쪽을 선정하다 보니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모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여수시는 지난해 보다 상반기에만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료 한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관광객, 2·4분기 관광객 통계를 알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서길수

우리 군은 좀 줄었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약 64만 명이 왔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61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죠. 여수를 보면 13만 명 정도 증가됐고, 인근 지자체들은 할인혜택을 많이 주면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은근히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축제예산, 관광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아니요, 그 부분은 코로나 여건상 축제 관련 부분에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예산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관광이 잘되어야 완도군 경제가 삽니다. 축제나 이런 부분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들은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우리 완도 관광산업이 멈춰 있다고 보십니까,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상황이 상황인지라 보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군민,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금년 상반기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행정을 추진하는 관광과,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깊이 고민해서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멈춰 있는 것

도 아니고 후퇴한 것으로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염려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은 타 시군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자원이. 잘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타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코로나 때문에 통제만 하지 마시고 보게 될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섬의 날도 지정됐죠? (예)

완도의 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당, 생일, 보길, 노화, 소안 다 섬들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섬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요즘에는 단체가 아니고 가족 단위가 아닙니까,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도, 섬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십리 무인축정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는 명사십리 무인계측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 신문사에 의하면 퀴너지라는 업체에서 완도해수욕장에 세계 최초로 라이다 기반 무인계측기를 설치했다는 제목으로 관광레저 분야 최초로 라이다 기술을 적용시켜 새로운 혁신 이정표를 세웠다고 이렇게 극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인데. 기존 카메라 기반시스템을 라이

다 솔루션으로 대체했다. 이 새로운 계측기는 이전의 카메라 기반 데이터 수집 오류를 해결하고 실시간 데이터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해 해수욕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렇게 된다면..... 지난 8월 13일자 완도 주간지입니다. 모 주간지에서 해수욕장 관광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D,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무인계측기 5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수십 명으로 이렇게 중복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벌써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완도 신문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설명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은 첫째로 완도군에 오는 관광객의 집계는 관광객 지역정보포털에 등록된 20개 지정 외에는 관광객 통계수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인정 통계를 하는 곳이 신지 명사십리의 차량인식 3개소를 측정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광객 통계가 굉장히..... 아까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일률적으로 차량 승용차 1대당 4명, 버스는 1대당 40명을 곱한 통계 이 부분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관광객이 왔다고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대표적인 곳이 신지 명사십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통

로인 다섯 군데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3.8km인데 거기에 진입하는 통로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출입구 다섯 군데에 이 스마트계측기를 설치해서 단순히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 때만 이 관광객 통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관광객 통계를 최소한의 정확도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실제 현재 국내에서는 교도소 출입자 시스템으로 첫 번째 도입된 부분이고, 해수욕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지 명사십리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담당자가 설치 후에 중복체크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처음부터 시스템에 중복체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중복체크는..... 이 센서 안에 반경 120M인데요. 이 120M에 들어오고 나오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피서철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피서철에 밖에 숙소가 있어 가지고 오전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을 말하는 것이지. 숫자 자체, 계측 자체..... 계수가 중복해서 자동적으로 누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양훈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지, 중간에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측기 시안현장에서 부군 수님도 이것 중복체크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서길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김양훈 의원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그것은 작년에 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국비 상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김양훈 의원

아, 국비로요.

주요 관광객 현황을 보면 통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어느 곳에 가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에 가나 신뢰 100%라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언론에서 써서 질의한 것인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후속대책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중복.....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사람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다음에 들어올 때는 아니라는 그런 시스템, 현재의 시스템상 그것까지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이 관광객 집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의 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래서 페르미 측정법이라고 그러죠. 페르미 측정법을 어디에서 쓰는지 아시죠? (예) 어디에 씁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것은 우리 관광객 통계수치를 하는 데는 그 부분은..... 일순간 공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그 적용이 안 맞다 봅니다.

○김양훈 의원

그래요.

집회현장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그 공간에 데이터나 뭐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광과장 서길수

특정시간대 특정공간의 표본샘플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측정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도입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제일 옳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서길수

현재 시스템, 과학적인 시스템상으로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언론사에서 일단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뭐 반박할 의향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대 그 부분까지는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그래도 저쪽에서 했으면 분명히 군민들이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과에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과장 서길수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신이 없게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2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묻고 가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사진상 광고 알고 계시죠? (예)

군외 교인에 설치된 완도 명품광어 홍보물입니다. 과장님,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 광고를 보고 광어를 먹고 싶은데 어디에 가야 먹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대표적으로 전복거리나 회타운, 해변공원 주변 횡집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지금 완도 상황을 보면 일반식당이나 횡집 등지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겨우 회센터에서 주문해야 광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완도를 찾는 분들이 본의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군에서 야심차게 조성해 놓은 음식특화거리 식당을 방문해서 광어를 찾으면 없다

고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한두 명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식당에서 광어를 취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류수협 또 광어협회, 음식점계 등과 협의해서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이 쉽게 광어를.....

완도 명품광어라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어하면 전국에서 완도인데, 실제 생산지에서 광어를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음식점계 등과 잘 논의해서 꼭 관광객들이 와서..... 억지로 못 먹이겠습니다마는 찾으려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8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해양문화관광국

- 체육진흥과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농업기술센터

(09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문화관광국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 등 총 17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입니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국

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에 창단되어 현재 지도자 1명, 선수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적입니다. 이양재, 이지예 선수가 2월부터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해서 훈련 중이며,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및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완도군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대회, 10월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완도군체육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종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장보고배, 군수배, 의장배 등 각종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등 6개 대회에 850명의 참가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취소 등 여건변화가 예상됩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참가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군 브랜드 홍보로 특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대회가 잠정 연기되는 등 대회 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스포츠 참여기회가 적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취약

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8만 원 상당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읍 외 4개 읍면에 총 48명의 대상자들이 신청하여 7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기 스포츠강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의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 동·하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2021년도 동계 전지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 2021 전지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선수 모두 사전 PCR 검사를 받고, 매일 2회씩 체온체크를 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여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중 근대 5종 및 수영, 검도, 레슬링 등 부산시체육회 실업팀 4개 종목과 여자 프로골프팀, 충북도청 역도팀 등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동계 전지훈련 대비 실내 농구대 및 배드민턴 시설물 보수와 테니스장 공튀임 방지 펜스 보수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하계 전지훈련 유치는 자제하고, 9월 중 안성시에서 열리는 테니스대회 출장을 통해 각 지역 테니스팀 전지훈련 유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중 전국 각 지역학교 등을 방문하여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2년도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본사업은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대회기간은 2023년 4월 중으로 4일간 개최되며,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참석자 2만여 명 규모의 체육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2019년 8월 전라남도 체육회에 전남체전 유치 공모 신청서를 제출, 2021년 3월 전남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전남체전 개최지가 완도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전남체전 개최를 위해 수영장 조성,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 공설운동장 개·보수, 다목적 실내체육, 주차타워 등을 신설하여 체육 기반시설 마련 및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 하반기 전남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경기장 보수와 더불어 공식 규격에 맞는 경기장 공·승인을 추진하고, 개최 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전남체전 전남 TF팀과 전남체전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갖춰나가겠으며, 대회 상징물과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 부서별 추진업무 최종보고를 통해 대회 개최 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군 참가신청 접수 및 행사를 위한 인력 배치를 통해 전남체전이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및 해양치유산업 기조에 맞춰 우리 군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완도 장보고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자 확대로 하반기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어 당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대회는 올해 8월 28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며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8개 종목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한 총 3,140만 원입니다. 향후 완도장보고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남도와 2022년도 레저스포츠 보조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다양한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레저스포츠 관계 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축구보조구장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136제곱미터의 규모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 체육관, 2층 관람석 1,181석으로 배구코트 3면, 농구코트 2면과 10실의 사무실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6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8%입니다. 향후 금년 12월 각 공정별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2022년 3월 시운전 및 전체사업을 준공하여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설운동장 내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체육공원의 연중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향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이 예측되어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1층 규모 2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5월 기

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 심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0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7월 말까지 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외면 원동리, 노화읍 도청리 청산면 양중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999제곱미터 규모의 체육센터 3개소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배구코트 1면, 농구코트 1면, 배드민턴 3면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외 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6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하였습니다. 노화, 청산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공모사업 확정 이후 올해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화, 청산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이후 2022년 1월 중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2022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화합과 건강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길면 부항리 일원에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1만 7,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축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

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토공, 옹벽공, 우수공을 완료하고 현재 워터벨트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5%입니다. 향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실외테니스장 3면을 막구조 형태의 실내테니스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0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설비, 기계설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금면 농상리 일원 1만 1,193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9홀 1코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6월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화합과 건강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금면 덕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1만 9,615제곱미터의 규모로

운동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안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안면 비자리에 위치한 기존 클레이코트 시설이 열악하여 시설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로 하드코트 테니스장 2면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 군특사업이 확정되어 올해 3월 착공하여 하드코트 포장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고 수영인구 저변 확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M 6레인과 초등생풀장, 탈의실, 샤워장을 구축하여 총 15명의 인력으로 초급, 중급, 상급반의 수영강습과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회, 2021년 1회 등 총 5회 휴장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영강습과 특별반은 운영하지 못하고 개인 자유수영만 허용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전면 폐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대로 재개장하여 수영인구 저변 확대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군 단위 시설물 13개소와 읍면 단위 시

설물 23개소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중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읍면에 부족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000만 원 사업비로 32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야외운동기구 현장을 확인하여 관리카드를 정비 완료하고, 보수대상지 12개소에 대하여는 9월까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청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체육진흥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죠. 우리 군에서 몇 개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10개 있습니다. 청산하고 생일만 없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0개소.

○조인호 의원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이런 부분,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냉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전에 설치했던 6개소는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최근에 설치했던 약산하고 그다음에 노화, 보길 그다음에 저쪽 한 군데하고 네 군데는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거기 여섯 군데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읍면 순회를 해보면 노인 어르신 분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남들이 안 할 때 자기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감수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인구를 봐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도권 섬에 가면 젊은이들 여가활동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데 없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인구, 저출산 전부 관련된 부분이니깐 다른 인프라는.....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잘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없는 부분..... 읍면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런데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수요를 봐가지고 차근차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길 체육생활공원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9월에 준공하겠다고 했죠. 그때까지 다 완공되겠죠? (예)

그런데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보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섬지역 사람들만 꾸준히 그렇게 활용하다 보면 체육공원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은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체육공원 조성을 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 인프라가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분산 개최한다든지 보길이나 이런 곳..... 각 읍면에 체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그래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지훈련도 폐지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되고 그러는데. 또 섬지역에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있어버리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뭘니까, 윤선도 문학관 아시죠. 시청각실도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데까지 같이,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전지훈련 유치는 최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면 식당가나 숙박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고 완도군에 돈을 쓰고 가야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지훈련을 온다고 할지라도 식당이나 이런 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요. 또 전지훈련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라든가 음식점까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지훈련을 오게 된다면 섬지역이라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선료가 비쌌습니다, 사실은. 일반..... 저희들이 다니면 1,000원제로 해가지고 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사람들이 오면 배 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도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선비 같은 경우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앞으로 하실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화, 보길 같은 데를 보면 워낙에 전복의 고장이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지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더 해서 전지훈련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어울림 체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안을 한 가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청장년을 비롯한 성인들의 체육 인프라는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이 이용하여 어울릴 수 있는 체육 인프라는 빈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 체육 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봅니다.

이와 같이 활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욕구

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풋살경기장과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주길 바라는..... 건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소수인원이 모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풋살경기장과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은 외진 곳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른들과 시각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해변공원 물양장에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풋살경기장은 야간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변공원 물양장에 풋살경기장과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다면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정착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내년에는 꼭 풋살경기장이나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관광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업무보고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해양정책과 보고시간에 2022 완도국 제해조류박람회 사무국장이 배석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 중 1명이 확진자 동선과 겹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실에 대기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서면이나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총 22건입니다.

먼저 1쪽,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7년부터 완도군과 조선대학교가 공동운영으로 수산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44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벤처과정 55명, 경영자과정 4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강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실무이론,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 현장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사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수산벤처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9,300만 원으로 대상 어가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자에 한하여 어가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 100개 어촌계 3,982어가가 신청 접수하여 어촌마을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선정 후 11월부터 12월경 지급 예정입니다. 앞으로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중 사업비를 집행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도서지역 생필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LPG가스 및 유류 구입 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LPG, 유류 등 해상운송비 지원 5억 3,100만 원, 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 물류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서지역 6개 읍면에 LPG 해상 운송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일읍 충도리 등 2개 읍면 7개 마을에 생필품 물류비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필품은 농협 하나로마트, LPG는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어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일 임금은 10만 원으로 가구당 30일 이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완료된 38어가 중 25어가, 800일 지원에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3어가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자 활동이 종료되면 임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귀어가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 장려와 청년어업인 창업 지원 등 조기 어촌 정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4종에 5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귀어가 정착장려금 등 4개 사업 34명에게 총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귀어가 및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귀어가 정착 및 청년어업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촌정주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양기 22개소, 부잔교 23개소, 어업용 기자재 보관창고 1개소, 어업인 안전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양기 22개소에 대하여 현장 설치 중에 있으며, 부잔교 23개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 현재 낙찰업체에서 차질 없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용 기자재 보관창고와 어업인 안전쉼터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군외면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4년차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치패단지 조성용 꼬막과 바지락 살포를 하였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를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꼬막, 바지락 생존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방류지역 확대 및 어업인 참여형 사업을 통해 꼬막 및 바지락 생존여건을 증대시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바다 정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오염과 해수온도 상승, 갯녹음 확산에 따라 해조류 복원을 위한 연안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해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4월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조류 복원을 통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해삼서식 기반조성 및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장환경 오염 등 어획량이 날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수역을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삼서식기반 2억 원, 해삼씨뿌림 2억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삼자원 조성 적지조사를 통해, 최종 2개소 선정하여 4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삼서식기반 자연석 조성 후 해삼씨뿌림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장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연안해역에 정착성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월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꼬막 2개소에 대하여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해삼 9개소에 대하여 9~10월 방류를 실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6월 30일 현재까지 폐어망, 어구 등 폐합성수지 1,781톤을 처리하였으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으로 페스티로폼 3,146루베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은 12개 읍면에 36명을 모집 운영하여 해양쓰레기 1,781톤을 수거 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팀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12개 읍면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감용기 운영으로 상반기 페스티로폼 잉곳 20톤을 생산하여, 판매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환경부 최종 승인을 마친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의 개시 신고 및 시험운전 및 설비 점검을 완료함에 따라 친환경 소각기 1대와 이동식 감용기 2대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예산 절감 및 청정해역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저 퇴적물의 인양, 경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고금 제1지구와 약산 제2지구 총 168헥타르의 어장정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의 환경에 적합한 경운 및 수심이 얇은 매생이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잠수부를 투입하여 퇴적물을 인양하는 등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8월 중에 정화작업을

완료하여 양식 순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바다에 버려질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부산물을 사전 구매하여 전복먹이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종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조류 부산물 2만 5,044톤과 다시마꼬리 75톤을 구매하여 완도금일수협, 소안수협, 사단법인 완도군 전복협회 저장시설에 보관 중으로 10월 이후 전복먹이 부족 해소를 위해 다시마꼬리, 해조류 부산물 등을 어가에 공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적조방제 장비 조기 확보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종에 5억 8,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적조 및 고수온 발령에 의한 피해가 없었으며, 주의보발령 대비 상황실 운영과 어장 예찰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적조피해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적조 구제물질 머드스톤 32톤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액화산소 공급사업 육상 양식어가에 6대 공급하고 차광막 구매사업 10개 읍면 179어가에 2,837개를 공급, 양식장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8월 4일 14시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으로 8월 13일 현재 9어가에서 광어 5만 8,000마리가 폐사, 합동조사반을 편성 원인 규명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적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현장 어장관리로 차광막 설치, (청취불능) 안내, 조기 출하 지도 등 고수온 적조 발생 시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양식어업인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설치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어업활동과 자연재해로 발생한 폐스티로폼 중 감용이 어려운 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설비로, 3억 9,951만 6,000원의 사업비로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 중 환경부 대기배출 기준에 따른 설비 보완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전라남도에 개시 신고,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 및 시험운전 및 설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7월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예산 절감 및 청정해역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서민에게 17개 항 5종에 38억 2,1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민은 올 1월 1일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화물비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운임 및 요금 지원을 근거로 지침을 만들어 청산면, 생일면, 금일 황제도, 신지 모항도 도서민에게 자동화물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5월 여객선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000원 요금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민 해상교통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및 선사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대체하여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1,32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작년 6월 우리군은 한국해운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도서민 간소화시스템 등록은 6월 23일까지 9,032명이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소화시스템 편리성을 지속 홍보하여 미등록 도서민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완도군 여객선 야간운항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약산 당목항에서 일정항을 밤 11시까지 1일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며,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건비와 유류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1월 완도농협과 야간운항 협약 체결하고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하가신청으로 관계기관 선상 업무협의 및 마을주민 간담회를 거쳐 일정항 주변 양식시설물 철거 독려와 당목마을 책임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간운항 구간 다시마, 청각 채취 후 시설물 철거 독려와 접안장 조명시설 보완, 점등부표 설치하여 9월 중 야간운항을 시범 운항할 예정입니다.

19쪽, 신지 명사십리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복원하고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59억을 투입하여 호안보강 160M와 양빈 7만 5,600루베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연안정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 3월 관급자재 웅진사 계약 체결과 관리용역 체결하여 바지선 5회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웅진 금어기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폐장과 동시 사업을 재개하여 8월 20일 이후 양빈 6회차를 완료하고 호안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해조류 및 관련 상품의 전시, 교육, 수출상담 등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며 해조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대중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조류센터는 연중 상시 개관하고 현재는 해조류센터 전시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라 휴관 중입니다. 연도별 방문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 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부터 전시실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 지원입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40억 원, 군비 20억 원, 수익사업 40억 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이며, 관람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보조금 40억 원 중 28억 원을 교부받아 군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48억 원을 해조류박람회조직위에 출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59건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라

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도비 미교부액 12억 원에 대하여 교부 촉구하고자 하며,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추가 선정 및 관람객 유치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공적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2 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24일 간 해변공원과 완도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람객 목표는 100만 명으로 박람회 주요 사업으로는 전시관 설치 및 연출, 회장 운영과 이벤트, 수출상담회, 심포지엄, 홍보 및 유치활동으로 대별되며, 사업비와 주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전시관 설치 및 전시 연출입니다. 국제행사 품격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박람회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3,500만 원으로 완도항 주변 약 1만 4,000평에 전시관, 체험장, 안전시설 등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시관 설계 및 제작 설치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주식회사 옥토끼이미징과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박람회 연기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용역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연기 결정 후 전라남도와 박람회장 사용 등을 지속 협의하였으며, 전시연출 벤치마킹을 비롯해 바지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시관 재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과업 중지 해제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전시관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완도항 이용제한에 따라 관련 선박, 협회, 단체 등과 사전 간담회를 추진하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전시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쪽, 회장 운영 및 이벤트 운영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이며, 금년 1차분 사업비로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8월에 KBS아트비전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람회 연기 결정에 따라 용역 과업중지 및 통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박람회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을 주중은 18시까지, 주말과 5월 연휴기간은 19시까지 운영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과업중지 해제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기본실시계획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겠습니다. 2022년 3월까지 부문별 리허설 실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4월 초에 최종 리허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장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기업관 추진 및 관람객 유치입니다. 국제해조류심포지엄은 한국조류학회 주관으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수출상담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코레일, 스마트관광협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박람회 여행상품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조류박람회 공식여행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월 중에 수출상담회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권역별 관광협회 및 여행사 초청 설명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연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수출상담회와 기업관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명단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지 기업관 참가기업운영설명회 및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발간 등 시기별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조류산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해조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박람회 홍보 추진입니다. 단계별 홍보 전략 수립 및 지역, 계층, 매체별 맞춤형 홍보 전략과 바이럴 마케팅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람객 유치 및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해양조,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포토월에 박람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광주 충장로에 홍보관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제주렌터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7월에는 박람회 홍보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은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를 왕래하는 한일고속 여객선 내 전 좌석에 홍보스티커 부착, 승하선 30분 전후 홍보영상 상영과 보해양조 소주병에 홍보라벨 부착 및 프로야구장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여파로 인한 비대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박람회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박람회 수익사업은 입장권 판매, 기부금 등 총 4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입장권 판매는 35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부터 사전예매권 판매방식을 구매약정에서 구입 신청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8월 말 기준 목표 대비 4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

러 작년부터 현재까지 전복절편, 전복음료, 자른 미역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받아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 사전예매권을 제작하고 배부하겠으며, 12월부터는 임대사업자 모집을 추진하여 내년 2월에 임대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한 후 3월 판매장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입장권 판매, 기부금 등 수익사업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박람회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계속해서 질의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야간운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에 야간운항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죠? (예)

그러면 당초 6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권혁

당초에 6월 운항을 목표로 완도농협에서 목포청에 야간운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접수해서 항로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요. 주민들과 어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일정리 어장 두 세트, 그것이 현재 무면허로 시설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면허로 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어장주한테 일정 행사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하게 되면 대체어장이 필요한데 대체어장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목어장에서 항로에 지장을 주고 있는 10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합법적인 면허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장들은 다행히 올해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타 대체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문제는 일정 어항 2세트가 철거되어야 만이 야간운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조인호 의원

저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두 어장지가 무면허더라고요. 그것이 무면허면..... 야간운항을 띄우려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내가 수산팀장에게 전화해 보니까 통보만 하고, “언제까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고 가만히 놔두는 상태던데.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이 현재.....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행히 한 세트는..... 일정리 어장을 하시는 분 한 사람이 어장을 못하셔서 가지고 한 세트가 좀..... 어장자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세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야간부표 시설이라든가 일정항, 당목항에 있는 야간점등 쪽. 야간..... 뭐냐,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장 이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약산 당목에서 금일 구간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노화, 소안, 보길에 2차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인데. 지금부터 두 구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남산면 쪽에 가면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처음 다시 한다고 하는데 9월에 되겠습니까, 이것이?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해결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그것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당목은 지금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나도 이장하고 통화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일 부분은 이것이 면허지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면허지니까, 이 부분은 또 감정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 지금 신안이나 통영 같은 경우 인구 몇 명 안 사는데도 진즉부터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4,000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운항되어야 다음 완도군에..... 남산면 부분도 운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해서는 9월까지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 도서지역기초협의회..... 상반기 회의를 갔는데 여객선 시계 제

한 완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섬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끝나면 팀장이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마을이장이나 책임자들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9월에 추진이 되지. 안 그러면 올 해 못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4쪽,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전복산업이 매우 안 좋습니다. 어가들을 만나보면 전복양식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민선6기 말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면 어민들은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여름 고수온, 적조는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적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해양정책과장 권혁

적조는 저쪽 고흥 쪽에.....

○박인철 의원

아니, 고수온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고수온은 현재 수온이 2~3도 정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보통 9월에, 음력 9월에 고수온하고 적조 피해가 최고로 많이 오는데 그때도 괜찮을까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은..... 일단 고수온 때 생물들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송곡 같은 데 가두리에서 우럭 같은 경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객선 야간운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몰 이후 여객선 운항이 금지되었지만 규제가 풀려서 야간운항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동료의원님께서도 야간운항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에서 섬 주민들을 위한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객선 야간운항이 야말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동의합니다.

○박인철 의원

업무보고는 3월부터 세 차례나 간담회를 통해서 양식시설물 철거 통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조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철거가 되고 조명이나 부품만 보완하면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양항만청에서 그렇게 했죠? (예)

일단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일정항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전임 서길수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시작하자고. 그래서 예산 10억으로 해가지고 당목항까지 일정항까지, 그다음에 화흥포항에서 동천항까지 했는데. 예산을 잡으면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3억 6,000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그럼 같이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잡자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지 못했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노화가 5,200명, 소안이 2,480명, 보길이 2,840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남산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요. 내년도에 그쪽, 남산면 쪽에도 그런 야간 여객선 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올해 9월, 10월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꼭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

다.

당초부터 금일 권역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화, 보길, 소안 쪽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군 방침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금일 방면 운항이 개시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노화, 보길, 소안도 야간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이것은 시범운항 그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서길수 과장님이 계실 때도 3억 6,000이 잡혔는데 같이 시작해 가지고서 부족분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잡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어 버렸는데.

섬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전남지역 섬 주민 43%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노인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이 매우 큼니다. 섬의 교통여건 개선은 곧 섬 주민들의 복지, 인권, 소득이며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객선 야간운항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관광 또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업무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는 예산이 그렇다면 내년에 연초부터..... 당목항, 일정항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 완도 화흥포항에서 동천항까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정화선 운반 신규 건조에 대해서 간

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어장정화선이 노후되어 75억 원을 투입하여 100톤급 어장정화선을 건조한다고 업무보고계획에 보고하였는데 추진실적에는 빠져있네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의 지자체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공통 표준 설계로 제어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또 기관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비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폐단이 있어가지고.

○박인철 의원

예, 알아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전체 예산 75억 중에 2000년도에 예산 14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도는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1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해 놓은 것에서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 미편성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올 9월 중에 기관장비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서 10월 중에는 선체, 우선 있는 예산으로 선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관장비에 대해서도 발

주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안하고 서해안 쪽에 기관장비 때문에 말썽이 많고 방송에도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여타 모든 것을 감안하여 잘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본 원전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보전업무를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도에 방출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방출 결정부터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일본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먼저 정부에서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국 연안 해역에 원전오염수 내 방사능물질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요 해역 71개소 정점에 대해서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해양 방출 전후 우리 바다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방사능 물질을 거론하면서 각종 집회를 무분별하게 개최해서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국내 수산물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서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안전성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고, 이후 일본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완도수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복, 해조류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전복 ASC 인증은 39개소, 해조류 ASC 인증 28개소, 그다음에 ASC, COC 인증은 6개소가 국제 인증 후 경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 지역 주요 해역별 해수를 채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 해조류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일본오염수 방출을 대비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완도에서는 금당가학리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았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쪽 해조류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받았죠. 그리고 또 금당에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출수가 태평양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1년 안에 유입될 것이다.”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방출했을 시 수산물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수산물을 먹는 양이 47kg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방사능 등 오염 방출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큰 위기가 발생하리라 예측해 봅니다.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조류박람회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께서 박람회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2022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예정대로 개최되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내년도 박람회는 정상 개최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아, 지금 코로나 델타변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계속 4단계가 되고 있고 이래도 그대로 밀고 가신다는 이것이지요? 아니면 내년 4월에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알기로는 정상 개최를 위해서 박

람회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에서 별도의 서면으로라든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른 것 봤죠? (예)

일본에서도 올림픽을 한번..... 우리 같이 연장해 가지고 올림픽을 치렀는데, 거기 투자 대비 막대한 손실을 봤던 것도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국제해조류박람회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람객이 5만에도 포함되어 있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외국인이 일정 관광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5만을 유치한다고 해서 국제해조류박람회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전 박람회 때는 대학생, 유학생 등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외부인 숫자를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해외바이어도 온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백신접종을 2차를 다 맞았어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참 어렵네요. 해조류박람회지원팀이 설치되어 있는 해양정책과에서 제출한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박람회라는 문구 하나 작성되

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최 여부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 부서별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5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2번에 걸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팀 외에는 박람회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취소결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을 수 없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은 해조류박람회 개최 여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사와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차피 계약을 파기할 때는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최여부에 대해 군수의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을 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아까운 예산 손실액수만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과장님의 지원업무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번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경험한 바와 같이 박람회 성공 개최 여부는 목표 관람객 유치, 그리고 박람회를 통한 해조류 가치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도 동의하시죠? (예)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관람객 수용 태세, 즉 주차장 확보라든지 서비스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차면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권

판매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 사항보고회도 개최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실과별로 59건의 세부추진 과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니까 국비 20, 도비 20, 군비 20.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40으로 해가지고 100억이죠?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해조류박람회가 세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는 와서 결산을 받아봤고, 두 번째는 심의를 해봤는데. 각 실과에서 59개의 과제가 있던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100억 안에서 나오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각각 해조류박람회라고 해서 그 예산에 다 넣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100억은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 부분, 이 부분은 군비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박람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그 예산규모는 아직..... 저희들이 더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아마도 가장 기반시설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일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기존에 있는 다른 공간이 확보된다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신규로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얼마쯤이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통상적으로 1회, 2회할 때 각 부서에서 해조류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성립전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봐보니까 성립전으로도 많이 썼고 그렇게 했던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전에 예산을 보니까 60억 이상 들어가던데. 각 실과별로 해조류박람회에 예산 편성됐던 것을 다 합쳐보니까 한 60억 정도 나오던데.

이번에는 그러면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10여억 원 정도만 소요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당초 박람회가 연기하기 전에 부서 중점과제..... 군비 추가 소요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1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가 2017년도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정관범 의원님하고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봐보니까, 일일이 해조류박람회 것을 찾아보니까 60억 이상 각 부서에 되어 있던데. 하

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돈들은 100억에 안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별도 군비에서 총당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불호방침이 있고 더구나 해조류박람회는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으로 일몰제에 걸려 더 이상 국제행사 개최는 어렵죠,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해조류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국가적인 미래신산업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정부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완도군에서만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조류산업은 완도군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끌어가기에는 역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해조류박람회를 해양수산부나 전남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 장소는 전국에서 해조류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완도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류로 답변한다는 것은..... 오늘 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님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서류로 대체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군외 어촌계에 꼬막, 바지락 폐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일부 폐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일부입니까, 많이 나온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일부입니다.

○김양훈 의원

일부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폐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했었죠? (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했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사업 시작 전에 환경조사를 해가지고 1등급으로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1등급으로요. 그러면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2년간에 걸쳐서 꼬막 모패단지를 조성하면서 꼬막을 살포했는데요. 폐사가..... 3년차 겨울에 꼬막이 많이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폐사 원인을 규명해 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사업지구 어촌계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환경조사를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미세..... 벌에 의한 호흡 장애로 인해서 꼬막이 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원인규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

는..... 우리 연안바다목장 사업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성에서도 연안바다목장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쪽 지역도, 꼬막하면 보성인데 그쪽 지역 의견도 들어봤어요. 거기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폐사원인으로 인해서 꼬막이 많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처음에 환경영향조사 1차 때, 사업하기 전에 추진했을 때 1등급인데 이것이 2년, 3년 되니까 다 폐사가 나온다는 얘데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폐사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폐사가 많이 나와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폐사가 안 나온 거예요. 폐사가 많이 나온 것이죠, 나왔으니까 하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폐사는 나왔습니다.

○김양훈 의원

많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동네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동네 어촌계에서 요청해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사업진행만 하는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요. 환경..... 당해 연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생존율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때 당시에도 폐사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폐사요인은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니까 사업만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진행과정을 잘봐야 됩니다. 어촌계 동네에서 “그냥 여기 폐사가 많으니까 이것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시행처인 총 관리감독인 행정하고 또 위탁을 준 공단하고 이렇게 사전에 관리해서 미리 알아야죠. 어촌계원들이 봤을 때 폐사가 (청취불능) 이것 많이 나온, 엄청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요인조사 결과로 인해서 당초에 꼬막 같은 경우 1헥타르 면적에다가 모패단지를 조성했어요. 큰 꼬막을 갖다가 바로 산란해서 치패를 번식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2년에 걸쳐서 해보니까 사업성고가 좀 없다 싶어서 마을주민들..... 사업지구 어촌계에서 그러면 기존 자연서식하고 있는 전 어장에 대해서 꼬막이나 바지락 면적을 확대해서 기존 성패보다는 제일 어린 치패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콩알만한 그런 치패를 전 어장에 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을이나 내년 봄에 그런 결과를 봐야 만이 성패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제가 봤을 때 내년 가을에 봐도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요인이 사내호, 만덕호 담수물입니다, 담수물. 이 책자에는 미세 별로 인해서 위예를 다 막아 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랬는데. 사내호, 만덕호 물이에요, 방수 물. 그쪽 피해, 군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금, 지금 하다못해 약산, 마량 이쪽.....

이 물이 청산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패를 갖다 넣고 바지락을 넣는다고 한들 기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존하겠냐는 얘기죠.

저도 이전에 신의준 도 의원님하고 다 얘기를..... 여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해남, 강진 다 불러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한번 하자고 했던 거예요. 도, 강진, 해남, 완도 다 1년간 모니터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완도군 어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고금면 집중호우 때가두리에 붓어가 있어요, 붓어.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목장으로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 성과가 있겠습니까? 벌써 내년이면 마무리인데.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9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연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이나 꼬막이 전혀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김양훈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량도 (청취불능) 꼬막치패 생산을 했었어요. 부화를 했었어요, 강진에서. 그런데 결국 다 폐사가 나와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다가, 다시 거기 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진행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

2020년도까지 한 35개소 완료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효과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이 당초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2019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올해 3년차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갯녹음으로 인해서 해조류들이 이렇게 다 녹아 가지고 사막화되어 있는 어장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봄에 이렇게 일찍 추진하다 보면 해조류가 결국은..... 여름이면 다 녹음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가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겨울에 성장하면 본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사업시기를 잘 맞춰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 사업도 성과가 크지는 않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현재로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잘 맞추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사후관리도 잘되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청산 어촌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촌계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행정에서.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어촌계에 확인을..... 전화도 하고 입회해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알린 어촌계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어촌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다시 재시공하기로 그렇게 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진할 때 해당 어촌계에 반드시 알려져서 어촌계에 참여하고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 이번에 그러면 자체 위탁을 준 곳에서..... 우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사업.....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재시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것이 참 문제 많은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동네 어촌계라든지 이쪽에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담회라도 한번 했었어야죠. 그래야 이런 분들이..... 이런 지역, 저런 지역 누구보다도 어업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지역상황은. 앞으로 추진할 때는 꼭 어촌계와 그쪽 어업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의원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바다정원화

그러니까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잠깐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서 곰피만 하고 있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감태하고 곰피.

○이범성 의원

감태하고 곰피 두 가지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품목을 바꿔 본다는가. 여름에..... 9월, 10월에 다 녹아버리고 없는 그런 부분들을 뺀히 알면서 연중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지금 15쪽이거든요.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설치 운영, 15쪽.

과장님,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가 올해 도에서 1대 물량 배정이 내려왔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지금 1대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추가로 1대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를 보니까 2000년 11월 9일 추진실적에 이동형 소각기시설 설치신고 완료, 설치신고증명서. 지금 이동식이라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각 어촌계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차량에 탑재해서 말 그대로 이동식 소각기 그런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높이가 높아지고 그래서 도저히 차량에는 장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화..... 옛날에 스티로폼 감용기 공장에, 그 부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것이?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동을 못하는데 무조건 이동식이라고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이 안 되는 고정식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미 실효성 있다는 것은 증명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아니면 보길에..... 먼 단위로는 1대씩 계속 다 설치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일단은 지금 남산면을 기준으로 해서 노화에 한 군데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금일 그쪽.....

○이범성 의원

내년 그런 사업은 금일로 하겠다는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장,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은 곳부터. 바다에서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부터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일찍부터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시간 기준 시간당 95km인데 이것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도 3억 9,900만 원 나왔습니다마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나온 설비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설비 기준에 맞춰서 대형용량으로 한다면.....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이미 차량에 탑재해서 못할 바에는 차라리 대용량을 선택해서, 고정식 소각기나 마찬가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굳이 차량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적은 것으로 썼는데.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투여하면 대형을 갖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못해도 2톤, 3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데. 차량에다가 탑재한다고 해가지고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소각한다면 사람만 많이 거기에 들어가지. 소각능력은 없다면 쓰레기를 얼마나 태우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운송차량으로 해가지고 수거해서 완도까지 끌고 나가는 그 비용이면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예)

이 부분에, 다른 것보다 쓰레기 부분에 이미 도지사님도 쓰레기 선포식을 하고 뭐..... 전부 다 쓰레기 부분에, 해양쓰레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조금 건의를 하셔서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내더라도 각 읍면 단위에 설치하는데 하여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늦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외 16건입니다.

먼저 1쪽,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이월 사업인 고금, 약산 매생이 양식 어장 재배치사업 79건 1,357헥타르에 대하여 재배치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지면 월부리 굴양식 어장에 대해 8월에 설계, 발주하여 어업권 정비 및 시설물 이설을 통해 11월경에 어장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연안·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 척에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3월에 감척사업 대상자로 낭장망 어업 한 틀을 선정하고, 5월에 잔존가치 평가를 마쳤으며 대상어구 매각을 위해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신속집행에 따라 폐업 지원금 및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어구매각 낙찰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계를 완료하여 9월경에 동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66명 선정하여 6월에 보급 완료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사업 역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1일 우리 군 14개 기업과 해외바이어 7개 국 19개사와 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73회 수출상담결과 3개 국과 총 1,300만 불의 수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서울국제수산물박람회에 우리 군 11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온·오프라인 수산물 판촉전을 실시했습니다. 8월 중에 계획했던 해외바이어 초청 완도군 수출상담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취소되었으며 앞으로 수협중앙회, aT,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최대 국제수산물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완도군 공동관

부스 운영을 통해 완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수산물 국내 시장개척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방송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면서 설명절에는 KBS 생정보와 6시 내 고향을 통해 전복을 홍보했습니다. 3월에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4월에는 SBS TV 맛남의 광장을, 5월에는 노화, 보길 권역 주민들이 명절 특수 기간 택배차량 최대 확보로 전복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완도우체국과 영암우편집중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에는 자매도시인 화성시와 먹거리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6개점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했습니다. 또한 마켓컬리와 바다수도 완도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수산물 콜드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건립되면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활력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앞으로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전복생산자협회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자매결연 도시와 상생 완도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모바일쇼핑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완도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 명절 온라인 판촉전과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6억 7,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의 상반기 매출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 향후 계획으로 채널A와 11번가의 협력 예능프로그램인 산지직송 프로젝

트 무작정 커머스 방송과 추석명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 직영에서 민간 위탁 방향을 전환한 완도군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전복주식회사 경영 안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신임이사 5명, 감사 1명을 선임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6월에는 설립 이래 자체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서울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부터는 정례화로 서울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공제품을 출시하여 롯데마트와 진해수협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9월에는 ASC-COC 인증업체로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슬라이스와 순살전복 등을 납품할 계획이며, 일본과 베트남 등 활전복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배당을 위한 제반여건 등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에 물류센터 운영사용을 승인하였고, 2월에는 일본, 대만, 베트남 검역장소를 센터 내에 지정하여 원스톱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센터 내 냉동창고 3동과 5개 수조가 현재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베트남 검역 시행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8월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등으로 냉동전복을 수출할 계획이며, 일본 활전복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수출용 활컨테이너를 더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물류

센터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연계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온라인화상 수출상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수출물류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수출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 유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여 수출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류분야 유통·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사업은 선어회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30억 원, 사료저장 시설사업에 20억 원, 넙치사료 양육 및 선별기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 어류분야 유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3개 사업 모두 포기하고 도비는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등 총 12종 90개소에 총사업비는 5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월에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을 발주하여 12종에 90개소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기 내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저온저장시설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

어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 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복 출하 공정거래 실행을 위해 완도군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단체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복 생산동향 및 통계를 위해 전복 입식 및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고 고수온 대비 전복 가두리 점검 및 선상교육을 7개 읍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전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전복산업 발전협의회를 매월 상시 개최하여 전복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복산업 발전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전복생산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유망양식품종 공급사업, 전복선별기 지원사업 및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정시기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생산자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읍면별 출하시기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완도 명품광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73억 원을, 명품광어 생산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백신 등 7종 사업에 3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품종 다양화 병행 추진을 위해 유망 양식품종사업으로 조기 13만미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료포장 자동화 장비구축 지원사업과 스마트 양식 보급을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을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총 28종 중 완도군은 19종이 해당되고 보험료 지원금은 총 2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복, 어류 해상가두리 재해보험 지방비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다소나마 어가 부담을 줄였고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을 전체 양식어가에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재해보험 신청현황은 6월 30일 기준 총 682건으로 전복 424건, 어류 105건, 해조류 153건입니다. 전복의 경우 작년 대비 98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입률 증대 및 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방비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ASC, ASC-MSC 국제인증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청해진바다 영어조합법인을 통하여 5개소에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31어가가 전복 ASC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전복 ASC 3기 8개소가 심사완료 후 대기 중에 있습니다. 톳, 다시마 등 해조류는 11개소 인증, 획득하였으며 올해는 톳, 다시마 13개소가 인증심사 완료 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톳, 다시마뿐만 아니라 김도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조류에 대한 가치 재조명 및 해조류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해조류 양식산업은 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전반에 걸쳐 수온 상승에 따른 작황 부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현재 양식기반 구축과 생산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3종 사업에 6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

진하고 있으며.....

다음 20쪽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종자 공급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조류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품종별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해조류산업 발전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조류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과 품종별 종자 채묘 적기를 홍보 및 지도하여 해조류의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물질 규명과 다시마, 톳, 등의 비위생적 건조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조류 육종, 융합 연구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조류양식 연구방안 연구용역으로 김 육상채묘 효과 조사 및 미역 신품종 수과원청해 시험양식을 추진 완료하여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과원 청해 종묘를 보급하였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우량품종 개발을 위하여 소안해역에서 채취한 우량모조 4품종을 선발하여 시험양식을 하였으며 국내 품종 보호 출원과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해역별 감태 시험양식은 기능성 물질인 폴리페놀 추출량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감태시험양식은 12월 말까지 시험양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톳에서 발생하는 비소의 저감을 위하여 가공 방법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한 톳 가공 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선발된 우량종자를 국내 품종보호 출원과 함께 품종등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90억 4,000만 원에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육상양식장 신축 및 개보수, 양식 기자재 구입, 관리선 건조, 장비 교체 등을 위해 사업자 33명을 선정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순기 내에 준공하여 적기에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수산경영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 어선어업 활력화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을 위하여 (청취불능) 포획 채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어기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맞습니다.

○박인철 의원

금어기 설정은 우리 군의 업무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와 도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문어잡이 때문에 어업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산자원 보호라는 입법취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참문어의 경우 연중 산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를 산란시기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과, 지역마다 주 산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해 어업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낚시객들이 급속히 증가되어 아주 작은 문어, 일명 총알문어라고 하는데 낚시인들이 잡는 문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보다 체중 제한이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도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둘째, 공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해어선들은 금어기에 다른 해역에서 문어를 잡아와 완도항에 입항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럴 때 금어기라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연안어선 어업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평성과 형평성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따라서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위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건의하여 해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역산업이 어민들이 생산하더라도 아주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예)

현장에서 저울질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이틀, 3일 만에..... 그런 것도 알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올해 겨울에 보니까 약산권역하고 금당면에서 미역하시는 분들이 소안, 노화, 보길 전복어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더구먼요, 미역을. 그분들은 상고선에 저울이 있으면 그 저울 그대로 떼서 단 1%도 감량하지 않고 그대로 100원씩 쳐주는 것도 알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어민들을 만나봤을 때 생산자도 마 찬가지고 가져가는 전복소비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상고선 운반료 정도만 지원해 줘도 할 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군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미역을 자숙하시는 분들을 우리 군에서 운반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죠? (예)

그래서 5톤 차에 실어봤자 몇 톤 못 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고선에 미역을 실으면 120톤에서 150톤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복어가들 3어가나 5어가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상고선 운반료도 한 번 배가 운항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반료 정도는, 상고선 운반료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전복양식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오면..... 똑같은 시기가 되면 어민들은 계속 우리 행정을 비판하고 그러죠? (예)

이 시기가 되면 해마다 그러는데, 이것 대책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행정에서 이뤄왔던 것 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전복생산자들의 불만들은 항상 높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날의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어민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수급 불균형, 수급에 균형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수산경영과에서도 생산자들에게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입식량 조절부터 잘하자고 수차례 지도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산량 조절이 되어야 만이 그런 불만들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이 시기에 항상 전복 가격 때문에 어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생산자협회와 또 유통기구와 함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가격을 원만하게 조절할 수 있게 그런 회의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보면 완도군에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또 수산입니다, 그렇죠? 그 지원 또한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 행정, 또 생산자협회와 이렇게 월별로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어가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 처음부터..... 그 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절을 하겠노라 해놓고, 단가 조절을 하겠노라 해놓고 가격은 계속 하락. 덤은 가면 갈수록 덤도 더 많아지고, 그렇죠? 지금 %가 거의 15%, 20% 가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어가들이 더 힘들어 해요. 이것이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 군에서 항상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군수님도 이동군수실을 하면서, 보면 전북에 대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다 하지만 그것을 어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좋은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지원해 주고. 지원하고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행정에 도움을 주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기록도 하고, 데이터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참여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북생산자협회하고..... 전북생산자협회 읍면에 지회가 다 있습니다. 지회장들과 다 모여서, 유통과 함께 행정하고 앉아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읍면 지회장들이 읍면에 가서 읍면 생산자들에게..... 이것이 전파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또 다수 어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누누이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단가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사님들이 오시면서 단가 조절이 끝나버려요. 기사님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오늘 얼마 쓰자.”라고 하면 생산어가들한테 가서 그 단가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의원님, 단가 조절은 유통이나 생산자 뭐 단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인 어가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가들이 단가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려고 하면 또 생산자들이 그것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박재선 의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참여와..... 교육도 좋고, 참여도 좋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산업도 좋은데..... 전북주식회사

가 있지 않습니까, 완도군에. 그런데 주식회사의 역할이, 우리 어민을 대표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생물을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어민들 것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대표로 본다고 하면 가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잔전복 소비를 덜 시키고 주식회사에서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어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생산자들이 전복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굵은 전복은 단가 있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잔전복은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복주식회사에서 슬라이스하고 또 살전복으로 해가지고 9월부터 롯데마트에 많이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전복주식회사 설립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청취불능)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을 겪고 있고.

작년 1년 매출액이..... 총 12억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3억의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가들, 거래한 어가들..... 270어가 정도밖에 거래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약 340어가 정도 더 늘어났고요. 또 전복가격이 떨어질 때는 전복주식회사가 12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오를 때는 전복주식회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다른 유통보다 빨리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저도 롯데마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전복이 다른 생선에 비해서 싸 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 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역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겠습니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잔홍보보다는 크게 대대적으로 봐서 만남의 광장 같이..... 얼마나 홍보가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 범위를 크게 가지시고 전복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선 의원님이 15페이지에 대해서 했던 것,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했던 부분만 좀 해볼게요. 우리 군에 전복이 중요한 것은 아시죠, 과장님도?

○수산경영과장 김일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방금 전에도 박재선 의원이 말했습니다마는 단가 하락 이런 문제 또 덤 문화 문제, 서로..... 양식업과 유통업 협의체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모두가 홍수출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이 많이 되면 수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빨리 팔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시기가 전복시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홍수출하 시기가..... 몇 월 인가요? 6, 7, 8인가요,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5, 6, 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때가 제일 문제고. 그때 하락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은가요,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시기에 수급 조절을 완만하게 하느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항상 이것이 반복될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민들도 가격 하락이 되다 보니까 불멘 소리도 나오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태풍 때나 이럴 때 사고가 나서 빚을 많이 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이 상환기간이 돌아옵니다, 거치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까지 하락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자만 떼다가. 이런 것이 오니까 우리 군도 뭔가 대비를 해야죠. 항상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문제라고, 홍수출하가 문제라고 이미 여기에다가 문제점으로 해놨구먼요. 그래서 이 해결방법은 우리가 원물 구매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맞습니다. 홍수출하된 시기에 정부자금을 풀어서 그런 전복을 사서 비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복 비축사업은 양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들. 양식산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멸치, 삼치, 고등어, 이런 자연산. 이런 부분만 비축품목으로 잡고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물가격이, 전국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차피 전복은 일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만의 특수성이니까 우리 군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방법을.

○수산경영과장 김일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서 한 1년에..... 내가 보면 그래도 1,000톤에서 1,500톤 정도만 빼줘도 숨을 쉬지 않을까, 홍수출하 때. 또 요즘은 냉동전복도 잘나간다고 보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서. 급속으로 냉동시켜서 또 시즌에 나갈 때, 잘 나갈 때 그때 출하를 하고.

물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누가 이것을 취급할 것인가는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해야 이 원인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 어떤 것을 내놔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조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죠? (예) 완도가 버텼던 것은 미역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죠, 지금까지. 그런데 다시마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된 것 같아요, 판로도 그렇고.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 미역 값이..... 100원씩 한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가 전반기 민생탐방을 할 때 금당을 방문했습니다, 김양훈 의원하고. 그때 완도신문에서도 동행취재를 했는데, 신문에 난 보도를 보니까 “군수님, 의원님, 금당 의원님들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라는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당시 보도내용은 금당면 가학리 어촌계 같은 경우 어장면적이 약 1,000헥타르에 가까운, 완도군에서 가장 큰 해조류 어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80~90%가 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역들이 이용되면 가공

용으로 가공공장에 실려 나가는데. 가공업체들이 2월부터 이 미역을 상고선을 이용해서 수거해 가면서 그 상고선에 담겨진 미역 물량을 저울로 해야 되는데 저울을 하지 않고요. 저울도 없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한 10일에서 15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그 상고선에 실은 물량이 몇 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서요. 어민들이 굉장히 눈물을 사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구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역가공용은 주로 2월에 생산되기 때문에 1월 정도 되면, 미역이 1월 정도 되면 70~80% 성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노화, 소안, 보길 쪽에 전복먹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 차라리 그 미역들을 1월에 채취해서 노화, 소안, 보길 쪽 전복먹이로 활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2월에는 가공용으로 좋은 미역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납품하게 되면 가공업체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더 좋은 가격을 주면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당 가학리 어가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저도 그날 xx 어촌계장하고 xxx 추진 뭐야, 지역발전위원장하고 김양훈 의원하고 몇 분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물은 그 자리에서 저울질을 해서 가지고 가면..... 그래서 시장 형성이 되는데. 아니, 미역을 싣고 가면 3~4일 있다가 계근해서 주인이 얼마 어치, 몇 kg을 팔았는지 kg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경우는 전 세계를 찾아 봐도 없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금당에서 근무를 해봤죠?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 없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 저는 이제 금일지역의 다시마 양식을 보고 교훈을 삼은 것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식어가들이 그 양을, 생산량, 시설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시설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2,000, 3,000원씩 더 높게 되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미역도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미역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공업체들이 마음껏 우리 어민들을 휘둘러가면서 미역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조인호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만약 가공업체들이 금당 말고 금산에 가서 미역을 사와도 이런 식으로 사오는,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금당 가학리 쪽에 저울 없이 오는 상고선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은 저울을 가져가는 지역도 있고요. 물론 금당 가학리는 미역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율포하고 신흥리하고 공장 2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제일 크고 어가 수가 제일 많아요, 헥타르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어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그날 어촌계장이 울려

고 하면서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를 하는데 박람회를 하면 뭐하냐?”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좀 찼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금당에다가 가공공장, 미역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데요. 그런 미역들을 1월에 일단 전복먹이로 빼냄으로써 가공된 미역량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서 가공업체하고 협상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남산면 전복먹이용으로 빼고 또 자체적으로 공장 하나 돌리면 해소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어민들 차원에서..... 앞으로 해조류를 식용으로 하는 데는 금당밖에 없어요, 완도군에서. 완도가 주산지가 아니에요. 다 넘어갔어요, 금산으로.

그러면 마지막 맥락을 지키려면 이런 정도는 군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미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전복도 안 합니다. 오로지 미역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군에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완도 일부두 구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것이 무슨 공간인지 아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거기는 해녀대합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잘 아시다시피 해녀들이 물질하고 거기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2차 작업도 하고 물건도 파는 그런 공간입니다.

해녀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김종식 군수님이 그 컨테이너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량배 때 날아가 버려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장만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냉장고가 있는 곳이 보이고.....

또 올려주십시오.

저렇게 물이 새서 바가지로 받쳐놨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저 안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외벽이 너무..... 정말 색이 바래서 보기가 싫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색칠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 겉만 보기 그래서 찾아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해녀 여섯 분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 분들이 “누군데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의원이라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가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계시면 말하지 그랬냐.”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때

말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안 갖춰지고 있어 가지고..... 에어컨은 고장이 나 있고 물은 새서 썩어 있고. 또 바닥이 꺼져 가지고 방하고 한 단계 내려갔더라고요, 한 10cm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환경에서 선풍기를 가지고 여섯 분이 앉아계시는데.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별로 일감이 없어서 어촌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부르면 일하고 돈을 받아오고. 혹시 일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 차 대여비만 해주고 자기들은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해녀들과 왕래를 하는데 너무 너무 그쪽과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물질할 때 입는 옷도 완도에서 한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주고 아직 안 해줬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죠? (예)

완도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오면 거기를 꼭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해녀대합실이라는 명칭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대표전화도 올려놓고 이렇게 잘 가꾸어 주시면 그분들도 일하는데 의욕이 생길 것이고. 또 사실 해녀를 이용할 분들도 거기를 보고 쉽게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벽만 생각하고 갔는데 안이 너무 협소하고 안 좋아서요. 물도, 손을 씻을 물도 없고 먹을 물도 떠다 먹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다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것을 알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대표이사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시설된 위치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는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지금 현재 요트클럽하우스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서로 협의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그쪽..... 선별진료소 위문차 가면서 직접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은..... 선별진료소가 빠르면 이번 주 말까지, 늦으면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선별진료소가 종료되면 바로 거기에다가 새로운 컨테이너를 놓고 해녀대합실을 다시 한 번 준비하자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이를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짠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가지고 예쁘게, 편리하게,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하는 것은 전북밖에 없어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한다든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전북주식회사 경영 안정화 19페이지입니다.

6월 23일하고 6월 25일 서울 사무소 운영 전반 행정적.....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북주식회사는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내에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사 역할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회계행위가 이루어지면 완도본사에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부정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마트에 영업활동, 판촉활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출장을 나가면서 전혀 근거 없이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출장복명 자체도 없고, 이런 것이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지적해서 앞으로는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강화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서울 사무소에는 상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무가 7~8년 동안 거기 서울 사무소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서울 상무하고 3개월 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석이 지나고 3개월 간 서울..... 주식회사 대표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또 서울 상무는 완도본사에서 3개월 근무하면서 서울 사무소 내에 어

떤 문제점들을 대표이사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이..... 정확한 답을 찾아내셨고요. 거기에 감으로써 앞으로 생길 일들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소리가 났었는데, 너무 서울에 계시는 분이 오래하다 보니까 모든.....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서울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내일 그만두면 마비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다른 직원이 가셔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로테이션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지속가능한. 과장님, 전복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가능합니다.

○이범성 의원

어떤 노력을 해야 가능하겠는가.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시장 논리에 맞게 수급 균형만 잡으면 됩니다. 어민들이 생산량만 제대로 조절해서 적정량만 출하시키면 전복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산업이죠. 문제는 어민들의 일부 욕심적인 생각 때문에 생산량을 더 많이..... 입식시키고 더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불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생산량만 조절하면 충분히 지속가능할 산업입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화, 보길, 소안 쪽에 얼마나 키우고 계시는지 알죠? (예)

왜 1년 6개월을 키우는지 아세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노화, 소안, 보길은 그전에 폐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업인들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폐사는 어떻게 잡았는데. 문제는 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조, 이런 것 때문에.

○이범성 의원

그리고요, 노화나 보길이나..... 안쪽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폐사는 거의 50% 납니다. 올해 7월까지 빠지 못했던 사람들 전부 다 반절 이상 죽었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 좀 폐사가 다른 해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앞으로 행정에서..... 금방 추석이 돌아오는지 알죠? (예)

추석에 물건 큰 것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때 되면 해남이나 신안, 그쪽 사람들 배부르게 밥을 먹이는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완도..... 우리 자체에서 전복을 2년 키우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본의원

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빠른 시간에..... 내년 예산에도 개발비를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대외로 좀 빠져 나가게끔. 말이 안 통해서 뭐 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술이 어떤..... 달나라에 가는 세상인데. 태풍을 무서워하면서 태풍, 태풍하지 말고. 바다로 좀 나가서 태풍이 오면 뭐 요즘에..... 개발해 가지고 가두리를 가라 앉혔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어떤 개발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1년에 개발하지 못하면 2년 동안 해봐라. 그래서 어민들이 좋으면 당연히 돈을 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면허지를..... 요즘에 신규 면허지가 안 나오니까 만약에 부락에서 반절은 그대로 가더라도 적은 것을 키울 때는..... 2년 동안 키울 것은 바다로 가면 면허지 반절 잘라서 밖으로 옮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1년 6개월이면 전복이 죽니 어쩌니 얘기하지 않게끔. 뭔가 개발해 가지고 어민들도 바깥으로 가고 안 되면 먹이를 막는다는가 그렇게 하고. 바깥에서 키워서, 2년을 키우게 한다고 했을 때는 완도 소득의 배가 오릅니다. 지금 완도의 소득보다도 배가 올랐을 때는 완도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키우는 것은 어민들도 계속..... 은행 부채랄까, 그런 것을 상환한다고 쪼들리고. 또 1년 반이니까, 얼마 안 키우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여해 가지고..... 지금 가두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려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개발시켜 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 노화, 보길이나..... 노화 쪽에 가서 보면 참 어려운, 불쌍하다는 애기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어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첫째적으로 가면 누구 말대로..... 직원들이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두 바구니를 더 줬니 어쩌니,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어렵게 키워서, 그 고생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판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전복어가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꼭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갔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좀 해줄 수 있겠죠? (예)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복주식회사 그 부분도요.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주식회사도 일반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덤이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술선수범하게끔.

아까 전반기 12억 영업이익이랄까, 그런 부분들인데. 전복주식회사에 이익을 내는 것을 요구할 필요 없어요. 적자가 안 나는 상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민들의 회사 아닙니까. 얼마만큼 흘러갈 수 있는지. 금방 18억 적자가 났다가 금방 12억 올랐다가..... 이것은 뭐 고무줄도 아니고 뿔도 아니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직심 있게 잘 챙겨 가지고 이익만 나는 것보다도 가서 어민들한테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박재선 의원

(의석에서) 잘 안 들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등 18건입니다.

먼저 1쪽, 기후변화 적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소득 작목 개발과 과학영농기술을 활용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아열대 작물 올리브 외 4종을 식재 적응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4만 4,000여 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조사 분석, 토양검정실, 꽃가루은행 운영 등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하여 전라남도과 면담을 통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센터 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다양한 신기술 보급 확대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농촌지도 시책 및 시범사업 29개 사업 48개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화, 보길 농업인상담소를 연내에 준공하여 대농업인 현장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핵심인재 양성 제10기 완도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농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농업반 과정을 개설하여 39명의 수강생을 모집, 현재까지 미래농업전망, 스마트팜,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작목 등 9회 36시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산물 마케팅 전략, 곤충산업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농업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기술 실용화 맞춤형 농업 인교육입니다. 세계적 농업여건 및 환경 변화

에 맞춰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유튜브 매체를 활용,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강소농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32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습교육 및 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교육과정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래농업 대비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해양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완도자연그대로농업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5개 농업인단체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농업·농사정보기술 제공 등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인력 양성 자격증반 운영입니다. 농업하기 좋은 완도를 만들기 위한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여성 자격증반 운영,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 13회 교육하였고 활용도 높은 농업용 드론 방제기 취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양성 등 전문 자격증반 운영을 통하여 농촌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최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경영비 절감 생력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340헥타르, 햅쌀단지 60헥타르, 가공용쌀 및 기능성 쌀 단지 50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러시아, 미국 등 3개국에 82톤을 수출하여 완도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연간 5회, 100톤 이상을 지속적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완도쌀의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한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적기 공동방제를 통하여 병해충 발생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반 4개조 20명이 5월에서 9월 까지 예찰활동을 통하여 약 1,500헥타르를 예찰하였으며 병해충 발생동향을 분석, 방제 지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7개소 운영 등 3개작목 32종 병해충 조사, 분석으로 병해충 방제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전 읍면 적기 공동방제 3회, 1,900헥타르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 확대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비래 병해충 등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전 읍면 마을별, 들녘별 공동방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분석, 퇴비부숙도 분석, 직불제토양 분석 등 과학영농을 통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2,300여 건, 퇴비부숙도 분석 194점 등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퇴비부숙도 등 법정 의무 분석자료를 제공하

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장비 구입 활용을 통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지원 3,400점, 토양부숙도 분석 300점 등 법적 의무사항 실천 및 안전농산물 생산 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발작물 특산화 및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 보급입니다. 색깔보리 등 발작물 특산화 사업 개발 및 정부보급종 공급, 종자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유기 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74헥타르 육성을 통하여 보리커피 등 가공상품 개발과 판매로 농가 수익창출 도모를 하였으며, 벼 보급종 및 우량종자 57톤, 색깔보리 종자 46톤, 발작물 15종 11톤 등 종자 필요량을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색깔보리 상품 제작과 벼, 보리, 발작물 등 식량작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100톤 규모로 확대 보급하여 안정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소득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예작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외 2개 사업 1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열풍건조기 대비 82% 설치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50%, 관행 건조보다 병해충 피해를 15% 감소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후변화 적응 고품질 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발굴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과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안정생

산을 위한 참다래 꽃가루은행, 과수 정지전정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유희시설 하우스에 아열대 과수로의 작목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바나나 소득화 시범사업은 올해 11월 수확이 가능하여 농가 신소득작목은 물론, 체험농장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2023년까지 3년간 유자 지역특화사업 시험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과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가경영 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진단, 처방 등 종합컨설팅으로 ICT 융복합 기술적용 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4개소 1억 3,000만 원으로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및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통해 판로 개척과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치유농업 기능성 특산자원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 새로운 특산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화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산도 코끼리마늘단지 조성을 약 3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특산자원 코끼리마늘 가공상품 3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생약초 단지를 약산과 생일에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산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참두릅, 엄나무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틈새 소득작목 버섯 육성입니다. 최근 개발된 우수한 국내 육성 신품종 버섯의 조기 확대 보급과 품종별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내 육성 버섯 신품종 느타리, 표고, 목이버섯 등을 도입하여 33농가에서 18톤을 생산하였고 3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안정적인 판로개선을 위해 10톤의 물량은 대형마트를 통해서 계약 판매하였습니다. 신품종 버섯 연구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전남농업기술원 등과 공동연구를 위한 버섯 종균 배양실을 설치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버섯 육성 시범사업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업시험포장 운영 및 꽃묘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지역적응 시험재배, 지역특화 작목 묘목 육성 및 국도변 가로화단, 읍면 주요 관광지 경관 조성용 꽃묘 육성 생산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화 작목인 비파 신품종인 조아비 육성을 위해 접목 1년생 82주, 2년생 20주, 실생묘 1,400주를 육성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4만 4,000구를 생산, 감자 재배농가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국도변 및 읍면 경관조성용 꽃묘 16만 1,000본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변 가로화단 및 경관조성용 가을꽃 육성, 지역특화 고품질 묘목 육성,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아름다운 완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완도 자연그대로 완도 국화전시회입니다. 청정완도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정서 안정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화조형물, 국화화분, 국화분재 등 1만 4,000여 본을 생육관리 중에 있으며, 완도사랑 국화동호회원의 분재 재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7회 실시하여 다양한 국화분재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품국의 안전한 생육관리와 전시기간에 맞는 개화 조절을 통한 성공적인 국화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순회수리를 통하여 도서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중형 트랙터 등 31종 15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트랙터 1대, 승용예취기 1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관리기 등 28종을 355회에 496일 임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30회 50개 도서마을에서 경운기 등 8종 417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적응 고품질 과수 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에 기후변화적응..... 새로운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및 신품종 재배면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1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관내 유자농가나 밀감농가들 과수 피해가 상당수 발생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습니다. 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한파가 있었고요. 1월 7일에 최저기온 영하 10.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 현장조사 결과..... 농업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마는 유자는 429농가에 150헥타르 정도고요. 감귤은 93농가에 21헥타르 정도, 비파는 10농가에 3헥타르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범성 의원

피해를 많이 봤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많이 봤습니다.

○이범성 의원

한파 피해를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비에 필요한 기술 보급이나 특별한 지도사업 실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해가 발생하면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무 수령을 개선하고 또 (청취불능) 생육 상태를 조사해서 농업인들에게 그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과수연구소와 제주기술원과 연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또 유자 재배리플릿 재배기술 같은 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하고요. 생육 주기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연구소와 유자산업 활성화 산학 연구사업이 14억..... 같이 동참해서 재해경보시스템이나 자동관수시스템 또 냉해 (청취불능) 신품종 개발에 참여해서 같이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자체 시범사업 열풍방상팬과 보온덮개 또 전정 후에 도포제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새로운 품종 보급도 중요하지만 먼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자나 밀감이나 비파 등을 보호, 육성하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9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6.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보건의료원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상하수도사업소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5.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6.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추진 등 1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은 별지 현행화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72명이며 금일읍, 소안면 집단감염 등으로 7월 이후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월 20일 국내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전국 누계는 22만 6,854명이며 전세계적으로는 2억 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확진자는 2,214명으로 시군별 확진자 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조치사항으로 금일읍, 소안면 지역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자체 역학조사반 인력을 보강 조치하였으며 그동안 역학조사에 따른 우리 군민의 확진자, 밀접 접촉자는 631명입니다. 지금까지 4만 1,872건의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농어민체육센터 및 금일읍, 소안면 현지에서 38회의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 1만 3,403건을 검사 하였습니다. 전군민에 대한 코로나 백신 조기 접종 및 감염 우려 집단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지속 실시 등 코로나 지역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노인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만 2,324명의 1차 접종과 1만 5,777명의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총 인구수 대비 1차 접종 65%, 2차 접종 31.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군 자율접종 대상자 1,954명은 9월 11일까지 18세에서 49세 대상자 1만 4,433명은 9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안심숙소 운영입니다. 안심숙소는 우리 군 자체 운영 별도 격리시설로 고위험 밀접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를 입소시켜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소 누계 인원은 598명이고, 이중 해외 입국자는 360명입니다. 그동안 안심숙소 입소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12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없이 우리 도 치료병원 등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책자 업무보고서 5쪽,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현황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32개소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지금까지 4종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 구입과 금일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 6개소의 CCTV 설치와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보건지소는 넓도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12개소이며 진료소는 18개소입니다. 보건지소에는 38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보건진료소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 2만 2,180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의료취약지 스마트 원격진료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화상 원격진료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에게 785건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 직원 친절·미소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추진이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하반기에 보건의료원 산하 직원들이 보다 친절하게 지역 주민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절, 미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병의원, 약국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병의원 등 42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10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576회의 지도점검과 양귀비 불법 재배 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서지역 응급의료 관리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은 공공보건기관 31개소와 민간 의료기관 2개소가 있으며 헬기착륙장은 13개소입니다. 상반기 중 헬기이송 33건 등 140명의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목포 한국병원 등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생일면 덕우도 헬기착륙장 신규 설치와 금당면 헬기착륙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18종과 성인 8종 등 총 26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억 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영유아 2,968건, 성인 968건 등 3,936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본사업은 87종의 국가관리 감염병을 감시하고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C형 간염 15건 등 46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입니다. 하반기에도 비브리오패혈증, 노로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결핵은 국가관리 2급 감염병으로 국가적으로 퇴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잠복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우리 군의 결핵 환자는 38명으로 꾸준한 상담과 약 복용 지도로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모기성충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퇴치기 14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소독 작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환자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등 4개의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만 844명의 진료와 5,562명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진료 수입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응대 친절교육 실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무의도치 치과 진료 및 구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의 치아가 보다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원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7월 31일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1차 접종률이 55.7%, 2차 접종률이 20.5%. 아니, 15%, 20%. 그런데 한 17일 만에 거의

65%, 또 2차 접종률이 31% 이렇게 되는데, 며칠 사이에 굉장히 실적을 많이 높였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예, 주로 60대하고 50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 접종도 추가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추가 접종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도 있게 제때, 제때 와서 많이 맞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때 자료를 보면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이 한 55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지금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지금 50.....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의원님께 드린 55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신고는 55건인데요,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첨부해야 될 자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질병청에 제출된 것은 9건입니다.

○최정욱 의원

거기에 보면 화이자가 18건, 아스트라제네카가 33건, 얀센이 3건, 모더나가 4건 이렇게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많네요, 의외로 제일?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그때.....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려층이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상 반응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 화이자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총 접종대상자를 백신 종류로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초기

에 고령층이 많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들이 백신접종을 맞으면 대부분 어깨통증이나 오열, 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유증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증 이상이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환자실까지 간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접종 후에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도 있었고 중환자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은 다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입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접종과 상관없는 중환자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접종 후에 사망자가 2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한 분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보통 환자들은, 그쪽 가족들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나요, 그랬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가족들도 평소에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수고를.....

○최정욱 의원

충분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 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서류 안내가 7월 31일 현재 99명 전남도에 신청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자기가 접종 후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

러면 일단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접종상태라든지 그런 부속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며칠 지나면 경과가 호전되고 하니까 대부분 신청하지 않고요. 아홉 사람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저희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못하고요. 질병청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판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규정상으로 12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경미하게 있는 사람들은 2~3일 있는 것도 다 넘어가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이분들은 특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일단 대부분 호전되고 나아지고요. 나머지 사람은 소액, 병원비가 30만 원 미만이거든요. 일부 위원회에서 인과성이 백신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인정..... 병원 치료비라든지 일정액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 군에서 별도로 조치하거나..... 개인들이 그러면 알아서 도의 심의 위원회에 올립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부 그런 자료를 같이 모아서 신청을 올려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대다수 국민이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반응이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일정 금액의 병원 치료비라도 지원

이 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심의에 올릴 때 개인들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류 같은 것이라도 같이 도와서.....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당연히 도와드리죠.

○최정욱 의원

도와드리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필요한 서류라든지 빠진 것이 있으면 가져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한테도 민원 한 분이 접수되었는데 해남종합병원에 있다. 어렵게 해서 퇴원은 했는데 지금도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뭔가 해줘야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뭘 하겠느냐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예)

우리 군에서는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 심의회를 거쳐서 부분별로 나오겠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대강 어느 정도 그런 사례는 들어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전문가들이, 의사 분들이 심의회에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 이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직 그런 사례는 없네요, 지금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예. 그것이 이렇게 빨리 단순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0일이라는 긴 기간을 둔 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군도 아직 특별한 그런 사람은 없네요. 아직 심의회를 거치거나 그런 사람도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좀 보살펴서요,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 군에서 챙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검사 관련,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오면 전부 다 무료로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현재 행정명령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위문한다든지 회사에 입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행정명령 없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이 필요해서 방금..... 자기들이 그 서류가 필요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예)

안심숙소에 보면 계절근로자 110명, 다문화가족 229명이라고 내국인, 외국인이 표기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완도를 방문하고 또는 친구를 찾아오거나 친척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다 안심숙소를 이용해서 무료로 해주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안심숙소는 해외입국, 거의 다 외노자가 입국해서 완도로 오는 경우 그리고 현재 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그래서 접촉자로 분리된 사람만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전에 보면 무조건 2주 격리를 하잖아요, 외국에서 입국하면. 그 사람들 중에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러 오거나, 친구를 찾아오거나 가족을 찾아오거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 숙소를 배정해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 국내에 연고가 없어서 다른 데에 갈 데가 없고 꼭 자기는 완도에 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까도 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을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응급환자, 대성병원 응급실에.....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으로 병원에 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이 아니

라 내가 급한,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나면 아픈 사람이..... 우선 죽겠는데 의료원에 가서 그것을 먼저 검사해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은가요? 방금 말한 대로 외국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러 또 친구를 찾아서 또 형제간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안심숙소로 해서 무료로 14일간이나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정작 몸이 아파서 대성병원에..... 그것도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응급환자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니까. 그런데 대성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여유가 있으면 의료원에 가서 무료로 끊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 37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이 금액으로 한 740만 원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 내가 주위에..... 안심숙소를 이용한 주위 몇 사람을 내가 알아서 그러는데. 참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정말 정작 군민들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이것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뭔가 형평성도 안 맞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것에 소홀한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떨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병원은 밀접해서 여러 환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대성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에 가게 되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열이 있거

나 그런 사람들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그 검사비를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가 1만 원씩 이에요. 인건비를 투입해서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금.....

○최정욱 의원

왜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왜냐하면..... 맞아요.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차원에서 자기들의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하겠죠, 하려고 하고. 그런데 환자들로서는, 군민들로서의 응급실에 가면서..... 이것도 충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는 급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서까지 받는 것인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것도 사실 금액으로 본다면 740만 원밖에 아니 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진짜 외국에서..... 내가 알아요. 자기가 놀러 와서, 완도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을 내가 알거든요. 또 형제간을 찾아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무료로 해줘, 14일간. 그런 비용 하나만 해도..... 373명이라는 군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이럴 때 쓰는 것이 맞지. 거기 형평성에 비한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도 전혀 이것을 몰랐었는데 환자 분들이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항의가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조사해 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출산장려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양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동안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일시금 105명에게 1억 6,300만 원, 분할금 2,126건에 4억 8,60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출산 전 준비금 1,700만 원과 돌맞이 축하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를 93명에게 4,070만 원, 다둥이 가정에게 지원하는 육아용품 구입비를 12명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32명에게 감면료 4,4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이 둘째 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 강화와 함께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가임기 여성 24명에게 3,9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갓도록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 16가구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00명의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과 44명의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임산부, 영유아 115명에게 2,500여만 원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및 4,000만 원의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올해부터 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카드는 전남에서 함평군에 이어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함께 가임기 여성 지원 강화 및 저소득가구의 영양 보충사업 지원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건강 인식 개선과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로당 등을 기반으로 실시한 나트륨 저감화, 관절염 자가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예방관리 교육에 누적 인원 4,25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옥외 운동기구시설 263개소에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QR코드 스티커를 보급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와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음주폐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대상 비대면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및 비만, 영양, 음주폐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

화하여 군민 모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올 상반기 동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계신 주민 2,627명을 신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74건의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경동맥초음파 등의 합병증 검사를 지원한 결과, 당뇨망막병증 등 10건의 합병증 소견을 발견하여 병의원과 연계 치료하도록 조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혈압, 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을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과 혈압·혈당 측정기 대여사업 추진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보조제 및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기관 31개소에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9명을 금연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표시판 게첩 요구 등 2,142건을 지도 점검하여 현장 지도하였으며 학교 앞 어린이집 90개소에 노후된 금연구역 특수 노면표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흡연자 금연관리서비스와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된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와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

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무의도서 순회진료, 장애인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취약계층 1,700여명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9개 무의도서 주민들에게 의과, 치과, 한방과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재활이 필요한 주민에게 899건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에게 장루용품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위험 요인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과 의료 형평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가암 6대 암에 대하여 2,379명을 검진하였으며, 57명의 암환자에게 7,667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성신장병 등 24명의 희귀난치질환자에게 2,8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46명을 검진하여 성장 발달사항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 1,385명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60세 이상 군민 2,641명을 조기 검진하여 진단, 감별검사를 거쳐 인지저하자 등 570명을 발견하여 중증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1,683건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등 치매파트너 747명을 양성하였고, 제3호 치매안심마을을 노화읍으로 지정하여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검진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군민 치매 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파트너 양성을 통해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재활 및 사회복지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113명을 등록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6명을 경찰과 협력하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와 연계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을 140건 실시하였으며 완도, 금일, 노화, 고금 4개 권역 재가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상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297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읍면 순회하여 이장단 458명에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리방역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 5,010명을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중증어르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자가격리자와 안심숙소 입소자 등 군민 대상 269명에게 심리지원꾸러미 지원과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군민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병의원 및 약국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동네의원 (청취불능)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및 우울증 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건강생활센터 이용 주민은 누적인원 3,131명으로 체력단련실과 건강상담실, 조리실습실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25일간 너도나도 건강한 걷기운동 비대면 100만보 도전에 군민 2,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군민 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특별히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비만예방교실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영양조리교실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건강생활 실천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환경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건강증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17억 540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6억 4,32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6.4%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납부 독려 및 독촉 7회 402건과 14건의 단수 조치를 하였으며, 징수 금액은 5,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한 6건의 500만 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고액, 상습 체납 가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읍면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운영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깨끗한 양질의 지하수 공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등록 현황은 2,359개소이며,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공

은 150여 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질측정망 수질검사와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해 11월 2일부터 금년 5월 3일까지 운영하여 18건의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등록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 안내 및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하수 보존과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낙도 지역에 해저관로를 통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일 총도를 비롯한 5개 도서지역에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육상 및 해저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5개 지역의 해저관로와 연결되는 육상관로를 완료하였으며, 식수난이 심각한 금일 신도지구는 해저관로까지 마무리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총도는 해저관로가 착수되었으며, 이달 중 군외 사후도를 비롯하여 9월에는 군외 고마도, 금당 비견도 또한 착수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국내에 10대밖에 없는 특수장비로 인해 타지자체에서 우리 군과 동시에 해저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장비 투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장비 투입 이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2월까지의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길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수원지 저수량 부족으로 매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 보길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보길 부항천 일원에 총 사업비 54억 1,300만 원을 투입, 지하차수벽, 지하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일일 1,100톤의 용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 4월 환경부, 우리군,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사업 착공을 위해 주민 간담회 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등을 완료한 후 지난 6월 공사 착공과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1차분 차수벽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보길노화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도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지방상수도 정수장 10개소와 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73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비 77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정수장 노후설비 개선 87건, 노후관로 59km의 상수관망 개선, 3,121건의 누수 복구공사 등을 추진한 결과 당초 34%에 그친 유수율이 현재 80.6%로 총 46.6%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정수장 노후설비, 상수관망 개선,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연말까지 노후관로 정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관로 세척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완도읍 도심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가용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2019년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3년간 완도읍 가용지구에 우수관로 개량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7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시간에 6,0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 8.8km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전체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로 개량에서 제외된 기존 관로 13.8km에 대한 관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까지 마무리한 후 10월 중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군내지구 침수 예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가용지구와 더불어 매립된 지 오래된 향동리를 비롯한 7개 마을 저지대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우수관로 개량 7.2km와 배수 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내실 있는 설계용역을 진행하겠으며, 연내에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 이행사항을 마무리한 후 내년 1월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내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인근 해역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금당 가학지구 등 7개소에 315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지구와 사업량 및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당 가학지구는 2019년 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일 서성, 고금 가교, 보길 정동지구도 지난해 각각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사 추진을 목표로 노화 내리, 약산 어두, 보길 부항지구는 지난해 10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보길 지하저류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용마을 또한 7월부터 추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국비 지원이 부진한 관계로 금당 가학지구를 비롯한 공사 중인 사업지구가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조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중인 사업지구는 연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완도읍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이 농공단지에 위치한 관계로 부득이 시가지와 근접한 곳에 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취 탈취설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도로변은 물론, 인근 주택가에게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

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각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44개소, 죽청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1998년도부터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시설 개소수가 많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대행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많아 매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설비 제작 설치 등 198건의 노후설비를 보수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과 수질 측정기기 구입, 추가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법정 수질관리는 물론, 청정 바다수도 완도 환경개선 및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죠. 금일 신도 것은 한 90% 공정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해저관로사업..... 죄송합니다. 예, 95%.

○조인호 의원

그런데 소장님, 혹시나 민원 1건 접수된 것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지금 특별히 접수된 사항 없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그때 소장님과 통화했던 부분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확인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금일 신도 배수지 용수 공급을 위해서 현재 시스템은 강제가압시설이 아니고 잔류 수압만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척치리 마을회관에서 7일 동안 수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약 4.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최대 급수량인 14톤을 급수..... 공급하여도 척치리 마을 수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책임지겠네요? (예)

그런데 본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청취불능) 섬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게 응대를 해야..... 척치리 마을도 그렇고 신도 마을도 이렇게 수압이 약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자꾸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현재 신도리로 넘어가는 물을 24시간 상시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물탱크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차면 일정 부분 스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위하여 11시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수 제출)

(11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경로당 설치 관련 세부 등록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청자의 서류준비의 간소화 등 편의제공과 추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폐쇄 및 운영비 지원 중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 매입, 상호점유 사용 중인 토지 교환, 도서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완도소방서, 완도119센터 부지 및 건물 교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신축부지 용도 폐지, 완도 대가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지 매입으로 토지 48필지 1만 8,80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5.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6.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부정수급자 등 지급의 중지 및 환수계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

터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기능, 시설, 시설의 사용신청, 시설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과 내용이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실제 관리 및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영, 개관 및 휴관,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의 반환, 변상책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민회관이 생활문화센터로 개조됨에 따라 소규모 집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시설의 사용 승인 전 제7조 4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9일 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1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군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임

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안 제5조에는 지원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완도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범성 위원님이 방금 설명한 사항이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 설치 시 세부 등록 사항과 경로당 지원 시 세입 기준을 정하고 경로당 폐쇄 및 운영비 지원 중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

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경로당 등록에 관한 내용,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의 미비한 내용 그리고 추가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여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 의료건강 운동기구 및 비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폐쇄 또는 운영비 지원중단 기준을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상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노인복지법으로 비용추계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설치 신고사항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지원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2021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괄내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내역은 취득 및 처분내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역입니다. 기존 현황 대비 토지 48건에 면적 1만 8,807제곱미터, 3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토지와 건물의 취득재산의 총합계는 111건에 면적 12만 6,787제곱미터, 금액은 430억 8,500만 원이고 선박은 변동이 없습니다. 처분내역입니다. 처분내역은 45건이 증가하여 면적 1만 6,666제곱미터, 금액은 28억 4,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제출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매입 등 총 6건입니다. 내역별로는 취득이 48필지, 면 처분이 43필지, 매각이 2필지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내용은 총 63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해양치유담당관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 매입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 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서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5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사업 시설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을 위한 GMP시설, 소재 품질 관리를 위한 QC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획방식은 해양생물농공단지 1필지 약 1,000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개념설계를 진행한 결과, HACCP동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 BGMP동의 총 건축면적이 2,898평방미터 약 877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70%인 경우를 감안할 경우 최소 부지면적이 4,315평방미터 약 1,300평이 필요하여 인근 부지인 가용리 1001번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토지 취득하는데 1필지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박재선 위원

토지 취득하는데 1필지를 지금..... 1필지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1필지.

○박재선 위원

이 산출가격이 평당 14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평당 14만 8,000원.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으로.....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아니, 평방미터당 14만 8,000원.

○박재선 위원

평방미터당이요? (예)

일반 농공단지의 금액을 평방미터당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평당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평방미터당으로 공식.....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산출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보통 평으로..... 몇 평, 몇 평으로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고 하는데 여기는 평방미터로 계산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평으로 산출하면 평당 얼마씩 가격이 되는 것으로.....

○박재선 위원

평당 계산해 보니까 1,000평이 조금 넘구먼요. (예)

그런데 14만 8,000원이라고 하면..... 평방미터로 따지면 방금 이 금액이 맞고요. 그런데 평으로 따지면 1,000평이 1,046평 정도 되구먼요. 그러면 금액이 한 1억 5,000을 조금 넘는데 평방미터로 따진다고 하길래.....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원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국장님, 여기 바이오산업을 짓는다는 얘지요? (예)

여기가 옛날 삼성장례식장 앞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서..... 건물이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이런 시설이?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지금 기존에, 기존에 1필지를 구입해 났고요. 부족해서 1000-1번지 약 1,000평 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

○최정욱 위원

그러면 총 평수가 얼마나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4,800.....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1필지만..... 기왕 하는 것

충분하게 땅이 되어야..... 그런 시설을 다음에 하더라도 늘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한번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것입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저기, 담당관님은 모를 것이고. 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부지가 뒤에..... 삼성장례식장 태양광이 있어서 건물을 사가지고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그 민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1필지를 했을 때는 4층 건물, 4개 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계획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가 다른, 나중에 확장성 이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옆에 있는 필지를 갖다가..... 바로 위쪽에 있는 필지를 갖다 구입해서 2층까지, 그다음에 도로가에서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2층을 갖다가 구성해서 태양광 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땅을 사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이 말이네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지금은 다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2개 동이 들어가는데 위에는 GMP동, 밑에는 HACCP동이 들어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것은 알겠는데.

태양광 때문에 층고를 제한한다는 말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땅을 100%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인데.

(방청석에서 “위에 있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101번지 땅은 저쪽 태양광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밑에 있는 땅은, 최초 사업을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은 군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옆에 있는 태양광 설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이 땅도 애당초 받았던, 불화 받았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방청석에서 “아니, 그래서 불화 자체가 안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최초 계획했던 땅 부지가.....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은 바로 위에 있는 땅을 갖다가 확장하려는 것이 고요.”하는 직원 있음)

개인한테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을?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군에서 개인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방청석에서 “사업 자체를 2개 필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하는 직원 있음)

그것을 합치는 것인데. 지금 개인이 처음에 불화를 받았던 땅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가지고 개인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뒤에 태양광 때문에 걸려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방청석에서 “아, 그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유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하는 직원 있음)

군유지가 어디에 있어. 전부 다 해양생물단지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될 그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방청석에서 “1102번지가 최초로 사업계획.....”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2필지를 가지고 한다는 지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 지금 전부 해양생물단지 안에 들어가 있던 땅인데.

(방청석에서 “예, 1102번지는.....”하는 직원 있음)

군에서 1필지는 샀고 부족해서 1필지를 더 산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태양광하고 그 관계 때문에..... 금방 팀장님 말은 4층으로 하려다가 층고를 낮춰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땅을 100%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상호 점유 중인 토지 교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도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보유·유지하고 있는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장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9조 같은 법 시행령에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이 보유, 유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읍 완도읍 군내리 484-24번지 외 41필지 2,470제곱미터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점유 중인 전라남도 완도읍 완도읍 군내리 319-8번지 외 28필지 7,216제곱미터를 상호 처분과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41필지의 교환 금액은 감정평가를 생략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7,927만 8,129원이며 전라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금액은 8,320만 1,637원으로 완도군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40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상호 점유 중인 완도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금년 3월 국가균형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 성내남성마을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완도 군내리 120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시설, 생활 정비사업, 주택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은 완도 군내리 661번지 외 11필지를 3억 7,700만 원으로 취득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제4호 완도소방서하고 완도119안전센터 간 부지 건물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완도소방서가 개청함에 따라 완도군 소유의 완도소방서 부지와 전라남도 소유의 119안전센터 부지 건물을 상호 교환하여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호 교환대상 필지는 감정평가 결과, 완도군 소유의 소방서 부지는 27억 1,500만 원, 전라남도 소유의 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은 27억 8,200만 원으로 약 6,7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차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계약 시 차액 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심사 이후 완도군과

전라남도 간 토지, 건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또 있습니다.

제5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신축 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완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을 위해서 완도소방서 진입로 조성 잔여 부지를 신축에 활용하여 군민 소득 증진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매각 요청 건의가 접수된 사항으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농어민 차량 진·출입 시 안전이 확보되어 청사 신축 시 관내 농어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완도사무소 신축을 위해 죽청리 529번지, 530번지 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제6호 완도 대가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노후된 대가용리 저수지에 대한 전체 보강, 그라우팅, 사석 정비 등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3,500만 원으로 지난 202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지구엔 편입된 완도읍 가용리 326-1번지 1,205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11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3.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

(11시2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모전 심사 및 선정,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취소, 판매점 지정 및 해지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보다 폭넓은 관광기념품의 발굴을 위하여 공모전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상품의 지정, 관광기념품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안 제15조와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활용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 기념품판매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농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입니다.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군민회관을 개조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13조로 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를 봐주십시오. 생활문화센터에는 아래 각 호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마추침공간, 실내놀이터, 휴게시설인 카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저녁 9시 반까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8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있는 별표1를 보시면 사용료 공연장과 다목적실 그리고 전시공간에 대한 사용료 10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국장님, 운영시간이요.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수용인원이 커버됩니까?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이 좀 있던데.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근무하고 나서 교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인력배치 같은 것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인력은 청원경찰 한 사람, 공무원 두 사람, 기간제 2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원래 다른 시군의 생활문화센터는 공무원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부 8시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청원경찰이 1명, 작은도서관에 기간제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본청직원들이 끝나고 가서 밤에 근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하고 인력배치를 잘하십시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조문과 내용이 현재 문화예술의 전당 실제관리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존 조례와 같아요.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개관 및 휴관, 시설의 사용신청, 이런 것은 같은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경했습니다. 별표1를 봐주십시오. 별표1에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보시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은 시간대별로 4시 반, 8시 반으로 규격화시켰고요.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것을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연동하고 문화동을 간략하게 해서 주민들은 사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외부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업비를 좀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과 내용이 완

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실제관리 및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제4조 시설의 운영이요. 이것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당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법인 또는 단체에,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아니, 기존에..... 현재 그 사업을 (청취불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저희가 돈을 매년 쥐가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 민간단체에서..... 아니,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16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시설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3억 7,000인가 그때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3억에서 15억 정도를 2030년까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임대나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사업으로 매년

가지고 가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도 관리주체는 거기죠, 그 회사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원래.....

○박인철 위원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정비해 주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나.....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나 위탁입니다.

○박인철 위원

다른 임의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조 4항에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한다고 했는데. 군민회관이 있을 때는 보니까 기독교 행사 같은 것을 군민회관에서 하더군요요, 전체 해 주고 그럴 때. 그런데 여기에서 포교집회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절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문화센터로 바뀌면서 거기 자리가 협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제한해 버리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행위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도, 내가 옛날에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군민회관이 옛날처럼 한 300석이 넘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군민회관에 축제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상행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도 노동집회도 공적인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저기, 과장님이 한번.....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생활문화센터는 군민회관인데 군민회관에서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고요.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종교집회라든가 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그전에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전에는 군민회관이 노후화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좌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거쳐 가면서 소규모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해년마다 기독교 단체 같은 데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행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거기에서 했습니다, 의정보고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한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는 얼마든지 그런 데에서 노동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요즘 참여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나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행위만 빼놓고 나머지 뭐 포교나..... 불교 거기에서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상행위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삭제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읽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6조를 보시면, 6조 3항을 보시면요. 군수는 전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항에 보면 미리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항을 보시면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신청을 하면 굳이 이것을 7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물론 명시를 딱 해놓으면 불필요한 사용신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4호 포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적 목적의 집회 그것도 우리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체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상행위도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7조 4항은 전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진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 4항 그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칠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김 양 훈		
의 원	박 재 선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6일(월)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8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의사팀장 문송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비밀차단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완도군의회 제294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 그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한풀 꺾이고 우려했던 바다 고수온현상도 큰 피해 없이 물러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군민들의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게 되어 한편으론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적조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기후위기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29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완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적, 입법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 및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현안사업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많은 주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허리 숙여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장을 찾아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군민복지 증진 및 소득기반시설로 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월은 들녘의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 등 각종 기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농작물 작황은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동해 피해를 입은 유자도 많이 회복되어 착과율이 높다는 소식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지난 여름 땀약별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농민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건강과 안녕을 이어가는 한가

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송태

이상으로 제29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2분 폐식)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6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

(10시32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0일 이범성 의회 운영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

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4분)

○의장 허궁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우성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우성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7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2인)

김재홍 조인호(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헌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15일(수) 오전 11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
4.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악성민원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9호,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민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여 우리 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9월 6일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9월 9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후 제출된 번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에 문제점은 없으나, 내용 중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10월 개관 예정인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범위는 스마트치유센터 및 힐링하우스,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주민세 과세체계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치매 환자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 중 “협의체”라 규정한 부분을 “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최정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약산 해안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방법, 이용료, 체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무를 다하고자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관람료 면제 관련 면제자 추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처리비와 하수도요금 이중 부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 제외, 제목 추가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9조의 조문 제목을 “납부독촉”에서 “가산금 및 납부독촉”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납부대상 항목과 가산금 징수요율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불출석의원(2인)

박재선 김재홍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출석의원(7인)

허궁희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6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
4.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69호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응대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CCTV,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운영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응대공무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69호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9

호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과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시책, 지역의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제안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조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를 “누설하지 않는다.”로, 제7조 제1항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해야 한다.”로, 제7조 제2항 “노력하여야 하며”를 “노력해야 하며”로,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해야 한다.”로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

담당관님, 이런 조례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성자 위원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여기는 각계 학계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군하고 각 분야별로 일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실정이라든지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 또 우리 군 출신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 위주로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완도군 외에, 밖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여기 정책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우리 군 관내가 아니고 밖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면 군에서 저분이 용이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보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분들을 모실 때 저희들은 수산이나 관광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분야별로 부서에서 우리 군하고 일하면서 우리 군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왕에 하실 것이면 좋은 분들로 모셔 가지고 군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우성자 위원님 이어서 물어볼게요.

위원들 돌려막기 아니죠? (예)

군에 자문위원회, 무슨 협의체, 무슨 위원회

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퇴직공무원이고. 완도에 퇴직공무원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까? 진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도 몇 가지 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고. 진짜 이것은, 정책자문 회의는 진짜 자문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먹고 사는 데에 그런 해박하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방금도 우성자 위원님 질문의 대답에 완도군 출신이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군 출신이든 뭐든 그런 것을 벗어나세요.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을 모시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한, 우리 군을 위해서 진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로 선정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지. 진짜 위원회에 가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가서 보면 우리 군의 거수기도 아니고 담당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어요,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것 없이. 그런 위원회들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교통비하고 회의수당을 줘가면서 그런 위원회들이 왜 필요한가. 제가 의원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진짜 따끔하게 우리 군에 질타를 하고 학술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회의를, 우리 군 집행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 중 그런 회의를 못 봤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사천리로 와서 방망이만 두드려 버리고.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진짜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구성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 출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대부분 아마 전문연구 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각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관외 분이고 우리 군 출신보다는 타지역 출신이 훨씬 더 많이 위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업무보고 때도 아직 안 된 조례지만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보면.....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자문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성 관계만큼은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월 중 개관 예정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완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내용으로 스마트 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 수행과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전시, 판매, 보건복지 및 여가문화서비스 제공, 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운영 등 그밖에 완도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행정재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금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 여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의거 관리되는 경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완전히 10월에 개관하게끔 다 완공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시설은 다 준공되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우리가 이상 많이 넣었죠? (예)

그리고 그 마을에서 다시 할 의사가 안 보이고, 그러면 뭐 완전히 손을 뺐습니까, 그 마을은?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 마을이 난감을 표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하고, 운영재원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것이 처음 시설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익관계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 2년간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분석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특산품도 전시해서 판매하고 또 여가문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거기에 또 있죠,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프로그램이 있고 또 로봇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 때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정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가격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상의를 해서요.

나는 이것이..... 처음에 시작은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마을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해 왔는데, 아마 경제적인 타당성을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성자 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 사항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마는 공개모집을 3차까지 해서라도 결과를 보고 만약 그 3차 중에 몇 개 업체가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요. 만약에 3차까지 해도 대상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는 마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 또 위탁이 안 되면 직영을 한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우선은, 지금은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군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혼자 처리할 일이 아닐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아니, 우리가 힘들게 국비를 갖다가 군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무상으로 해가지고 위탁해서, 위탁자도 안 나오니까 직영. 이것 직영하면 공무원 또 2명을 채용해야 될

것이고. 도대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뭐니까, 지금? 군에서 이 건만 아니고 농어촌 개발사업도 해가지고 마을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거의 다 사유화되어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해년마다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고.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하는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역개발과에 70억,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었으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아버렸는데.

아니, 마을하고 다 타협해 가지고 마을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봐야지. 마을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무상으로, 위탁자가 나오면 무상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일단은.....

○박인철 위원

이 과정들을 다 떠나서..... 아니,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민박, 펜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자산을 가지고 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것을 다 해가지고 무상으로 줘요. 그것도 안 되면, 위탁자가 안 나오면 군에서 직영한다고 그러고.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지금. 장비를 대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영망진창으로 있

더구먼. 이제 주변 정리가 되었던구먼요.

이래 가지고 동의서만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로 진행한다는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우리 군 방침은 현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치유마을이 당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그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추진위원회가 당초에 준공되면 추진위원회로 위탁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건물을 점점 지어가면서, 추진위원회하고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너희들 준비해 달라.”라고 했더니 그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전현직 이장 간 갈등이 생겨 가지고 서로 그 갈등을 해소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마을에서 현직 임원을 하고 있는 그 분들도 “아, 그러면 우리도 힘들겠다.”라고. 그래서 2안으로 생각한 것이 “그러면 군외면 사회단체에서 나서달라.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당초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봤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손을 뺀으니, 군외면 사회단체에서 좀 나서서 단체가 운영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단체에서 조건이 뭐냐면 “인건비까지 대주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기간이 벌써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걸린 것

입니다, 이 협상하는 과정이.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알겠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측 못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장이 C였습니다. 그러면 마을이장이 D로 바뀌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네요? 지금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전 이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영풍리 이장님이 바뀌져 가지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불목리 이장이 바뀌면서.....

○박인철 위원

불목리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직영하기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직영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싶어서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선 위탁 공고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국장님은 마지막까지 우려했을 때 과연 완도에서 이 단체들이..... 그 인건비를 충당할 만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세 사람 정도를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충당할 만한 단체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된다면.....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스마트 치유마을, 이 하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을단위로 해놓은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개인사유화가 되어 버리고, 안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서 다 문 닫아 있고. 우리가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스마트 치유마을 하나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안 해봐서. 그렇지만 과만 다르지, 사업을 주관하는 과만 다르지. 거의 다 개인들한테 사유화가 되어 가지고 거의 개인 건물이고. 우리 군에서 그 마을의 소득증대나 마을 분들 일자리 창출이나.....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가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첫 번째부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현명한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키워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죠. 정말로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그 역량을 키우기까지 행정에서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스마트 치유센터에 대한 부분들, 저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우선 민간위탁 공고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에서 여러 말을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니깐요.

하여튼 마을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십시오. 애당초 목적대로, 목적대로 가서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그쪽으로 한번만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어차피 민간위탁..... 마을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는 차후 문제고 마을하고 다시 한 번 해보시라는 제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러니까 위원님, 민간위탁 분야만 동의만 해주시면.....

○박인철 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해버리면 방금 말처럼 어디하고 해도, 나하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내가 정수에..... 여기에 나온 대로 정수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그 마을하고 지금까지 한 달 반, 한 40여 일 동안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계속 협상을 했고. 그 방법이 정말 어렵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안을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 것은 잘 알았는데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우성자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다고 여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다. 장소가 너무 안 맞다. 거기에서

5분도 못 오면 완도읍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펜션도 많이 있고, 휴양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서는 바다도 안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가봤을 때. 왜 이런 곳에다가 이런 시설에 하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고 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마을도 손을 떼어 버리고 개인 위탁을 주면서 무상으로 준다. 물론, 잘되면 다음에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나는 그 자리가 절대로..... 나라면, 내가 고객이라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시설에서 안 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지금 만약에 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이 계세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수익구조는 힐링하우스 2동인데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왜 사용료 면제를 할 수밖에 없냐면 수지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큰 수익이 날 만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 원리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제공하

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수지로서는 인건비를 총당할 만한 수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완도는 특성상 공통 저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 한 군데도 성공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놔놓고 매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매각됩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저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매각까지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인호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매각도 빨리 해버리는 것이 나아요. 하고 공무원들..... 지역주민들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지금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께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바로 불목 폐교를 중심으로 신활력 사업 추진단이 우선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스마트 치유센터에 수익구조가 일부라도 생긴다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그 시설도 함께 운영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운영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마을하고 한 번 더, 공고하기 전에 마을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연

구해 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마을에 있는 개인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면서 운영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공공적인 것이라 개인들이 마을 안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도 좋게 안 볼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과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нде 보면 주민들 동의하에 이렇게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다 끝냈어요. 동네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손을 놓고..... 행정에서 발 빠르게 계속 움직이는 것도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페널티를 주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좀 뭐가 있어야, 제재가 있어야지 만이 이것이 되지.

무조건 처음에 행정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동네에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행정에서만..... 계속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털어버리면 행정에서 계속 거기에 끌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동네에 대한 페널티도 주고 그런 부분을 찾아야 행정을 꾸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서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이런 현상이 왜 나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우선 성과주의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국도비가 동반된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까지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예,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적위주, 성과위주 이렇게 무작위로 공모를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전부 소득가치도 있었을 것이고 동네와도 다 협의했을 것이고 (청취불능) 그랬을 것인데. 지금 뭐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소득이 없다.”, “뭐가 없다.”, “이래서 어렵다.”, 이것은 기본용역에서

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도군에 공모해 가지고 노는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건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손실이죠. 우리 군의 완전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나 더 추진할 때는 잘 검토하시고, 잘 봐서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에 주민세를 균등 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하고 재산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복잡하게 과세하던 것을 상위법에 맞게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소유의 과세 체계를 기존 개인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및 재산분은 사업소세분으로 통합하여 과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세 체계만 변동되며 세입 변동은 없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재산분을 신설된 사업소세분으로 통합, 합산,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원안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는 것으로.....

○박인철 위원

저는 한번 넘기는 것으로..... 오늘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저기에서 해온 대로 했으면 합니다, 마을하고 다시 한 번.

○우성자 위원

마을은 이미 손을 뗐대요. 저번부터 행정에서도 오죽 그러니까 이런 안을 낸 것이죠, 마을하고 절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건물은 올리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또 승인을 해주면..... 승인을 안 해주면 건물을 올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조인호 위원

저 부분은 마을에서 누가 하지도 못해요. 서로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우성자 위원

안돼요, 마을에서 할 수도 없어요. 서로 위가 달라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 방해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우성자 위원님은 가결로?

○우성자 위원

나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이의 제기는 했지만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건물을 올려놓고 있으면 그것도 보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에서도 할 가망성이 없고, 해서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건물을 좀 올리더라도.....

아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어야지. 말은 좋게 현수막을 붙여서 해놓고, 뭐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해놓고..... 끝에 마무리는 꼭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유화되어 버리고.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공공성은 하나도 없고.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유화를 시켜버리는데 (청취불능)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우성자 위원

아까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박인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더라도 한번은 넘기는 것으로 나는.....

○위원장 김양훈

그러면 박인철 위원님은 부결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박인철 위원

예.

○위원장 김양훈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 딜레이를 시켜놓으면 다음에도..... 이것이 뭐 해결점이 생기고 그런다면 딜레이를 해놔도 되는데. 도저히 끝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되든지, 누가 말든지 간에 하다가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자꾸 잡고 있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조인호 위원님은 가결 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인호 위원

예.

○위원장 김양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예, 저도 가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군 직원이 직접 가서 운영해야 될 입장이고. 저는 민간위탁 이것으로 하는 것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현재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원안대로 가결해야 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박인철 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한 것이니까, 내 의견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결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동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지역건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는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를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협의회라고 또 조례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당초에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모든 보건사업에,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부의 요구한 조례는 상위법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기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런데 거의 내용을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내용을 보면 여기..... 단순히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만 하는 것인데. 제목을 그쪽으로 바꾸면 뭐 문제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당초에 저희가 제목을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통계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 설치라는 말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것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그쪽으로.....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일부 개정했으면 더 안 나은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일단 상위법이 각각 다르고요. 또 사업대상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2조는 동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이용제한,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과 안 제10조에서는 치매 예방과 발견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치매예방과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완도군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완도군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저촉되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관련 조문을 신설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협의체란 자발적인 관점에서 결성되는 조직을 뜻하고, 협의회란 법률의 근거하여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조직을 의미하므로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상 “협의체”를 “협의회”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1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도군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9호 관련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일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관련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이유입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기존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의 내용 중 “악의적”을 “의도적”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항 중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발의자를 가지고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미정

전문위원 박미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초 원안 가결하였으나 지금 발의자 관계로 약간 이야기가 오고 가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의자를 허궁희 의장님 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전의원 대표발의로 서류들이 다 꾸며졌고요. 부의안건에 있는 서류상만 허궁희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타가 나버렸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전에 위원장님이..... 개인 발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위원장님? 상정할 때.

○위원장 김양훈

그때는 이 조례를 보면 발의자가 허궁희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 발의로 저희들은 생각했었죠.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하려고 그러면 다시 변경해서 상정해야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양훈

그래서 오늘.....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 틀에는 공동발의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자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허궁희 의원 혼자서 되어 있는 것인데 오타가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원래 공동발의하게 되면 이범성 운영위원장님 외 몇 명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발의자가 허궁희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오타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허궁희 의장님 외 여덟 분으로 해서 서류를..... 의안목록을 작성했을 때 의원님들을 전부 표기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들은 다 들었고.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이미 허궁희 의원이 개인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나도 오니까, 그 민원이 와서 “의원님들이 한번 심의해서 끝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무슨 소리냐, 아직 망치도 안 두드렸는데.” 그랬는데 “아니,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 그렇다면 오늘 수정하고, 발의자가, 허궁희 발의자가 어떤 요청이 오면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발의자가 허궁희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때는 내가 처음에 그렇게만 말을 들어놔서 그랬는데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정을 다시 하든가, 그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 민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다 알거든요, 지금.

○위원장 김양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 갑자기 공동발의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는 법과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동발의를 했더라도..... 물론 오타가 있다 했는데 오타도 아주 큰..... 오타가 아니고 누락시켜 버린 것인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장이 다 찍어져 있는데.

○전문위원 박미정

지금.....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발의를 했으면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한테 공람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조례가 있다면. 그리고 의원 개인 발의라고 하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 발의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공동발의자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또.....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허궁희로 올라왔다가 갑자기 공동발의라고 해가지고 날인이 다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런 과정

들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공동발의가 됐다고 하면 처음에 기안을 잡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이 초안을 잡았기 때문에 공동발의로 올라왔을 것인데. 그랬으면 최소한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구두로 하든가 안 그러면..... 다 잡혀 있었으니까 초안을 한 번씩 열람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동발의라고 해버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면 전산상으로는 전체 의원 발의로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류상.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전산상으로는, 서류상으로 다 발의가 됐더라도.....

아니, 오죽하면..... 우리가 모르는 발의를 했다는 것이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발의자에 대표발의자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같이 동참한 발의자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전혀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공동발의든..... 대표발의가 있고 그다음에 찬성발의자가 있으면 최소한 찬성발의자한테 이러이러한 조례를 한다고, 공동발의를 한다고 그런 것은 알려줘야.....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대로 심의하나요, 지금?

○위원장 김양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잘 챙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안동의로만 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번안동의로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9호 관련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9호 관련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불출석위원(2인)

박재선 김재홍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 출석위원(6인)

김양훈 이범성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6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개장에 앞서 본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이용료 등으로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이며, 치유프로그램 이용료는 2

시간 1인 5,000원으로 전국 치유의 숲 공통 요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조문으로는 제15조 운영방법 등에 치유의 숲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치유의 숲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5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 종합 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및 개발·보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15조 2항, 3항, 4항, 5항까지 다.....

국장님이 모르면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약산 치유의 숲은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을 조례에 넣는 것입니까?

○산림복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산림복지팀장 김경곤입니다.

치유의 숲은 법률에 의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해서 15조에 제안해 놔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22조, 제1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청경들이 들어가 있죠?

○산림복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그러니까 소유는 완도군에서 소유하고.....

○박인철 위원

아니, 소유는 당연히.....

○산림복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탁하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치유 프로그램은 그러면..... 말하기 그런데 해양치유 프로그램 뭐 이런 것입니까? 거기가 지금 해양치유.....

○산림복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해양치유하고는 별개로.....

○박인철 위원

아니, 그쪽에 해양치유도 들어가잖아요. 해

양치유담당관에서 그쪽으로.....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아, (청취불능) 시설하고 해수담 시설이 일부 들어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같이 위탁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문항이 꼭 필요합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위탁은 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박인철 위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전체가 아닙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제22조를 보나 제10조를 보나..... 그냥 산림조합이 전체를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먼요. 법을 봐보면, 법령을 봐보면. 어떠한 단일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법에 의하면 단일 프로그램은 없고 전체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위탁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만 그 안에 포함된 프로그램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게끔.

○박인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15조 2항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일단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넣는 것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거기 휴게시설에서 특산품을 판매하고 카페 테리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음식점만 안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음식점은 안 됩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치유하러 오신 분들이..... 음식이나 그런 관계는 그러면 본인들이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대부분 선진 시군을 보면 치유의 숲은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옆 마을과 협약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산 치유의 숲은 옆에 가사동 마을이 있어

서 거기하고 민박이라든가 음식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특산물판매소를 할 계획 이고요?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만약에 활성화되면.

○우성자 위원

활성화가 안 되면 안 할 것이고요? 그것을 확실히..... 괜히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놨다가 판매가 안 되면 낭패잖아요.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일단 이것은 조례에 넣어놓고요.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는 저기..... 당목마을이나 아니면 금방 말한 해수욕장.....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가사동.

○우성자 위원

가사동, 거기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 던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처음부터 의문스럽던 데요.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부녀회라든가 도시락 으로 배달해 오는 그런 식으로 협약하고 있 습니다, 다른 선진 시군에서는.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아직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그렇죠. 아직 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개장하면 시도해 보신다는 이 말이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아까 하다 말아버렸는데. 그 밑에 보면 4항 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방금 말씀해 드린.....

○박인철 위원

우리가 수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이 경제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까지 운 영비를 또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은 뭐 환경산림과 하고는 상관없는데 총무과에서 온 것도 법제 처에 들어가면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이라 고 해가지고, 제13조 8항으로 해가지고 무상 사용비, 지역특산물..... 이러면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말했듯이 여기도 지역특산품을 하면 또 무상으로 되겠네요, 이런 법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4항에서는 아까 말한 프로그램을 위탁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 보상 운영비 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우리가 특산물..... 프로그램을 하면 입장료 를 입장객들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그것은 세입으로.....

○박인철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입장료는 없고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는 완도군에 세입 조치가 됩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나와 있던데. 여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는데 위탁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박인철 위원

그러면 군수가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준다고 했는데, 그러며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말한, 여기에다가 특산품도 판매한다고 했는데 특산품 판매..... 원래 위탁을 주면 우리가 위탁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박인철 위원

받아야 되는데, 왜 또 여기에다가 그 위탁자한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냐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4항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위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죠, 돈을 주고.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해양치유 노르딕워킹을 하듯이 돈을 주고 한다는 이 말이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그 업체를 지금 사용한다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것을 강사료라고 하면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프로그램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1년에 관한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을 강사료라고 해도 안 맞는 말이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강사료는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기들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강사를 쓰든 월 하든 그것은 그분들이 할 것이고. 하여튼 참.....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현재 위탁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박인철 위원

그 말은 안 맞죠. 뭘 위탁을.....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프로그램 업체 말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준공..... 지금 준공식도 못했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 사항인데 무슨 벌써 위탁.....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위탁업체는 나주 소재의 업체 인데요.

○박인철 위원

그 말은 차라리 나한테 안 하는 것이 좋았는데 갑갑하네. 차라리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방금 가사동이나 당목 같은 데에서 식사 관련으로 해서 부녀회와 상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김밥 몇 개 말아서 팔러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이렇게..... 조례안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가사동이나 지금 당목 같은 데에..... 다 바다 일을 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김밥 몇 개 말아서, 예를 들어 밥 몇 공기 배달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하겠어요?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먼저 시작했던 시군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 시군들하고 당목 위치하고는 아주 달라요.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지 않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지금 전국에 3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 거기는 잘하는 데예요?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은, 멀다고..... 입찰은 했는데.

○조인호 위원

안 하려고 하죠?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예, 안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남 쪽에 들어와서 그쪽하고 유대해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완도만, 약산만 있으면 안 했겠네. 해남이 없었으면.

○산림녹지팀장 김경곤

(좌석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인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멀리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의 법령과 의사상자법, 그리고 국군포로의 송환법에서 정한 대상자 본인과 가족 유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의무감면 규정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9조에 관람료 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면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추가 신설했습니다. 뒤에 신규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9조 관람료 면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요, 10호에 있는 5.18 민주유공자 밑에 11호로 내리고, 10호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조부터 14호까지 신설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무를 다하고자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

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완도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배수구역 내의 관로를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에서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이 어려워 여전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화조 처리비용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당초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납부독촉 제목 추가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는 쓰지 않는 문구를 다듬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부담금 등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처리비와 하수도요금 이중 부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이 있어 제29조의 조문 제목을 “납부독촉”에서 “가산금 및 납부독촉”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납부대상 항목과 가산금 징수요율을 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가
산금 및 납부독촉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7
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선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 불출석위원(3인)

이범성 김재홍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박 인 철		
의 원	우 성 자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